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1

장성금석문

조선시대편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1

조선시대편

장성금석문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발 간 사

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출간에 붙여

산과 들을 걷거나 오래된 마을을 오가다 보면 단아한 문자가 새겨진 빗돌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때로는 비석거리라 불릴 만큼 수십 기의 비석이 줄을 지어 길손의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비석마다 한 줄에서 수십 행에 이르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빗돌의 형태도 다양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정작 쉽지는 않습니다. 비석을 세운 지 오래되어 글자의 마멸은 물론 비신을 지탱하기조차 버거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돌이나 쇠붙이에 글자를 새긴 정성과 그 비석을 어디엔가 세우게 된 동기를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2년부터 호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금석문을 조사해 왔습니다.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비석을 우선 조사하여 일일이 사진을 찍고, 난해한 한문으로 새긴 비문을 판독하여 미래 세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해마다 한두 개 시·군의 금석문을 조사했는데, 지난 3년간 장성을 비롯한 6개 시·군의 금석문 약 1,600여 기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방대하게 축적된 금석문 자료를 책으로 간행하여 시·도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호남한국학 금석문 자료집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먼저 조선시대에 건립된 금석문을 간행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번 자료집에는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장성과 곡성의 금석문을 모았습니다.

자료집에 수록된 곡성과 장성의 조선시대 금석문은 총 280여 기입니다. 대부분의 금석문은 신도비, 묘비, 충효열비, 송덕비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많고 적음의 편차가 있는데, 아

마 해당 지역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전통과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장성과 곡성의 400년 금석문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 살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사료적 가치가 큰 금석문의 문화유산 지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금석문 조사의 책임을 맡아 자료집의 해제를 작성한 권수용 수석연구위원과 이름 모를 산천에 산재한 비석을 조사하느라 애쓰신 참여연구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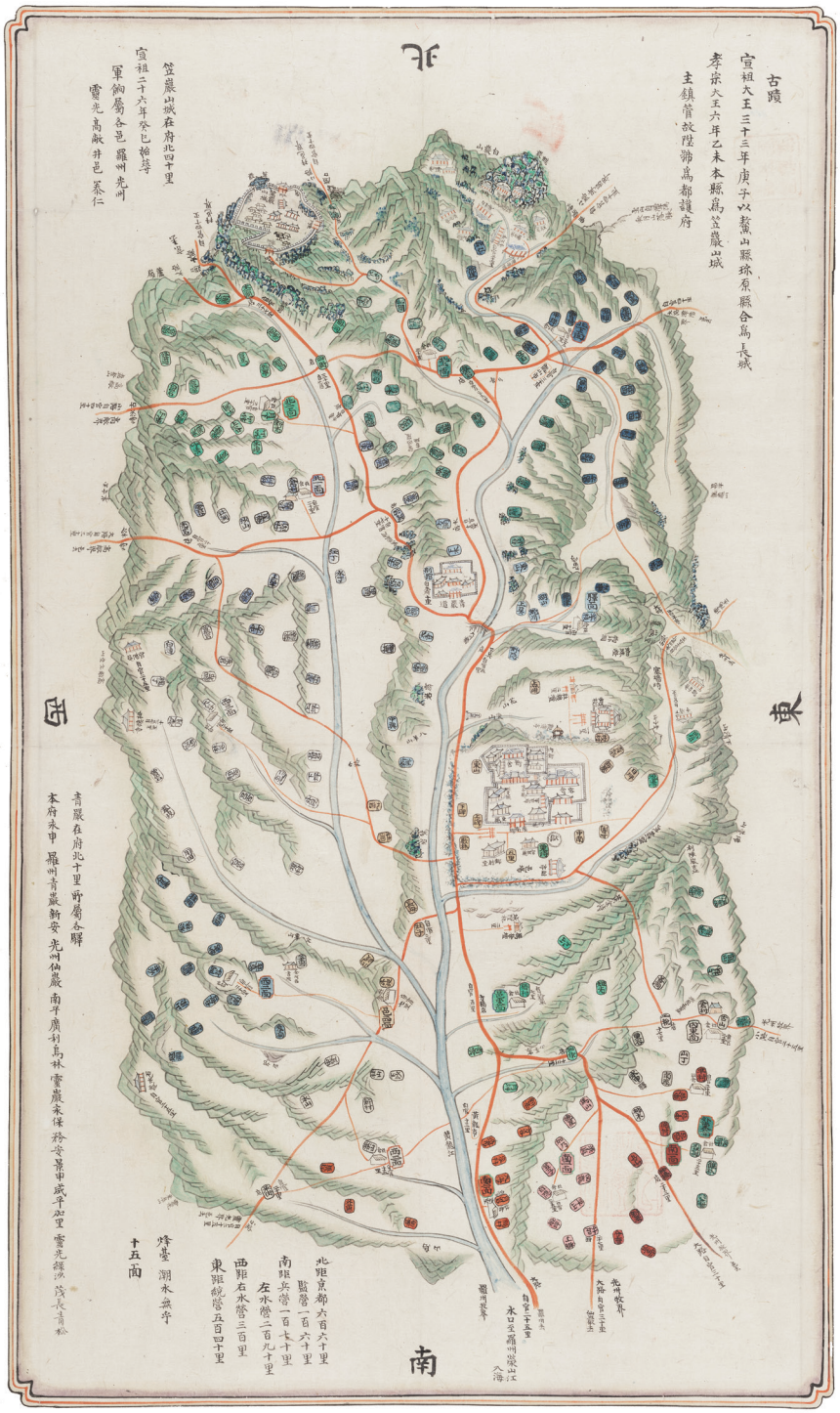
2025. 10.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홍 영 기**

일러두기

- 본서는 장성군 지역의 금석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 본서에서는 1910년 이전에 제작된 금석문만을 선별하여 주제별로 꾸몄다.
- 금석문의 사진은 대부분 판독이 불가하여 앞면만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금석문에는 해설문과 판독문 및 번역문을 실었다.
- 판독문은 비석이나 현판에 새겨진 대로 하고 임의로 줄바꾸기나 띄워쓰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공간 절약을 위해 한 줄에 2~3자씩 쓰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하고 이어서 적었다.
- 주소는 찾아가기 쉽게 도로명 주소가 아닌 마을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 금석문의 글자가 마모되거나 깨진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 금석문의 크기 단위는 'cm'이다.
- 디지털 탁본 자료는 문화유산 사진연구소장 장선필 연구원님이 수행한 것이다.
- 금석문의 명칭은 '면명+리명+이름+분류명'으로 하였고, 이름의 경우에는 한글명(한자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지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지정명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노력했다.
- 비문의 행자수는 행의 경우 4면의 행수를 적고, 자의 경우 기본이 되는 줄의 글자 수를 적었다.
- 금석문 조사는 면별로 진행하였으며, 면의 순서는 장성군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순서대로 하였다.

장성의 1872년 지방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성 금석문의 현황과 특징

권 수 용 한국학호남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목차

1. 호남 금석문의 조사
2. 장성의 금석문 현황
3. 금석문의 지역적 특징
4. 문화유산 지정의 필요성

1. 호남 금석문의 조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금석문을 시군별로 전수 조사하고 있다. 금석문의 대상은 돌이나 금속에 새긴 글뿐만 아니라, 나무나 도자기 등에 새긴 명문까지도 포함한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금석문의 경우 대부분은 세월의 흐름 속에 방치된 채 잊혀가고 있다. 비바람에 풍화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서 비문도 따라서 마멸되고 있으니, 이런 상태로는 많은 금석문이 곧 대부분 내용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금석문은 개인사나 지역사를 알게 해주는 원초 기록이다. 그것을 제작 건립할 때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을 것이지만 백 년도 지나지 않아서 기억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이처럼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금석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것을 판독하고 번역하여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각각의 금석문에 대해서는 사진뿐만 아니라 해설문까지 곁들어서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서 문화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왕의 비문 판독문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실재 비문과 한 자 한자 비교하여 바로잡는 정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금석문의 조사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호남의 각 시군에 해당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건립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1980년대까지로 하되, 여력이 있을 경우 2000년까지 확장하도록 하였다.

금석문의 전수조사는 그동안 대학박물관이나 연구원·연구소에서 조사 발행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 지역 문화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책자 등을 참고하였다.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문화유적분포지도』의 경우에도 어떤 지역은 비교적 조사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누락된 금석문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묘비는 거의 조사된 적이 없다. 때문에 기존 조사의 결과만으로는 호남지역 또는 각 지역의 금석문에 대한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본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지역은 장성, 영광, 곡성, 광주, 강진, 함평 등이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꾸준히 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 호남지역에 소재한 금석문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책자에 수록한 금석문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1910년에 제작된 것까지로 한정하였고, 현재 장성군 지역에 소재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책의 구성은 주제별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니, 송덕비, 묘비, 충효열비, 기타 금석문이 그것이다. 신도비는 묘비 속에 넣지 않고 특별히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송덕비의 경우에는 선정비(善政碑), 불망비(不忘碑), 시혜비(施惠碑), 영사비(永思碑), 흥학비(興學碑) 등이 모두 포함되고, 묘비의 경우에는 묘갈(墓碣), 묘표(墓表), 묘지(墓誌), 상석(床石) 등이 포함된다. 충효열비는 충의비(忠義碑), 효자비, 열녀비, 정려비와 정려각도 포함되었으니, 정려각의 경우 별도로 조사할 여력은 앞으로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기타 금석문의 경우에는 위의 주제들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만을 모은 것으로, 사적비, 기적비, 유허비, 중건비, 단비, 승탑, 불교금동구, 하마비, 암각문 등이 해당된다. 불교유적을 기타 금석문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1910년 이전에 제작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방법은 신도비의 경우에는 몇 기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작 연대순으로 순서를 정하였고, 송덕비와 묘비 및 충효열비의 경우에는 면별로, 마을별로 정리를 하였으며, 기타 금석문의 경우 주제별

로 묶어 정리를 하였다.

금석문의 명칭은 '면명+리명+이름+분류명'으로 하였고, 이름의 경우에는 한글명과 한자명을 동시에 표기하였다. 그러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명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노력하였다. 어떤 기관에서는 비석 앞면에 새겨진 대로 금석문 명칭을 정한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명칭만 보고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금석문 내용에서 모두 이름을 찾아 명칭 속에 넣음으로써 금석문 명칭만 보고도 누구를 위한 비인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수록 내용은 해설문에 앞서 '주소-제작연대-크기' 및 문화유산 지정여부를 표시하였다. 주소는 찾아보기 쉽도록 현재 도로명 주소가 아닌 마을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금석문을 조사할 때는 카카오맵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카카오맵 3D 스카이뷰로 볼 수 있어서 금석문 조사에 매우 유용하였다. 이 책자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작연대를 표기할 때는 서기년도를 우선으로 하고 괄호안에 비문에 적힌 연호나 간지를 적었다. 많은 금석문이 제작연대를 적지 않았는데 그럴 때는 '미상'이라고 적고 괄호안에 추정연대를 넣었다. 비석의 크기는 대체로 전체 높이, 비신 높이, 비신 너비, 비신 두께 등을 재어서 표기하였는데, 너무 세부적인 면은 생략하여 단순명료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

다음으로 해당 금석문에 대한 해설문을 적었는데, 먼저 위치를 설명하고, 생김새를 설명했으며, 다음으로 비문의 찬자와 서자 등을 적고, 이어서 비석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위치에 대한 설명은 누구나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묘비의 경우 대개 산 주소로 나오고 있어서 그 주소만 가지고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글이 필요하다. 비석의 구성은 대체로 비석 받침대인 기대석과 비석 몸체인 비신, 그리고 비석 머리에 얹은 개석 등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사진이 없더라도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문의 찬자(撰者)는 대체로 잘 알려진 사람이 짓는데, 그러다보니 문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문집에 실린 글과 비문의 글을 대조하여서 다른 점을 밝혔다. 그렇지만 문집에 실린 글과 비문에 새겨진 글은 한두 자의 출입만 있을 뿐 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 금석문의 경우 찬자는 송시열 1, 윤증 1, 윤근수 1, 홍우건 1, 송병선 2, 기정진 2, 원경하 1, 기우만 6, 김인후 1, 송순 1, 기양연 1, 기언정 1, 이원조 1, 신좌모 1, 최익현 1, 이단하 1, 박순 1, 조덕승 1, 정봉시 1, 기유·임준호 1, 권적 1, 윤행임 1, 홍양호 1, 홍원섭 1, 이도재 1 등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사람은 기우만으로 6편을 남겼고, 기정진과 송병선은 각각 2편씩을 남겼음을 볼 수 있다.

비석의 원문에 대한 입력은 비문 그대로 옮겨적되, 깨지거나 마멸된 부분은 '▨'로 표시를 하였

다. 비문이나 현판은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마멸되거나 깨진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원문을 모두 판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기존에 파악된 원문에도 오류가 많이 나와서 이러한 것도 최대한 바로잡았다. 한 예를 들어 장성문화원에서 2019년에 발행한『장성군지리지총서』에는 다수의 비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는데, 비교적 비석의 글씨가 선명한 <황룡면 맥호리 난산비(卵山碑)>의 경우에도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몇 줄만 예로 들어보면, '仁人旁皇睠顧歔欷不忍去望之若魁斗仰之若嵩華者乃金先生慟哭之地也哭者哀聲也心有感發之爲聲其感切故其聲哀其聲哀故天地動而鬼神泣是以鄒子仰天而哭夏日爲之降霜杞氏之婦善哭而國俗變嗚呼先生胡爲乎哭之慟也噫嘻必有以也'에서 "睠은 蓋, 歔는 歡, 嵩은 歔, 慟은 痛, 心은 心心, 以는 없음, 嗚는 嗚, 慟은 痛, 嘻는 噫" 등으로 잘못 판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이면 만무리 원향유허비(院享遺墟碑)>의 경우에는 왠일인지 너무 다른 내용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설문의 끝에는 비문의 행수와 자수도 적었는데, 4면의 행수를 모두 적고, 자수는 기본이 되는 줄의 글자 수를 적어서 원래 비석에 새겨진 행수와 한 줄당 쓰인 글자 수를 대략 알 수 있도록 했다. 비석은 원래 세로로 쓰여있지만, 이것을 가로쓰기로 하고 또한 A4용지에 작성하기 때문에 길이가 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수와 자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전]의 경우에는 행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석에 쓰인 글씨는 대체로 해서체로 쓰이긴 했지만, 조선체를 쓰거나 이체자를 쓰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정체자나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원문 아래에는 번역문을 실었는데, 누구나 금석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본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비면에 한두 줄의 제목만을 쓴 경우에는 번역을 생략하였다. 이밖에도 해당 금석문의 사진을 실었는데, 지면 관계상 주로 앞면만을 싣도록 하였고, 중요 비석의 경우 뒷면이나 전체화면을 싣기도 했다. 4면을 모두 실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앞면만 싣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금까지 조사한 금석문을 보면 대상은 대부분 '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석은 대체로 '대석(臺石)-비신(碑身)-개석(蓋石)'으로 이루어진다. 비석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비좌(碑座)는 대석(臺石) 또는 대좌(臺座)라고 부르며, 비석의 몸체로서 글씨를 새기는 공간은 비신(碑身)이라 부르고, 비신 위에 얹는 돌을 개석(蓋石)이라 부른다. 대석은 대체로 사각형의 받침돌인 방부형(方趺形)이 많고, 가끔 거북이 형상을 한 받침돌인 귀부형(龜趺形)인 것도 있는데, 대개는 불교 사찰에 있는 대사비나 사적비, 그리고 유교 유적 중 신도비의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비신의 경우에는 돌의 재질에 따라 오래가기도 하고 금방 풍화되기도 하니, 이에 따라 금석문의 판독도 용이하거나 난해하게 된다. 개

석은 머릿돌을 비신 위에 얹은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붕모양을 한 가첨석이 많고, 이밖에 용(이무기)의 형상을 조각한 이수(螭首)가 있다. 그러나 개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비신의 머리 부분을 뜻하는 비수(碑首)의 모양에 따라 방형(方形), 원수형(圓首形), 규수형(圭首形) 등으로 구분한다. 비석 머리부분이 반듯하게 깎여있으면 방형이라 하고, 둥그스름하면 원수형 또는 호패형[上圓下方]이라고 하며, 양쪽 귀퉁이를 귀접이식으로 각지게 깎아내면 규수형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비신과 한몸인 비석 머리 부분을 조각하여 장식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문양에 따라 하엽수(荷葉首), 운수(雲首), 이수(螭首)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엽수는 연잎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 운수는 구름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며, 이수는 이무기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금석문 조사는 주로 불교계 유적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금석문에 치중했던 편이다. 그와 상대적으로 유교관련 금석문이 대부분인 호남의 금석문은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산발적인 조사가 있었고, 연구도 거의 심화되지 못했다. 본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리라 보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니, 돌의 재질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판독장비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금석문 대상 인물에 대한 고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다. 특히 묘비의 경우에는 군지의 총묘 조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조사연구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찾는 것으로 한정한 점이 아쉽다. 조사와 연구가 집적되다보면 이러한 문제점도 점차 해결되리라 본다.

호남의 금석문 조사 기록에서 읍면 순서는 장성군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순서대로 정했다.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이처럼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순서대로 하거나 가나다순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성군의 경우 이 방법을 시범적으로 사용하였다.

2. 장성의 금석문 현황

장성 금석문은 본원에서 가장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누락된 곳도 많아서 그동안 꾸준히 보충조사를 실시하여 이제야 자료집으로 간행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서에서는 1910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였지만, 1980년까지 제작된 것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장성 금석문 조사 통계표

분류＼연도		읍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총계	도합
신도비	1910	1	0	0	0	1	1	2	0	0	0	0	5	12
	1980	1	0	0	1	1	1	1	0	1	1	0	7	
송덕비	1910	37	6	0	0	1	1	0	0	1	1	5	52	109
	1980	22	2	3	1	6	7	3	5	3	2	3	57	
묘비	1910	3	1	1	7	4	15	12	0	0	3	0	46	123
	1980	10	5	10	13	6	3	12	11	0	7	0	77	
충효열	1910	1	0	1	0	0	1	3	0	3	3	2	14	60
	1980	9	0	6	5	13	5	2	2	2	2	0	46	
기타	1910	2	0	2	0	2	2	7	2	2	4	1	24	124
	1980	14	4	1	2	6	4	6	10	2	7	44	100	
총계	1910	44	7	4	7	8	20	24	2	6	11	8	141	428
	1980	56	11	20	22	32	20	24	28	8	19	47	287	
총합		100	18	24	29	40	40	48	30	14	30	55	428	

장성의 금석문은 많은 편에 해당되니, 1910년까지 제작된 비가 141건, 1911년부터 1980년까지 제작된 비가 287건으로 모두 428건이 된다. 이밖에도 위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1980년 이후에 제작된 금석문도 160개가 넘게 조사되었다. 또한 묘비의 경우에는 모두 조사된 것은 아니고, 도로에서 보이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만을 우선 조사하였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10년까지 제작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송덕비라고 할 수 있으니, 52건이 된다. 대부분 한군데에 모아두거나 길가의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거의 빠짐없이 조사되었다고 본다. 그 분포를 보면 장성읍에 37개가 있는데, 31개가 수산리 성산공원 입구에 모아져 있다. 이밖에 진원면 진원리 진원산성 입구에 6기, 북하면 약수초 교정에 4기가 모아져 있고 나머지는 산재해 있다. 대상을 살펴보면 장성부사 35기, 진원현감 2기, 관찰사 5기, 직지사 1기, 찰방 2기, 좌수 1기, 오위장 1기, 참봉 2기, 감찰 1기, 군수 2기(영광군수, 장성군수)가 있다.

선정비 중 건립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연도가 적혀있지 않지만, 진원면에 있는 진원현감 오희안과 진원현감 최희열의 비로, 1600년 이전에 세워진 것이 확실하다. 진원현은 임진왜란(정유재란)을 겪은 후 장성현과 합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늦게 세워진 것은 1905년에 세워진 군수 민영복의 선정비이다. 이것을 시기별로 보면 16세기 2기, 17세기 1기, 18세기 5기, 19세기 37기, 20세기

(1910년까지) 3기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비석의 형태는 개석이 없는 형태가 대부분이니, 원수형이 37기, 방형이 2기, 하엽형이 2기, 운수형이 1기이고, 이밖에 가첨석이 3기, 암각 등 기타형이 7기가 된다.

묘비의 경우에는 46기가 조사되었는데, 장성읍 3기, 진원면 1기, 남면 1기, 동화면 7기, 삼서면 4기, 삼계면 15기, 황룡면 12기, 북이면 3기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뤄진 곳은 삼계면이다. 삼계면은 1914년 이전까지는 영광군에 속한 지역이었다. 동화면 일부와 삼서면도 마찬가지이다. 북일면과 북하면은 1980년까지도 한 개도 나오지 않았으니, 진정 묘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조사가 덜되어서 그리된 것이라 본다. 묘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황룡면 아곡리에 있는 이견의(李堅義) 묘표이다. 1499년(己未)에 제작된 것이며, 묘비 형태는 원수형이다. 묘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묘비 뒷면에 그 사람의 내력을 자세히 적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단지 앞면에 누구의 묘라는 제목만 적은 경우도 있는데, 본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묘표'로 적었다. 장성지역 묘비를 형태상으로 구분해보면 원수형(방형 포함) 20기, 가첨석 11기, 하엽형 10기, 운수형 2기, 묘상석 4기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 장성군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세워진 송흠 집안의 묘비를 예시로 살펴보겠다. 대부분 16세기에 세워진 묘비이다.

표2. 삼계면 내계리 신평송씨 묘역의 묘비

송구(宋龜, 1379~1449)	송처은(宋處殷)	송가원(宋可元, ?~1502))	송흠(宋欽, 1459~1547)	하음봉씨(河陰奉氏, 1461~1539)	송익경(宋益憬)	송붕표(宋弸彪)

관수정이 있는 삼계면 내계리 천방마을에 가면 신평송씨 묘역이 몇 군데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신평송씨 입향조[1]인 송구의 묘비부터 시작하여 6대손의 묘까지 끊김이 없이 세워져 있다. 즉 '송

1 신평송씨 입향조 : 호남의 신평송씨는 송구(宋龜, 1379~1449) 형제로부터 시작하니, 형인 노송당 송희경(宋希璟, 1376~1446)과 함께 호남으로 낙남하여 송희경은 담양군에, 송구(宋龜)는 영광군 삼계면에 정착하였다.

구-송처은-송가원-송흠.하음봉씨-송익경-송붕표-송두선' 등 7대의 묘가 여기저기에 있다. 송구의 6대손인 송두선(宋斗先, 1586~1626)의 경우에는 묘비는 없고 상석이 묘비를 대신하고 있다.

위 7기의 묘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송구의 묘비와 같이 비수가 하엽수(荷葉首) 형태인 것이 있고, 송가원의 묘비와 같이 머리에 지붕모양의 가첨석을 얹은 형태가 있다. 이견의의 묘비와 같은 원수형(圓首形) 비는 없는 것이 특이하다.

충효열비는 모두 14기로, 장성읍 1, 남면 1, 삼계면 1, 황룡면 3, 북일면 3, 북이면 3, 북하면 2 등으로 구성된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조사 된 것이 몇 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형태를 분류한 것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확언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표3. 장성의 충효열비 모습

조영규 정려각	공필장 효자비	연안김씨 순열비	이학승 순의비	서능 정려비

조영규 정려각처럼 정려각 내부에 비석은 없고 현판만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 공필장의 효자비처럼 석조비각을 세워서 비석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가 있으며, 연안김씨 순열비처럼 일반 비석형태에 가첨석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학승 순의비처럼 원수형 비신만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서능 정려비처럼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 비각이 세워진 경우도 있다.

기타 금석문은 장성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오성진곤비, 남문창의비, 난산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유허비와 단비, 묘정비 등은 장성군 역사문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전통사찰 백양사의 승탑비 등 22기도 여기에 분류되었다. 그러나 1980년까지 제작된 것 중 기타 금석문으로 분류된 것은 100기나 되어서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한다.

3. 금석문의 지역적 특징

장성 금석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도비가 5기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삼계면 내계리의 송흠(宋欽) 신도비와 삼서면 보생리 봉여해(奉汝諧) 신도비는 원래 영광군 지역에 속했었고, 장성읍 영천리 고경명(高敬命) 신도비의 경우에도 원래 광주출신이지만 그의 묘가 일찍 장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신도비도 그 묘역 앞에 세워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장성군의 위상은 이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신도비의 형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장성군의 신도비

김인후 신도비	송흠 신도비	고경명 신도비	봉여해 신도비	박수량 신도비

위 5건의 신도비는 건립연대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김인후 신도비와 고경명 신도비는 대석이 조선시대형 귀부(龜趺)이고, 나머지는 사각 대석이다. 개석은 모두 이수가 아닌 팔작지붕형 가첨석이 얹어져 있는 형태이다.

송덕비의 경우에는 1910년까지 세워진 것이 52기로, 5가지 분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후 1980년까지 세워진 것 57기까지 합하면 현재 조사된 것이 모두 109기이다. 장성은 진원현과 장성현이 합해졌지만, 그 시기가 너무 옛날인 정유재란 직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 즉 합해지기 전에 세워진 송덕비는 2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송덕비의 개수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시기별 송덕비 건립 갯수

지역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1980)
장성군	2	1	5	37	3+57

위 표를 통해서 장성의 송덕비는 19세기에 세워진 것이 전체 70%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비석의 형태는 개석이 없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원수형이 37기, 방형이 2기, 하엽수형이 2기, 운수형이 1기이고, 이밖에 가첨석이 3기, 암각 등 기타형이 7기로 구성되었다. 즉 비석을 만드는 데 정교함보다는 기록하는 데 더 역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장성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묘비이다. 장성은 1914년에 영광지역 일부가 장성군에 합쳐지면서 묘비의 수도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1910년 이전까지 세워진 묘비는 46기, 이후 1980년까지 세워진 묘비는 77기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묘비는 빠짐없이 조사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1980년까지 세워진 것이 123기가 집계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장성의 충효열비는 임진왜란과 관계된 것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음과 같이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산이 전체 14건 중에서 6건이나 차지한다.

장성읍 기산리 행주기씨(幸州奇氏) 정려각
황룡면 맥호리 연안김씨(延安金氏) 순열비(殉烈碑)
북일면 문암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정려각비
북일면 문암리 서산류씨(瑞山柳氏) 정려각
북이면 백암리 조영규(趙英圭) 정려각
북하면 신성리 윤진(尹軫) 순의비(殉義碑)

이밖에 기타 금석문의 오산남문창의비나 계산사 유허비도 임진왜란 관련된 비라고 할 수 있다. 기타 금석문으로 분류한 금석문 중 장성의 경우에는 민속을 잘 살필 수 있는 비석이 있으니, 오성진곤비와 축맥식목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오성진곤비는 장성부 소속 향리들이 세운 비석이고, 축맥식목기는 마을에서 세운 것이다. 두 비석 모두 풍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4. 문화유산 지정의 필요성

장성지역의 금석문에 대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만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인후 신도비, 송흠 신도비, 고경명 신도비, 박수량 백비, 서능 정려비,

조영규 정려각, 오산남문창의비, 난산비, 칠현유적지, 백양사 소요대사탑

장성군의 경우 신도비가 3건, 묘비가 1건, 정려비가 1건, 정려각이 1건, 칠현단비가 있는 유적지가 1건, 기타 금석문 2건, 승탑 1건 등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즉 금석문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10건뿐인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유산 지정이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우선 들어보면, 먼저 신도비는 문화유산 지정된 3건 외에 나머지 2건인 봉여해와 박수량의 신도비도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성에 인물이 많다는 말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도 인물관련 유적을 더 선양해야 할 것이다.

장성 송덕비의 경우에 진원현감 선정비는 현재 2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희귀한 상황으로, 장성의 역사를 실재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자료이다. 또한 2기만 남아있는 찰방의 선정비도 장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필요하니, 모두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묘비의 경우에는 1건만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15세기에 세워진 아곡리의 이견의 묘비, 그리고 16세기에 세워진 내계리 천방마을의 송흠 묘비와 그 일원의 묘비도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 잊혀가는 역사적 인물을 되살림으로써 장성의 문화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효열비로는 다행히 서능의 정려비와 조영규 정려각이 지정되었지만, 이밖에도 충효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필장(孔弼章) 효자비와 전일귀 효자비는 지정 보호가 필요하다. 장성에는 특히 임진왜란(정유재란 포함)과 관련한 유적이 많은 편이다. 고흥류씨(高興柳氏) 정려각비, 서산류씨(瑞山柳氏) 정려각, 연안김씨(延安金氏) 순열비, 윤진(尹軫) 순의비 등도 장성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필요한 유적이다.

장성에는 기타 금석문으로 분류한 자료 중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4건이나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성진곤비(鰲城鎭坤碑)와 축맥식목기(築脈植木記) 등은 장성의 문화유산을 풍성하게 하는 데 좋은 자료인데도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또한 백양사에는 부도(승탑)가 많은 중에 소요대사탑만 지정되었는데, 각각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다른 승탑들도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대에 생산된 모든 자료가 문화유산이 아님이 없지만, 지정을 해야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차례

Ⅰ. 신도비

1. 장성 김인후(金麟厚) 신도비 ····· 27
2. 장성 송흠(宋欽) 신도비 ····· 41
3. 장성 고경명(高敬命) 신도비 ····· 48
4. 장성 봉여해(奉汝諧) 신도비 ····· 64
5. 장성 박수량(朴守良) 신도비 ····· 71

Ⅱ. 송덕비

1. 장성읍 백계리 홍석규(洪錫圭) 영세불망비 ····· 81
2. 장성읍 성산리 서유민(徐有民) 흥학비 ····· 83
3. 장성읍 성산리 진처명(陳處命) 자당건비 ····· 85
4. 장성읍 성산리 김승집(金升集) 영세불망비 ····· 86
5. 장성읍 수산리 권엄(權欕)·권익(權黓) 불망선정비 ····· 87
6. 장성읍 수산리 이낙수(李洛秀) 거사비 ····· 89
7. 장성읍 수산리 박좌원(朴左源) 청덕선정비 ····· 90
8. 장성읍 수산리 최종주(崔宗周) 흥학휼민선정비 ····· 91
9. 장성읍 수산리 임세량(林世良) 몰세불망비 ····· 92
10. 장성읍 수산리 박시경(朴時璟) 청덕선정비 ····· 93
11. 장성읍 수산리 박증휘(朴增輝) 청덕선정비 ····· 94
12. 장성읍 수산리 한진명(韓振溟) 청백선정비 ····· 96

13. 장성읍 수산리 김이정(金履禎) 청덕선정비 ····· 97
14. 장성읍 수산리 김조연(金祖淵) 청백선정비 ····· 98
15. 장성읍 수산리 김조연(金祖淵) 영세불망비 ····· 99
16. 장성읍 수산리 심의복(沈宜復) 영세불망비 ····· 100
17. 장성읍 수산리 김진교(金晋敎) 청백선정비 ····· 101
18. 장성읍 수산리 김진교(金晋敎) 흥학비 ····· 102
19. 장성읍 수산리 이병례(李秉禮) 청덕휼민선정비 ····· 103
20. 장성읍 수산리 정우용(鄭愚容) 청덕선정비 ····· 104
21. 장성읍 수산리 김재홍(金在弘) 청백선정비 ····· 105
22. 장성읍 수산리 성정호(成鼎鎬) 영세불망비 ····· 106
23. 장성읍 수산리 정운소(鄭雲韶) 불망비 ····· 107
24. 장성읍 수산리 서중보(徐中輔) 영세불망비 ····· 108
25. 장성읍 수산리 김윤현(金胤鉉) 영세불망비 ····· 109
26. 장성읍 수산리 김오현(金五鉉) 영세불망비 ····· 110
27. 장성읍 수산리 김헌수(金憲秀) 청백선정비 ····· 111
28. 장성읍 수산리 민영복(閔泳復) 청백선정비 ····· 112
29. 장성읍 수산리 원두표(元斗杓) 선정비 ····· 113
30. 장성읍 수산리 서상정(徐相鼎) 혜휼영세불망비 ····· 115
31. 장성읍 수산리 이헌직(李憲稙) 영세불망비 ····· 116
32. 장성읍 수산리 김문현(金文鉉) 영세불망비 ····· 117
33. 장성읍 수산리 윤웅렬(尹雄烈) 유혜불망비 ····· 118
34. 장성읍 수산리 이면상(李冕相) 영세불망비 ····· 119
35. 장성읍 수산리 강석일(姜晳一) 청백선정비 ····· 122
36. 장성읍 유탕리 김보인(金寶仁) 선공비 ····· 123
37. 장성읍 유탕리 김진교(金晉敎) 청검불망비 ····· 125
38. 진원면 진원리 오희안(吳希顔) 선정비 ····· 127
39. 진원면 진원리 최희열(崔希說) 청덕선정비 ····· 128
40. 진원면 진원리 이우(李堣) 영세불망비 ····· 130
41. 진원면 진원리 김조연(金祖淵) 영세불망비 ····· 131

42. 진원면 진원리 이병례(李秉禮) 청덕선정비 ····· 132
43. 진원면 진원리 정우용(鄭愚容) 청덕선정비 ····· 133
44. 삼서면 삼계리 김유일(金有一) 시혜불망비 ····· 134
45. 삼계면 사창리 서유소(徐有素) 선정비 ····· 136
46. 북일면 신흥리 이병례(李秉禮) 선정비 ····· 137
47. 북이면 원덕리 홍병위(洪秉瑋) 영세불망비 ····· 138
48. 북하면 단전리 김종구(金鍾九) 자선불망비 ····· 139
49. 북하면 약수리 김종구(金鍾九) 자선기념비 ····· 141
50. 북하면 약수리 홍병위(洪秉瑋) 불망비 ····· 143
51. 북하면 약수리 권익(權翼) 선정비 ····· 144
52. 북하면 약수리 이병례(李秉禮) 유혜불망비 ····· 145

Ⅲ. 묘비

1. 장성읍 단광리 이기남(李箕南) 묘표 ····· 149
2. 장성읍 영천리 고경명(高敬命) 묘표 ····· 153
3. 장성읍 영천리 고용후(高用厚) 묘표 ····· 156
4. 진원면 학림리 하생(河泩) 묘표 ····· 158
5. 남면 마령리 심종하(沈宗夏) 묘표 ····· 159
6. 동화면 구림리 이원굉(李元紘) 묘표 ····· 161
7. 동화면 구림리 진주정씨(晉州鄭氏) 묘표 ····· 164
8. 동화면 남산리 기정진(奇正鎭) 묘표 ····· 165
9. 동화면 동호리 김기(金紀) 묘표 ····· 167
10. 동화면 동호리 김경우(金景愚) 묘표 ····· 168
11. 동화면 동호리 김대진(金大振) 묘표 ····· 169
12. 동화면 송계리 김정(金禎) 묘표 ····· 170
13. 삼서면 보생리 이재인(李在仁) 묘표 ····· 172
14. 삼서면 보생리 이재인(李在仁) 묘갈명 ····· 173
15. 삼서면 삼계리 김상경(金尙敬) 묘표 ····· 178
16. 삼서면 수양리 이훈(李纁) 묘표 ····· 180

17. 삼계면 내계리 송흠(宋欽) 묘표 ····· 181
18. 삼계면 내계리 송붕표(宋弸彪) 묘표 ····· 183
19. 삼계면 내계리 송구(宋龜) 묘표 ····· 184
20. 삼계면 내계리 송처은(宋處殷) 묘표 ····· 185
21. 삼계면 내계리 하음봉씨(河陰奉氏) 묘표 ····· 186
22. 삼계면 내계리 송두선(宋斗先) 묘상석 ····· 187
23. 삼계면 내계리 송가원(宋可元) 묘표 ····· 188
24. 삼계면 내계리 송익경(宋益憬) 묘표 ····· 190
25. 삼계면 내계리 나덕전(羅德全) 묘표 ····· 191
26. 삼계면 주산리 김종손(金終孫) 묘표 ····· 193
27. 삼계면 주산리 김숭로(金崇老) 묘표 ····· 195
28. 삼계면 주산리 김약(金約) 묘표 ····· 197
29. 삼계면 주산리 김조원(金調元) 묘표 ····· 199
30. 삼계면 주산리 김서룡(金瑞龍) 묘표 ····· 201
31. 삼계면 주산리 김한룡(金翰龍) 묘표 ····· 203
32. 황룡면 금호리 박수량(朴守良) 백비(白碑)와 묘지명 ····· 204
33. 황룡면 맥호리 김령(金齡) 묘갈명 ····· 211
34. 황룡면 맥호리 김형복(金亨福) 묘표 ····· 216
35. 황룡면 아곡리 기원(奇遠) 묘표 ····· 217
36. 황룡면 아곡리 기대유(奇大有) 묘표 ····· 220
37. 황룡면 아곡리 기효간(奇孝諫) 묘표 ····· 221
38. 황룡면 아곡리 기계헌(奇啓獻) 묘표 ····· 222
39. 황룡면 아곡리 기진탁(奇震鐸) 묘표 ····· 223
40. 황룡면 아곡리 기정하(奇挺夏) 묘상석 ····· 224
41. 황룡면 아곡리 기형(奇泂) 묘상석 ····· 225
42. 황룡면 아곡리 박세대(朴世大) 묘갈명 ····· 226
43. 황룡면 아곡리 이견의(李堅義) 묘표 ····· 231
44. 북이면 신월리 해주오씨(海州吳氏) 묘표 ····· 232
45. 북이면 신월리 기처겸(奇處謙) 묘표 ····· 233

46. 북이면 신월리 기호(奇灝) 묘상석 ····· 234

Ⅳ. 충효열비

1. 장성읍 기산리 행주기씨(幸州奇氏) 정려각 ····· 237
2. 남면 녹진리 공필장(孔弼章) 효자비 ····· 241
3. 삼계면 생촌리 경주섭씨(慶州葉氏) 정려각 ····· 246
4. 황룡면 맥호리 서령류씨(瑞寧柳氏) 정려각비 ····· 253
5. 황룡면 맥호리 연안김씨(延安金氏) 순열비 ····· 257
6. 황룡면 장산리 이학승(李學承) 순의비 ····· 258
7. 북일면 문암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정려각비 ····· 263
8. 북일면 문암리 서산류씨(瑞山柳氏) 정려각 ····· 266
9. 북일면 박산리 서능(徐稜) 정려비 ····· 268
10. 북이면 백암리 조영규(趙英圭) 정려 ····· 274
11. 북이면 백암리 장흥고씨(長興高氏) 정려각 ····· 280
12. 북이면 원덕리 전일귀(全日貴) 효자비 ····· 284
13. 북하면 대악리 여주이씨(驪州李氏) 정려각 ····· 287
14. 북하면 신성리 윤진(尹軫) 순의비 ·····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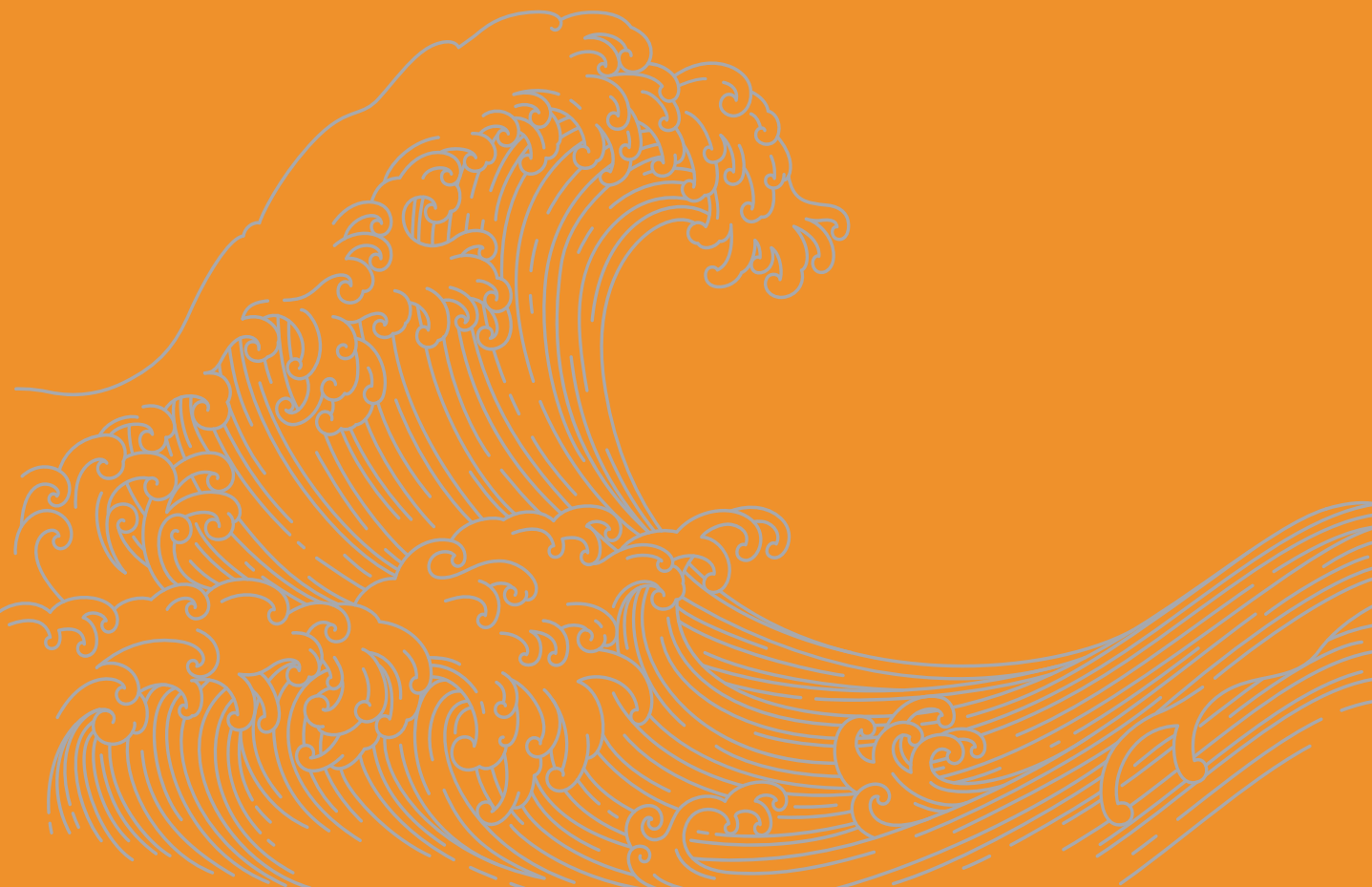
Ⅴ. 기타 금석문

1. 장성읍 유탕리 오성진곤비(鰲城鎭坤碑) ····· 297
2. 삼계면 화산리 축맥식목기(築脉植木記) ····· 301
3. 황룡면 맥호리 난산비(卵山碑) ····· 303
4. 북이면 사거리 오산남문창의비(鰲山南門倡義碑) ····· 308
5. 남면 녹진리 천복철(千福哲) 망곡단비(望哭壇碑) ····· 319
6. 서삼면 모암리 칠현단비(七賢壇碑) ····· 323
7. 북이면 만무리 곡부공씨(曲阜孔氏) 단비(壇碑) ····· 326
8. 황룡면 필암리 필암서원(筆巖書院) 계생비(繫牲碑) ····· 327
9. 북이면 만무리 이수(李隨) 묘정비(廟庭碑) ····· 331
10. 북이면 만무리 원향유허비(院享遺墟碑) ····· 338

11. 남면 마령리 심덕부(沈德符) 유허비 ····· 342
12. 삼서면 삼계리 계산사(桂山祠) 유허비 ····· 346
13. 삼계면 수옥리 수강서원(壽岡書院) 유허비 ····· 351
14. 북일면 문암리 김명(金銘) 유허비 ····· 353
15.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白羊寺) 승탑 ····· 357
16. 황룡면 관동리 석수암지(石水菴址) 암각문 ····· 361
17. 황룡면 맥호리 필암(筆巖) 암각문 ····· 363
18. 황룡면 아곡리 백석헌(栢石軒) 암각문 ····· 364
19. 서삼면 모암리 모암(慕巖) 암각문 ····· 365
20. 북일면 문암리 지행효우(至行孝友) 암각문 ····· 366
21. 장성읍 성산리 하마석(下馬石) ····· 367
22. 삼서면 홍정리 가산서원(佳山書院) 하마석 ····· 368
23. 황룡면 아곡리 하마석(下馬石) ····· 369
24. 황룡면 아곡리 기공(奇公) 표지석 ····· 370

색인 ····· 371

Ⅰ.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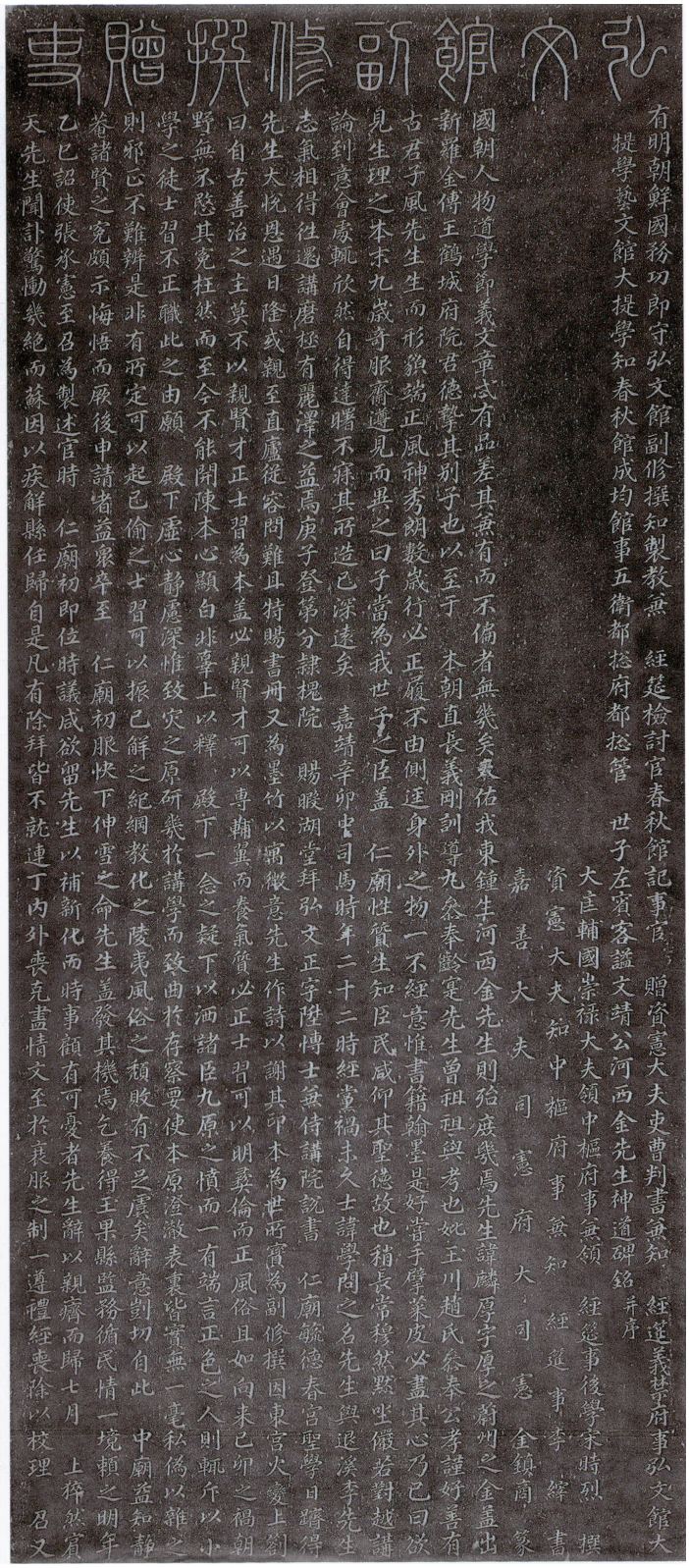


1. 장성 김인후(金麟厚) 신도비

•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234-1(맥동)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기념물 219호(2003.10.04.)
• 제작연대 1742년(崇禎紀元後再壬戌) • 크　기 전체높이 413.6, 비신높이 225.4, 너비 95.9, 두께 41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신도비(神道碑)는 황룡면 맥호리 산25의 김인후 묘역 입구에 세워진 비각 안에 있다. 조선시대 형식의 귀부형 대석에 비신이 세워지고 그 위에 가첨석이 얹어져 있다. 풍화로 인한 마멸이 거의 없어서 깨끗한 편이다. 비문은 김인후의 4대손 각재(覺齋) 김기하(金器夏)가 선친의 유업을 계승하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1682년에 받았으며, 글씨는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가 쓰고, 전서는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이 써서 1742년에 세웠다. 곁에는 추기신도비(追記神道碑)가 서 있는데, 1980년에 권용현(權龍鉉)이 짓고 박하주(朴廈柱)가 글씨를 써서 1982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존의 신도비에 1796년 정조가 하교(下敎)한 문묘(文廟)에 종사(從祀), 문정(文正)으로 개시(改諡), 증직(贈職)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1979년 정월 유림(儒林)의 총의(總意)를 거쳐 추기신도비를 건립하기로 결의하여 세운 것이다.

김인후의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담재(湛齋), 본관은 울산(蔚山),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과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1483~1536)에게 배우고, 154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등용되고 호당(湖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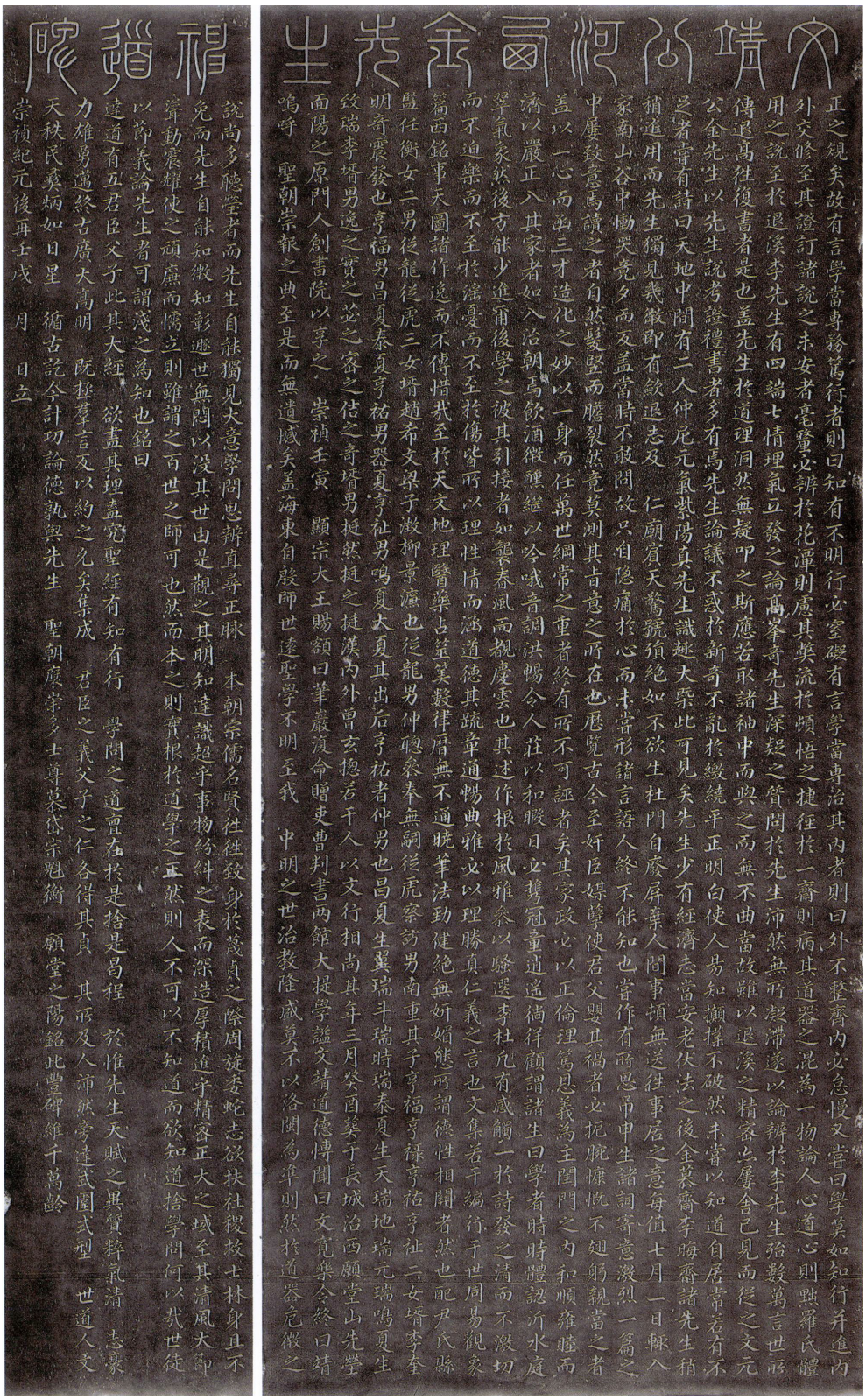
弘文館副修撰贈事

有明朝鮮國務功郎守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 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
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左賓客謚文靖公河西金先生神道碑銘 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 經筵事後學宋時烈 撰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 經筵事李縡 書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金鎮商 篆

國朝人物道學節義文章式有品差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衆佑我東鍾生河西金先生則殆庶幾焉先生諱麟厚字厚之蔚州之金蓋出新羅金傅王鶴城府院君德摯其別子也以至于 本朝直長義剛訓導九參奉齡寔先生曾祖祖與考也妣玉川趙氏參奉公孝謹好善有古君子風先生生而形貌端正風神秀朗數歲行必正履不由側逕身外之物一不經意惟書籍翰墨是好嘗手擘菜皮必盡其心乃已曰欲見生理之本末九歲奇服齋遵見而異之曰子當為我世子之臣蓋 仁廟性質生知臣民咸仰其聖德故也稍長常穆然默坐儼若對越講論到意會處輒欣然自得達曙不寐其所造已深遠矣 嘉靖辛卯中司馬時年二十二時經黨禍未久士諱學問之名先生與退溪李先生志氣相得往還講磨極有麗澤之益焉庚子登第分隸槐院 賜暇湖堂拜弘文正字陞博士兼侍講院說書 仁廟毓德春宮聖學日躋得先生大悅恩遇日隆或親至直廬從容問難且特賜書冊又為墨竹以寓微意先生作詩以謝其印本為世所寶為副修撰因東宮火變上劄曰自古善治之主莫不以親賢才正士習為本蓋必親賢才可以專輔翼而養氣質必正士習可以明彝倫而正風俗且如向來己卯之禍朝野無不愍其冤枉然而至今不能開陳本心顯白非辜上以釋 殿下一念之疑下以洒諸臣九原之憤而一有端言正色之人則輒斥以小學之徒士習不正職此之由願 殿下虛心靜慮深惟致灾之原研幾於講學而致曲於存察要使本原澄澈表裏皆實無一毫私偽以雜之則邪正不難辨是非有所定可以起己偷之士習可以振己解之紀綱教化之陵夷風俗之頹敗有不足虞矣辭意剴切自此 中廟益知靜菴諸賢之冤頗示悔悟而厥後申請者益衆卒至 仁廟初服快下伸雪之命先生蓋發其機焉乞養得玉果縣監務循民情一境賴之明年乙巳詔使張承憲至召為製述官時 仁廟初即位時議咸欲留先生以補新化而時事顧有可憂者先生辭以親齋而歸七月 上猝然賓天先生聞訃驚慟幾絕而蘇因以疾解縣任歸自是凡有除拜皆不就連丁內外喪克盡情文至於衰服之制一遵禮經喪除以校理 召又

書新轉

上箋辭 明廟諭以君臣大義先生上極陳疾病難進之狀並辭食物之 賜庚申春忽感疾屬當上元命家人具時食薦于家廟事訖遺命勿用玉果以後官爵遂以翌日庚午壽五十一而歿訃聞 上驚悼特致賻儀先生清明溫粹胸次灑落人以為清水芙蓉至其立志為學也積之以窮理主敬謹思明辨之功則其造詣之深人不能有所測知者矣蓋先生初從金慕齋受小學書用功最深至於大學則兀然端坐而讀之至於千餘遍反復紬繹不得不措自後雖以授門人弟子未嘗以易此也嘗曰大學一部之中體用具備條理不紊捨此無以進道矣不讀是書而欲看他經猶不築基址而先作室屋又曰讀此書無疑者未必有實得苟字字研窮句句思量則必有未透處如於章句未透參以或問或問未透參以諸家之說久久必見水釋之效矣其於語孟詩易單思實踐而曰得力莫如語孟又嘗謂太極圖說義理精深西銘規模廣大不可偏廢常玩索不已至其持守則必以敬為一心主宰日用之間儼然肅然辭氣安定視聽端直表裏無間動靜如一情意之發獨先照於幾微事物之應必揆度於義理善利公私之分益致其謹自其性命陰陽之妙以至人倫孝悌之實體在一身本末備具卓然乎大中至



출처 : 국가유산청, 『2020금석문 탁본조사 보고서(호남권)』

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가 되어 인종(仁宗)의 스승이 되었다.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올라 기묘명현(己卯名賢)의 신원복권(伸冤復權)을 문신으로서 최초로 개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부모 봉양을 청하며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고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 장성으로 돌아가 평생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동국(東國) 18현 가운데 한사람이며, 필암서원에 배향하고 있다. 김인후의 신도비문은 김인후의 『하서전집』과 송시열의 『송자대전』, 그리고 추기신도비의 내용이 한두 자의 출입만 있을 뿐 모두 똑같다. 비문은 54행 54자이다.

[두전] 弘文館副修撰贈吏曹判書文靖公河西金先生神道碑

【전면】

有明朝鮮國務功郎守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 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

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左賓客諡文靖公河西金先生神道碑銘 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使兼領 經筵事後學宋時烈 撰
資憲大夫知中樞副使兼知 經筵事李縡 書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金鎭商 篆

國朝人物道學節義文章忒有品差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天祐我東鍾生河西金先生則殆庶幾焉先生諱麟厚字厚之蔚州之金蓋出

新羅金傅王鶴城府院君德摯其別子也以至于 本朝直長義剛訓導丸參奉齡寔先生曾祖祖與考也妣玉川趙氏參奉公孝謹好善有

古君子風先生生而形貌端正風神秀朗數歲行必正履不由側逕身外之物一不經意惟書籍翰墨是好嘗手劈菜皮必盡其心乃已曰欲

見生理之本末九歲奇服齋遵見而異之曰子當爲我世子之臣蓋 仁廟性質生知臣民咸仰其聖德故也稍長常穆然默坐儼若對越講

論到意會處輒欣然自得達曙不寐其所造已深遠矣 嘉靖辛卯中司馬時年二十二時經黨禍未久士諱學問之名先生與退溪李先生

志氣相得往還講磨極有麗澤之益焉庚子登第分隷槐院 賜暇湖堂拜弘文正字陞博士兼侍講院說書 仁廟毓德春宮聖學日躋得

先生大悅恩遇日隆或親至直廬從容問難且特賜書冊又爲墨竹以寓微意先生作詩以謝其印本爲世所寶爲副修撰因東宮火變上劄

曰自古善治之主莫不以親賢才正士習爲本蓋必親賢才可以專輔翼而養氣質必正士習可以明

彝倫而正風俗且如向來己卯之禍朝
野無不愍其冤枉然而至今不能開陳本心顯白非辜上以釋 殿下一念之疑下以灑諸臣九原之
憤而一有端言正色之人則輒斥以小
學之徒士習不正職此之由願 殿下虛心靜慮深惟致災之原研幾於講學而致曲於存察要使本
原澄澈表裏皆實無一毫私僞以雜之
則邪正不難辨是非有所定可以起已渝之士習可以振已解之紀綱教化之陵夷風俗之頹敗有不
足虞矣辭意剴切自此 中廟益知靜
菴諸賢之冤頗示悔悟而厥後申請者益衆卒至 仁廟初服快下伸雪之命先生蓋發其機焉乞養得
玉果縣監務循民情一境賴之明年
乙巳詔使張承憲至召爲製述官時 仁廟初卽位時議咸欲留先生以輔新化而時事顧有可憂者
先生辭以親癆而歸七月 上猝然賓
天先生聞訃驚痛幾絶而蘇因以疾解縣任歸自是凡有除拜皆不就連丁內外喪克盡情文至於衰
服之制一遵禮經喪除以校理 召又

【좌면】

上箋辭 明廟諭以君臣大義先生亦極陳疾病難進之狀竝辭食物之 賜庚申春忽感疾屬當上
元命家人具時食薦于家廟事訖遣命
勿用玉果以後官爵遂以翌日庚午壽五十一而歿訃聞 上驚悼特致賻儀先生淸明溫粹胸次灑
落人以爲淸水芙蓉至其立志爲學也
積之以窮理主敬謹思明辨之功則其造詣之深人不能有所測知者矣蓋先生初從金慕齋受小學
書用功最深至於大學則兀然端坐而
讀之至於千餘遍反復紬繹不得不措自後雖以授門人弟子未嘗以易此也嘗曰大學一部之中體
用具備條理不紊捨此無以進道矣不
讀是書而欲看他經猶不築基址而先作室屋又曰讀此書無疑者未必有實得苟字字研窮句句思
量則必有未透處如於章句未透參以
或問或問未透參以諸家之說久久必見氷釋之效矣其於語孟詩易覃思實踐而曰得力莫如語孟
又嘗謂太極圖說義理精深西銘規模
廣大不可偏廢常玩索不已至其持守則必以敬爲一心主宰日用之間儼然肅然辭氣安定視聽端
直表裏無間動靜如一情意之發獨先
照於幾微事物之應必揆度於義理善利公私之分益致其謹自其性命陰陽之妙以至人倫孝悌之
實體在一身本末備具卓然乎大中至

【후면】

正之規矣故有言學當專務篤行者則曰知有不明行必窒礙有言學當專治其內者則曰外不整齊內必怠慢又嘗曰學莫如知行幷進內

外交修至其證訂諸說之未安者毫釐必辨於花潭則慮其弊流於頓悟之捷徑於一齋則病其道器之混爲一物論人心道心則黜羅氏體

用之說至於退溪李先生有四端七情理氣互發之論高峯奇先生深疑之質問於先生沛然無所凝滯遂以論辨於李先生殆數萬言世所

傳退高往復書者是也蓋先生於道理洞然無疑叩之斯應若取諸袖中而與之而無不曲當故雖以退溪之精密亦屢捨己見而從之文元

公金先生以先生說考證禮書者多有焉先生論議不惑於新奇不亂於繳繞平正明白使人易知顚撲不破然未嘗以知道自居常若有不

足者嘗有詩曰天地中間有二人仲尼元氣紫陽眞先生識趣大概此可見矣先生少有經濟志當安老伏法之後金慕齋李晦齋諸先生稍

稍進用而先生獨見幾微卽有斂退志及 仁廟賓天驚號殞絶如不欲生杜門自廢屛棄人間事頓無送往事居之意每値七月一日輒入

家南山谷中慟哭竟夕而反蓋當時不敢問故只自隱痛於心而未嘗形諸言語人終不能知也嘗作有所思弔申生諸詞寄意激烈一篇之

中屢致意焉讀之者自然髮豎而膽裂然竟莫測其旨意之所在也歷覽古今至奸臣媒孽使君父嬰其禍者必扼腕慷慨不翅躬親當之者

蓋以一心而函三才造化之妙以一身而任萬世綱常之重者終有所不可誣者矣其家政必以正倫理篤恩義爲主閨門之內和順雍睦而

濟以嚴整入其家者如入治朝焉飮酒微醺繼以吟哦音調洪暢令人莊以和暇日必携冠童逍遙徜徉顧謂諸生曰學者時時體認沂水庭

翠氣像然後方能少進爾後學之被其引接者如襲春風而覩慶雲也其述作根於風雅參以騷選李杜凡有感觸一於詩發之淸而不激切

而不迫樂而不至於淫憂而不至於傷皆所以理性情而涵道德其疏章通暢典雅必以理勝眞仁義之言也文集若干編行于世周易觀象

篇西銘事天圖諸作逸而不傳惜哉至於天文地理醫藥占筮算數律曆無不通曉筆法勁健絶無妍媚態所謂德性相關者然也配尹氏縣

監任衡女二男從龍從虎三女壻趙希文梁子澂柳景濂也從龍男仲聰參奉無嗣從虎察訪男南重其子亨福亨祿亨祐亨祉二女壻李奎

明奇震發也亨福男昌夏泰夏亨祐男器夏亨祉男鳴夏大夏其出后亨祐者仲男也昌夏生翼瑞斗

瑞時瑞泰夏生天瑞地瑞元瑞鳴夏生

致瑞李壻男逸之實之苾之密之佶之奇壻男挺然挺之挺漢內外曾玄摠若干人以文行相尙其年三月癸酉葬于長城治西願堂山先塋

面陽之原門人創書院以享之 崇禎壬寅 顯宗大王賜額曰筆巖復命贈吏曹判書兩館大提學諡文靖道德博聞曰文寬樂令終曰靖

嗚呼 聖朝崇報之典至是而無遺憾矣蓋海東自殷師世遠聖學不明至我 中明之世治敎隆盛莫不以洛閩爲準則然於道器危微之

【우면】

說尙多聽瑩者而先生自能獨見大意學問思辨直尋正脈 本朝宗儒名賢往往致身於蔑貞之際周旋委蛇志欲扶社稷救士林身且不

免而先生自能知微知彰遯世無悶以沒其世由是觀之其明知達識超乎事物紛糾之表而深造厚積進乎精密正大之域至其淸風大節

聳動震耀使之頑廉而懦立則雖謂之百世之師可也然而本之則實根於道學之正然則人不可以不知道而欲知道捨學問何以哉世徒

以節義論先生者可謂淺之爲知也銘曰

達道有五君臣父子此其大經 欲盡其理盍究聖經有知有行 學問之道亶在於是捨是曷程 於惟先生天賦之異質粹氣淸 志豪

力雄勇邁終古廣大高明 旣極羣言反以約之允矣集成 君臣之義父子之仁各得其貞 其所及人沛然旁達式圍式型 世道人文

天秩民彝炳如日星 循古訖今計功論德孰與先生 聖朝褒崇多士尊慕岱宗魁衡 願堂之陽銘此豐碑維千萬齡

崇禎紀元後再壬戌 月 日立

〈유명 조선국 무공랑 수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 증(贈)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지경연 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세자좌빈객 문정공(文靖公) 하서(河西) 김선생(金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국조 인물의 도학(道學)과 절의(節義), 문장(文章)이 모두 품격에 차등이 있어서 셋 다를 아울러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자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배출하신 하서(河西) 김선생(金先生)만은 자못 예외인 듯하다. 선생의 휘(諱)는 인후(麟厚)이고 자(字)는 후지(厚之)이다. 울주김씨(蔚州金氏)는 신라왕(新羅王, 경순왕(敬順王)) 김부(金溥)에게서 나왔는데,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 덕지(德摯)가 김부의 별자(別子)이다. 본조에 들어와서 직장(直長) 의강(義剛)과 훈도(訓導) 환(丸)과 참봉(參奉) 영(齡)이 바로 선생의 증조, 조부, 아버지

이고, 어머니는 옥천조씨(玉川趙氏)이다. 참봉공은 효성스럽고 행실을 삼가며 선(善)을 좋아하여 옛날 군자(君子)의 기풍이 있었다.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풍신(風神)이 수려하고 명랑하였다. 서너 살 때부터 걸어 다닐 때 신발을 꼭 반듯하게 신었고 샛길로 다니지 않았다. 몸 바깥의 물건에는 한결같이 마음을 두지 않았고 오로지 서적(書籍)과 벼루와 먹만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손으로 나물 껍질을 벗길 때 그 속까지 다 벗기고서야 그만두며 말하기를, "생리(生理)의 본말(本末)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9세 때에 복재(腹齋) 기준(奇遵)이 선생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 세자(世子, 인종을 가리킴)의 신하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인종의 타고난 성품이 생지(生知, 배우지 않고서도 사물의 도리에 통달하는 것)인지라, 신하와 백성이 모두 세자의 성스러운 덕을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라서는 항상 의젓하게 말없이 앉아서 점잖게 하늘의 상제(上帝)를 마주하듯 하였고, 강론을 하다가 뜻에 맞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득(自得)함을 기뻐하여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았으니, 그 조예가 이미 깊고도 먼 것이었다. 가정(嘉靖) 신묘년(153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니 나이가 22세 때였다. 그 당시는 당화(黨禍)를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때라 선비들은 학문으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렸다. 선생은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과 더불어 지기(志氣)가 서로 들어맞아 왕래하면서 강론하고 연마하여, 벗끼리 도와가며 학문에 정진하고 수양에 힘쓰는 유익함이 매우 많았다.

경자년(1540)에 과거에 급제하여 괴원(槐院, 승문원)에 소속되었으며,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를 거쳐 박사(博士)로 승진하고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를 겸하였다. 인종이 동궁(東宮)으로 있으면서 덕을 쌓고 성학(聖學)이 나날이 진보하더니 선생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여 은혜로 대우함이 날로 융성하였고, 때로는 직소(直所)에 친히 오셔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차분히 문의하였다. 게다가 특별히 서책(書冊)을 하사하고 또 묵죽(墨竹)을 그려 은미한 뜻을 부치시니, 선생이 시를 지어 사례하였는데, 그 인본(印本)이 세상에서 보물로 여기는 바가 되었다.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가 동궁에서 발생한 화변(火變)으로 인하여 차자(箚子,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를 올려 말하기를, "예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영명(英明)한 인군은 모두 어진 인재를 가까이하고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 왔으니 이는 대개 어진 인재를 가까이해야만 보필에 전념하도록 하여 기질을 잘 기를 수 있고,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아야만 이륜(彝倫,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을 밝혀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번 기묘년의 화에 대해서는 조야에서 모두 억울하고 원통하게 화를 당한 신하들을 가엾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무고(無辜)함을 밝혀서 위로는 전하의 한결같은 의혹을 풀어드리고 아래로는 지하에 묻힌 제신(諸臣)의 울분을 씻어주지는 않고서, 정색을 하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곧장 하찮은 것만 배운 무리로 배척하고 마니, 선비의 풍습이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재변(災變)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여, 학문을 익히고 연마하는 데에서 사건의 기미(幾微)를 연구하고, 본심을 보존하여 기르고 성찰하는 데에서 곡절을 미루어, 본원(本源)을 맑게 하고 표리(表裏)를 다 같이 진실하게 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움과 거짓됨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삿됨과 바름을 판별하기가 어렵지 않고 옳음과 그름을 판정할 수가 있어서, 이미 부박(浮薄)해진 선비의 풍습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이미 해이해진 기강을 진작시킬 수가 있으니, 쇠퇴한 교화(敎化)와 무너진 풍속을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말의 뜻이 매우 간절하였다.

이로부터 중종이 정암(靜菴, 조광조)을 비롯한 제현(諸賢)의 원통함을 더욱 알게 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뜻을 자못 보였다. 그 후에 신원(伸寃)을 청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 마침내 인종이 즉위한 다음 신원해 주라는 명령을 통쾌하게 내렸으니, 선생이 대개 그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부모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가서는 백성의 실정에 맞는 정사를 펼쳐 한 고을이 혜택을 입었다.

이듬해 을사년(1545)에 조사(詔使) 장승헌(張承憲)이 도착하자, 선생을 제술관(製述官)으로 불렀다. 당시 인종이 막 즉위한 때라 시의(時議)가 한결같이 선생을 조정에 머물게 하여 새 정치를 보필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시사(時事)를 돌아봄에 우려할 만한 것이 있어 선생은 부모의 병환을 이유로 사양하고 임지로 돌아왔다. 그해 7월에 임금이 갑자기 승하함에 선생은 부음(訃音)을 듣고 놀라고 절통하여 거의 까무러쳤다가 소생했다. 그 길로 곧장 신병(身病)을 들어 현감의 직임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로 무릇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잇달아 부모상을 당하여 마음을 다하고 의식(儀式) 치르기를 극진히 하였으며, 상복(喪服)의 제도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예경(禮經)을 따랐다. 상을 마친 뒤에 교리(校理)에 제수되어 부름을 받았으나 전문(箋文)을 올려 사양하였다. 명종(明宗)이 군신(君臣)의 대의를 들어 유시하였으나 선생은 질병 때문에 나아가기 어려운 정상(情狀)을 극력 진달하고 아울러 하사하신 먹을거리와 물건까지 사양하였다.

경신년(1560) 봄에 갑자기 병이 났는데 마침 정월 대보름이었다. 집안사람에게 시식(時食, 시절에 알맞은 음식)을 갖추어 가묘(家廟)에 올리게 하고, 일을 마치자 유언하길 옥과 현감 이후의 관작(官爵)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다. 마침내 이튿날 경오일에 향년 5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부음을 듣고 상이 놀라고 슬퍼하여 특별히 부의(賻儀)를 내렸다.

선생은 천품이 청명하고 온화하고 순수하며 가슴속이 쇄락(灑洛)하여 사람들이 맑은 물에 피어난 연꽃으로 여겼으며, 뜻을 세우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이치를 궁리하고 경(敬)을 주로 삼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변(分辨)하는 공력을 쌓았으니, 그 깊은 조예는 남들이 헤아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대체로 선생은 처음 김모재(金慕齋)를 좇아 『소학(小學)』을 배워 공력을 기울임이 가장 깊었고, 『대학(大學)』에 있어서는 올연(兀然)히 단정하게 앉아 천 번 넘게 읽었는가 하면 반복해서 읽고 실마리를 찾아내어 터득할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비록 문인 제자들에게 수업할 때에도 일찍이 이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대학』 한 부(部) 안에는 체용(體用)이 구비되어 있고

조리(條理)가 문란하지 않다. 이것을 놓아두고서는 도(道)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 책을 읽지 않고 다른 경전(經傳)을 읽고자 하는 것은 마치 집터를 닦지도 않고 방부터 먼저 들이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책을 읽고 나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자는 진실한 소득이 필시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글자마다 연구하고 궁리하며 구절마다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다면 반드시 사리를 꿰뚫어 환히 알지 못한 곳이 있을 것이다. 만약 장구(章句)에서 환히 알지 못했다면 『혹문(或問)』을 참조하고 『혹문』에 환히 알지 못할 것이 있으면 제가(諸家)의 설(說)을 참조하기를 오랫동안 하다보면 반드시 얼음이 풀리는 것 같은 공효(功效)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논어(論語)』·『맹자(孟子)』·『시경(詩經)』·『역경(易經)』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해 본 다음에 말하기를, "득력(得力)하는 데는 『논어』·『맹자』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또 일찍이 말하기를, "『태극도설(太極圖說)』은 의리(義理)가 정밀하고 깊고, 서명(西銘)의 규모는 광대하여 하나라도 폐지할 수가 없으니, 항상 음미하고 사색하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 본심을 보존하고 지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경(敬)에 한결같이 마음을 두고 주재(主宰)로 삼아 일상생활을 하는 사이에 의젓하고 숙연하여 말하는 기운이 안정되고, 보고 듣는 것이 단정하고 바르며, 겉모습과 속마음이 틈이 없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한결같으며, 정(情)과 뜻이 발로되는 데에서는 먼저 기미를 보고 알아차리고, 사물을 접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의리로 헤아려 선(善)과 이익, 공(公)과 사(私)의 구분에 더욱 신중하였다.

성명(性命)과 음양(陰陽)의 묘(妙)에서 인륜과 효제(孝悌)의 실제에 이르기까지 한 몸에 체득하여 지니고 본말을 구비하여, 대중지정(大中至正)한 도리에 뛰어났다. 그러므로 학문을 함에 있어 독행(篤行)에 오로지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앎'에 밝지 못함이 있으면 '행동'에 반드시 막히는 것이 있다고 말해 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오로지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실이 정돈되지 못하면 마음이 반드시 태만해진다고 말해 주었다. 또 일찍이 학문이란 앎과 행동이 아울러 진전되고 마음과 행실이 함께 닦여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가(諸家)의 합당하지 못한 설을 증명하고 정정하는 데에는 털끝만 한 것도 반드시 분변하였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에 대해서는 돈오(頓悟)의 첩경(捷徑)으로 잘못 흘러들 것을 우려하였고, 일재(一齋, 이항(李恒))에 대해서는 도(道, 리(理)))와 기(器, 기(氣))를 혼동하여 한가지로 본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논함에 있어서는 나씨(羅氏, 명나라의 학자 나흠순(羅欽順))의 체용설(體用說)을 비판하였고,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이기호발론(理氣互發論)에 대해서는 고봉(高峰) 기선생(奇先生)이 깊이 의심을 하였는데 선생에게 질문하여 패연히 막힌 바가 없어졌고, 이선생과 논변한 것이 수만 글자에 이르렀으니, 세상에 전해지는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편지가 바로 이것이다.

대개 선생은 도리에 환하게 트여 의혹됨이 없어서 묻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마치 소매 속에서 꺼내 주는 것같이 하되 곡진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퇴계의 정밀함으로도 미

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여러 번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선생의 견해를 따랐으며, 문원공(文元公) 김선생(金先生, 김장생(金長生))도 선생의 학설로써 예서(禮書)를 고증한 것이 많이 있었다. 선생의 의논은 신기한 것에 현혹되거나 한계 속에 갇혀 어지럽지 않고 평정(平正)하고 명백(明白)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쳐부수려 해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찍이 도를 안다고 자처하지 않고, 항상 부족함이 있는 듯이 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 두 사람이 있으니, 공자는 원기요 주자는 진기로다."라고 하였으니, 선생이 품은 지취(志趣)의 대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선생은 젊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뜻이 있었다. 김안로(金安老)가 복주(伏誅)되고 난 후에 김모재(金慕齋, 김안국(金安國)), 이회재(李晦齋, 이언적(李彦迪)) 등 여러 선생이 차츰 나아가 등용되었으나 선생은 홀로 기미를 알아차리고 곧장 물러날 뜻을 두었다.

인종이 승하함에 미쳐서는 놀라서 부르짖기를 곧 숨이 끊어질 듯이 하여 살려는 뜻이 없는 것처럼 하였다. 문을 닫아걸고 집 안에 들어앉아 인간사를 끊어버렸으며, 죽은 자를 보내고 산자를 섬기려는 뜻도 도통 없었다. 매년 7월 1일이 되면 선뜻 집 남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들어가 통곡하다가 밤을 지새고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당시에 감히 인종이 승하한 까닭을 물을 수가 없어 다만 마음으로만 애통해할 뿐이었고 언어로 나타낸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끝내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 일찍이 '생각한 바가 있어(有所思)', '신생(申生)을 조문하며(弔申生)' 등의 여러 사(詞)를 지었는데, 글에 부친 뜻이 격렬하고, 한 편 중에 그 뜻이 여러 차례 나타나 있어, 읽는 자가 자연히 머리칼이 곤두서고 간담이 찢어지는 듯하지만 끝내 그 지의(旨意)의 소재는 헤아릴 수 없다.

고금의 역사를 열람하다가 간신(奸臣)이 화(禍)를 꾸며내어 군부(君父)로 하여금 그 화에 걸려들게 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강개해하면서 자신이 직접 당한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었으니, 무릇 한마음으로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가 조화된 묘리(妙理)를 머금고 일신(一身)으로 만세토록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할 중임을 맡았음을 끝내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윤리를 바르게 세우고 은의(恩義)를 독실히 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집안이 화순(和順)하고 화목하면서도 엄정(嚴正)하여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마치 잘 다스려지는 조정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술을 마셔 조금 취하면 연이어 시를 읊조렸는데 음조가 우렁차고 툭트여 사람들로 하여금 씩씩하면서도 화목한 기운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한가한 날에는 관(冠)을 쓴 어른과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 이리저리 거닐면서 제생(諸生)에게 일러 말하기를, "배우는 자는 때때로 '기수(沂水)와 정초(庭草)의 기상(氣像)'[1]을 몸으로 깊이 체득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

1 기수(沂水)……기상(氣像) : 옛날에 증점(曾點)이 "나는 늦은 봄에 봄옷으로 갈아입고 성인(成人) 5~6명, 소년 6~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쐰 다음, 시가(詩歌)를 읊으면서 돌아오겠다."라고 흉금을 밝힌 말과 송나라 주돈이(周敦頤)가 인품이 청고(淸高)하고 흉금이 쇄락(灑落)하여 뜰에 가득한 풀을 베어내지 않으면서 "저 풀의 생생(生生)하는 의사(意思)도 나의 것과 같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조금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후학으로서 선생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접한 자들은 마치 봄바람을 쐬고 경사로운 구름을 보는 듯하였다.

그 저술(著述)은 풍아(風雅)를 근본으로 하고, 소선(騷選)[2]·이두(李杜,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를 참고로 하였다. 무릇 사물에 접촉하여 감동하는 바가 있을 적에는 한결같이 시를 지어 나타내되, 청정(淸淨)하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절실하면서도 급박하지 않고 격절(激切)하지 않고 즐거우면서도 어지러운 데에 이르지 않고 근심스러우면서도 슬퍼서 상처를 받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성정(性情)을 다스리고 도덕을 함양한 때문이다.

그 소장(疏章)은 조리가 분명하고 밝으며 법도에 맞고 단정하였으며 반드시 의(義)를 중요하게 여겼으니, 참으로 인의(仁義)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문집(文集) 약간 편(編)이 세상에 전해지며, 『주역(周易)』 관상편(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등 여러 저작은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선생은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약(醫藥), 점서(占筮), 산수(算數), 율력(律曆)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필법(筆法)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 곱고 아름답게 보이려는 태가 전혀 없었으니, 이른바 덕성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부인 윤씨(尹氏)는 현감 임형(任衡)의 따님이다. 아들은 둘인데 종룡(從龍)과 종호(從虎)이고, 사위는 셋인데 조희문(趙希文), 양자징(梁子徵), 류경렴(柳景濂)이다. 종룡의 아들 중총(仲聰)은 참봉(參奉)인데 후사가 없고, 종호는 찰방(察訪)으로 아들 남중(南重)을 두었으며, 남중의 아들은 형복(亨福), 형록(亨祿), 형우(亨祐), 형지(亨祉)이다. 두 사위는 이규명(李奎明), 기진발(奇震發)이다. 형복의 아들은 창하(昌夏)·태하(泰夏)이고, 형우의 아들은 기하(器夏)이며, 형지의 아들은 명하(鳴夏)·대하(大夏)이고, 형우에게 후사로 나간 아들은 중남(仲男)이다. 창하의 아들은 익서(翼瑞)·두서(斗瑞)·시서(時瑞)이고, 태하의 아들은 천서(天瑞)·지서(地瑞)·원서(元瑞)이며, 명하의 아들은 치서(致瑞)이다. 이규명의 아들은 일지(逸之)·실지(實之)·필지(苾之)·밀지(密之)·길지(佶之)이고, 기진발의 아들은 정연(挺然)·정지(挺之)·정한(挺漢)인데, 내외 증현손(曾玄孫) 약간 명은 문장과 행실로 서로 뛰어나다.

그해 3월 계유일에 장성 고을 서쪽 원당산(願堂山) 선영의 남향 언덕에 장사 지냈고, 문인들이 서원을 세워 향사(享祀)하였다. 숭정(崇禎) 임인년(1662)에 현종대왕(顯宗大王)이 '필암(筆巖)'이라는 편액을 내리고 다시 명하여 이조판서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에 추증(追贈)하고 문정(文靖)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시법(諡法)에 '도덕이 널리 알려진 것을 문(文)이라 하고, 너그럽고 화락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정(靖)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아! 성스러운 조정의 융숭한 보답이 여기에 이르러 아무런 유감이 없다.

대개 우리 해동(海東)이 은사(殷師, 은(殷)나라의 기자(箕子)를 가리킴)의 세대와 멀어진 이후로

---

2 소선(騷選) : 굴원(屈原)이 지은 『이소경(離騷經)』의 문체(文體)를 후인(後人)이 본받아 소체(騷體)라 하고, 『문선(文選)』에 뽑힌 시체(詩體)를 후인이 본받아 선체(選體)라 한다.

성학(聖學)이 밝지 못하였는데, 우리 중종·명종 대에 이르러 정치와 교화가 융성하여 모두가 낙민(洛閩, 송나라의 성리학자인 정자(程子) 형제와 주자(朱子)를 가리킴)으로 준칙(準則)을 삼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도기위미설(道器危微說)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혹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선생은 홀로 대의를 간파하고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하여 곧장 바른 맥을 찾아냈다.

또한 본조(本朝)의 으뜸가는 유학자와 명망있는 현인들이 종종 바른 도리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기에 몸을 바쳐 이리저리 주선하여 사직을 부지하고 사림(士林)을 구하려 하다가 목숨까지 잃고 말았는데, 선생은 스스로 은미함[微]과 드러남[彰]을 알아 세상을 등지고서 후회 없이 살다가 세상을 마쳤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 밝은 지혜와 통달한 식견이 어지러운 사물 밖을 초월하였고, 깊은 조예와 두터운 덕이 정밀하고 정대(正大)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 맑은 풍모와 큰 절개는 천지를 진동시켜 욕심 많은 사람이 청렴해지고 겁 많은 자가 스스로 일어서게 되었으니, 백세(百世)의 스승이라 하여도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실로 도학(道學)이 바른 데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란 도를 알지 못해서는 아니 되며, 도를 알려고 한다면 학문을 버리고서야 어찌하겠는가? 세상에서 한갓 절의(節義)로만 선생을 논하는 것은 일부만 보고서 안다고 여기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達道有五　　달도(達道, 공통된 도)가 다섯 있으니,
君臣父子　　군신(君臣) 부자(父子),
此其大經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
欲盡其理　　그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盍究聖經　　어찌 성경(聖經)에서 구하지 않으리오.
有知有行　　지(知)가 있고 행(行)이 있는데,
學問之道　　학문의 도가,
亶在於是　　진실로 여기에 있으니,
捨是曷程　　이를 두고 어디로 가리오.
於惟先生　　아! 선생께서는,
天賦之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특이하고,
質粹氣淸　　기질은 맑고 순수하며,
志豪力雄　　뜻과 힘은 크고 굳세고,
勇邁終古　　용감하게 옛것에 매진하여
廣大高明　　광대하고 고명(高明)하였네.
旣極羣言　　여러 학설을 이미 다 궁구하고,
反以約之　　돌이키고 요약하였으니,
允矣集成　　진실로 집대성(集大成)함이여.

君臣之義　　군신(君臣)의 의(義)와,
父子之仁　　부자(父子)의 인(仁)이,
各得其貞　　각기 그 바른 것을 얻었고,
其所及人　　사람에게 미친 교화가,
沛然旁達　　사방에 두루 퍼져,
式圍式型　　모범으로 삼았다네.
世道人文　　세도(世道)와 인문(人文)과,
天秩民彝　　천륜과 인륜이,
炳如日星　　해와 별처럼 밝으니,
循古訖今　　예로부터 지금까지,
計功論德　　그 공덕을 논한다면,
孰與先生　　누가 선생에 겨룰 수 있으리오.
聖朝褒崇　　성조(聖朝)의 융숭한 기림과,
多士尊慕　　많은 선비가 존경하고 사모함이,
岱宗魁衡　　태산과 같고 북두와 같다네.
願堂之陽　　원당산 남쪽에,
銘此豐碑　　이 비석을 세우니,
維千萬齡　　천만년 전해지리.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 후학(後學)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짓고,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 겸 지경연사(知中樞府事兼知經筵事) 이재(李縡)가 글씨를 썼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진상(金鎭商)이 전서(篆書)를 쓰다.

숭정 기원후 재임술년에 세우다.

2. 장성 송흠(宋欽) 신도비

•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609-1(천방)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제100호(2008.9.19.)
• 제작연대 1781년(撰銘後九十九年辛丑) • 크　기 전체높이 230, 비신높이 134.5, 너비 58, 두께 25.5

내계리 천방마을 앞 옛 도롯가의 관수정(觀水亭,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입구에 세워진 지지당(知止堂) 송흠(宋欽, 1459~1547)의 신도비는 사각 비좌에 위가 넓고 두꺼운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비좌의 사면에는 초화문을 새기고 상면에는 연판문을 새겼으며, 석제 난간을 둘렀다. 비문은 윤증(尹拯, 1629~1714)이 1683년에 짓고, 글씨는 윤추(尹推, 1632~1707)가 썼는데, 비문이 지어진 지 99년 후인 1781년에 비를 세웠다. 비문의 순서가 특이한데, 전액을 비제로 삼은 듯 하지만 전액아래에 글을 지은 사람, 글씨를 쓴 사람, 글을 지은 시기, 송흠이 시호를 받은 시기, 비제, 序와 銘, 건립시기를 쓰고 있어 비제의 위치가 특이하다.[3]

송흠 신도비는 윤증의 문집인『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권41에 <判中樞府事宋公神道碑銘>이란 제목으로, 송흠의 문집인『지지당유고(知止堂遺稿)』제4에 <判中樞府事兼世子貳師宋公墓碣銘>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내용은 같다. 다만 몇 글자의 출입만 있을 뿐이니,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행	비문	『지지당유고(知止堂遺稿)』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9	禮曺正郎	禮曺正郎	幽谷察訪
11	玉堂爲正字	玉堂爲正字	槐院
12	復	復	없음
12	著作召還歷博士	著作召還歷博士	正字召還歷著作
15	擔	甔	甔
16	素著	表著	素著
20	盡禮	盡禮	盡制
20	不以老懈	不以老懈	虔執祀事 앞에 들어감
30	盖具於此	盖具於此	蓋身於此
33	金河西麟厚	金河西麟厚	없음
37	憬有五男惺無後	憬與惺無後	憬與惺無後

송흠의 자는 흠지(欽之), 호는 지지당·관수정,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참판 송구(宋龜)이고, 할아버지는 예조좌랑 송처은(宋處殷)이며, 아버지는 문소전참봉 송가원(宋可元)이

3 비제의 위치가 특이한 경우는 보물로 지정된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도 있다. 비제를 첫줄과 마지막 줄에 나누어 썼다. 비신 상부에 전서로 '統制李公水軍大捷碑'라 쓰고, 아래 첫줄에 '有明朝鮮國正憲大夫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忠淸全羅慶尙三道水軍統制使 贈効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德豊府院君諡忠武'라 쓴 후, 撰者, 書者, 篆者, 序와 銘, 건립시기를 마치고, 마지막 줄에 '李公水軍大捷碑銘幷序'라 하여 비제의 남은 부문을 썼다. 즉 비제를 첫줄과 마지막 줄에 나누어 쓴 것이다. 글씨를 쓴 사람이 이렇게 하였을 이유가 없으므로 刻字할 때 위치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국가유산청·불교중앙박물관,『2020 금석문 탁본 조사보고서』, 2020, 368~371쪽 참조)

다. 어머니는 생원 정필주(鄭弼周)의 딸이다. 1480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492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있다가 연산군의 포악한 정치로 물러난 뒤 후진 교육에 힘썼다. 1516년 홍문관정자로 복직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고, 1528년에는 담양부사, 1531년에는 장흥 부사를 지내고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전주 부윤으로 전임, 뒤에 광주목사·나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가는 곳마다 청렴하기로 소문이 나서 상을 받았다. 1534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노모를 위해 왕의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기묘사화 뒤에는 한때 시냇가에 정자를 짓고 '관수정'이라는 액자를 걸어서 자기의 뜻을 붙였다. 1696년(숙종 22)에 효헌(孝憲)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영광(현재 장성 수옥리)의 수강사(壽岡祠)에 배향하였다. 비문은 40행 37자이다.

[두전] 判中樞府事孝憲公知止堂宋先生神道碑銘

【전면】

坡平尹拯撰

通訓大夫行金堤郡守尹推書

崇禎紀元後五十六年癸亥月日 後十四歲丙子七月 贈諡大提學朴泰尙撰諡狀

有明朝鮮國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 世子貳師孝憲公知止堂宋先生神道碑銘 我 中宗朝湖南森溪縣有賢大夫宋公諱欽字欽之事母孝居官淸位登崇班年踰大耋而終今距公卒之歲 嘉靖丁未適一百三十有七載矣公之七世孫命賢以其親命來示公事蹟一通圖所以表其墓者拯謹受而閱之遂爲之竊歎曰公之名德之盛如此而尙無數尺之碣豈後裔之貧卽公淸白之所遺也謹按公之先新平人高祖玄德判司宰監事曾祖龜 贈兵曺參判祖處殷禮曺正郎 贈禮曺判書考可元文昭殿叅奉 贈右贊成妣河東鄭氏生員弼周之女公以 天順三年己卯三月十三日生 成化庚子登司馬 弘治壬子釋褐入玉堂爲正字値燕山昏朝退處丘園以訓誨後進講論經籍自娛壬戌丁外憂服闋除南原敎授 中廟改玉復以弘文館著作召還歷博士修撰司諫院正言獻納兵曺正郎全羅都事司憲府持平爲母夫人年高乞外連補寶城沃川郡守順天府使礪山郡守又入爲司憲府掌令諸寺正議政府舍人 嘉靖甲申陞通政拜全州府尹移拜光州羅州牧使戊子入爲承政院承旨己丑又出爲潭陽府使在邑奉母之外妻孥僕妾僅免飢寒遞歸之日家無擔石所至輒以廉謹有表

【좌면】

裡之 賜前後七承 玉音所以褒寵之者甚備壬辰 中廟令政府選啓廷臣淸節素著至老不變者以叅贊趙元紀及公應命 命陞元紀崇政公嘉善移長興府使 特下諭奬之甲午拜全羅監司時母夫人壽九十九歲公上疏陳情乞歸侍養 下諭曰方面任重不可輕遞而爲養懇辭特允所請公時年亦七十七矣歸家孝奉不離母側寒暑不脫冠帶膳飮必嘗而後進母夫人百有一歲而終守喪盡禮虔執祀事不替朔望至於先祖忌辰必叅不以老懈國人稱之戊戌

【후면】

拜漢城府左尹特陞資憲歷拜吏兵曺判書累度上章以老乞退 上允之而令本道優給食物辛丑特拜議政府左參賛公感激 宸眷詣闕肅謝旋卽乞骸 上賜酒於慶會樓南門又令本道給米豆四十斛公奉箋以謝肩輿出都三公以下傾城餞于江頭故事政府堂上非得 旨不得出城是日三公令舍人詣政院啓稟 上許之亦 異數也贊成金安國叅贊權撥刑判柳仁淑舍人宋獜壽金魯檢詳羅湫諸公皆會其餘皆一時勝流也有公自述記行一錄癸卯又特陞崇政拜判中樞府事兼知經筵時宋圭庵獜壽按節本道就公別業構一亭名之曰耆英會十邑牧守設筵以賀之丁未十一月十五日考終于里第壽八十有九明年戊申正月禮葬于所居縣船防山坤向之原 上遣禮曺正郎李瑛致祭其文畧曰惟卿性本溫醇行篤簡潔處己無枉裕以學術所履職擧美聞弘多罄悃補闕儀肅鵷列愛日心長屢乞南符樂在養志皓髮班衣竟遯荒野頤神保閑公之平生盖具於此云初安貞愍瑭判銓時請趙文正金沖庵諸人不次擢用而以公及潘碩枰並薦己卯禍後自號知止堂其意可見也居鄉敦尙禮讓砥礪名行出門下爲名流者甚多梁學圃彭孫其一也嘗搆亭臨溪扁曰觀水自爲詩幷序以寓意屬而和者如蘇退休世讓金慕齋安國金河西麟厚林石川億齡李休叟文楗及圭庵公聯爲鉅編炳琅可玩公嘗曰婚姻論財夷虜之道士夫家所甚羞也故子女皆擇寒士之有行者而嫁娶之此尤人所難也夫人河陰奉氏監察寅之女生於辛巳二月二十一日卒於己亥十一月十六日亦葬于船防山丁

【우면】

向之原有四男一女男長益忱 贈兵曹叅議次益憬樂安縣令次益恂叅奉季益惺女適生員鄭宗濩憬有五男惺無後恂有二女今累世而蕃衍者皆長房之下也多不盡載銘曰萊子嬰兒之啼伯起暮夜之知疏傅東門之退潞公洛社之會曠世美事公實兼備自致者人全畀者天于以見 國家之亨嘉奚止公一身之英華吁嗟百祀風韻莫嗣我銘其丘用闡厥幽

撰銘後九十九年辛丑十一月 日立

〈판중추부사 효헌공(孝憲公) 지지당(知止堂) 송선생 신도비명〉

우리 중종조에 호남 삼계현(森溪縣)에 어진 대부 송흠(宋欽) 공이 있었으니, 자는 흠지(欽之)이다.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고 벼슬살이를 청빈하게 하였으며, 지위는 숭반(崇班)에 올랐고 대질(大耋, 80세)을 넘겨 졸하였다. 지금은 공이 졸한 가정(嘉靖) 정미년(1547)으로부터 바로 137년이 되는 해인데, 공의 7세손 명현(命賢)이 그 부친의 명을 받고 와서 공의 사적(事蹟) 한 통을 보여 주며 신도비명을 지어 주기를 청하였다.

내가 삼가 받아 읽어 보고는 마침내 깊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공의 명망과 덕망이 이와 같이 성대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몇 자의 비갈(碑碣)조차 없으니, 이는 바로 공이 남겨 준 청백함으로 인해 후

손이 빈곤해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선조는 신평(新平) 사람으로, 고조 현덕(玄德)은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이고, 증조 귀(龜)는 병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조부 처은(處殷)은 예조정랑으로 예조판서에 증직되었고, 고(考) 가원(可元)은 문소전참봉(文昭殿參奉)으로 우찬성에 증직되었다. 비(妣) 하동정씨(河東鄭氏)는 생원 필주(弼周)의 따님이다.

공은 천순(天順) 3년 기묘년(1459) 3월 13일에 태어나 성화(成化) 경자년(1480)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홍치(弘治) 임자년(1492)에 대과에 급제하여 옥당에 들어가고 정자가 되었다. 연산군의 혼조(昏朝)를 당해서는 고향에 물러나 거처하며 후진을 가르치고 경적(經籍)을 강론하면서 스스로 즐겼다.

임술년(1502)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복제를 마치자 남원교수(南原敎授)에 제수되었다. 중종반정(中宗反正) 뒤에는 홍문관 저작(著作)으로 소환되어 박사(博士), 수찬(修撰), 사간원 정언·헌납, 병조정랑, 전라도사, 사헌부지평을 역임하였다. 모부인의 연세가 높기 때문에 외직을 구하여 보성군수(寶城郡守), 옥천군수(沃川郡守), 순천부사(順天府使), 여산군수(礪山郡守)에 연달아 보임되었다. 또 조정에 들어와 사헌부 장령, 여러 시(寺)의 정(正), 의정부 사인이 되었다.

가정 갑신년(1524)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전주부윤(全州府尹)에 제수되었다가 광주목사(光州牧使), 나주목사에 옮겨 제수되었다. 무자년(1528)에 조정에 들어와 승정원 승지가 되었다.

기축년(1529)에 또 담양부사(潭陽府使)로 나갔는데, 고을에 재임하는 동안 모친을 봉양하는 데 외에는 처자와 첩, 종은 굶주림과 추위만 가까스로 면할 정도였고 체차되어 돌아갈 때에는 집에 한두 섬의 양식도 없었다. 다스리는 곳마다 염근(廉謹)하다는 이유로 표리(表裏)를 하사받고 전후로 7번 성상의 옥음(玉音)을 받았으니, 성상이 포상하고 총애함이 매우 컸다.

임진년(1532)에 중종이 의정부로 하여금 정신(廷臣) 가운데 청절(淸節)한 성품이 평소 드러나고 연로해도 변하지 않은 자를 선발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이에 참찬 조원기(趙元紀)와 공을 선발하여 아뢰니, 조원기는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리고 공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려 장흥부사(長興府使)로 옮겨 제수하도록 명하면서 특별히 유지(諭旨)를 내려 장려하였다.

갑오년(1534)에 전라감사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모부인의 연세가 99세였으므로 공이 상소하여 사정을 진달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모친을 봉양하게 해 주기를 청하니, 유시를 내리기를, "방면(方面)의 직임이 중하니 가볍게 체차할 수 없지만 봉양 때문에 간절히 사직하니 특별히 소청을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공의 당시 나이도 77세였다.

집으로 돌아가 효성을 다해 봉양하여 모친 곁을 떠나지 않고 춥거나 덥거나 의관을 풀지 않았으며 음식물은 반드시 맛을 본 뒤에 올렸다. 모부인이 101세에 임종하니 초상을 예제대로 극진히 치렀고 노쇠하다고 해서 적당히 하지 않았다. 제사도 경건하게 지냈으며 삭망(朔望)을 거르지 않았다. 심지어 조상의 기신(忌辰)에도 반드시 참여하니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무술년(1538)에 한성부 좌윤에 제수되고 특명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에 두루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노쇠하다는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하자 상이 윤허하고 본도로 하여금 음식물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였다.

신축년(1541)에 의정부 우참찬에 특별히 제수되자 공이 성상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궐에 나아가 사은숙배한 다음 곧바로 사직을 청하였다. 이에 상이 경회루(慶會樓) 남문(南門)에서 술을 하사하고 또 본도로 하여금 쌀과 콩 40곡(斛)을 지급하게 하였다. 공이 표전(表箋)을 올려 사례하고 가마를 타고 도성을 나갔는데, 삼공(三公) 이하 온 도성 사람들이 나와 강가에서 전송하였다. 고사(故事)에 의정부 당상은 성상의 비지를 얻지 못하면 도성을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날 삼공이 사인(舍人)을 보내 정원에서 계품하게 하자 상이 윤허하였으니, 이 또한 특별한 대우이다. 찬성 김안국(金安國), 참찬 권벌(權橃), 형조판서 류인숙(柳仁淑), 사인 송인수(宋麟壽)·김로(金魯), 검상(檢詳) 나숙(羅淑) 등 제공이 모두 모였고 그 나머지도 모두 당시의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공이 직접 기술한 기행록(紀行錄)이 남아 있다.

계묘년(1543)에 또 특명으로 숭정대부에 올라 판중추부사 겸 지경연사에 제수되었다. 당시 규암(圭庵) 송인수가 본도의 절도사로 부임하였는데, 공의 별업(別業)에 가서 정자 하나를 지어 '기영정(耆英亭)'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10개 고을의 수령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어 축하해 주었다.

정미년(1547) 11월 15일에 시골집에서 임종하니 나이 89세였다. 이듬해 무신년(1548) 1월에 거처하던 삼계현 선방산(船舫山) 곤향(坤向)의 언덕에 예장하였다. 상이 예조정랑 이영(李瑛)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제문의 대략에, "생각건대 경은 성품이 본래 온순하고, 행실이 독실하며 간결하였다. 처신함에 굽힘이 없고 학술로써 매사에 여유로웠다. 맡은 직임을 잘 거행하여 훌륭한 소문이 매우 많았다. 정성을 다하여 부족한 정사를 보익하고 엄숙한 위의로 조정 반열에 섰다. 어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누차 남쪽 고을 맡기를 청하였다. 즐거움이 뜻을 봉양하는 데 있었으니 호호백발로 색동옷을 입었다. 마침내 황야로 물러나 은둔하며 정신을 함양하고 한적함을 보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공의 평생이 여기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일찍이 정민공(貞愍公) 안당(安瑭)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 충암(冲庵) 김정(金淨) 등 여러 사람을 차서에 관계없이 발탁하여 쓰기를 청하였는데, 공과 반석평(潘碩枰)도 아울러 천거하였다. 기묘년(1519)에 화를 당한 뒤에는 스스로 지지당(知止堂)이라고 호를 지었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고향에 살면서 예양(禮讓)을 돈독히 숭상하고 명행(名行)을 연마하였으므로 문하에서 배출된 명류 인사가 매우 많았으니,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이 그중 한 사람이다. 일찍이 시냇가에 정자를 지어 편액을 '관수(觀水)'라고 써서 걸고 직접 시와 서문을 지어 뜻을 담았다. 뒤이어 화답한 이는 퇴휴(退休) 소세양(蘇世讓),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휴수(休叟)

이문건(李文楗) 및 규암공이었는데, 연구(聯句)로 지어 방대한 작품이 되었으니 밝게 빛나 완상할 만하였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혼인하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리이니 사대부 집에서는 매우 부끄럽게 여길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를 모두 빈한하지만 행실이 있는 선비를 골라 시집보내고 장가들였으니, 이는 더욱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인 하음봉씨(河陰奉氏)는 감찰 인(寅)의 따님이다. 신사년(1461) 2월 21일에 태어나 기해년(1539) 11월 16일에 졸하였으니, 또한 선방산 정향(丁向)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4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 익침(益忱)은 병조참의에 증직되었고, 차남 익경(益憬)은 낙안현령(樂安縣令)을 지냈으며, 삼남 익순(益恂)은 참봉을 지냈고, 막내아들은 익성(益惺)이다. 딸은 생원 정종호(鄭宗濩)에게 시집갔다. 익경과 익성은 자손이 없고 익순은 딸 둘을 두었다. 지금 여러 대를 지나 자손이 번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장남에게서 내려온 자손으로,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萊子嬰兒之啼	노래자는 갓난아이처럼 울었고,
伯起暮夜之知	양백기는 밤중에도 아는 자가 있다고 했으며,
疏傅東門之退	소부는 동문으로 물러나갔고,
潞公洛社之會	노공은 낙양의 모임을 만들었으니,
曠世美事	세상에 드문 미담인데,
公實兼備	공이 실로 겸비하였네.
自致者人	스스로 성취하는 것은 사람이고,
全畀者天	온전히 부여하는 것은 하늘이라,
于以見國家之亨嘉	여기에서 나라의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보게 되었으니,
奚止公一身之英華	어찌 공 한 몸의 영화에 그치겠는가.
吁嗟百祀	아, 백년이 지나도록,
風韻莫嗣	풍모와 운치를 이을 이 없네.
我銘其丘	내 그 무덤에 명을 지어,
用闡厥幽	그 숨은 덕을 천명하노라.

숭정 기원후 56년인 계해년(1683)에 파평인 윤증(尹拯)이 짓고, 통훈대부 행 김제군수 윤추(尹推)가 글씨를 쓰다. 14년 뒤 병자년(1696) 7월에 증시(贈諡)가 되어 대제학 박태상(朴泰尙)이 시장(諡狀)을 찬술하였다.

신도비명을 찬술한 후 99년만인 신축년(1781) 11월에 세우다.

3. 장성 고경명(高敬命)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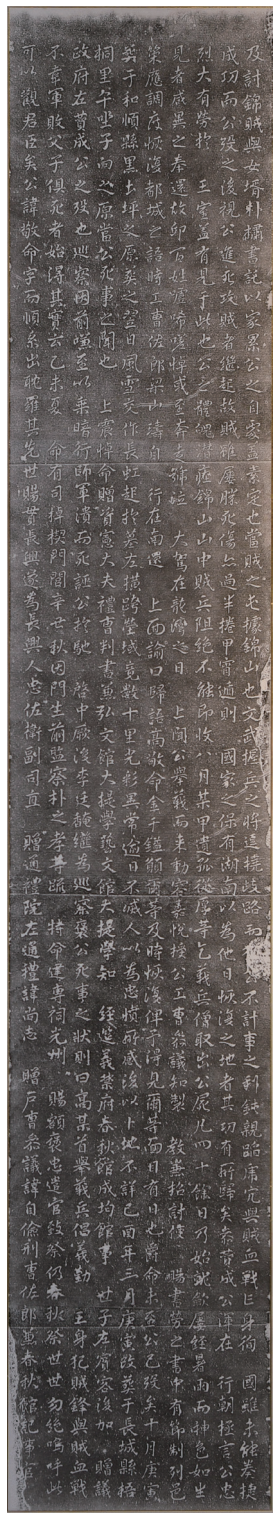
•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30-2(오동)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241호(2008.9.19.)
• 제작연대 미상(1805년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353, 비신높이 238, 너비 88.5, 두께 40

장성읍 영천리 오동마을에 세워진 고경명 신도비는 현재 비각 안에 들어있다. 1800년대 초반에 세워졌으며, 귀부형 대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얹었다. 비각은 2016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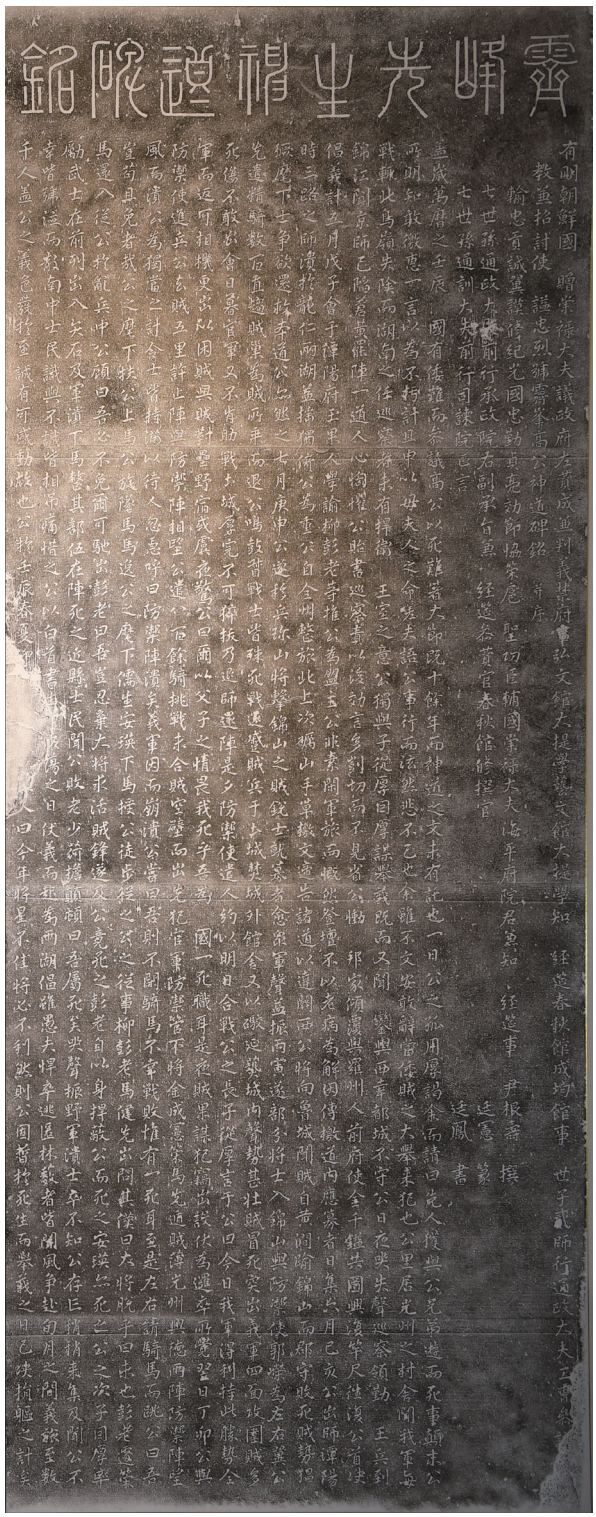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峯)·태헌(苔軒)·태사(苔槎), 본관은 장흥(長興),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金千鎰)·박광옥과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여러 마을에 격문을 돌려 6,000여 명의 의병을 담양에 모아 진용을 편성했다. 금산에서 왜적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아들 고인후(高因厚, 1561~1592), 유팽로(柳彭老)·안영(安瑛) 등과 순절했다. 비석의 글씨는 광주 포충사에 걸려있는 탁본자료를 이용했으며, 결락된 부분(파란색)은 문집 내용을 참조하여 채워넣었다.

비문(碑文)은 윤근수(尹根壽, 1537~1616)가 지었고, 글씨는 고정봉(高廷鳳)이 썼으며, 전서(篆書)는 고정헌(高廷憲)이 썼다. 비문은 윤근수의 문집 『월정집(月汀集)』에 실린 내용과 같은데, 다만 8행의 39번째자 '鑾輿'가 '乘輿'로 쓰여있거나 11행의 45번째자 '魯城'이 '尼山'으로 쓰였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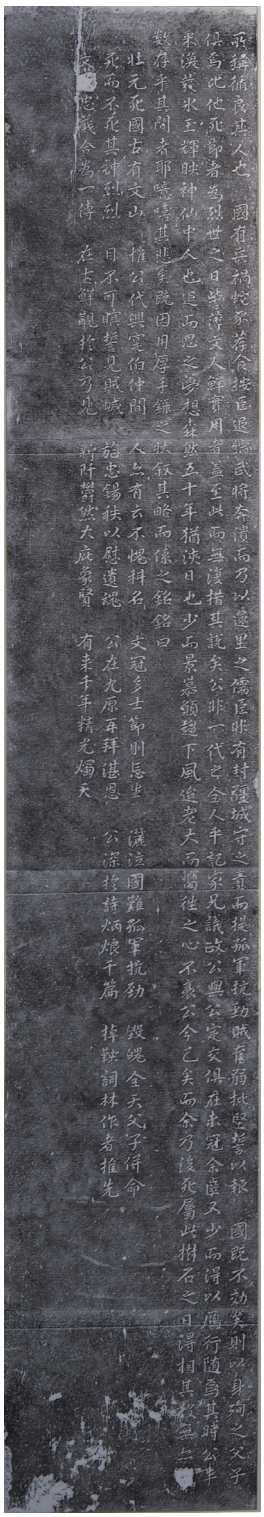
고경명신도비 탁본자료(포충사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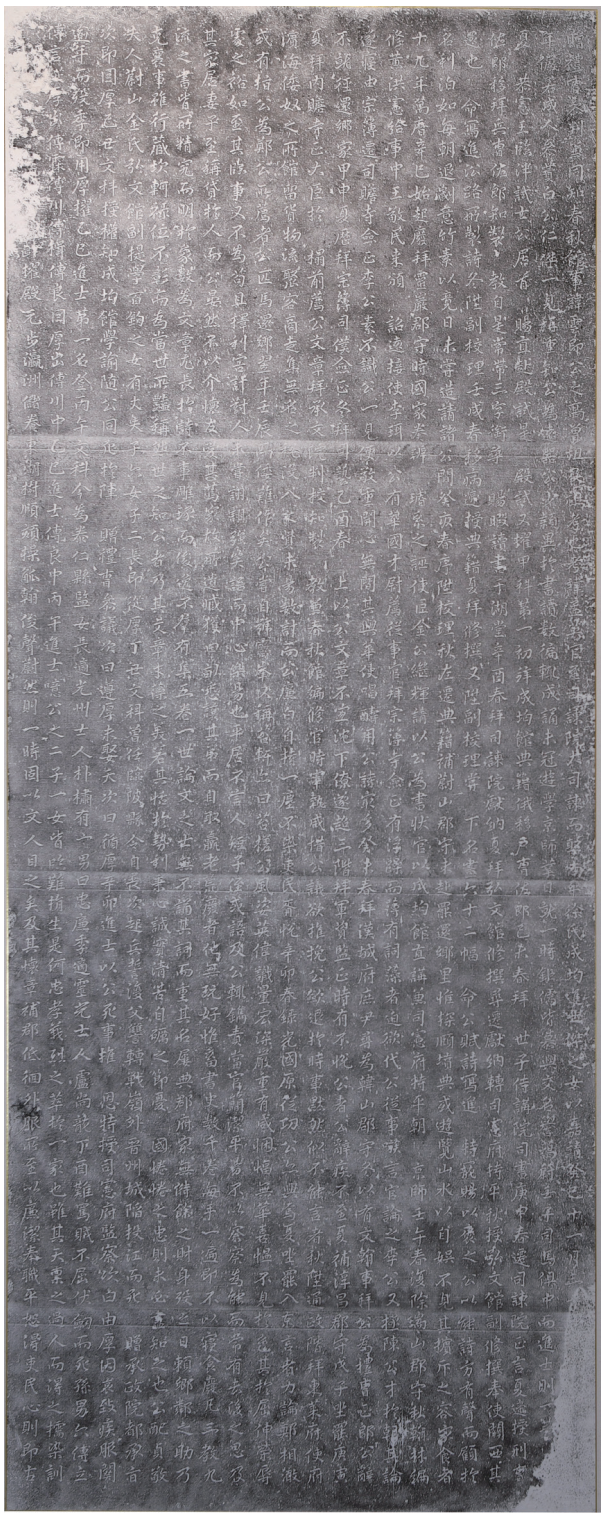
〈좌면〉



〈전면〉



〈우면〉



〈후면〉

하는 것 등이 다를 뿐이다. 비문은 61행 67자이다.

【전면】

[두전] 霽峰先生神道碑銘

有明朝鮮國 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 世子貳師行通政大夫工曹參議知製

敎兼招討使 諡忠烈號霽峯高公神道碑銘 幷序

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海平府院君兼知 經筵事 尹根壽 撰

七世孫通政大夫前行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廷憲 篆

七世孫通訓大夫前行司諫院正言 廷鳳 書

蓋歲萬曆之壬辰 國有倭難而參議高公以死難著大節旣十餘年而神道之文未有托也一日公之孤用厚謁余而請曰先人獲與公兄弟遊而死事顚末公

所明知敢徼惠一言以爲不朽計且申以母夫人之命嗟夫語公事行而泫然悲不已也余雖不文安敢辭當倭賊之大擧來犯也公里居光州之村舍聞我軍每

戰輒北鳥嶺失險而湖南之任巡察者未有捍衛 王室之意公獨與子從厚因厚謀擧義旣而又聞鑾輿西幸都城不守公日夜哭失聲巡察領勤 王兵到

錦江聞京師已陷蒼黃罷陣一道人心洶懼公貽書巡察責以後效言多剴切而不見省公慟 邦家傾覆與羅州人前府使金千鎰共圖興復竿尺往復公首決

倡義計五月戊子會于潭陽府玉果人學諭柳彭老等推公爲盟主公非素閑軍旅而慨然登壇不以老病爲解因傳檄道內應募者日集六月己亥公出師潭陽

時三路之師潰於龍仁兩湖益搖獨倚公爲重公自全州整旅北上次礪山手草檄文遞告諸道以達關西公將向魯城聞賊自黃澗踰錦山而郡守敗死賊勢猖

獗麾下士爭欲還救本道公亦然之七月庚申公遂移兵珍山將擊錦山之賊銳士就募者愈衆軍聲益振丙寅遂部分將士入錦山與防禦使郭嶸爲左右翼公

先遣精騎數百直趨賊巢爲賊所乘而退公鳴鼓督戰士皆殊死戰還蹙賊兵于土城焚城外館舍又以礮延燕城內聲勢甚壯賊冒死突出義軍四面攻圍賊多

死傷不敢出會日暮官軍又不肯助戰土城厚完不可猝拔乃退師還陣是夕防禦使遣人約以明日合戰公之長子從厚言于公曰今日我軍得利持此勝勢全

軍而返可相機更出以困賊與賊對壘野宿或虞夜驚公曰爾以父子之情畏我死乎吾爲 國一死職耳是夜賊果謀犯竊出設伏爲邏卒所覺翌日丁卯公與

防禦使進兵公去賊五里許止陣與防禦陣相望公遣八百餘騎挑戰未合賊空壁而出先犯官軍防

禦管下將金成憲策馬先遁賊薄光州興德兩陣防禦陣望
風而潰公爲獨當之計令士皆持滿以待人忽急呼曰防禦陣潰矣義軍因而崩潰公嘗曰吾則不閑
騎馬不幸戰敗惟有一死耳至是左右請騎馬而跳公曰吾
豈苟且免者哉公之麾下扶公上馬公旋墜馬馬逸公之麾下儒生安瑛下馬授公徒步從之公之從
事柳彭老馬健先出問其僕曰大將脫乎曰未也彭老遽策
馬還入從公於亂兵中公顧曰吾必不免爾可馳出彭老曰吾豈忍棄大將求活賊鋒遂及公竟死之
彭老自以身捍蔽公而死之安瑛亦死之公之次子因厚率
勵武士在前列出入矢石及軍潰下馬整其部伍在陣死之近縣士民聞公敗老少荷擔顚頓曰吾屬
死矣哭聲振野軍潰士卒不知公存亡稍稍來集及聞公不
幸皆號泣而散南中士民識與不識皆相弔痛惜之公以白首書生當板蕩之日仗義而起爲兩湖倡
雖愚夫悍卒逃匿林藪者皆聞風爭赴旬月之間義旅至數
千人蓋公之義色發於至誠有可感動故也公於壬辰春夏仰觀天象語一家人曰今年將星不佳將
必不利然則公固晳於死生而擧義之日已決捐軀之計矣

【좌면】

及討錦賊與女壻朴櫹書託以家累公之自處蓋素定也當賊之屯據錦山也文武握兵之將逗撓岐
路而獨公不計事之利鈍親蹈虎穴與賊血戰亡身徇 國雖未能奏捷
成功而公歿之後視公進死攻賊者繼起故賊雖屢勝死傷亦過半捲甲宵遁則 國家之保有湖南
以爲他日恢復之地者其功有所歸矣參贊成公渾在 行朝極言公忠
烈大有勞於 王室蓋有見于此也公之體魄潛瘞錦山山中賊兵阻絶不能卽收八月某甲遣孤從厚
等乞義兵僧取出公屍凡四十餘日乃始就斂累經暑雨而神色如生
見者咸異之奉還故丘百姓噓唏嗟悼或至奔走號泣 大駕在龍灣之日 上聞公擧義而來動容嘉
悅授公工曹參議知製 敎兼招討使 賜書勞之書中有節制列邑
策應調度恢復都城之語時工曹佐郎梁山璹自 行在南還 上面諭曰歸語高敬命金千鎰願爾等
及時恢復俾予得見爾等面目有日也爵命未至公已沒矣十月庚寅
葬于和順縣黑土坪之原葬之翌日風雪交作長虹起於墓左橫跨塋域竟數十里光彩異常逾日不
滅人以爲忠憤所感後以卜地不詳己酉年三月庚寅改葬于長城縣梧
桐里午坐子向之原當公死事之聞也 上震悼命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
提學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賓客後加 贈議
政府左贊成公之歿也巡察因前嗛至以乘暗行師軍潰而死誣公於馳 啓中厥後李廷馣繼爲巡察
褒公死事之狀則曰高某首擧義兵倡義勤 王身犯賊鋒與賊血戰
不幸軍敗父子俱死者始得其實云乙未夏 命有司棹楔門閭辛丑秋因門生前監察朴之孝等疏
特命建專祠光州 賜額褒忠遣官致祭仍春秋祭世世勿絶嗚呼此

可以觀君臣矣公諱敬命字而順系出耽羅其先世賜貫長興遂爲長興人忠佐衛副司直 贈通禮院左通禮諱尙志 贈戶曹參議諱自儉刑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

【후면】

贈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諱雲卽公之高曾祖及祖考也考諱孟英官至司諫院大司諫而娶南平徐氏成均進士傑之女以嘉靖癸巳十一月三十日戊辰生公公自髫
年儼若成人參贊白公仁傑一見稱重知公爲遠器公少穎異於書讀數遍輒成誦未冠遊學京師業日就一時鉅儒皆慕與交名譽藹蔚壬子司馬俱中進士則一等戊午
夏 恭憲王臨泮試士公居首 賜直赴殿試是 殿試又擢甲科第一初拜成均館典籍俄移戶曹佐郎己未春拜 世子侍講院司書庚申春遷司諫院正言夏遞授刑曹
佐郎移拜兵曹佐郎知製 敎自是常帶三字銜尋 賜暇讀書于湖堂辛酉春拜司諫院獻納夏拜弘文館修撰尋遷獻納轉司憲府持平秋授弘文館副修撰奉使關西其
還也 命寫進沿路所製詩冬陞副校理壬戌春移病遞授典籍夏拜修撰又陞副校理嘗 下名畫六十二幅 命公賦詩寫進 特寵賜以褒之公以能詩方有聲而顧於
名利泊如每朝退劇意竹素以竟日未嘗造請諸公間癸亥春序陞校理秋左遷典籍補蔚山郡守未赴罷還鄉里唯探頤墳典或遊覽山水以自娛不見其擯斥之容家食者
十九年萬曆辛巳始起廢拜靈巖郡守時國家奏辨 璿系之誣使臣金公繼輝請以公爲書狀官以成均館直講兼司憲府持平朝 京師壬午春復除瑞山郡守秋翰林編
修黃洪憲給事中王敬民來頒 詔遠接使李珥以公有華國才尉薦從事官拜宗簿寺僉正有浮躁而薄有詞藻者迫欲代公從事嗾言官論之李公又極陳公才於朝其論
遂寢由宗簿遷司贍寺僉正李公素不識公一見便敬重開心無間其與華使唱酬用公詩最多癸未春拜漢城府庶尹尋爲韓山郡守冬以有文翰事拜公爲禮曹正郎公辭
不就徑還鄉家甲申夏歷拜宗簿司僕僉正冬拜司藝乙酉春 上以公文章不宜沈下僚遂超三階拜軍資監正時有不悅者公辭疾不至夏補淳昌郡守戊子坐罷庚寅
夏拜內贍寺正大臣於 榻前薦公文章拜承文院判校知製 敎兼春秋館編修官時宰執咸惜公議欲推挽公斂退於時事默然似不能言者秋陞通政階拜東萊府使府
濱海倭奴之所館留貨物流聚客商走集無名之稅沒入貲未易數計而公廉白自持一塵不染吏民胥悅辛卯春錄光國原從功公亦與焉夏坐罷入京言者方論鄭左相澈
或有指公爲鄭公所薦者公匹馬還鄉翌年壬辰而倭難作矣公嘗自號霽峯又稱苔軒亦曰苔槎公風姿英偉識量宏深嚴重有威悃愊無華喜慍不見於色其於屈伸榮辱
處之裕如至其臨事又不爲苟且擇利害計對人未嘗詡詡强笑語而中心樂易也平居不言人短子侄或語及公輒鐫責當官簡潔平易不以察察爲能而常有去後之思及

其家居妻子至稱貸於人而公晏然不以介懷友愛甚篤家故所遺臧獲田畝悉讓其弟而自取羸老荒廢者他無玩好惟畜書史數千卷每手一遍卽不以寢食廢凡三教九
流之書皆所精究而明於象數爲文章尤長於詩不事雕琢而後逸不群有集五卷一世論文之士無不誦其詞而重其名屢典郡府家無倚餘之財身歿之日賴鄕隣之助乃
克襄事雖行藏坎軻祿位不彰而爲當世所艷稱然世之知公者乃其文章才藻之美若其恬於勢利秉心誠實淸苦自礪之節憂 國惓惓之忠則未必盡知之也公配貞敬
夫人蔚山金氏弘文館副提學百鈞之女有丈夫子六女子二長卽從厚丁丑文科曾任臨陂縣令自喪次起兵誓復父讐轉戰嶺外晉州城陷投江而死 贈承政院都承旨
次卽因厚己丑文科授權知成均館學諭隨公同死於陣 贈禮曹參議次曰遵厚未娶夭次曰循厚辛卯進士以公死事推 恩特授司憲府監察次曰由厚因哀致疾服闋
逾年而沒季卽用厚擢乙巳進士第一名登丙午文科今爲泰仁縣監女長適光州士人朴橚有一男曰忠廉季適靈光士人盧尙龍丁酉難罵賊不屈伏劍而死孫男六傳立
傳言從厚出傳霖傳川傳楫傳良因厚出傳川中乙巳進士傳良中丙午進士噫公之二子一女皆臨難捐生是何忠孝義烈之萃於一家也雖其天稟之過人而得之濡染訓
成者深矣概公生平則妙齡擢殿元步瀛洲儲養東湖樹頤頦操觚翰俊聲蔚然則一時固以文人目之矣及其懷章補郡低徊外服所至以廉潔奉職平恕得吏民心則卽古

【우면】

所稱循良其人也 國有兵禍蛇豕荐食按臣退縮武將奔潰而乃以還里之儒臣非有封疆城守之責而提孤軍抗勁賊奮弱批堅誓以報 國旣不效矣則以身殉之父子
俱焉比他死節者爲烈世之日訾薄文人鮮實用者蓋至此而無復措其說矣公非一代之全人乎記家兄議政公與公定交俱在未冠余齒又少而得以雁行隨焉其時公丰
采渙發氷玉輝映神仙中人也追而思之夢想森然五十年猶浹日也少而景慕願趨下風迨老大而嚮往之心不衰公今已矣而余乃後死屬此樹石之日得相其役無亦有
數存乎其間者耶噫嘻其悲矣旣因用厚手錄之狀敍其略而係之銘銘曰

壯元死國古有文山 惟公代興寔伯仲間 人亦有云不愧科名 文冠多士節則忘生 灑泣國難孤軍抗勁 毁魄全天父子併命

死而不死其神烈烈 目不可瞑誓見賊滅 旌忠錫秩以慰遺魂 公在九原再拜湛恩 公深於詩炳烺千篇 掉鞅詞林作者推先

文苑忠義合爲一傳 在古鮮覯於公乃見 新阡鬱然大庇象賢 有來千年精光燭天

〈제봉선생(霽峰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유명 조선국 숭록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이사 행 통정대부 공조참의 지제교 겸 초토사에 증직되시고, 시호는 충렬(忠烈)이며, 호는 제봉(霽峯)이신 고공의 신도비명 병서(幷序)>

대저 만력(萬曆)년간 임진년(1592)에 나라에 왜란이 있어서 참의 고공(高公)이 목숨을 바쳐 큰 절개를 드러내었는데, 그 후 십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 신도비문(神道碑文)을 맡긴 데가 없었다. 어느 날 공의 고아 용후(用厚)가 나에게 찾아와 청하기를, "선친께서 공의 형제와 교유하셨고 순국(殉國)한 전말을 공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니, 감히 공의 일언을 얻어서 선친의 사적이 묻히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또 그 모부인(母夫人)의 명으로 거듭 당부하였다. 아! 공의 사적과 행실을 말하노라면 슬픔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글을 잘 짓지는 못하지만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왜적이 대거 몰려올 당시에 공은 광주(光州) 시골집에 있었는데, 우리 군대가 전투마다 번번이 패하여 조령(鳥嶺)의 요새가 무너지는 데도 호남 순찰사에게 왕실을 지킬 뜻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은 아들 종후(從厚)·인후(因厚)와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자 계획하였다. 얼마 뒤 또 어가(御駕)가 서쪽으로 파천하고 도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공은 밤낮으로 목놓아 통곡하였다. 순찰사가 근왕병(勤王兵)을 이끌고 금강(錦江)에 이르렀다가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군진을 파하니, 온 도내의 인심이 흉흉하였다. 공이 순찰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후일의 성과를 기대하였는데, 말이 대부분 적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은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에 통분하여 나주(羅州) 사람 전 부사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다시 나라를 일으킬 것을 꾀하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공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였다.

5월 무자일에 담양부(潭陽府)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옥과(玉果) 사람 학유(學諭) 유팽로(柳彭老) 등이 공을 추대하여 맹주(盟主)로 삼았다. 공은 본디 군사(軍事)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개연히 장단(將壇)에 오르고 늙고 병들었음을 내세워 사양하지 않았다. 이어 도내에 격문을 돌리니 의병에 자원하는 자들이 날마다 모여들었다.

6월 기해일에 공이 담양에서 출병하였다. 이때 3도의 군사들이 용인(龍仁)에서 무너져 호서와 호남의 민심이 더욱 동요하던 터라 유독 공에게 기대가 많았다. 공은 전주(全州)에서 군대를 정비하여 북쪽으로 올라가 여산(礪山)에 주둔한 다음 직접 격문을 지어 여러 도에 차례로 통고하고 관서 지방까지 전달되게 하였다. 공이 노성으로 향하려는데, 적이 황간(黃澗)에서 금산(錦山)으로 넘어와 군수가 전사하고 적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렸다. 휘하의 군사들이 너도나도 돌아가 본도를 구하고자 하였고, 공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다.

7월 경신일에 공이 마침내 진산(珍山)으로 군대를 옮기고, 금산의 적을 치려 할 때 정예병이 갈수록 많이 모여들어 군대의 위용이 더욱 높아졌다. 병인일에 드디어 군사를 나누어 금산으로 들어가 방어사 곽영(郭嶸)의 군대와 좌·우익으로 진을 편성하였다. 공이 먼저 수백의 정예 기병을 내어 곧장 적의 소굴을 향해 돌격하였으나, 적에게 패하여 물러났다. 공이 북을 울려 독전하자 군사들이 모

두 죽을 각오로 싸워 도리어 적병을 토성으로 밀어붙였다. 성밖의 관사를 불태우고 또 쇠뇌를 쏘아 성안을 잇달아 불태우자 더욱 기세가 올랐다. 왜적이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해 나오자 의병이 사면에서 포위하여 공격하였는데, 사상자가 많아지자 적병이 감히 더 나오지 못하였다. 마침 날이 저물자 관군이 또 전투를 도우려 하지 않고, 토성이 견고하여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기에 퇴군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 방어사가 사람을 보내어 다음날 연합하여 싸울 것을 약속하였다.

공의 맏아들 종후가 공에게 말하기를, "오늘 아군이 승리하였으니 이 승세를 지닌 채로 군대를 온전히 보전하여 돌아갔다가 기회를 보아 다시 출전하여 적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과 대치하여 노숙한다면 밤에 기습당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너는 부자간의 정리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나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이 직임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날 밤에 적이 과연 기습을 모의하여 몰래 나와 매복하였으나, 나졸에게 발각되었다. 이튿날 정묘일에 공이 방어사와 함께 출격하였는데, 공은 적진과 5리쯤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서 방어사의 진과 마주 보았다. 공이 기병 8백여 명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으나 교전하기도 전에 적이 먼저 성을 비우고 나와 관군을 공격하니, 방어사 휘하의 장수 김성헌(金成憲)이 말을 몰아 먼저 달아났다. 왜적이 광주(光州)와 흥덕(興德) 두 진을 압박하자 방어사의 진이 그 기세를 보고는 그대로 무너졌다. 공은 단독으로 적을 상대할 작정으로 모든 군사들에게 활을 당긴 채로 대기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급하게 "방어사의 진이 무너졌다."라고 외쳤다. 이에 의병군이 따라서 무너졌다.

공이 이전에 말하기를, "나는 말타기에 능숙하지 못하니, 불행히도 싸움에 진다면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우에서 말을 타고 도망가기를 청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내가 구차히 죽음을 모면하려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였다. 공의 부하가 공을 부축하여 말에 앉혔는데, 공은 이내 말에서 떨어지고 말은 달아났다. 공의 휘하에 있던 유생 안영(安瑛)이 말에서 내려 공을 태우고 자신은 도보로 뒤따랐다. 공의 종사관 유팽로(柳彭老)가 건장한 말을 타고 먼저 탈출하다가 노복에게 묻기를, "대장은 탈출하였느냐?"라고 하니, 노복이 "아직 탈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유팽로가 갑자기 말을 몰아 다시 혼전을 벌이는 속으로 들어가 공을 모셨다. 공이 돌아보고서 말하기를, "나는 필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자네는 말을 달려 빠져나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유팽로가 말하기를, "어찌 차마 대장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마침내 적의 칼날이 다가와 공은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유팽로는 자신의 몸으로 공을 감싸다가 죽었으며 안영도 여기에서 죽었다.

공의 둘째 아들 인후(因厚)는 병사들을 독려해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제일선에서 싸웠는데, 군대가 궤멸되자 말에서 내려 전열(戰列)을 정비하고 진에서 전사하였다.

인근 고을 백성들이 공의 패전 소식을 듣고는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피난 짐을 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우리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통곡하였는데 그 소리가 들판에 진동하였다. 군대가 궤멸되어 군사들이 공의 생사를 알지 못했는데, 점점 와서 모였다가 공의 죽음을 듣고는 모두 울부

짖으며 흩어졌다. 남도 백성들은 공을 알건 모르건 간에 서로 조문하면서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공은 백발의 서생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때를 당하자 의를 내걸고 기병하여 양호(兩湖) 의병의 선창이 되니, 산중으로 도피했던 어리석은 사람과 사나운 병졸들도 모두 소문을 듣고 다투어 모여들어 한 달 사이에 의병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 이는 공의 의로운 기백이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나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공이 임진년 봄여름에 천문(天文)을 보고서 집안사람에게 말하기를, "올해 장성(將星)이 불길하니, 장수된 자들이 필시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이 본래 생사의 이치에 밝았던 만큼 의병을 일으키던 날에 이미 목숨을 버릴 작정을 했던 것이다. 금산의 왜적을 토벌할 때에는 사위 박숙(朴橚)에게 편지를 보내어 가속(家屬)을 부탁하였으니, 공이 죽기로 자처했던 것은 대개 평소에 결정하였던 것이다.

왜적이 금산을 점거하고 있을 때에 병권을 맡은 문무(文武) 장수들은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공은 일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직접 적의 소굴로 들어가 혈전을 벌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비록 승첩의 공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공이 죽은 뒤 공이 사지에 나아가 적을 공격한 것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왜적이 비록 여러 차례 이겼을지라도 사상자가 절반이 넘어 결국 무기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국가에서 호남을 지켜 뒷날 국토를 회복하는 바탕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적이 공에게 있다고 하겠다. 참찬 성혼(成渾) 공이 행조(行朝)에서 "공의 충렬(忠烈)이 왕실에 큰 공로가 있다."라고 극력 주장한 것은 이런 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공의 시신은 금산 산중에 암매장되어 있었는데, 적병이 가로막고 있어서 즉시 거두지 못하다가 공의 고아 종후 등이 의병(義兵)과 승군(僧軍)에게 부탁하여 공의 시신을 찾아왔고 대략 40여일 만에 염습하였는데, 여러 날 더위와 비를 겪고도 안색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기 있어 보는 자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고향으로 시신을 받들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탄식하고 슬퍼하였는데 더러 정신없이 울부짖는 자들도 있었다.

어가가 용만에 있을 때 성상께서 공이 의병을 일으켜 온다는 말을 들으시고 얼굴색을 바꾸시며 기뻐하셨다. 공에게 공조참의 지제교 겸 초토사를 제수하고 교서를 내려 위로하셨는데, 그중에 "열읍을 지휘하고 대책을 세워서 도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때 공조좌랑 양산숙(梁山璹)이 행재소(行在所)에서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성상께서 면대하여 말씀하시길, "돌아가 고경명(高敬命)과 김천일(金千鎰)에게, '그대들이 제때에 도성을 회복하여 내가 하루빨리 그대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을 전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작명(爵命)이 이르기 전에 공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0월 경인일에 화순현(和順縣) 흑토평(黑土坪) 언덕에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다음날 풍설(風雪)이 번갈아 일어나고, 긴 무지개가 무덤 왼쪽부터 묘역을 가로질러 수십 리까지 뻗쳐 특이한 광채

가 하루가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공의 충분(忠憤)에 감응한 것이라 여겼다. 뒷날 묏자리가 좋지 못하여 기유년 3월 경인일에 개장하여 장성현 오동리의 오좌 자향의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공이 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상께서 슬퍼하시어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의금부 춘추관성균관사 세자좌빈객을 증직하였고, 뒤에 의정부좌찬성을 가증하였다.

공이 죽자 순찰사가 예전의 원한으로 "어두운 밤에 행군하다가 군대가 궤멸되어 죽었다."라는 장계를 올려 공을 무함하였는데, 그 후에 후임 순찰사로 온 이정암(李廷馣)이 공이 순국한 일을 드러내기를, "고모(高某)는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켜 창의하고 왕실을 보호하였으며, 몸소 적진에 들어가 혈전을 벌이다가 불행히 군대가 패하여 부자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니, 비로소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하겠다.

을미년(1595) 여름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마을 문에 정려하게 하였다. 신축년(1601) 가을에 공의 문생(門生) 전 감찰 박지효(朴之孝) 등의 상소로 인해 특명을 내려 광주(光州)에 별도의 사우(祠宇)를 세우게 하였다. 포충(褒忠)이라 사액(賜額)하여 예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이어 봄가을로 제향을 받들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아! 이것으로 군신간의 의를 볼 수 있겠다.

공의 휘는 경명(敬命), 자는 이순(而順)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인데, 그 선세에서 장흥(長興)으로 관향(貫鄕)을 하사받아 마침내 장흥고씨(長興高氏)가 되었다. 충좌위부사직(忠佐衛副司直)으로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에 증직된 휘가 상지(尙志)인 분과 호조참의에 증직된 휘 자검(自儉)이신 분, 그리고 형조좌랑 겸춘추관기사관이신 휘 운(雲)인 분이 바로 공의 고조·증조·조부이시다. 부친 휘 맹영(孟英)은 관직이 사간원 대사간에 이르렀고, 남평서씨(南平徐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성균관 진사 걸(傑)의 따님이다. 가정 계사년(1533) 11월 30일 무진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처럼 의연하였는데, 참찬 백인걸(白仁傑) 공이 한번 보고는 중하게 여겨 큰 그릇이 될 것을 알아보았다. 공은 어렸을 때 매우 영특하여 책을 몇 번만 읽어도 바로 암송하였는데, 관례를 올리기 전에 서울에 유학하여 학업이 날로 진보하였다. 당시의 거유(鉅儒)들이 모두 공을 사모하여 교유하니 명성이 더욱 성대하였다.

임자년(1552)에 사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며, 진사는 1등이었다. 무오년(1558) 여름에 공헌왕(恭憲王, 명종(明宗))이 성균관에 친림하여 유생들을 시험하였는데, 공이 수석을 차지하여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해 전시에서 또 갑과 1등으로 선발되어 처음에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 호조좌랑으로 옮겼다.

기미년(1559) 봄에 세자시강원 사서에 제수되었고, 경신년(1560) 봄에 사간원 정언으로 옮겼으며, 여름에 체차되어 형조좌랑에 제수되었다가 병조좌랑 지제교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항상 지제교를 겸하였다. 얼마 뒤에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신유년(1561) 봄에 사간원 헌납에 제수되었으며, 여름에는 홍문관 수찬에 제수되고, 얼마 뒤 사간원 헌납으로 옮겼다가 사헌부 지평으로 옮겼다. 가을에 홍문관 부수찬에 제수되고 관서(關西)로 사명을 받들어 나갔는데, 돌아오자 성상께서 연로에서 지은 시를 써서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겨울에 부교리로 승진하였다.

임술년(1562) 봄에 병으로 체차되어 전적에 제수되고, 여름에 홍문관 수찬에 제수되었다가 또 부교리로 승진하였다. 일찍이 명화 62폭을 내려 공에게 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렸으니, 특별히 은사를 내려 포창한 것이다. 공이 시를 잘 지어 한창 명성이 있었지만, 명리(名利)에 전혀 욕심이 없어 퇴근하면 늘 서책에 정신을 쏟은 채로 하루를 마쳤을 뿐, 한 번도 여러 공들을 찾아다닌 적이 없었다.

계해년(1563) 봄에 서차(序次)에 따라 교리로 승진하였고, 가을에는 전적으로 좌천되어 울산군수(蔚山郡守)에 보임되었다가 부임하기도 전에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는 오로지 옛 전적(典籍)을 탐구하고, 간혹 산수를 유람하며 스스로 즐겼으며, 불우하게 쫓겨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고향집에 머문 것이 19년이니, 만력 신사년(1581)이 되어서야 다시 기용되어 영암군수(靈巖郡守)에 제수되었다. 이때 국가에서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사신을 보내는데, 주청사(奏請使) 김계휘(金繼輝) 공이 서장관(書狀官)에 공을 임명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공이 성균관직강 겸 사헌부지평으로서 연경에 입조(入朝)하였다.

임오년(1582) 봄에 다시 서산군수(瑞山郡守)에 제수되었다. 가을에 한림원 편수관(翰林院編修官) 황홍헌(黃洪憲)과 급사중(給事中) 왕경민(王敬民)이 조서를 반사(頒賜)하러 왔는데, 원접사 이이(李珥) 공이 국가를 빛낼 만한 재주가 있다고 공을 종사관으로 천거하여 종부시 첨정에 제수되었다. 경박하고 조금 글재주 있는 사람이 대신 종사관이 되고자 언관을 사주하여 공을 탄핵하였는데, 이공(李公)이 또 조정에서 공의 재주를 간곡히 진술하여 그 의론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종부시 첨정에서 사섬시 첨정으로 옮겼다. 이공은 본래 공을 알지 못했는데, 공을 처음 보자마자 존중하여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었다. 명나라 사신과 시문을 주고받을 적에 공이 지은 시가 가장 많이 채택되었다.

계미년(1583) 봄에 한성부 서윤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 한산군수(韓山郡守)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문장에 능한 사람이 필요하여 공을 예조정랑에 제수하였는데, 공은 사양하고서 곧바로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갑신년(1584) 여름에 종부시와 사복시 첨정에 차례로 제수되었다. 겨울에 성균관 사예에 제수되었다.

을유년(1585) 봄에 성상께서 공처럼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낮은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시어 마침내 세 품계를 건너뛰어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제수하였다. 이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으므로 공은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여름에 순창군수(淳昌郡守)에 보임

되었다가 무자년(1588)에 연루되어 파직당하였다.

경인년(1590) 여름에 내섬시정에 제수되었다. 대신들이 탑전(榻前)에서 공을 문장으로 천거하여 승문원판교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에 제수되었다. 이때 재상들이 모두 공의 재주를 아껴서 공론으로 끌어주고자 하였는데, 공은 겸손하게 물러나 시사(時事)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하였다. 가을에 승진하여 통정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동래부사(東萊府使)에 제수되었다. 동래부는 바닷가에 위치해 왜인들이 머무는 곳이라 물화가 유입되고 객상(客商)이 모여들어 명목 없는 세금과 몰수되는 재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그러나 공은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지키고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니,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신묘년(1591) 봄에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을 책록하는데 공도 포함되었다. 여름에 파직당하여 서울에 들어왔는데, 당시 좌상 정철(鄭澈)을 탄핵하면서 정공의 천거를 받은 자로 혹 공을 지목하자, 공은 필마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임진년(1592)에 왜란이 일어났다.

공은 일찍이 자호(自號)를 제봉(霽峯)이라 하였는데, 태헌(苔軒)이라고도 하고 태사(苔槎)라고도 하였다. 공은 장대한 풍채에 넓은 식견과 깊은 도량을 지녔으며, 엄중한 위엄을 갖춘 진실하고 꾸밈없는 사람이었다. 기쁘거나 성내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태연하게 처신하였다. 일을 할 때엔 또 구차하게 이해를 따지려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비위를 맞추며 억지로 웃거나 말하지 않고 마음이 화평하였다. 공은 평소에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나 조카가 혹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그 자리에서 호되게 꾸짖었다.

관직을 맡아서는 일처리가 간결하고 평이하였으며,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았는데, 항상 공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그리워하였다. 집에 있을 때는 처자가 빚을 질 만큼 살림이 어려웠으나 공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태연하였다.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집안에서 물려준 노비와 전답을 아우에게 모두 양보하고 자신은 늙은 노비와 황폐한 땅을 가졌다.

공은 달리 즐기는 것은 없었으며, 오직 서책 수천 권을 쌓아놓고 한번 책을 잡으면 침식(寢食)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다 읽었다. 삼교(三敎)와 구류(九流)의 서책을 모두 정밀하게 연구하였고 상수(象數)에도 밝았다. 문장 중에서는 특히 시에 능하였는데, 시구를 다듬지 않아도 남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출중하였다. 문집 다섯 권을 남겼는데, 한 시대에 문장을 논하는 선비치고 그 글을 암송하고 그 이름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여러 차례 지방관을 역임하면서도 집안에는 남아 있는 재물이 없었으니, 순국하던 때에도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장사를 지냈다. 비록 벼슬길이 험난하여 녹위(祿位)가 드러나진 못했으나 공은 당세가 칭송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공을 아는 자들은 공의 훌륭한 문장만을 알 뿐이니, 공이 세상 잇속에 초연하고 마음가짐이 성실했다는 것과 깨끗하게 자신을 닦는 지조와 절절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을 지녔다는 것은 다 알지 못하고 있다.

공의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울산김씨(蔚山金氏)로, 홍문관 부제학 김백균(金百鈞)의 따님

이다. 슬하에 아들 여섯과 딸 둘을 두었는데, 장남 종후(從厚)는 정축년(1577)에 문과에 급제하고, 임피현령(臨陂縣令)을 역임하였다. 상차(喪次)에서 군사를 일으켜 아비의 원수를 갚기를 맹세하고 영남 지방에서 이리저리 옮겨가며 싸우다가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자 강에 투신자살하였다. 승정원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차남 인후(因厚)는 기축년(1589)에 문과에 급제하고 권지 성균관학유에 제수되었는데, 공과 함께 싸우다가 진중에서 죽었다. 예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삼남 준후(遵厚)는 장가도 들기 전에 일찍 죽었다. 사남 순후(循厚)는 신묘년(1591)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 공의 순국으로 추은되어 특별히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다. 오남 유후(由厚)는 공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탈상하고서 그 이듬해에 죽었다. 막내 용후(用厚)는 을사년(1605)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병오년(1606)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금은 태인현감이 되었다. 장녀는 광주(光州) 사인(士人) 박숙(朴橚)에게 출가하여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이름이 충렴(忠廉)이다. 막내딸은 영광(靈光) 사인 노상룡(盧尙龍)에게 출가하였는데, 정유년(1597) 난리에 왜적에게 굴하지 않고 꾸짖고는 칼로 자결하였다.

손자가 여섯 명인데, 부립(傅立)과 부언(傅言)은 종후의 소생이고, 부림(傅霖)·부천(傅川)·부집(傅楫)·부량(傅良)은 인후의 소생인데, 부천(傅川)은 을사년(1605)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부량(傅良)은 병오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아! 공의 두 아들과 딸 하나가 모두 병란에 목숨을 버렸으니, 이 어찌 충효와 의열이 한집안에 모여 있단 말인가! 비록 타고난 성품이 남보다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가르침으로 성취된 것이 깊었던 것이다.

공의 평생을 개괄하면, 젊은 나이에 장원 급제하여 청직(淸職)을 역임하고 독서당에서 학문을 배양하며 논변을 펼치고 문장을 지어 명성이 성대하였던 만큼 당대에 본래 문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인수를 품고 지방관으로 나가 외직을 전전할 때는 가는 곳마다 청렴한 생활로 직임을 봉행하고 공평무사한 일 처리로 관리들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으니, 바로 옛날의 이른바 순리(循吏)라 하겠다.

나라에 병란이 생겨 왜적에게 계속 잠식당하자 관찰사는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무장들은 흩어져 달아났는데, 공은 향리로 돌아간 유신(儒臣)으로서 국토를 수호할 책임이 없는데도 단독으로 군대를 이끌고 강한 적에게 대항하고 약한 군대를 분발시켜 견고한 적을 공격하여 나라에 보답하기를 맹세하였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부자가 함께 순국하였으니, 충절을 바치고 죽은 그 누구보다 장렬하다고 하겠다. 세상에서 평소에 문인더러 쓸모가 적다고 비난하던 자들이 이에 이르러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니, 공이야말로 한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가형(家兄) 의정공(議政公, 윤두수(尹斗壽))과 공이 교유할 때는 모두 관례(冠禮)를 올리기 전이었고, 나도 나이가 어려서 형제처럼 따라다닐 수 있었는데, 당시 공은 풍채가 훤하고 얼굴이 빙옥(氷玉)처럼 빛나 신선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함에 꿈속에서도 그 모습이 생생하

니 50년의 세월이 마치 열흘처럼 느껴진다. 젊어서는 공을 경모하여 가르침 받기를 원하였고, 늙어서도 공을 향하는 그리움이 그치지 않는데, 공은 지금 세상을 떠나고 나는 공보다 오래 살아 이렇게 비석 세우는 일을 돕게 되었다. 이 또한 무슨 운명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슬프다. 용후가 손수 쓴 가장(家狀)에 따라 대략 서술하고 나서 명을 지어 붙인다. 명은 다음과 같다.

壯元死國　　장원 출신으로 순국한 이,
古有文山　　예전에 문산이 있었는데,
惟公代興　　공이 뒤이어 일어나니,
寔伯仲間　　실로 우열을 가릴 수 없네.
人亦有云　　사람들이 말하기를,
不愧科名　　장원이 부끄럽지 않다 하니,
文冠多士　　문장은 선비 중에 으뜸이요,
節則忘生　　절의는 목숨을 돌보지 않았네.
灑泣國難　　국난에 눈물을 뿌리며,
孤軍抗勁　　외로운 군대로 강적에 항거하고,
毁魄全天　　목숨을 버려 천성을 보전하니,
父子併命　　부자가 함께 목숨을 버렸구나.
死而不死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니,
其神烈烈　　그 정신 장렬하여라.
目不可瞑　　죽어도 눈 감을 수 없기에,
誓見賊滅　　적의 멸망 보리라 맹세했었지.
旌忠錫秩　　정문을 세우고 작질을 내려,
以慰遺魂　　떠난 넋을 위로하니,
公在九京　　공은 구천에서,
再拜湛恩　　성은에 재배하리라.
公深於詩　　공은 시에 능했으니,
炳琅千篇　　수많은 작품 밝게 빛나고,
掉鞅詞林　　문단에 솜씨를 떨치니,
作者推先　　문사들 으뜸으로 추대하네.
文苑忠義　　문장과 충절이,
合爲一傳　　함께 전해지니,
在古鮮覯　　옛날에도 드문 일을,
於公乃見　　공에게서 보게 되었네.

新阡鬱然　　새 무덤이 우거져서,
大庇象賢　　어진 이를 감싸주는 듯하니,
有來千年　　천년이 흐른 뒤에도,
精光燭天　　숭고한 빛 하늘을 비추리라.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보국숭록대부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겸 지경연사 윤근수(尹根壽)가 짓고, 7세손 통정대부 행 승정원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정헌(廷憲)이 전(篆)을 썼으며, 7세손 통훈대부 전 행 사간원정언 정봉(廷鳳)이 글씨를 쓰다.

4. 장성 봉여해(奉汝諧) 신도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산44-7 • 제작연대 1871년(聖上八年辛未)
• 크　기 전체높이 241, 비신높이 181, 너비 63, 두께 37

삼서면 보생리 만곡사 입구 도롯가에 서 있는 봉여해(奉汝諧)의 신도비는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린 모습이다. 비문의 배치가 특이하니, 비신의 상단에 사방을 돌아가면서 전서로 '贈左承旨默軒奉先生神道碑'이라 쓰고, 우측면의 끝부분에 '有明朝鮮國行司饔院別座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號默軒奉先生神道碑銘'이라 두 줄로 비제(碑題)를 썼다. 정면에서 비문의 서(序)가 시작되어 좌측면-후면으로 이어지는데, 후면에는 명(銘) 다음에 비문을 지은 날짜와 지은이의 직함이 시작된다. 지은이의 직함은 우측면으로 이어지고 글씨를 쓴 시기와 사람, 비건립의 참여자 등을 기록하였다. 1871년에 세운 이 비는 원래 삼서면 우치리에 있었으나 2020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하음봉씨(河陰奉氏) 묵헌공파 종친회장 봉대천 구술)

〈디지털 탁본〉

봉여해(奉汝諧, 1419~1456)의 자는 화보(和甫), 본관은 하음(河陰)으로, 아버지 봉집(奉楫)과 어머니 이계맹(李繼孟)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매제로, 세조 때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 1805년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증직되었고, 만곡사(萬谷祠)에 배향되었다. 송흠(宋欽)이 손녀사위이다.(하음봉씨 대동보 참고)

비석은 마멸이 심한 상태인데 『하음봉씨대동보』에 홍우건(洪祐健)이 짓고, 송주헌(宋柱獻)이 쓴 봉여해의 묘갈명[4]이 실려 있어서 이것을 참조해서 판독하였다. 비문은 1846년에 홍우건(洪祐健)이 짓고, 1871년에 13세손 봉인귀(奉仁龜)가 글씨를 썼다. 비문은 42행 34자이다.

[두전] 贈左承旨默軒奉先生神道碑銘

【전면】

直湖南靈光郡森南之里牛峙之阡坐子向午而封者卽故忠臣 司饔院別座贈左承旨奉公之藏也稽昔景泰乙亥

光廟受內 禪成忠文三問朴忠正彭年等諸公謀復

上王事覺俱被禍此世所稱六臣也玆六臣者固閎犖犖塗人耳目而若其餘抱忠殉義駢戮而不知悔者何可勝數顧乃身殲名陻黯然而不章志士仁人盖至今悲之逮

正廟辛亥設壇于 莊陵之側得當節死義者二百六十八人從享之其侑文則

上所親製也旣又幷錄其姓名事行載之 御製集中其書曰 莊陵配食錄嗚呼盛矣彼二百六十八人者皆振輝揚聲垂億紀而不朽公其一也公諱汝諧字和甫河陰人也以高麗政堂文學左僕射河陰伯諱佑爲鼻祖至諱天祐値忠肅王拘於元輔護世子竭其忠及王還特拜大匡太師都僉議政丞河陰府院君卒謚文謙是實公高祖也曾祖諱文版圖判書祖諱由禮爲政堂文學典理判書上疏斥佛見忤還鄕與李牧隱鄭圃隱先生相許爲道義交深究理學之源入本 朝薦爲吏曹判書不起每歲首往哭于麗太祖墓及于老一不言時事考諱楫司諫 我朝壬申遯居田里誓不出仕逍遙琴書

世宗朝徵以兵曹判書亦不就義氣若秋霜烈日

【좌면】

上嘉其義奬之妣李氏文忠公繼孟女也以永樂己亥八月三日擧公于▨▨▨第公性溫粹有雋才自髫齔已如老成人事父母至孝居喪式遵禮制啜粥廬墓三年如一日嘗與成公三顧昆弟受業于朴文愍公仲林之門三顧忠文之弟而文愍乃忠正之父也文愍見公大器之遂以女歸焉公與忠正志氣相投胎然爲知己友恒居恬靜寡言笑終日端拱惟以研經講禮爲事廟堂聞公名薦拜司饔院別座公不卑小官奉職惟勤廷議將大用之已而六臣禍作廷鞫忠正之弟耆年言奉汝諧與其謀自言佩刀入 闕有拒者

4 『하음봉씨 대동보』 권1, 1997, 223~228쪽.

將刺之公遂被逮六臣偕殉焉臨刑忠正及李忠簡塏執公手曰男兒生當爲義士死當

【후면】

爲義鬼公含笑就刑卽丙子五月某日也公三從侄兵曺判書江城君諱石柱時直摠府聞有禪位之教蒼黃奔赴見朴忠正欲投池而死成忠文勸止之退而作淸渭池歌以悲之遂棄官誓以自靖會有娼嫉者訐其事于　朝削勳被戮又有諱紐與公同及於禍於公爲從叔嗚呼奉氏之門何其多忠義之士也公嘗有號默軒所著作頗富而其遺稿及四經釋義諸書盡入籍收今無一存者惜哉至

純廟特　贈公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叅贊官鄕人士腏享公于森溪祠

配順天朴氏卽文愍公女也葬與公同兆異壙擧二男一女男長寅監察次憲司直女適陳孝淵寅生五男一女男曰時彦時雄時俊時賢時資女適左贊成宋欽曾玄以下多不可盡記公歿後三百九十二年公十三世孫仁稷奉祭酒洪公直弼所爲狀求銘於祐健祐健非其人也然窃讀公之狀而悲公之時又懼夫大節之愈久而愈泯也謹爲之銘俾鐫于石銘曰

人有秉彝曰孝與忠誰其全之烈烈奉公公職甚庳公節甚崇其節伊何六臣與同熊掌是取鴻毛爲輕爵貶墩薦備極哀榮公死奚憾千載如生我作銘詩用樹風聲

崇禎紀元後四丙午三月　日　通訓大夫行弘文館副校理知製　敎兼　經筵侍

【우면】

讀官春秋館記注官西學敎授豊山洪祐健撰

聖上八年辛未十月上浣公之十三世孫仁龜謹書

性潭宋先生諱煥箕撰序　　公之十四世孫都有司泰奎

梅山洪先生諱直弼撰狀　　敎正泂奎

龍田宋先生諱來熙撰享祀文　　十五世孫修正鎭範

有明朝鮮國行司饔院別座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叅贊官號默軒奉先生神道碑銘

〈증 좌승지 묵헌(默軒) 봉선생(奉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유명 조선국 행 사옹원별좌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호는 묵헌(默軒)이신 봉선생(奉先生)의 신도비명(神道碑銘)>

호남의 영광군 삼남(森南)의 마을 우치산(牛峙山)의 자좌에 있는 오향의 봉분은 옛 충신인 사옹원별좌로서 좌승지에 증직된 봉공의 무덤이다.

옛날 경태(景泰) 을해년(1455) 광묘(光廟, 世祖)가 수선(受禪)할 때 충문공 성삼문(成三問), 충정

공 박팽년(朴彭年) 등 제공(諸公)이 상왕[端宗]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모두 화를 당하였다. 이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육신(六臣)'이라고 칭한다. 이 6신은 참으로 크고 탁절하여 사람들의 이목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기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절의로 죽어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어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건대 그 몸이 죽고 명예가 가리어져 드러나지 않으므로 지사(志士)와 인인(仁人)들은 지금까지 슬퍼하고 있는데, 정조 신해년(1791)에 제단을 장릉(莊陵, 端宗)의 옆에다가 설치하고 당시 절사(節死)한 268명의 제사를 지내었다. 그 제문은 상께서 친히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성명과 사행(事行)을 기록하여 어제집(御製集)에 수록하고 그 책을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이라고 하였다. 아! 성대하도다. 저 268명이 모두 빛나고 명성을 떨치어 억만년 동안 전하도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공이 그중 한 사람이다.

공의 휘는 여해(汝諧), 자는 화보(和甫)이니, 하음인(河陰人)으로, 고려의 정당문학 좌복야(左僕射) 하음백(河陰伯) 우(佑)가 시조가 된다. 천우(天佑)는 충숙왕 때 원나라에 구금되어 세자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세자가 환국한 후에 특별히 대광태사 도첨의정승 하음부원군에 봉해지고 작고한 후 시호가 문겸(文謙)이니, 실로 공의 고조부이다. 증조부 문(文)은 판도판서를 지냈고, 조부 유례(由禮)는 정당문학 전리판서를 지낸 분으로, 상소를 하여 불교를 배척하다가 왕의 비위를 거슬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이목은(李牧隱)·정포은(鄭圃隱) 등과 서로 도의지교를 맺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이조판서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매년 연초에는 고려 태조의 능으로 가서 곡하였으며, 늙을 때까지 시사는 한마디도 들먹이지 않았다. 고(考)의 휘는 집(楫)으로, 사간을 지냈으며, 우리 왕조의 임신년(1392)[5]에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기로 맹세하고 금서로 소일하였고, 세종조에 병조판서로 불렀으나 또한 나가지 않았다. 의기가 추상(秋霜) 열일(烈日) 같음에 상께서 그 뜻을 가상하게 생각하여 칭찬하였다. 비(妣)는 이씨로, 문충공 이계맹(李繼孟)의 딸이며, 영락 기해년(1419) 8월 3일에 공을 집에서 낳았다.

공의 성품은 온순하고 재주가 탁월하여 어렸을 때부터 노숙한 성인과 같았다.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효성이 지극하였고 거상(居喪)을 할 때는 상례를 준수하여 죽만 먹으면서 여묘살이 3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일찍이 성삼고(成三顧) 공의 형제와 함께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데, 삼고(三顧)는 충문공(忠文公, 成三問)의 아우이며, 문민공은 충정공(忠正公, 朴彭年)의 아버지이다. 이때 문민공은 공을 보고 큰 인재로 여기어 자기 딸을 출가시켰다. 공은 충정공과 의기가 투합하여 서로 지기(知己)로 지냈으며, 항상 조용하게 지내면서 말하거나 웃는 일도 적었고, 종일 단정하게 팔짱을 끼고 경서와 예서를 강론하였다.

조정에서 공의 명성을 듣고 사옹원별좌를 임명하자 공은 그 관직을 낮게 생각하지 않고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므로 조정에서는 높은 관직으로 기용하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얼마 안 있어 육신의 화가 생기어 조정에서 충정공의 아우 기년(耆年)을 국문(鞫問)할 때 봉여해도 그 음모에 참여하였

5 족보에서는 1512년이라고 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1392년(태조 1)이어야 할 것이다.

다고 하므로, 자신이 칼을 차고 대궐로 들어간다고 말하자 어떤 사람이 그를 가로막아 그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공이 마침내 체포되어 육신과 함께 순절하였다. 사형이 집행될 때 충정공과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가 공의 손을 잡고 말하길, "남아는 살아서는 의사(義士)가 되고 죽어서는 의귀(義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므로 공도 웃음을 머금고 형장으로 나갔다. 곧 병자년(1456) 5월이었다.

공의 삼종질인 병조판서 강성군(江城君) 석주(石柱)가 이때 총부(摠府)에서 숙직을 하고 있다가 선위한다는 말을 듣고 창황히 박충정공에게 달려가 만나보고, 연못에 빠져 죽으려고 하자 성충문공이 그만두기를 권하므로 물러나와 청위지가(淸渭池歌)를 지어 슬픈 마음을 표하고,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자정(自靖)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런데 마침 어떤 투기하는 자가 있어서 그 사실을 조정에 밀고하여 공훈(功勳)이 삭제되고 사형을 당하였다. 또 휘 유(紐)도 공과 함께 화를 당하였는데 공의 종숙부 되시는 분이다.

아! 봉씨의 가문은 어찌 그리 충의로운 선비가 많을까? 공은 일찍 호를 묵헌(默軒)이라고 하였고, 저술도 많았으나 그 유고와 사경석의(四經釋義) 등 책들이 모두 몰수되어 지금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순조 때 공에게 특별히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을 증직하고, 그 고을 선비들이 삼계사(森溪祠)에 배향하였다.

배(配)는 순천박씨로, 곧 문민공의 딸이며, 묘는 공의 묘소와 같이 있다. 2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 인(寅)은 감찰을 지냈고 차남 헌(憲)은 사직을 지냈으며, 딸은 진효연(陳孝淵)에게 출가하였다. 인(寅)은 5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시언(時彦)·시웅(時雄)·시준(時俊)·시현(時賢)·시자(時資)이며 딸은 좌찬성 송흠(宋欽)에게 출가하였다. 증손과 현손 이하는 그 수효가 많아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공이 작고한지 392년 만에 공의 13세손 인직(仁稷)이 죄주 홍직필(洪直弼) 공이 지은 행장을 가져와서 이 우건(祐健)에게 명(銘)을 간청하였으나 우건은 글을 지을 사람이 못된다. 그러나 공의 행장을 읽어보고 공의 시대를 슬퍼한 데다가 또 그 대절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더욱 묻혀질까 두려워 삼가 이 명을 지어 비석에 새기도록 하였다. 명에 이른다.

人有秉彝曰孝與忠	사람에게 떠엿한 본성이 있으니, 충과 효이다.
誰其全之烈烈奉公	누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었을까, 열렬한 봉공이시네.
公職甚庳公節甚崇	공의 관직은 매우 낮지만 공의 절의는 매우 높으니,
其節伊何六臣與同	그 절의는 어떠한가, 사육신과 같은 것이네.
熊掌是取鴻毛爲輕	의리를 취하고 벼슬은 홍모처럼 가벼이 여기었네.
爵貤壇薦備極哀榮	추증된 관작을 단에 올려 슬픔과 영광을 지극히 갖추니,
公死奚憾千載如生	공은 작고해도 어찌 서운해하리, 천년 뒤에도 살아있는 것 같네.
我作銘詩用樹風聲	나는 이에 명을 지어 그 명성을 수립하네.

숭정기원후 4 병오년(1846) 3월 일에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 기주관 서학교수 풍산인 홍우건(洪祐健)이 짓고, 성상 8년 신미년(1871) 10월 상순에 공의 13세손 인귀(仁龜)가 삼가 쓰다.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가 서문을 짓고,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이 행장을 지었으며, 용전(龍田) 송래희(宋來熙)가 향사문을 지었다.

도유사는 공의 14세손 태규(泰奎), 교정(教正)은 형규(泂奎), 수정은 15세손 진범(鎭範)이 맡았다.

5. 장성 박수량(朴守良) 신도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산33 • 제작연대 1887년(丁亥)
• 크　기 전체높이 237, 비신높이 159, 너비 70, 두께 34

1887년 3월에 황룡면 금호리 호사동(狐寺洞) 묘역 입구에 세운 청백리(淸白吏) 박수량(朴守良, 1491~1554)의 신도비(神道碑)이다. 신도비명은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짓고, 글씨는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썼다. 신도비의 앞면에는 4언 5구로 된 명문(銘文) 4행이 있으며, 좌측면에 신도비명의 찬술자(撰述者)와 서자(書者), 전각자(篆刻者), 설립시기가 적혀있고, 뒷면과 우측면으로 비문이 이어져 있다. 비석 윗부분에 돌려가면서 쓴 전서(篆書)는 하석(霞石) 이용원(李容元, 1832~1911)이 쓴 것이다.

박수량의 자는 군수(君遂), 본관은 태인(泰仁)이다. 아버지는 박종원(朴宗元), 어머니는 이씨(李氏)로, 향선생(鄕先生) 김개(金漑)에게 배웠다. 15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서 을과 2등으로 급제해, 광주향교(廣州鄕校)의 교수(敎授)로 취임했다가 다음 해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옮겼다. 이어 전적·예조좌랑·정언·충청도도사 등을 거쳐, 1522년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내외의 주요한 관직을 두루 거친 후 1550년 우참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경기도관찰사를 겸임했고 숭록대부로 올랐다. 1552년에 우참찬을 비롯하여 호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554년에 지중추부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그의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

박수량의 신도비명이 사후 300여 년이 지나서야 건립된 것은 '조정에 시호(諡號)도 신청하지 말고 묘 앞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그의 유명(遺命)을 오랫동안 후손들이 지켜오다가 1805년 조정에서 시호(諡號)가 내려진 것을 계기로 신도비 및 묘비 건립 추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도비명은 송병선의 문집『연재집(淵齋集)』에 실린 내용과 똑같으며, 다만 27행의 글자 중 '孫曾以下不盡錄'이라는 글이 더 늘어나 "孫尙敬無嗣 尙謹縣監 長房出 次房無育 曾孫允誠 副司果贈寺正 允誼允讓允說奉事 玄孫以下不盡錄"이라는 내용이 더 들어있다는 점이 다르다. 비문은 28행 44자이다.

[두전] 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貞惠朴公神道碑銘

【전면】

嗟嗟貞惠　才器超倫　白兮淸兮　天澤溢井　金精玉栗
惟嶽毓精　榮寵躋卿　疇將與儔　湛筆貢丘　畜內制外
曰若稽之　瞻彼狐岑　莫豐厥勒　蕪辭奚贅　無忝無荒
一言以蓋　有鬱其嵯　樹播口碑　而獨有一　雲仍是勖

【좌면】

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 經筵官書筵官恩津宋秉璿撰
正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月城崔益鉉書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完山李容元篆
丁亥三月 日立

【후면】

右參贊朴公歷事三 朝以廉謹爲世名臣河西金先生誌其墓已盡發揮先生百世師也其言可與天壤俱弊矣
雲仍又謀顯刻徵銘於不佞以若癃拙何足輕重於公也竊感其苦懇遂爲之敍曰公諱守良字君遂其先密陽人
祖於新羅王世襲簪纓贊成事諡文靖說顯於麗代傳至承奉不仕於我 朝孫衍生棄官自靖於光廟之世是
生文雅大護軍 贈左承旨承旨生賢孫宣略將軍 贈吏曹參判參判生宗元 贈吏曹判書判書娶李氏以弘

治辛亥生公聰慧超倫少從金學士澥學沈潛六經文詞夙著二十三中進士翌年甲戌擢文科入成均館分敎廣

州州學時金文簡世弼牧于玆州每論文義歎其專精入爲承文院副正字陞博士轉成均館典籍禮曹佐郎司諫

院正言出爲忠淸都事佐孫公仲暾秩滿移刑曹正郎司憲府持平以親老乞養得守古阜郡丁外憂歸終制拜獻

納掌令奉常僉正司諫司導副正以司成除寶城郡守入爲司藝尋遷內贍軍器寺正判校承文院特陞通政參知

兵曹又拜同副承旨兼　經筵參贊官旋移左承旨又　命加嘉善拜戶曹參判出按咸鏡道以漢城右尹還　朝

連除同中樞工戶禮參判出爲潭陽府使遭艱及閱進階資憲拜知中樞蓋褒其淸德也判尹漢城府移刑曹判書

右參贊觀察湖南　命兼帶京職還自參贊拜戶曹判書復爲判尹　嘉靖甲寅以知中樞告終於正月十九日壽

六十四歲訃聞　上震悼輟朝弔祭如例特　命禮葬又因筵臣言厚恤其家五月歸葬于長城狐寺洞先塋之左

向未原　仁陵乙丑　贈諡貞惠用淸白守節愛民好與二法也公生稟異質簡重愼密以禮律身外柔內剛有文

不露酒無定量節而不亂交人不爲翕翕居鄕惟謹每以止足爲戒親癆嘗糞衣不解帶數旬不怠服喪執禮甚嚴

【우면】

跬步不出廬墓之外旣免猶切切不已居官廉公所莅擧職苟非其義人不敢以一毫干之位至卿相屋無數椽

上嘉之特構極其美制名其井曰　御賜嘗召廉謹臣僚宴于　闕庭暮歸　賜燭公亦與焉常語二子曰我自草

澤濫陞八　命榮幸踰分死後勿爲請諡立碑蓋立朝三十有八年一心淸愼居寵若驚每遇災警必體　天憂

以效蹇蹇是乃公之所以爲公者歟湖南章甫嘗俎豆于慕巖齊茂松庾氏副司直玉輅女葬用衛人禮擧二男思

愚縣監思魯奉事曰全主簿平奉事孝男叔男終男並側出也孫曾以下不盡錄而謁余文者起震均永也遺稿燬

於兵燹欲徵文獻謹而難詳矣然後世之所以奉信者惟金先生文不翅重於鼎呂也已銘曰

〈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 정혜(貞惠) 박공(朴公) 신도비명(神道碑銘)〉

우참찬 박공(朴公)은 세 조정을 섬기면서 청렴하고 근실함으로 세상의 명신(名臣)이 되었는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이 그 묘소에 지문을 지어 이미 이러한 사실을 모두 드러냈었다. 선생은 백세의 스승이니 그 말이 천지와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후손이 또 빗돌을 세우는 것을 도모하여 나에게 명문(銘文)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쓸모없이 졸렬한 내가 어찌 공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만, 삼가 매우 간절한 부탁에 감동하여 마침내 기록한다.

공의 휘는 수량(守良)이고, 자는 군수(君遂)이다. 그 선조는 밀양(密陽) 사람으로 신라왕(新羅王)을 시조로 하며, 높은 벼슬을 세습하여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시호가 문정(文靖)인 열(說)이 고려조에서 현달(顯達)하였으나 전하여 승봉(承奉)에 이르러서는 조선조에 벼슬하지 않았다. 손자 연생(衍生)은 관직을 버리고 광묘조(光廟朝, 세조)의 세상에서 은거하여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살았고, 연생의 아들 문아(文雅)는 대호군(大護軍)으로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승지의 아들 현손(賢孫)은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참판의 아들 종원(宗元)은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판서는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어 홍치(弘治) 신해년(1491)에 공(公)을 낳았다.

공은 총명함이 남달랐고 젊어서 학사(學士) 김개(金漑)를 따라 배웠으며, 육경(六經)에 깊이 침잠하여 문사(文詞)가 일찍부터 현저하였다. 23살에 진사에 합격하고 이듬해 갑술년(1514)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으로 들어가 광주(廣州) 향교의 분교관(分敎官)을 지냈다. 당시에 문간공(文簡公) 김세필(金世弼)이 이 고을의 목사로 있었는데 매번 문장의 의미를 논할 때마다 정밀함에 탄식하였다. 공은 내직으로 들어와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되었고, 박사(博士)에 올랐다가 성균관전적, 예조좌랑, 사간원정언을 지냈다. 외직으로 충청도사(忠淸都事)가 되어 충청감사 손중돈(孫仲暾) 공을 도왔다. 임기가 차서 형조정랑, 사헌부 지평으로 옮겼다가 어버이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봉양할 수 있도록 청하여 고부군수(古阜郡守)를 맡았다.

부친상을 당하여 돌아와 상제를 마치고서 헌납, 장령, 봉상시 첨정, 사간, 사도시 부정에 제수되었으며, 사성으로 보성군수(寶城郡守)에 제수되었다. 내직으로 들어가 사예가 되었다가 이윽고 내섬시로 옮겼으며 군기시정, 승문원 판교에 제수되었다가 특별히 통정대부에 오르고 병조참지에 제수되었다. 또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제수되었다가 곧바로 좌승지로 옮겼으며 또 가선대부에 가자되었다. 호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함경도 감사가 되었으며 한성부우윤으로 조정에 돌아와 연이어 동지중추부사, 공조와 호조와 예조의 참판을 지냈다. 외직으로 나와서 담양부사(潭陽府使)가 되었다가 상(喪)을 당하였는데, 상을 마치고 자급이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니, 이는 그의 청렴한 덕(德)을 포상한 것이다. 한성부판윤에서 옮겨 형조판서와 우참찬을 지냈으며, 전라도관찰사로 있다가 경직(京職)을 겸임하도록 명하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참찬관에서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판윤이 되었다.

가정(嘉靖) 갑인년(1554) 1월 19일에 지중추부사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64세였다. 부음이 들리자 상이 놀라 애도하여 조회를 폐하는 일과 조문하고 제사하는 일을 규례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특별히 예장(禮葬)을 명하였다. 또 연신(筵臣)이 아뢴 말로 인하여 그의 집을 후하게 구휼하였다. 5월에 장성(長城) 호사동(狐寺洞)의 선영(先塋) 왼쪽 미좌(未坐)의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인릉(仁陵, 순조) 을축년(1805)에 '정혜(貞惠)'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는데, '맑고 깨끗하게 절개를 지켰다[淸白守節]'라는 뜻의 '정(貞)'과 '백성을 사랑하고 베풀기 좋아하였다.[愛民好與]'라는 뜻의 '혜(惠)'라는 두 가지 의미를 취하였다.

공은 타고난 기질이 남달라 간결하고 신중함이 있었으며, 예(禮)로써 몸을 단속하여 외면은 유순하고 내면은 강하여 문채가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일정한 양이 없고 절도가 있어서 어지럽지 않았다. 남들과 어울릴 때는 열성적으로 영합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시골에 있을 때 삼가고 조심하여 매양 만족함을 알라고 경계하였으며, 어버이의 병환에 대변 맛을 보면서 옷을 벗지 않은 채 수십 일 동안 마음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 복상(服喪)하면서 예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여 반걸음도 묘려(墓廬)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상복을 벗고 나서도 여전히 슬퍼하기를 마지않았다. 관직에 있으면서 청렴하고 공정하여 맡은 직임은 진실로 그 의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감히 한 터럭만큼도 간여함이 없었다.

지위가 경상(卿相)에 이르렀으나 몇 개의 서까래만 올린 단출한 집이라서 성상이 가상하게 여기고 특별히 글을 지어 그 아름다운 제도를 매우 칭찬하고 그 우물에 이름을 '어사(御賜)'라고 지어주었다. 일찍이 청렴하고 근신한 신료들을 불러서 궁궐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가 저녁에 돌아갈 때 궁촉(宮燭)을 하사했는데, 공도 거기에 참여하였다. 항상 두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초야에서 외람되이 팔명(八命)의 지위에 올라 영광과 총애가 분수를 넘었으니, 죽은 뒤에 시호를 청하거나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정에 벼슬한 지 38년이 되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렴하고 신중하여 총애를 받음에 놀란 듯 조심하고 매번 재이(災異)를 만남에 경계하여 성상의 근심을 깊이 헤아리고 충성을 바쳤으니, 이것이 바로 공(公)이 공 되는 까닭이다.

호남의 유생들이 일찍이 모암(慕巖)에서 제사를 지냈다. 부인 무송유씨(茂松庾氏)는 부사직 옥로(玉輅)의 따님으로, 장례 때 위(衛)나라 사람의 예[6]를 따랐다. 슬하에 2남을 두었다. 사우(思愚)는 현감이고 사로(思魯)는 봉사(奉事)이다. 봉사의 아들 효남(孝男)·숙남(叔男)·종남(終男)은 모두 측실 소생이다. 손자와 증손자 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겠으나 나에게 와서 비문을 부탁한 자는 기진(起

6 위(衛)나라 사람의 예 : 춘추 시대에 합장(合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노(魯)나라는 하나의 광중(壙中)에 같이 관(棺)을 묻었고 위(衛)나라는 두 관을 서로 다른 광중에 묻었다. 이에 대해 공자가 평가하기를, "위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광중을 분리하고 노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광중을 같이하는데, 노나라 방식이 더 좋다.[衛人之祔也, 離之; 魯人之祔也, 合之, 善夫!]"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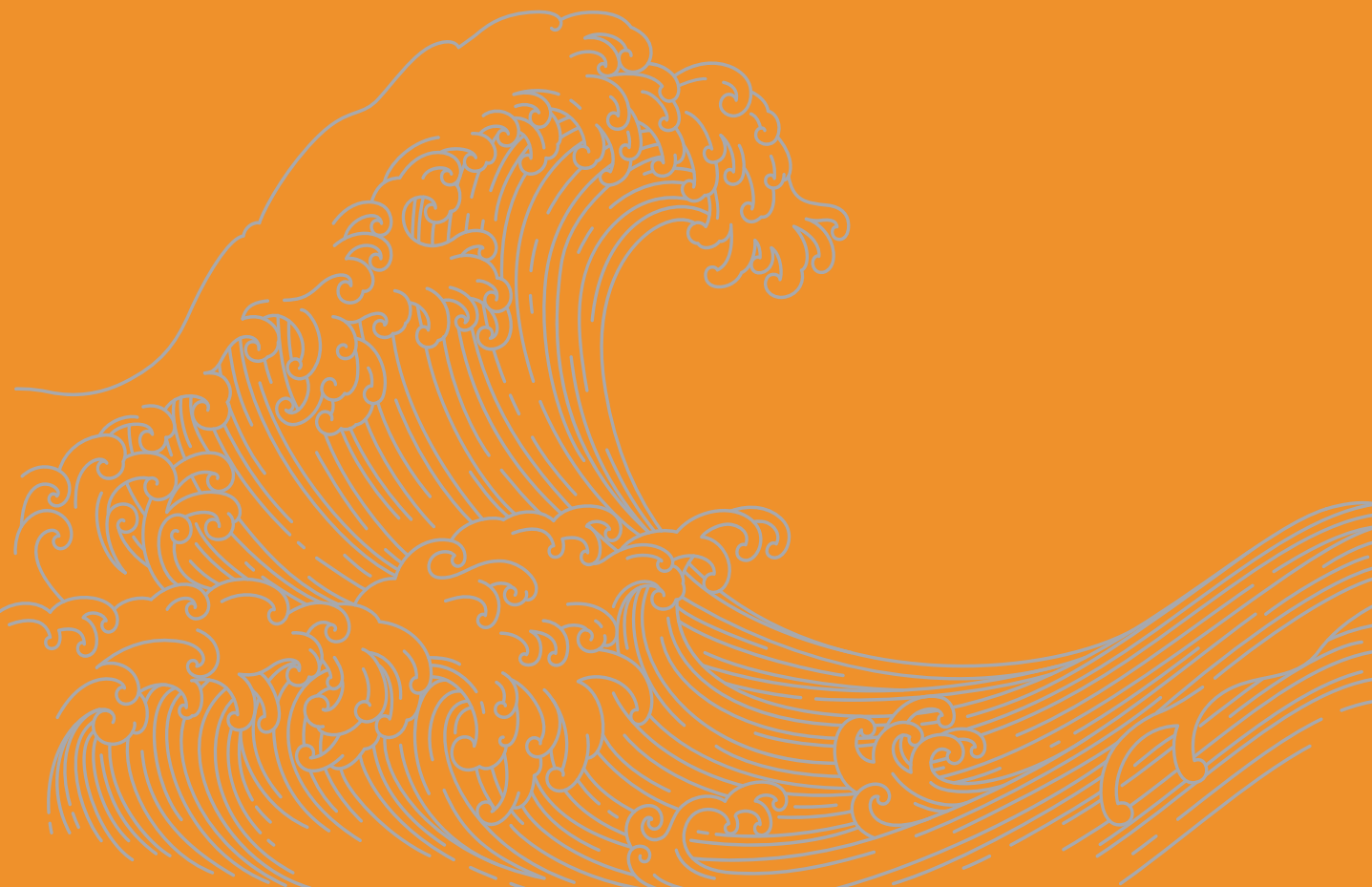
震)과 균영(均永)이다. 유고(遺稿)가 병화(兵火)에 불타서 문헌(文獻)에 증험하고자 하여도 부족하여 알기가 어렵다. 그런 뒤에 세상 사람들이 믿어 주는 것은 오직 김인후 선생의 글일 것이니 정려(鼎呂)보다 더 중할 뿐만이 아니다.

嗟嗟貞惠　　아, 정혜공이여,
惟嶽毓精　　산악이 정기를 모아 탄생시켰네.
才器超倫　　재주와 기량이 남달라,
榮寵躋卿　　총애를 받아 공경에 올랐네.
白兮淸兮　　기절은 희고도 맑으니,
疇將與儔　　누가 장차 더불어 짝하리오.
天澤溢井　　성상의 은택은 우물에 넘치고,
湛筆賁邱　　담재(김인후) 글씨가 무덤을 꾸몄네.
金精玉栗　　정련된 금처럼, 단단한 옥처럼,
畜內制外　　내면을 기르고 외면을 다스렸으니,
曰若稽之　　만일 상고하고자 한다면,
一言以蓋　　한마디 말로 덮을 수 있다네.
瞻彼狐岑　　저 호사동의 묘소를 보라,
有鬱其嵯　　울창하고도 우뚝하도다.
莫豐厥勒　　화려한 빗돌로 꾸미지 말지니,
樹播口碑　　구비로 전해질 수 있어서라네.
蕪辭奚贅　　어설픈 글을 어찌 덧붙이리오,
而獨有一　　다만 한 가지가 있을 뿐이네.
無忝無荒　　더럽힘도 황폐해짐도 없을지니,
雲仍是勖　　자손들은 힘쓸지어다.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 성균관좨주 시강원찬선 경연관서연관 은진(恩津) 송병선(宋秉璿)이 짓고, 정헌대부 공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이 썼으며,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 완산(完山) 이용원(李容元)이 전액을 쓰다.

정해년(1887) 3월에 세우다.

Ⅱ. 송덕비



1. 장성읍 백계리 홍석규(洪錫圭)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605-10(남양) • 제작연대 미상(1600년 중반)
• 크　기 전체높이 117, 비신높이 112, 너비 32, 두께 12

찰방 홍석규(洪錫圭)의 불망비는 장성읍 백계리 남양마을 입구 나무 아래에 세워져 있는 원수형 비이다. 백계리는 원래 역면에 속했다. 1789년『호구총수』역면조에는 백계·대사(大寺)가 나오고, 1914년에는 대사리·백계리·기룡리를 백계리라 하였으며, 현재 1리 백계, 2리 남양촌으로 나뉘어 있다.

찰방이란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을 말한다. 청엄도찰방(靑嚴道察訪)은 청엄역(靑嚴驛)·영신역(永申驛)·선엄역(仙嚴驛)·신안역(新安驛)·녹사역(綠沙驛)·가리

역(加里驛)·경신역(景申驛)·광리역(廣利驛)·오림역(烏林驛)·영보역(永保驛)·단암역(丹巖驛)·청송역(靑松驛) 등 12역을 관할했다. 이중 장성에는 단암역이 있었다. 현 장성군 제방 부근에 청암역(靑巖驛)이 있었는데 이 역은 원래 단암역이라고 부르다가 1700년 전후에 나주의 청암역찰방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11개 역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명칭도 청암역으로 바뀌었다.

홍석규에 대해서는 인조 17년 기묘(1639) 4월 18일(을사)에 홍석규(洪錫圭)를 고령현감(高靈縣監)으로 삼았다는 내용과 인조 26년 무자(1648) 12월 19일(기유)에 홍석규를 사도시주부로 삼았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조 때 활동한 사람으로 보인다.

【전면】

察訪洪侯錫圭永世不忘碑

2. 장성읍 성산리 서유민(徐有民) 흥학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273-1(장성향교) • 제작연대 1833년(道光十三年癸巳)
• 크　기 전체높이 112, 비신높이 89, 너비 47, 두께 19

장성향교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는 서유민 흥학비는 향교 출입구 오른쪽 뒷줄 첫 번째에 왜소하게 자리하고 있다. 서유민(徐有民)은 장성부사에 임진년(1832) 5월 20일에 부임하여 갑오년(1834) 6월 2일에 안주에 이배(移拜)되었다. 비석은 두동강이 난 것을 시멘트로 붙여놓은 데다 많이 마모되어 판독하기 어려운데, 마침 원문이 『장성향교지』(1970)에 실려 있어서 이를 참조하였다. 비문은 6행 10자이다.

【전면】

七政俱擧　捐廩養士
學校是全　賻幣尊賢

府使徐侯有民興學碑

文翁▨▨　螭首播頌

武城絃歌　黌堂之阿

【좌면】

道光十三年癸巳八月日

〈부사 서유민(徐有民) 흥학비(興學碑)〉

七政俱擧　칠정을 모두 거행하니,

學校是全　학교가 바로 온전해졌네.

捐廩養士　녹봉을 덜어 선비들 양성하고,

賁幣尊賢　폐백으로 어진이를 높였네.

文翁▨▨　문옹[7]의 교화요,

武城絃歌　무성의 현가로다.

螭首播頌　비석을 갖추어 송덕하노니,

黌堂之阿　바로 향교의 언덕이로다.

도광(道光) 13년 계사(1833) 8월에 세움

7　문옹(文翁) : 한(漢)나라 사람으로 오지인 촉군(蜀郡)의 태수로 부임하여 학교를 짓고 교육에 힘썼다.

3. 장성읍 성산리 진처명(陳處命) 자당건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273-1(장성향교)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전체높이 155, 너비 29, 두께 42

장성향교 출입문에서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는 좌수 진처명(陳處命)의 자당건비는 아마 홍살문의 기둥을 지탱하는 돌기둥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짝이 옆에 있는데 여기에는 글씨가 없다. 좌수란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鄕廳)의 우두머리로, 수령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고 한다. 고을의 사족으로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정원은 읍격에 관계없이 1읍에 1명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前座首陳處命自當建

4. 장성읍 성산리 김승집(金升集)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450(성산초등학교) • 제작연대 1888년(戊子)
• 크　기 전체높이 155, 너비 55, 두께 23

성산초등학교 운동장 가에 세워진 부사 김승집(金升集)의 불망비로, 원수형 모양이다. 김승집은 경주인으로, 병술년(1886) 11월 21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무자년(1888) 7월 10일에 능주에 이배(移拜)되었다.

【전면】

府使金公升集永世不忘碑

【우면】

戊子八月 日

5. 장성읍 수산리 권엄(權欕)·권익(權翼) 불망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20년(庚辰)
• 크　기 전체높이 173, 비신높이 160, 너비 60, 두께 24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8기의 선정비군 중 오른쪽 1번째에 있는 원수형 비이다. 하나의 비석에 관찰사 권엄(權欕)과 장성부사 권익(權翼)의 비가 나란히 새겨져 있는데, 이는 장성부사 권익이 재임 중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권엄(權欕)은 1793년 6월에 전라관찰사에 부임했고, 권익(權翼)은 1817년 12월 20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1822년 6월 4일에 암행어사에 의해 봉고파직되었다. 비문은 7행 17자이다.

【전면】

正廟癸丑相公按節本道　當宁戊寅我侯
來守本府其間二十六年相公深仁厚澤今

觀察使權相公欐遺愛不忘碑

府使權侯虨淸德善政碑

有目見而口頌者侯又莅玆廢局克世其績

三載爲政吏民俱安於乎不忘用壽于石

【우면】

庚辰三月日

〈관찰사 권엄(權欐) 유애불망비(遺愛不忘碑), 부사 권익(權虨)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정조 계축년(1793)에 상공께서 본도를 안절(按節)하시고, 당저(當宁) 무인년(1818)에 우리 부사께서 장성부에 부임하시니, 그 사이가 26년이다. 상공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은 지금까지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는 자가 있다. 부사께서 또 이러한 피폐한 판국에 부임하여 그 공적을 이어갔으니, 3년 동안의 정사에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편안해졌다. 이에 잊을 수 없어서 돌에 새겨 오래가게 한다.

경진년(1820) 3월에 세움

6. 장성읍 수산리 이낙수(李洛秀) 거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20년(庚辰)
• 크　기 전체높이 162, 비신높이 148, 너비 48, 두께 21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8기의 선정비군 중 2번째에 자리한다. 비두 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원수형이다. 부사 이낙수(李洛秀)는 남행으로서 을축년(1805) 7월 2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병인년(1806) 11월 1일에 진주에 이배(移拜)되었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府使李公洛秀去思碑

【좌면】
庚辰三月 日

7. 장성읍 수산리 박좌원(朴左源)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미상(1793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85, 비신높이 172, 너비 90, 두께 37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8기의 선정비군 중 3번째에 자리한다. 비석형태는 거의 자연석에 가까운 돌에 앞면만 깎아서 세웠다. 부사 박좌원(朴左源)은 남행으로, 신해년(1791) 정월 13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계축년(1793) 6월에 능주에 이배(移拜)되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朴公左源淸德善政碑

8. 장성읍 수산리 최종주(崔宗周) 흥학휼민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723년(癸卯)
• 크　기 전체높이 172, 비신높이 160, 너비 60, 두께 24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8기의 선정비군 중 4번째에 자리한다. 비수 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원수형이다. 부사 최종주(崔宗周)는 문과 출신으로, 기해년(1719) 9월 15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임인년(1722) 8월 19일에 사체(辭遞)하였다. 비문은 2행 13자이다.

【전면】

府使崔公宗周興學恤民善政碑

癸卯九月 日

9. 장성읍 수산리 임세량(林世良) 몰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723년(癸卯)
• 크　기 전체높이 162, 비신높이 150, 너비 58, 두께 25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선정비군 중 5번째에 자리한다. 비수 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원수형이다. 부사 임세량(林世良)은 남행으로, 을유년(1705) 2월 16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무자년(1708) 3월 9일에 관(官)에서 졸하였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興學恤民
府使林公世良沒世不忘碑
蠲役均賑
癸卯九月 日

〈부사 임세량(林世良) 몰세불망비(沒世不忘碑)〉

興學恤民　학문을 장려하고 백성을 구제해 주었으며,
蠲役均賑　부역을 감면해주고 진휼을 고르게 해주었네.
계묘년 9월에 세움

10. 장성읍 수산리 박시경(朴時璟)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707년(康熙四十六年丁亥)
• 크　기 전체높이 163, 비신높이 153, 너비 56, 두께 20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선정비군 중 6번째에 자리한다. 비수 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원수형이다. 부사 박시경(朴時璟)은 남행으로, 갑술년(1694) 6월 15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병자년(1696) 10월 13일에 원주로 이배(移拜)되었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惠深賑歉

府使朴公時璟淸德善政碑

遺愛茂林

【좌면】

康熙四十六年丁亥七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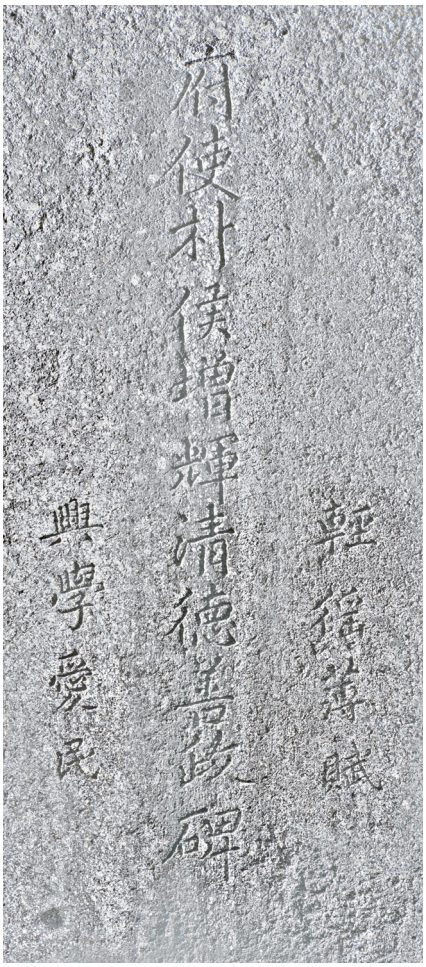
〈부사 박시경(朴時璟)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惠深賑歉　　은혜가 깊어 흉년에 진휼하니,

遺愛茂林　　미친 은택이 숲처럼 무성하네.

강희 46년 정해(1707) 7월에 세움

11. 장성읍 수산리 박증휘(朴增輝)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660년(庚子)
• 크　기 전체높이 222, 비신높이 142, 너비 65, 두께 28

디지털 탁본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선정비군 중 7번째에 자리한다. 사각 대석에 개석형태를 갖추었는데, 개석은 비신과 일체형인 하엽수형 이형이다. 부사 박증휘(朴增輝)는 문과 출신으로, 경자년(1660) 2월 3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동년 8월 15일에 시관의 할봉백좌(割封伯左)의 일로 본도의 계문에 의해 파직되었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輕徭薄賦

府使朴侯增輝淸德善政碑

興學愛民

【우면】

庚子年九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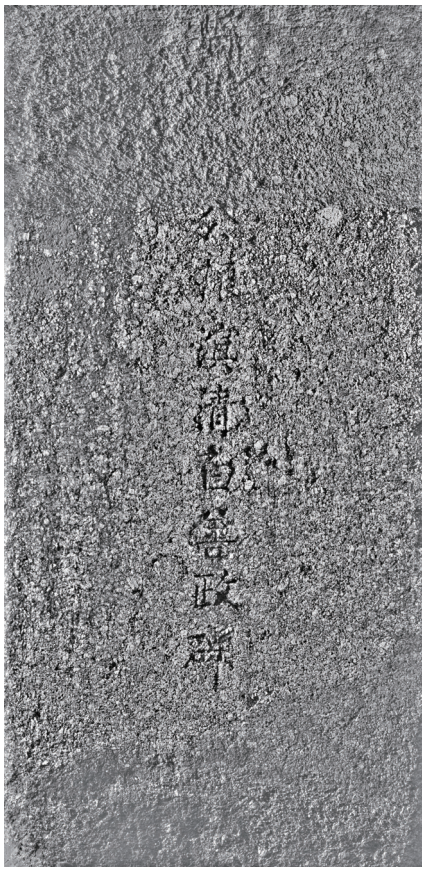
〈부사 박증휘(朴增輝)의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輕徭薄賦　　요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며,

興學愛民　　교육사업을 일으키고 백성을 사랑했네.

경자년(1660) 9월에 세움

12. 장성읍 수산리 한진명(韓振溟)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미상(1643년경) 디지털 탁본
• 크　기 전체높이 167, 비신높이 112, 너비 54, 두께 21

성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선정비군 중 끝(8번째)에 자리한다. 운문형 개석형태를 갖춘 일체형 비이다. 부사 한진명(韓振溟)은 경진년(1640) 12월 17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계미년(1643) 12월 13일에 관직을 버리고 돌아갔다.

【전면】

府使韓公振溟淸白善政碑

13. 장성읍 수산리 김이정(金履禎)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75(乙亥)
• 크　기 전체높이 147, 비신높이 134, 너비 47, 두께 21

김이정(金履禎)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이정(金履禎)은 을유년(1825) 7월 7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기축년(1829) 12월 2일에 수계(繡啓)에 의해 파직되어 돌아갔다. 이 비석은 1875년 12월에 김이정의 손자 김도근(金度根)이 능주목사였을 때 비각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면】

府使金侯履禎淸德善政碑

【좌면】

不肖孫度根以綾州牧使修閣 乙亥十二月日

14. 장성읍 수산리 김조연(金祖淵)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32년(壬辰)
• 크　기 전체높이, 비신높이 133, 너비 54, 두께 15

김조연(金祖淵)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2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조연(金祖淵)은 기축년(1829) 12월 20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임진년(1832) 5월 10일에 충주에 이배(移拜)되었다.

【전면】

府使金侯祖淵淸白善政碑

【좌면】

壬辰十月 日

15. 장성읍 수산리 김조연(金祖淵)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미상(1832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49, 비신높이 136, 너비 80, 두께 20

김조연(金祖淵)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3번째에 있다. 자연석을 사용하여 앞면 글씨 새길 부분만 깎아서 세운 비이다. 김조연(金祖淵)은 기축년(1829) 12월 20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임진년(1832) 5월 10일에 충주에 이배(移拜)되었다.

【전면】
府使金侯祖淵永世不忘碑

16. 장성읍 수산리 심의복(沈宜復)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56년(丙辰)
• 크　기 전체높이 166, 비신높이 153, 너비 57, 두께 21

심의복(沈宜復)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4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심의복(沈宜復)은 갑오년(1834) 6월 26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을미년(1835) 10월 17일에 사체(辭遞)하였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府使沈侯宜復永世不忘碑

【우면】
丙辰七月 日

17. 장성읍 수산리 김진교(金晋教)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미상(1842년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171, 비신높이 156, 너비 60, 두께 21

김진교(金晋教)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5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진교(金晋教)는 남행으로서 경자년(1840) 9월 12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임인년(1842) 8월 1일에 황주에 이배(移拜)되었다. 김진교(金晋教)의 흥학비가 곁에 서 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金侯晋教淸白善政碑

18. 장성읍 수산리 김진교(金晋教) 흥학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42년(壬寅)
• 크　기 전체높이 180, 비신높이 167, 너비 52, 두께 20

김진교(金晋教)의 흥학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6번째에 있다. 원수형비이다. 김진교 청백선정비가 곁에 서 있다.

【전면】

府使金侯晋教興學碑

【좌면】

壬寅九月 日

19. 장성읍 수산리 이병례(李秉禮) 청덕휼민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48년(戊申)
• 크　기 전체높이 182, 비신높이 160, 너비 51, 두께 17

이병례(李秉禮)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7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이병례(李秉禮)는 완산인으로서 정미년(1847) 7월 24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기유년(1849) 9월 2일에 감사가 순행할 때 언어를 가리지 않고 썼다는 것으로 장파(狀罷)되었다. 무신년 12월에 읍동상면(邑東上面)에서 세웠다. 비문은 3행 13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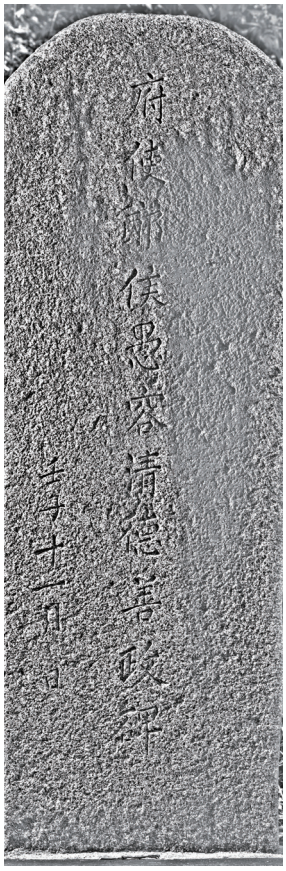
【전면】

邑東上面

府使李侯秉禮淸德恤民善政碑

戊申十二月 日

20. 장성읍 수산리 정우용(鄭愚容)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52년(壬子) 디지털 탁본
• 크　기 전체높이 157, 비신높이 141, 너비 51, 두께 9

정우용(鄭愚容)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8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정우용(鄭愚容)은 장성부사에 신해년(1851) 7월 18일에 부임하여 갑인년(1854) 윤7월 2일에 수계(繡啓)로 벼슬이 바뀌어 돌아갔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鄭侯愚容淸德善政碑

壬子十一月 日

21. 장성읍 수산리 김재홍(金在弘)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78년(光緖四年)
• 크　기 전체높이 172, 비신높이 160, 너비 57, 두께 27

김재홍(金在弘)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9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재홍(金在弘)은 남행으로서 경신년(1860) 정월 29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임술년(1862) 4월 27일에 사체(辭遞)하였다. 이 비석은 광서 4년(1878) 4월에 다시 세웠다고 한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金侯在弘淸白善政碑

光緖四年四月 日 改竪

22. 장성읍 수산리 성정호(成鼎鎬)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71년(辛未)
• 크　기 전체높이 180, 비신높이 165, 너비 59, 두께 22

성정호(成鼎鎬)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0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성정호(成鼎鎬)는 남행으로서 무진년(1868) 6월 26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경오년(1870) 6월 8일에 진주에 이배(移拜)되었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府使成侯鼎鎬永世不忘碑

辛未三月 日

23. 장성읍 수산리 정운소(鄭雲韶) 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81년(辛巳) 디지털 탁본
• 크　기 전체높이 131, 비신높이 115, 너비 44, 두께 19

정운소(鄭雲韶)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1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정운소(鄭雲韶)는 남행으로서 장성부사에 을해년(1875) 8월 27일에 부임하여 병자년(1876) 7월 16일에 의성에 이배(移拜)되었다.

【전면】

府使鄭侯雲韶永世不忘碑

【좌면】

辛巳三月 日

24. 장성읍 수산리 서중보(徐中輔)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미상(1881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71, 비신높이 155, 너비 55, 두께 23

서중보(徐中輔)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2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서중보(徐中輔)는 남행으로서 병자년(1876) 8월 8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신사년(1881) 5월 2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徐侯中輔永世不忘碑

25. 장성읍 수산리 김윤현(金胤鉉)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84년(甲申)
• 크　기 전체높이 161, 비신높이 145, 너비 52, 두께 21

김윤현(金胤鉉)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3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윤현(金胤鉉)은 광산인으로서 신사년(1881) 윤7월 15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계미년(1883) 정월 29일에 안주에 이배(移拜)되었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金侯胤鉉永世不忘碑

甲申年九月 日

26. 장성읍 수산리 김오현(金五鉉)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미상(1886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64, 비신높이 148, 너비 57, 두께 17

김오현(金五鉉)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4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오현(金五鉉)은 광산인으로서 병술년(1886) 4월 15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동년 10월 10일에 담양에 이배(移拜)되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金侯五鉉永世不忘碑

27. 장성읍 수산리 김헌수(金憲秀)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미상(1892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56, 비신높이 140, 너비 53, 두께 16

김헌수(金憲秀)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좌측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5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헌수(金憲秀)는 연안인으로서 경인년(1890) 7월 27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임진년(1892) 4월 24일에 영해에 이배(移拜)되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金侯憲秀淸白善政碑

28. 장성읍 수산리 민영복(閔泳復)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905년(乙巳)
• 크　기 전체높이 159, 비신높이 145, 너비 61, 두께 19

민영복(閔泳復)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6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민영복(閔泳復)은 문과 출신으로, 임인년(1902) 5월 29일에 장성군수에 부임하여 을사년(1905) 11월 3일에 벼슬이 바뀌어 돌아갔다. 비문은 2행 12자이다.

【전면】

行郡守閔公泳復淸白善政碑

【우면】

乙巳四月 日

29. 장성읍 수산리 원두표(元斗杓)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762년(壬午)
• 크　기 전체높이 148, 비신높이 135, 너비 50, 두께 23

원두표(元斗杓)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7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원두표(元斗杓)는 가의대부로서 전라관찰사에 갑술년(1634) 4월에 도임하였고 병자년(1636) 4월에 임기가 차서 체직되었고, 또 정헌대부로서 전라관찰사에 정축년(1637) 4월에 도임하여 무인년(1638) 7월에 체직되었으며, 또 자헌대부로서 전라관찰사에 기묘년(1639) 9월에 도임하여 신사년(1641) 5월에 임기가 차서 체직되었다. 원두표 선정비는 원두표의 현손 원경순(元景淳)이 임오년(1762) 6월에 건립하였다. 원경순은 가선대부로서 신사년(1761) 12월에 전라관찰사에 도임하여 계미년(1763) 7월에 파직되었다. 원래 장성읍 백계리 백계 마을에 세워진 것인데 옮긴 것으로 보인다. 비문은 5행 13자이다.

【전면】

撫恤驛卒

兼巡察使元侯斗杓善政碑

萬歲流芳

【좌면】

舊碑年久傷缺玄孫景淳來按本

道改石重刻以立 壬午六月 日

〈겸순찰사 원두표(元斗杓) 선정비(善政碑)〉

撫恤驛卒　　역졸들을 어루만지고 구휼했으니,

萬歲流芳　　만세토록 꽃다운 이름 전하리라.

구비가 오래되어 깨진 곳이 있었는데 현손인 경순(景淳)이 본도의 안찰사로 와서 비석을 고치고 다시 새겨서 세웠다. 임오년(1762) 6월.

30. 장성읍 수산리 서상정(徐相鼎) 혜휼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 선정비군 • 제작연대 1872년(壬申)
• 크　기 전체높이 182, 비신높이 172, 너비 58, 두께 23

서상정(徐相鼎)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8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서상정(徐相鼎)은 병인년(1866) 3월에 전라관찰사에 도임했었다. 비문은 2행 14자이다.

【전면】

觀察使徐公相鼎惠恤永世不忘碑

壬申七月 日

31. 장성읍 수산리 이헌직(李憲稙)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89년(己丑)
• 크　기 전체높이 161, 비신높이 151, 너비 57, 두께 23

이헌직(李憲稙)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19번째에 있다. 약간 각이 진 원수형 비이다. 이헌직(李憲稙)은 정해년(1887) 4월에 전라관찰사에 도임했다. 비문은 2행 12자이다.

【전면】

觀察使李公憲稙永世不忘碑

己丑八月 日

32. 장성읍 수산리 김문현(金文鉉)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93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62, 비신높이 150, 너비 58, 두께 19

김문현(金文鉉)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20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문현(金文鉉)은 계사년(1893) 8월에 전라관찰사에 도임했다. 비문은 1행 12자이다.

【전면】

觀察使金公文鉉永世不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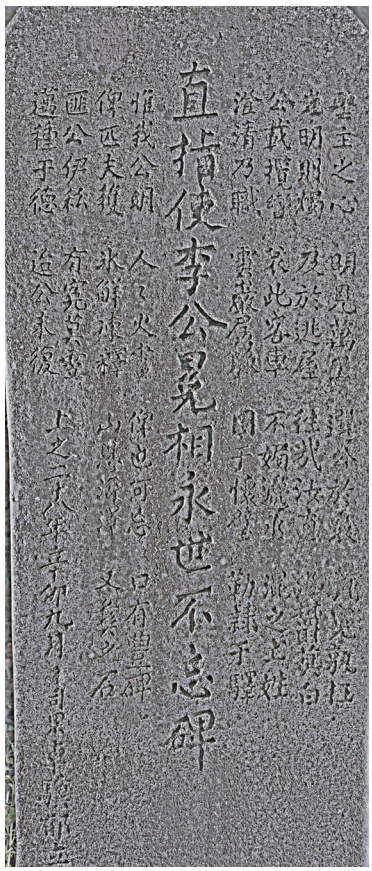
33. 장성읍 수산리 윤웅렬(尹雄烈) 유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 • 제작연대 미상(1900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51, 비신높이 140, 너비 57, 두께 19

윤웅렬(尹雄烈)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21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윤웅렬(尹雄烈)은 병신년(1896)에 광주관찰사로 왔고, 경자년(1900)에 재임하였다. 윤웅렬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백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사에서 일제국권침탈협력자로 드러나서, 광주시의 경우 그의 선정비를 해체해 놓았다. 비문은 1행 12자이다.

【전면】
觀察使尹公雄烈遺惠不忘碑

34. 장성읍 수산리 이면상(李冕相)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92년(辛卯)
• 크　기 전체높이 171, 비신높이 160, 너비 63, 두께 22

디지털 탁본

이면상(李冕相)의 불망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22번째에 있다. 원수형 비이다. 이면상(李冕相, 1846~?)의 자는 성규(聖圭),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이종영(李種永)의 아들로 종정경 이승수(李升洙)에게 입양되어 완원군(完原君) 이유명(李惟命)의 손자가 되었다. 1889년 친림경무대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자마자 승정원우부승지에 파격적으로 임명되었고, 다음해에는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892년 전라도암행어사가 되어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수령구임법(守令久任法)이 필요하며, 계방촌(契防村)을 혁파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비문은 9행 16자이다.

【전면】

聖主之心 明見萬里 選公於衆 孰寃孰枉
光明則燭 及於逃屋 往哉汝直 幽鬱莫白
公載攬轡 哀此客車 不媚遞丞 混之土姓
澄淸乃職 雲巖孱脈 因于懷璧 勒隷于驛

直指使李公冕相永世不忘碑

惟我公明 人人火書 俾也可忘
俾匹夫獲 氷解凍釋 山恩海澤
匪公伊私 有寃莫雪 口有豐碑
邁種于德 迨公末復 又彝之石
上之二十八年辛卯九月日司果卓驥郁立

〈직지사 이면상(李冕相) 영세불망비〉

聖主之心	성상의 마음은,
光明則燭	밝게 빛남이 촛불과 같아,
明見萬里	밝게 만 리를 내다보고,
及於逃屋	달아난 집까지 미쳤네.
選公於衆	사람들 가운데서 공을 선발하였으니,
往哉汝直	가서 그대는 잘 처리하라.
孰寃孰枉	누가 원통하며 누가 억울한가,
幽鬱莫白	답답한 마음 말할 길 없었는지.
公載攬轡	공이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았으니,
澄淸乃職	맑게 하는 것이 곧 직분일세.[8]
哀此客車	손님의 수레 슬퍼하니,
雲巖孱脈	운암의 잔약한 혈맥이네.
不媚遞丞	역승(驛丞)에게 아첨하지 않고,
因于懷璧	옥구슬을 가슴에 품었네.
混之土姓	토성들과 섞어 살며,
勒隷于驛	역참에 예속되었네.
惟我公明	우리 공이 공명정대하여,

8 수레에……직분일세 : 후한(後漢) 범방(范滂)이 기주자사(冀州刺史)로 나갈 적에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서는 천하를 정화할 뜻을 개연히 품었다.[登車攬轡, 慨然有澄淸天下之志]"라는 고사가 있다.

俾匹夫獲　　필부도 제 곳을 얻도록 하였네.
人人火書　　사람마다 불 밝혀 책을 읽으니,
氷解凍釋　　얼음이 풀리고 언 것이 녹았네.
俾也可忘　　어찌 잊을 수 있으랴,
山恩海澤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은혜를.
匪公伊私　　공이 사사로움 위하지 않고,
邁種于德　　힘써 덕을 널리 심었네.
有寃莫雪　　원통함이 있어도 풀지 못한 사람,
迨公末復　　공에 이르러 끝내 회복하였네.
口有豐碑　　입으로 전하는 비석이 있으나,
又彝之石　　또 빗돌에 새기네.

고종(高宗) 28년 신묘년(1891) 9월 일, 사과(司果) 탁기욱(卓驥郁)이 세우다.

35. 장성읍 수산리 강석일(姜晳一)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 • 제작연대 1848년(戊申) 디지털 탁본
• 크　기 전체높이 176, 비신높이 116, 너비 43, 두께 12

찰방 강석일(姜晳一)의 선정비는 성산공원 계단 왼쪽 편에 있는 선정비군 23기 중 마지막(23번째)에 있다. 사각 대석 위에 세워진 원수형 비이다. 왕조실록 고종 2년 을축(1865) 6월 22일(을묘) 기사에 "강석일(姜晳一)을 평안도 도사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신년은 1848년으로 추정된다.

【전면】

察訪姜侯晳一淸白善政碑

戊申十二月 日

36. 장성읍 유탕리 김보인(金寶仁) 선공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61-5 • 제작연대 1886년(光緒十二年丙戌)
• 크　기 전체높이 200, 비신높이 150, 너비 54, 두께 22.5

오위장 김보인(金寶仁)의 선공비(善功碑)는 장성읍에서 유탕리 소방서 미처 못가서 길가에 서 있다. 비석은 장방형 지대석에 비신을 꽂고 그 위에 가첨석을 얹은 형태이다. 창고를 열고 돈을 내어서 폐단을 구제한 공적을 적었다. 1886년에 손자 희모(僖謨)가 세웠고, 1929년에 손부 정계묵(鄭季默)과 증손 준길(俊吉)이 중수하였다. 비문은 6행 12자이다.

【전면】

五衛將金寶仁善功之碑

【후면】

紝漢霍之開倉　捐其錢而救弊

仰鄒聖之發棠　歌於道而相慶

光緖十二年丙戌九月 日立　監役　孫　僖謨

【좌면】

開國五百三十八年己巳四月 日重修　孫婦 鄭季默

曾孫　俊吉

〈오위장(五衛將) 김보인(金寶仁)의 훌륭한 공적을 칭송한 비〉

紘漢霍之開倉	창고를 열었던 한(漢)나라 곽광(霍光)을 잇고,[9]
仰鄒聖之發棠	당읍(棠邑)의 창고를 열었던 맹자(孟子)를 우러렀네.[10]
捐其錢而救弊	돈을 내어 폐단을 구제하였으니,
歌於道而相慶	길에서 노래하며 서로 경하하네.

광서(光緖) 12년 병술(1886) 9월에 감역(監役)인 손자 희모(僖謨)가 세우다.

개국 538년 기사(1929) 4월에 손부 정계묵(鄭季默)이 중수하다.

증손 준길(俊吉)

9　창고를……잇고 : 곽광이 선제(宣帝)를 옹립하여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한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당읍(棠邑)의……우러렀네 : 당읍은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고을이다. 맹자가 흉년을 만나 군주에게 권유하여 당읍의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휼하였다.

37. 장성읍 유탕리 김진교(金晉敎) 청검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71-2(서동) • 제작연대 1842년(壬寅)
• 크　기 전체높이 146, 비신높이 55, 너비 56.5, 두께 17.5

김진교(金晉敎) 청검불망비(淸儉不忘碑)는 유탕리 서동마을 안쪽 주택 담장에 붙어서 서 있다. 원수형 비이다. 김웅권(金雄權)의 처 최씨자선표창비(崔氏慈善表彰碑)가 50여미터 지점에 있다. 김진교는 1840년(庚子) 9월 12부터 1842년(壬寅) 8월 1일까지 장성현감을 지냈으며, 그의 선정비와 흥학비가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선정비군)에도 있다. 비문은 9행 11자이다.

【전면】

文章世業　處官如家
淸儉家風　秋毫無犯

府使金候晉敎淸儉不忘碑

杜父召母 耳目頌德
果如是否 萬口成碑

【좌면】

壬寅八月 日

【후면】

陳門中重修
有司午鎭
庚子二月 日

〈부사 김진교(金晉敎) 청검불망비(淸儉不忘碑)〉

文章世業　문장은 가업이고,
淸儉家風　청렴하고 검소함은 가풍이었네.
處官如家　관직에 처신하길 집에서처럼 하여,
秋毫無犯　조금도 법도를 어김이 없었네.
杜父召母　소부와 두모[11]가,
果如是否　과연 이와 같았겠는가.
耳目頌德　듣고 보는 이 덕을 칭송하니,
萬口成碑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비석을 이루네.
임인년(1842) 8월에 세움
진씨(陳氏) 문중에서 유사는 진오진(陳午鎭)이 맡아 경자년(1900) 2월에 중수하였다.

11 소부와 두모 : 전한(前漢)의 소신신(召信臣)과 후한(後漢)의 두시(杜詩)를 가리킨다. 이들은 전후로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덕정(德政)을 베풀었으므로 민간에서 말하기를, "앞에는 소부(召父)가 있고 뒤에는 두모(杜母)가 있다.[前有召父, 後有杜母]"라고 하였다. 『漢書 召信臣傳』『後漢書 杜詩列傳』

38. 진원면 진원리 오희안(吳希顔)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106 • 제작연대 미상(정유왜란 이전) 디지털 탁본
• 크　기 전체높이 133, 비신높이 , 너비 40, 두께 20

진원면 진원산성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왼편의 비석군 중 3번째에 세워져 있다. 비신과 한몸인 하엽수형 개석을 갖춘 비이다. 이름자 중에 가운데자 부분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 파여있다. 진원현감 선생안은 남아있지 않은데, 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오희안은 1580년에 과천현감을 역임하였다.

【전면】

縣監吳希顔善政碑

39. 진원면 진원리 최희열(崔希說)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106 • 제작연대 미상(158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26, 비신높이 126, 너비 40, 두께 23

진원면 진원산성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왼편의 비석군 중 5번째에 세워져 있다. 비석의 앞면만 잘 다듬었고, 다른 면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다. 이 비석은 진원현이 폐하면서 비석도 잃어버렸는데, 경신년(1860) 3월에 고산촌에서 찾게 되어 8대손 흥한(興翰)이 잔결된 글자는 옛글자에 의거해 깊이 새겨서 다시 세운 것이다.

최희열(崔希說, 1536~1607)의 자는 경뢰(景賚),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율정(栗亭) 최학령(崔鶴齡)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효우(孝友)하고 학문이 뛰어나 최공이 대단히 기대하였다. 157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임오년(1582)에 명경과에 급제하였다. 전적(典籍)과 병조와 예조의 좌랑을 역임하였고, 진원현감(珍源縣監)으로 나갔다.

나주의 보산사(寶山祠)[12]에 배향하고 있다. 비문은 5행 20자이다.

【전면】

縣監崔希說淸德善政碑

【우면】

八代孫 興翰　記

公監珍原縣在　萬曆間此其遺愛之石也縣廢而石
失三百年于玆　今上庚申三月始於高山村前井甃
得之舊刻殘缺者數字今依舊字樣補映深刻改竪

〈현감 최희열(崔希說) 청덕선정비〉

공께서 진원현의 현감을 만력년간에 지내셨는데, 이것은 그 유애비이다. 현이 폐하면서 비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지금까지 300년이 되었다. 금상 경신년(1860) 3월에야 비로소 고산촌 앞의 우물에서 찾게 되었다. 옛날에 새긴 글자 중 이지러진 몇 자는 옛글자 모양에 의거하여 보완하고 깊이 새겨서 다시 세운다. 8대손 최흥한(崔興翰)이 기록하다.

12 보산사(寶山祠) : '보산팔현(寶山八賢)'이라고 불린 죽담(竹潭) 이유근(李惟謹),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 창주(滄洲) 정상(鄭詳), 한천(寒泉) 유주(柳澍), 삼주(三洲) 최희열(崔希說), 금애(錦崖) 이언상(李彦詳), 남호(南湖) 유은(柳殷), 사촌(沙村) 최사물(崔四勿)을 추모하기 위해 1789년(정조13)에 세운 사당이다.

40. 진원면 진원리 이우(李堣)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106 • 제작연대 미상(1751년경)
• 크　기 전체높이 90, 비신높이, 너비 49, 두께 21

이우(李堣) 영세불망비는 진원면 진원산성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왼편의 비석군 중 6번째에 세워져 있다. 비석은 반듯하게 다듬은 것이 아니어서 윗부분이 울퉁불퉁하다. 이우(李堣)는 남행으로, 병인년(1746) 9월 6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신미년(1751) 7월 26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비문은 1행 10자이다.

【전면】
府使李侯堣永世不忘碑

41. 진원면 진원리 김조연(金祖淵)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106 • 제작연대 미상(1832년경)
• 크　기 전체높이 99, 비신높이 99, 너비 44, 두께 27

김조연(金祖淵) 영세불망비는 진원면 진원산성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왼편의 비석군 중 7번째에 세워져 있다. 자연석의 앞면을 다듬어서 글자를 새겼는데,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넓다. 김조연(金祖淵)은 장성부사에 기축년(1829) 12월 20일에 부임하여 임진년(1832) 5월 10일에 충주에 이배(移拜)되었다. 수산리 성산공원 선정비군에도 1832년과 미상년에 세운 김조연의 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金侯祖淵永世不忘碑

42. 진원면 진원리 이병례(李秉禮)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106 • 제작연대 미상(1848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20, 비신높이 120, 너비 46, 두께 21

이병례(李秉禮) 청덕선정비는 진원면 진원산성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왼편의 비석군 중 4번째에 세워져 있다. 비석은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좁은 원수형 비이다.

이병례(李秉禮)는 완산인으로, 정미년(1847) 7월 24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기유년(1849) 9월 2일에 감사가 순행할 때 언어를 가리지 않고 썼다는 것으로 장파(狀罷)되었다. 수산리 성산공원 선정비군에도 무신년(1848) 12월에 세운 비석이 1개 있다.

【전면】
府使李侯秉禮淸德善政碑

43. 진원면 진원리 정우용(鄭愚容)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106 • 제작연대 미상(1852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46, 비신높이 146, 너비 49, 두께 18

정우용(鄭愚容) 청덕선정비는 진원면 진원산성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왼편의 비석군 중 2번째에 세워져 있다. 비의 윗부분이 더 넓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수형 비이다. 정우용(鄭愚容)은 신해년(1851) 7월 18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갑인년(1854) 윤7월 2일에 수계(繡啓)로 벼슬이 바뀌어 돌아갔다. 수산리 성산공원 선정비군에도 1852년에 세운 선정비가 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鄭侯愚容淸德善政碑

44. 삼서면 삼계리 김유일(金有一) 시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748-1(초정) • 제작연대 미상(1907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06, 너비 49, 두께 12.5

김유일(金有一, 1850~1907)의 시혜불망비는 삼계리 초정마을 버스정류장 옆에 있다. 원수형 비신이 흙에 묻혀 있어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왼쪽에 2001년에 세운 <監察晉州金公有一施惠不忘碑>가 서 있는데, 김유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김유일의 자는 원서(元瑞)이고, 호는 낭암(浪菴)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아버지는 사효당(思孝堂) 석곤(錫坤)이고, 어머니는 장흥고씨이다. 비문은 5행 11자이다. 아래부분은 마멸되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독을 하지 않는다.

【전면】

菲以自奉
惠而喜施

監察金公有一施惠不忘碑

頌聲載路

口碑不泐

〈감찰 김유일(金有一) 시혜불망비(施惠不忘碑)〉

菲以自奉	자신의 생계 넉넉하지 않았지만,
惠而喜施	은혜롭게 베풀기를 좋아했네.
頌聲載路	칭송하는 소리 길에 가득하니,
口碑不泐	입으로 전해지며 닳지 않으리.

45. 삼계면 사창리 서유소(徐有素)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산94-16 • 제작연대 1829년(己丑)
• 크　기 비신높이 88, 너비 44-38

1829년에 새긴 영광군수 서유소(徐有素)의 선정비는 사창리 우봉마을 앞들을 건너 사창에서 신기리로 가는 도롯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비는 그리 크지 않은 자연석을 원수형으로 얕게 파내고 그 안에 비문을 새겼다. 현재 하단이 흙에 묻혀 있어 전체를 읽을 수는 없으나, 휼민선정비(恤民善政碑)로 추정된다. 본래는 서유소 선정비 좌우에 1개씩 같은 형태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글씨를 일부러 쪼아서 훼손하였다.

서유소는 1827년(丁亥) 7월에 영광군수로 부임하여 1829년(己丑)에 승지에 제수되었다.[13] 비의 제작 연대는 서유소의 군수 재임 기간을 참고하여 1829년(己丑)으로 추정하였다. 이 비의 위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송덕비를 세우는 장소는 읍치소가 아닌 경우 길가에 세운다. 이 비는 바위면을 파고 새겼으므로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두 개의 비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장소는 중요한 도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 郡守徐侯有素恤民善…

己丑五…

13 권수용, 『전남 선생안』, 심미안, 2017, 3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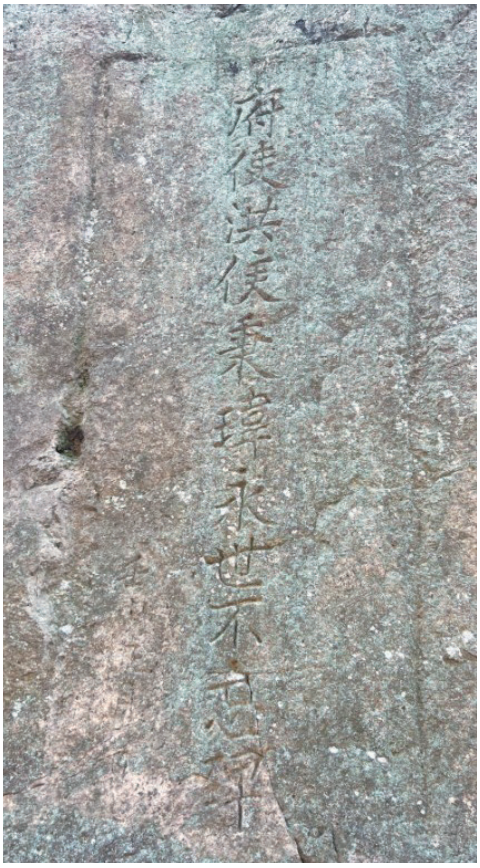
46. 북일면 신흥리 이병례(李秉禮) 선정비

• 소재지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270-1(남부) • 제작연대 미상(1848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42, 비신높이 94, 너비 38.4, 두께 13.3

부사 이병례(李秉禮)의 청덕을 기념하는 선정비는 신흥우체국에서 신흥로를 따라 북쪽으로 366m 거리의 길가에 위치한다. 좌우 뒷면은 붉은 벽돌로 낮은 담장을 쌓고 앞면은 낮은 쇠창살로 막아놓았다. 두 개의 비 가운데 향좌측에 위치한 것으로, 시멘트로 된 삼단 비좌 위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앞면의 비명 외에는 건립연대나 어떠한 기록도 새겨지지 않았다. 이병례(李秉禮)는 완산인으로, 정미년(1847) 7월 24일에 장성부사에 부임하여 기유년(1849) 9월 2일에 감사가 순행할 때 언어를 가리지 않고 썼다는 것으로 장파(狀罷)되었다. 이병례의 비는 이외에도 수산리 성산공원 비석군에도 1기가 세워져 있고, 진원리 진원산성 입구 비석군에도 1기가 세워져 있으며, 약수초등학교에도 1기가 세워져 있다.

【전면】府使李侯秉禮淸德善政碑

47. 북이면 원덕리 홍병위(洪秉瑋) 영세불망비



• 소재지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재(목란) • 제작연대 1872년(壬申)
• 크　기 암벽

홍병위(洪秉瑋) 영세불망비는 원덕리 목란 마을 갈재 옛길 정상의 암벽에 새겨져 있다. 명승 지정 예고된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재 옛길은 한양에서 삼남지방(충청·전라·경상도)으로 이동하는 삼남대로 970리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갯길이다. 홍병위(洪秉瑋)는 장성부사에 1871년 5월 13일에 부임하여 1872년 12월 15일에 파직되었다. 철로 된 선정비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찾지 못했다. 이밖에 약수초등학교에도 불망비가 1기 세워져 있다.

【전면】

府使洪侯秉瑋永世不忘碑

壬申九月 日

48. 북하면 단전리 김종구(金鍾九) 자선불망비

•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92-1(단전) • 제작연대 1867년(丁卯)
• 크　기 전체높이 163.4, 비신높이 110.9, 너비 41.4, 두께 11.3

1867년에 세운 전참봉 김종구(金鍾九)의 자선에 대한 불망비는 단전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 단전 버스정류장 맞은 편 길가에 위치한다. 붉은색 벽돌로 낮은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두 기의 비석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향좌측의 비석이다. 자연석 비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가첨석을 올렸다. 약수초등학교 교정에도 같은 해에 세운 비가 있다. 비문은 6행 11자이다.

【전면】

忠孝名裔　溫和著外
趾美先迹　仁厚充膈

前參奉金鍾九慈善不忘碑

周急濟窮　旣豊衆口
無慮千百　略表片石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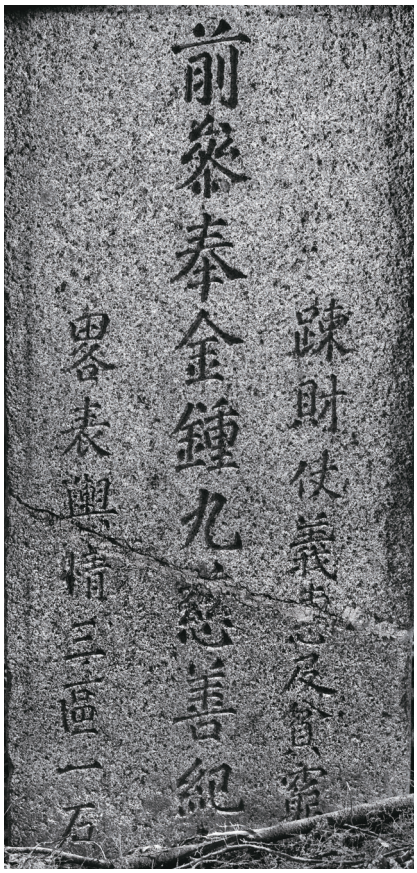
丁卯三月　日

〈전 참봉(參奉) 김종구(金鍾九)의 자선불망비〉

忠孝名裔　충신과 효자의 이름난 후예로,
趾美先迹　선조의 자취를 아름답게 이었네.
溫和著外　온화함은 밖으로 드러나고,
仁厚充膈　어질고 두터움은 속에 가득하네.
周急濟窮　위급하고 곤궁한 사람 구제하였으니,
無慮千百　무려 수천수백이었네.
旣豊衆口　이미 여러 사람 입에 자자한데,
略表片石　작은 비석에 대략 드러내네.

정묘년(1867) 3월 일에 세움

49. 북하면 약수리 김종구(金鍾九) 자선기념비



•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45-7(학림, 약수초등학교) • 제작연대 1867년(丁卯) 디지털 탁본
• 크　기 전체높이 120, 비신높이 93, 너비 44.6, 두께 15.6

1867년에 세운 전 참봉 김종구(金鍾九)의 자선에 대한 기념비는 약수초등학교 교정 내의 향좌측 담장 모서리에 있는 비석군 중에 향우측 첫 번째에 자리한다. 비신 하부는 매몰되어 비좌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화강암 비신 위에 가첨석을 올렸다. 비는 두동강이 난 것을 붙였다.

【전면】

疎財仗義惠及貧窮

前參奉金鍾九慈善紀▨▨

略表輿情三區一石

【좌면】

丁卯五月 日

〈전 참봉(參奉) 김종구(金鍾九) 자선 기념비〉

疎財仗義　　재물 소홀히 여기고 의리에 의지하여,

惠及貧窮　　빈궁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略表輿情　　여러 사람 마음을 대략 드러내니,

三區一石　　세 지역에서 비석 하나 세웠네.

정묘년(1867) 5월 일에 세움

50. 북하면 약수리 홍병위(洪秉瑋) 불망비

•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45-7(학림, 약수초등학교) • 제작연대 미상(1872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05, 너비 48, 두께 14

홍병위(洪秉瑋) 불망비는 약수리 약수초등학교 교정 내의 향좌측 담장 모서리에 있는 비석군 중에 향우측 두 번째에 자리한다. 비신 하부는 매몰되어 비좌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화강암 비신만 남았다. 비 상부는 원수형이다. 부사 홍병위의 불망비는 갈재 고개의 암벽에도 새겨져 있다.

【전면】
府使洪侯秉瑋不忘碑

51. 북하면 약수리 권익(權糞) 선정비

•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45-7(학림, 약수초등학교) • 제작연대 미상(1820년경)
• 크　기 비신높이 76, 너비 47, 두께 15

부사 권익(權糞)의 선정비는 약수리 약수초등학교 비석군 중에 향우측 세 번째에 자리한다. 비신 하부는 매몰되어 비좌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비신만 남았다. 비의 측면은 자연석 형태가 그대로 남고 머리부분은 방형인 비이다. 부사 권익의 선정비는 수산리 성산공원 비석군에도 1기가 서 있다.

【전면】
府使權侯糞善政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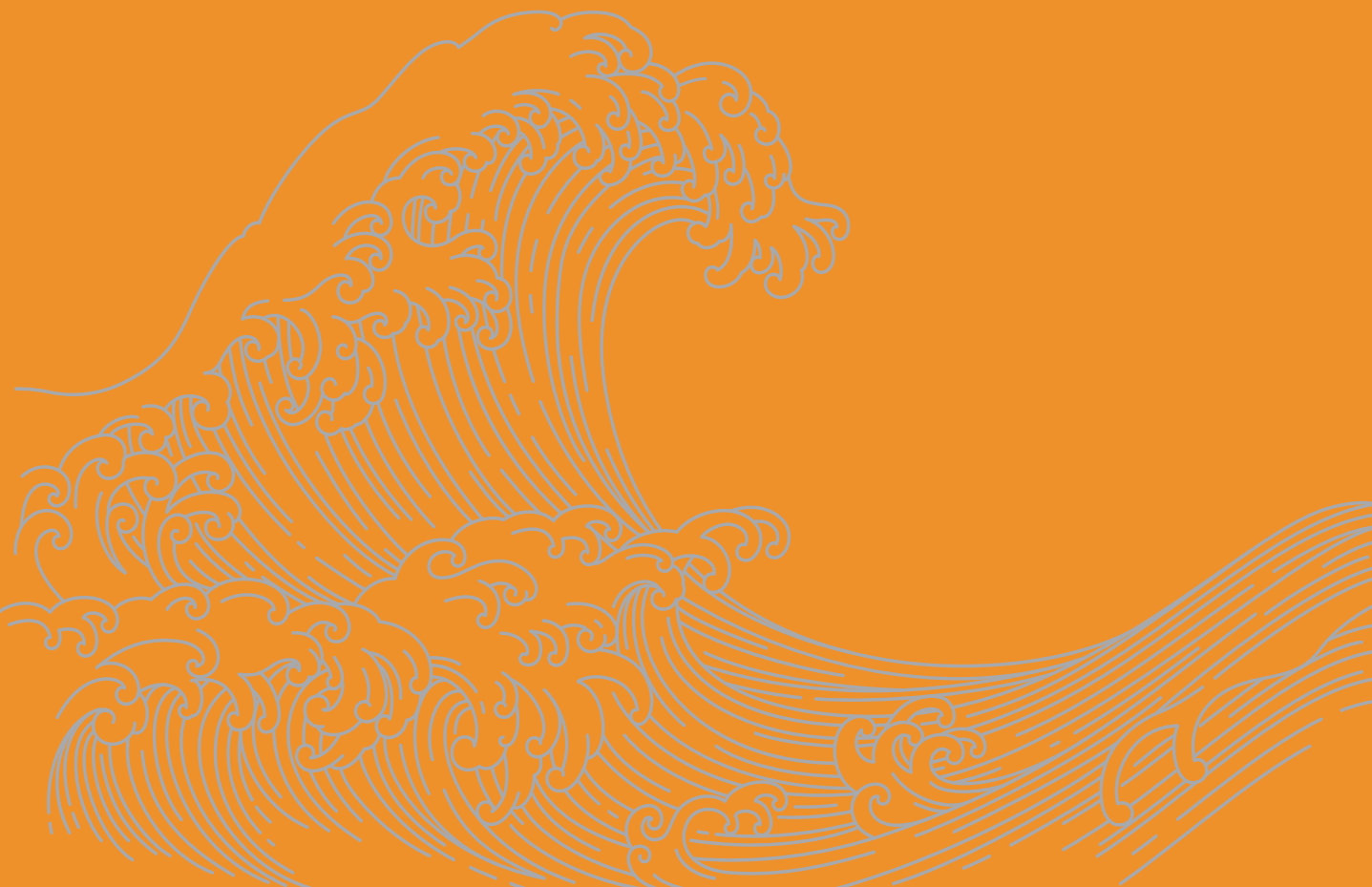
52. 북하면 약수리 이병례(李秉禮) 유혜불망비

•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45-7(학림, 약수초등학교) • 제작연대 미상(1848년경)
• 크　기 비신높이 61, 너비 57, 두께 10

부사 이병례(李秉禮) 유혜불망비는 약수리 약수초등학교 비석군 중에 향우측 네 번째에 자리한다. 비신 하부는 매몰되어 비좌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원수형 비신만 남았다. 이병례의 비는 이외에도 장성에 3기가 더 세워져 있다.

【전면】
府使李侯秉禮遺惠不忘碑

Ⅲ. 묘비



1. 장성읍 단광리 이기남(李箕南)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482-52번지 • 제작연대 1868년(戊辰)
• 크　기 전체높이 186, 비신높이 152, 너비 27, 두께 59

단광리 청안이씨(淸安李氏) 세장산 묘역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남(李箕南, 1533~1605)의 묘비이다. 새롭게 청안이씨(淸安李氏) 묘역을 조성하면서 비석도 옮겨와 세운 것이다. 사각 좌대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가첨석을 얹었다. 이기남의 자는 사일(士一), 호는 석탄(石灘), 본관은 청안(淸安)이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사암(思菴) 박순(朴淳), 송강(松江) 정철(鄭澈), 하곡(霞谷) 정제

두(鄭齊斗), 금강(錦江) 기효간(奇孝諫) 등과 도의(道義)로서 교분을 맺었다. 또한 불대산에 송강 정철과 정이암(鄭李菴)을 지어 우의를 다졌다. 비문은 1868년에 기정진(奇正鎭)이 지은 것으로, 문집의 내용과 똑같다. 23행 37자이다.

【전면】

徵士石灘李先生之墓

配宜人光山金氏祔

【좌면】

吾十世居室墳墓長城正鎭生晩雖不得爲鄕邑先德執鞭其耳固能聽也蓋

嘉靖　隆　萬間玆土隱淪不市之士可數焉石灘李公諱箕南字士一其一也一時風氣大抵敦本實後文華石灘公幷與身後狀德而闕焉是以其操履鑑識鄕人故老號博雅者莫能言其一二也然其居址墳塋過者往往指言之曰某公之墟之壽藏蓋將三百年于玆矣此豈可強之使然哉繇是以觀公殆未施敬而敬未施信而信者歟又按李氏家牒公始調敎官轉監察皆不仕

【후면】

至今鄕人之稱公者不以官呼曰石灘處士儻所謂至貴國爵屛焉者耶松江鄭文淸公之僑大峙也與公所居岐山隔佛臺一山甚峻文淸乃於山之半頂結一廬以爲延公棲息之所其後命僧居之今所謂鄭李庵者是也蓋旣不可屈而致又不欲狎而親乃以山深林密媒其盍簪此洛中諸公爲堯夫結行窩之意也未知東京陳周之於叔度亦曾有此事否叔度之言行不傳與公一同特以陳周戴郭之云云後世每想望以爲不可幾及鄭李一庵可謂于東京有光矣李氏淸安人以麗朝淸安伯諱漢藩爲鼻祖子光慶兵馬節度　贈判書子存學縣令　贈參判是爲公高祖子崇文正郞子培郡守　贈左承旨子德裕縣監是爲公考妣南原尹氏進士思涵女有二男三女公序居三公生

嘉靖癸巳卒

萬曆乙巳夫人光山金氏參奉彥祐女墓同塋厥洞牧虎厥原負卯躍龍瑞龍文龍慶龍翰龍皆男也躍龍敎官文龍監察翰龍進士躍龍之子浣瑞龍之子泂澹溪文龍之子瀷沔灝沇慶龍之子淳翰龍之子濬淑沆渶湥澤也瀷濬淑湥皆進士渶文科曾孫以下不能盡錄李氏以世寢遙欲

【우면】

伐石以表墓嗚呼亦晩矣李君升煥諗正鎭曰倩文於他人作家不如鄕里之言爲可徵信敢以溷於丈人正鎭雖老謝筆硯於此公之事其敢辭遂綴辭如右俾刻之

崇禎四戊辰二月壬午幸州奇正鎭述　　有司 榮新」暻煥

〈징사(徵士) 석탄(石灘) 이선생(李先生)의 묘, 배위(配位) 의인(宜人) 광산김씨(光山金氏) 부장〉

우리 집안은 10대에 걸쳐 집과 무덤을 장성(長城)에 두었다. 나 정진(正鎭)은 늦게 태어나 비록 고을의 덕 있는 어른을 직접 모시진 못하였지만, 귀로 전해 들을 수는 있었다. 대개 가정(嘉靖), 융경(隆慶), 만력(萬曆) 연간에 이 땅에 속세를 떠나 은거한 선비들이 여럿 있었으니, 석탄(石灘) 이공(李公)으로 휘(諱)가 기남(箕南)이고 자(字)가 사일(士一)인 분이 그중 한 사람이다.

당시 분위기가 대체로 근본과 실제를 돈독히 하고 화려한 수식을 뒷전으로 여겼으니, 석탄공도 사후에 그의 덕을 기록한 글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의 행실과 식견에 대해 고을 사람 중에 박식하다 불리는 노인들조차도 그 일부조차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살던 터와 무덤은 길 가는 사람들이 종종 가리키며 "아모 공의 터와 무덤이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대략 지금은 300년이 흘렀다. 이는 어찌 억지로 시켜서 그러겠는가?

이를 통해 공을 살펴보건대, 공경하게 하지 않아도 공경을 받았고, 믿어주라 하지 않아도 신임받은 사람이었다. 또 이씨(李氏) 가첩(家牒)을 살펴보면, 공은 처음에 교관으로 임명되었고, 감찰로 옮겼으나 모두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고을 사람들이 공을 부를 때는 관직으로 부르지 않고 석탄처사(石灘處士)라고 부르니, 과연 이른바 '지극히 귀한 사람은 나라의 작록을 물리친다'는 말[14]이 아니겠는가?

송강(松江) 정문청공(鄭文淸公, 정철(鄭澈))이 대치(大峙)에 우거하였는데, 공이 살던 기산(岐山)과는 불대(佛臺)라는 매우 험준한 산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다. 문청공이 산 중턱에 오두막 한 채를 짓고 공을 데려와 같이 머물 곳으로 삼았다. 그 후 승려에게 맡겨 살게 하였는데, 지금 '정이암(鄭李庵)'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대개 자신을 굽혀 공을 불러올 수도 없고, 또 함부로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기에, 산이 깊고 숲이 울창한 곳으로 벗이 오게 한 것이다. 이는 낙양(洛陽)의 선비들이 요부(堯夫, 소옹(邵雍))를 위해 행와(行窩)를 지은 뜻이다.[15] 동경(東京)의 진번(陳蕃)과 주거(周擧)가 숙도(叔度)에게도 이러한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16] 숙도의 언행이 전해지지 않기는 공과 같다. 다만 진번, 주거, 대량(戴良), 곽태(郭泰)가 말하였기에 후세 사람들이 늘 상상하며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여기니, 정이암은 동경보다 빛나는 곳이라고 할 만하다.

---

14 지극히……말 : 『장자(莊子)』「천운(天運)」에 "지극히 귀한 사람은 나라의 작록을 물리치고, 지극히 부유한 사람은 나라의 재물을 물리치고, 지극한 소원은 명예를 물리친다.[至貴國爵弁焉, 至富國財弁焉, 至願名譽弁焉]"라는 말이 나온다.

15 낙양(洛陽)의……뜻이다 : 소옹이 낙양에 살면서 집을 안락와(安樂窩)라 이름 짓고, 가끔씩 작은 수레를 타고 외출하여 즐기곤 하였는데, 당시에 그를 존경하던 선비들이 그를 불러들이기 위해 안락와와 비슷한 집을 지어 놓고 그 집을 행와(行窩)라고 불렀다.

16 동경(東京)의……못하겠다 : 동경은 후한(後漢)을 말하며, 숙도는 후한의 은사 황헌(黃憲)이다. 진번과 주거는 황헌과 같은 고을에 살았던 명사인데, "한 철이나 한 달 동안 황헌을 보지 않으면 비루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씨는 청안(淸安) 사람이니, 고려조 청안백(淸安伯) 한번(漢藩)이 시조이다. 아들 광경(光慶)은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판서에 추증되었다. 아들 존학(存學)은 현령을 지내고 참판에 추증되었으니, 이분이 공의 고조이다. 그의 아들 숭문(崇文)은 정랑을 지냈고, 아들 배(培)는 군수를 지내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아들 덕유(德裕)는 현감을 지냈으니, 이분이 공의 부친이다. 모친 남원윤씨(南原尹氏)는 진사 사함(思涵)의 딸이다. 2남 3녀를 두었는데 공이 그중 셋째이다.

공은 가정(嘉靖) 계사년(1533)에 태어나 만력(萬曆) 을사년(1605)에 돌아가셨다. 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는 참봉 언우(彦祐)의 딸이다. 무덤은 같은 봉분이고, 목호동(牧虎洞) 묘좌(卯坐)를 등진 언덕이다. 약룡(躍龍), 서룡(瑞龍), 문룡(文龍), 경룡(慶龍), 한룡(翰龍)이 모두 아들이다. 약룡은 교관, 문룡은 감찰, 한룡은 진사를 지냈다. 약룡의 아들은 완(浣)이고, 서룡의 아들은 형(泂), 담(澹), 계(溪)이며, 문룡의 아들은 익(瀷), 면(沔), 호(灝), 연(沇)이고, 경룡의 아들은 순(淳)이며, 한룡의 아들은 준(濬), 숙(淑), 항(沆), 영(渙), 혁(浹), 택(澤)이다. 익, 준, 숙, 혁은 모두 진사를 지냈고, 영은 문과에 급제하였다. 증손 이하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이씨는 세대가 점차 멀어지자 돌을 캐어 묘소를 표시하고자 하니, 아! 역시 늦었도다. 이승환(李升煥) 군이 나에게 고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글을 부탁하는 것보다는 향리의 말이 더 징험하여 믿을 만하므로 감히 어르신께 번거롭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비록 늙어 붓과 벼루를 내려놓았으나, 이 공의 일을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마침내 위와 같이 글을 짓고 비석에 새기게 한다.

숭정(崇禎) 네 번째 무진년(1868) 2월 임오일에 행주(幸州) 기정진(奇正鎭)이 짓다. 유사(有司)는 영신(榮新)과 경환(暻煥)이다.

2. 장성읍 영천리 고경명(高敬命)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산183-1(오동촌길 72-1) • 제작연대 1748년(崇禎紀元後再戊辰)/1791년
• 크　기 전체높이 200, 비신높이 130, 너비 62.5, 두께 22.7

장성읍 영천리의 고경명 묘역에 있는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묘표이다. 오동촌길 72-1의 제봉각(霽峯閣) 뒤에 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 대석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가첨석을 얹었다. 이 묘역에는 중앙에 고경명 부부묘가 있고, 그 아래단 좌우로 멀찍이 6째 아들 고용후 부부 묘지와 장남 고종후의 부인 철성이씨의 묘지가 있다. 각 묘마다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세워져 있는데, 망

주석 몸체에 새겨진 동물모습이 특이하다. 원래의 묘표는 원경하(元景夏, 1698~1761)가 짓고, 이주진(李周鎭, 1692~1749)이 썼으며, 이 비석의 전면 큰 글씨는 이우(李堣)가 썼다. 이주진은 전라관찰사에 1738~1740년 동안 역임하고, 원경하는 1744~1744년 동안 역임했으며, 이우는 장성부사에 1746~1751년 동안 역임했다.

고경명의 묘소는 1592년에 화순의 흑토평(黑土坪)에 조성하였다가 1609년 3월에 장성부 오동촌(梧桐村) 오좌원(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으로 이장하였다. 저서로는 『제봉집』, 『서석록(瑞石錄)』, 『정기록(正氣錄)』이 있다. 비문은 22행 25자이다.

【전면】

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
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
文館大提學知　經筵春秋館
成均館事　世子貳師　諡忠
烈行通政大夫工曹參議知製

【좌면】

敎兼招討使高公諱敬命之墓
贈貞敬夫人蔚山金氏祔左

【후면】

霽峰高先生葬于長城梧桐里百四十年戊辰原城元景夏表其
墓曰嗚呼先生之忠義大節固已揭日月而炳烺百世後人鑱諸
石以表之何也先生之名雖傳而彌章丘陵有時而遷匪有以表
之深目而髯渺茫難遘誰復知先生之墓也蓁蓁曠野幸有數尺
之石則雖田翁樵叟有以知先生之墓而亦將歔唏徊徨思所以
發焉有墓而表何可闕也噫嘻壬辰今焉遠矣島夷之變寢寢而
忘先生純忠盛烈其將翳晦乎月汀白沙之筆尙有凜然不泯是
可以徵也世以先生譬諸卞成陽父子三人同時殉節固與古人
同未聞卞氏之女罵賊伏劒而死豈不尤卓卓乎哉墓有時而夷
也石有時而泐也謂先生磨滅不可得也
原任兵曹判書兼知 經筵事弘文館提學元景夏　撰

【우면】

原任 吏曹判書兼知 經筵事 世子左副賓客 李周鎭書
先生墓舊無碣元尙書慨然屬余相役旣而告成前面南藥泉筆宗孫晳 請記甚切謹識于末

崇禎紀元後再戊辰八月日立　　知 府德水李堣書

戊辰後四十三年庚戌碣自靡缺翌年 辛亥二月日宗孫時肅改石因舊本立

〈숭록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에 증직되고 세자이사(世子貳師)이시며 시호는 충렬(忠烈)이고 행 통정대부 공조참의 지제교 겸 초토사이신 고경명(高敬命)의 묘, 정경부인에 증직된 울산김씨를 좌측에 부장〉

제봉(霽峰) 고선생(高先生)을 장성(長城) 오동리(梧桐里)에 장사지내고 140년이 지난 무진년(1748)에, 원성(原城) 원경하(元景夏)가 그 묘소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아! 선생의 충의와 위대한 절개는 이미 해와 달처럼 빛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뒤의 사람이 바위에 새겨 표시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선생의 이름이 비록 전해져서 더욱 빛날지라도 구릉은 때때로 옮겨가니, 표시하지 않으면 묘소를 찾아주는 사람을 아득히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다시 선생의 묘소를 알겠는가? 풀 우거진 광야에서 다행히 몇 자의 비석이 있으면, 농부나 나뭇꾼도 선생의 묘소라는 것을 알고, 장차 탄식하고 방황하며 사모함이 발현될 것이다. 그러니 묘소가 있다면 묘표를 어찌 빠뜨릴 수 있겠는가?

아! 임진년(1592)은 이제 멀어졌다. 섬 오랑캐의 변란도 차츰 잊혀지니, 선생의 순수한 충성과 성대한 절개는 장차 어두워질 것인가?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과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글이 아직도 늠연하여 사라지지 않았으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선생을 변성양(卞成陽)[17]에 비유하는데, 부자 3인이 동시에 순절한 일은 참으로 옛사람과 같으나, 변씨의 딸이 적을 꾸짖고 칼에 엎드려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18] 어찌 더욱 탁월하지 않을 것인가? 묘소는 평평해질 때가 있고 비석은 갈라질 때가 있겠지만 선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원임 병조판서 겸 지경연사 홍문관제학 원경하(元景夏)가 짓고, 원임 이조판서 겸 지경연사 세자좌부빈객 이주진(李周鎭)이 써서 숭정기원후 재 무진년(1748) 8월에 세우다.

선생의 묘소에 옛날에는 묘갈이 없었는데 원상서(元尙書)가 개탄하며 나에게 일을 도울 것을 부탁하였다. 이미 일을 마치자 전면에 남약천(南藥泉)의 필로 종손 석(晳)이 기록해주길 청하는데 매우 간절하므로 삼가 끝에 적는다. 지부(知府) 덕수인 이우(李堣)가 쓰다.

무진년에서 43년이 지난 경술년(1790)에 묘비가 저절로 이지러져서 다음해인 신해년(1791) 2월에 종손 시숙(時肅)이 비석을 바꾸고 구본을 따라 세우다.

---

17 변성양(卞成陽) : 진(晉)나라 사람 변호(卞壺)이다. 반란을 진압하다가 아들 변진(卞眕), 변우(卞盱)와 함께 죽었다.

18 변씨의……못했으니 : 고경명의 딸이 정유재란 때 순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3. 장성읍 영천리 고용후(高用厚)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산183-1(오동촌길 72-1) • 제작연대 1778년(崇禎百五十一年戊戌)
• 크　기 전체높이 170, 비신높이 134, 너비 60, 두께 24

고경명 묘역의 아래 왼쪽에 쌍분으로 상석과 함께 세워져 있다. 사각 좌대에 원수형 비를 세운 것으로, 후면과 우면에는 글씨가 없다. 양옆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있다. 이 비는 1778년에 공의 외손인 장성부사 홍술조(洪述祖)와 공의 현손인 상일(相一)이 세우고, 글씨는 6대손 고정익(高廷益)이 썼다. 비문은 7행 22자이다.

【전면】

有明朝鮮國通政大夫

掌隷院判決事知製

敎高公諱用厚之墓

淑夫人幸州奇氏祔左

【좌면】

晴沙公墓在長城府東霽峯先生墓右負午之原表碣伐

而未鐫知府外裔洪述祖與公玄孫相一完其刻而竪焉

崇禎百五十一年戊戌四月　日立從六代孫廷益謹書

〈유명 조선국 통정대부 장예원 판결사 지제교 고용후(高用厚) 공의 묘, 숙부인 행주기씨를 왼편에 부장〉

청사(晴沙) 공의 묘는 장성부 동쪽에 있는 제봉선생(霽峯先生) 묘의 우측인 부오(負午)의 언덕에 있다. 묘석만 준비하고 글을 새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장성부사인 외손 홍술조(洪述祖)와 공의 현손인 상일(相一)이 글을 완전히 새겨서 세우게 되었다.

숭정 151년 무술년(1778) 4월에 세우고 종6대손인 정익(廷益)이 삼가 쓰다.

4. 진원면 학림리 하생(河泩)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산17-1(고내) • 제작연대 1717(康熙五十六年)
• 크　기 전체높이 87, 비신높이 82, 너비 38.5, 두께 11

하생(河泩)의 묘는 진원면 학림리 고내마을에서 월정마을로 가는 길 중간쯤의 길가 산에 위치해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계에 있다. 묘비는 얇은 사각형 대석과 한 몸인 원수형 비이다. 곁에는 2001년에 세운 묘갈명이 세워져 있다. 하생(河泩)은 하진(河珍)의 후손으로, 1642년에 태어나 1675년에 졸하였다고 나온다. 할아버지 하정(河丁)의 묘는 위쪽에 자리한다. 그의 아들인 하연학(河連鶴)의 묘가 고내마을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전면】
老職嘉善大夫河公之墓
淑夫人李氏

【후면】
康熙五十六年九月初九日立

5. 남면 마령리 심종하(沈宗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산54 • 제작연대 1872년(壬申)
• 크　기 전체높이 110, 비신높이 74, 너비 45-40.5, 두께 15.5

1872년에 세운 심종하(沈宗夏)의 묘비는 마령리 양계사 서쪽의 고속철도 너머(지하보도 지나) 청송심씨 묘역 중 가장 위에 있다. 비좌는 묻혀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고, 비신과 구름무늬가 새겨진 운수형 비두가 하나로 된 비석이다. 묘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같은 해에 설치한 상석에도 쓰여 있다. 전면에 묘의 주인 부부를 쓰고 묘의 위치를 새겼다. 비를 건립한 임신년(壬申年)은 묘의 위치를 장성 남이면 내마량 작약동이라 한 것으로 보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1912년 이전이며, 청송심씨대종회 기록에 이 묘표를 세운 심상호(沈相鎬)가 송래희(宋來熙, 1791~1867)에게 예를

문의하였다고 하므로 1872년으로 추정하였다. 심종하는 애암(愛庵) 심연(沈涓)의 아들로, 심덕부의 증손자이다. 비문은 7행 8자이다.

【전면】

右承旨靑松沈公諱
宗夏之墓配淑夫人
姓貫失傳長城南二
面內馬良芧藥洞

【후면】

亥坐合窆
十一孫相鎬營建
壬申十月日

【상석 전면】

右承旨」靑松沈」公諱宗」夏之墓」配淑夫」人姓貫」失傳南」二面內」馬良芧」藥洞亥」坐合窆

【상석 좌면】

營建▨」司十▨」世孫▨」之謹▨」壬申▨」月[19]

19 상석 측면 하단이 약간 묻혀있고 글이 이어지지 않아 하단 1자씩을 '▨'으로 표기하였다.

6. 동화면 구림리 이원굉(李元紘)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산59-1 • 제작연대 미상(16세기 중반)
• 크　기 전체높이 108, 비신높이 108, 너비 49, 두께 20

이원굉(李元紘, 생몰 미상)의 묘비는 동화면 구림로 35-9번지에 광산이씨 재실인 가산재(柯山齋)가 있고 그 뒷산이 세장산(世葬山)인데, 그 속에 있다. 묘비는 개석(蓋石)이 없이 비수가 방형에 가까운 원수형이다. 이원굉의 자는 술조(述祖),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중종·명종대의 인물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한 후 남도포만호(南桃浦萬戶)와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역임하였다. 성종대 무과 급제자로 전라도 및 충청도 병수사(兵水使)를 역임했던 증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윤종(李胤

宗, 1451~1533)이 그의 부친이다. 비문은 3행 10자이다. 묘비 우측으로는 1994년도에 새롭게 건립한 묘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면】

通政大夫行水原府使

光山李公元紘之墓

配淑夫人天安全氏合窆

【신비 전면】

嘉善大夫行水原府使

光山李公諱元紘之墓

配淑夫人天安全氏 祔左

【우면】

水原府使光山李公墓表

山紫水明한長城의平柯山에한吉地가있어여기에葬事한뒤子孫이繁昌하고簪纓이끊이지않아長城의名門巨族으로서數百年世居의淵源이되었으니이곳이바로水原府使李元紘公의幽宅이다 公의이름은元紘이요字는述祖이다 成宗때長城에서태어나中明宗代에活動했던분으로서本貫은光山이다 先系始祖는본래新羅景文王의아들곧泰封國王弓裔의

【후면】

五代孫으로서慶州金氏인金日炯이었는데高麗顯宗西紀一0一0年의契丹침입때에州軍을인솔하여江華城에서姜邯贊과함께戰功을세우니그功勳으로德宗二年李宗金으로得貫賜姓名하고光山君에封해졌다 公은바로光山君의十四世孫이다 鮮初世宗代에大科에及第한뒤戶曹와兵曹의參判을지낸時止가할아버지요成宗七年과十年에거듭武科에及第하여全羅및忠淸道의兵水使와兵曹參判을역임하고贈兵曹判書로서長城東化에禮葬되었던淸節公胤宗이아버지이다 公은어려서부터資稟이淸秀하고사람됨이毅然했는데武科에及第한뒤南桃浦萬戶를거쳐水原府使를역임했다 配淑夫人天安全氏와의사이에아들迎白과딸셋을두었으며墓는長城郡東化面九林里平柯山亥坐에合窆으로마련되어있다 아들迎白은龍驤衛副司直을손자希稷은禦侮將軍承順校尉副司直을지냈으며孫子希益希皐希龍증손자孝閔孝顔은壬亂時靈光筧城守城五忠으로서湖南節義를代表하는人物들이었다 특히손자希皐는丁酉再亂때李舜臣을돕기위해義兵을이끌고가다가南平大花山서賊과奮戰수십명을사살하고兄과함께殉節하여軍功一等으로贈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로除授되었다 그뒤로도連綿히이어온赫赫한宗史를어찌다적을수가있는가 이렇듯빛나는祖上의威儀를돌아보고子孫으로서先代를追遠하기위하여舊域墓誌를가다듬

【좌면】

는일이어찌아름답다아니하리오 宗事와爲先에각별한뜻을가진公의十六世孫昌權과從十七世孫南鎭博士의懇請이있어不佞을무릅쓰고간략히表를쓰노니公의淸德과遺訓이子孫에더욱널리끼치어千秋萬代에傳하리라

西紀一九九四年四月 日

光州敎育大學校敎授 文學博士 全元範 謹撰

從後孫 工學博士 南鎭 謹書

7. 동화면 구림리 진주정씨(晉州鄭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산59-1 • 제작연대 미상(150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16, 비신높이 116, 너비 48, 두께 21

동화면 구림로 35-9번지의 광산이씨 재실 가산재(柯山齋) 뒤에 있는 광산이씨 세장산 내에 있다. 비는 원수형으로 무덤 앞에 바로 서 있으며, 곁에는 1990년에 세운 묘갈명인 <정부인 진주정씨 묘갈명 병서>가 세워져 있다. 진주정씨는 조선 중기 무신 이원굉(李元紘, 생몰 미상)의 어머니이자, 청절공(淸節公) 이윤종(李胤宗, 1451~1533)의 부인이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貞夫人晉州鄭氏之墓

8. 동화면 남산리 기정진(奇正鎭)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산51-1 • 제작연대 미상(1880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65, 비신높이 168, 너비 65, 두께 34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묘비는 동화면 남산리에서 빛가람장성로 길가의 위정척사탑 근처에 있다. 사각 기단에 가첨석을 갖춘 비이다. 옆에는 1914년에 세운 묘갈비가 서 있는데, 1906년에 문인(門人) 팔계(八溪) 정재규(鄭載圭, 1843~1911)가 짓고, 문인 오준선(吳駿善)이 전서(篆書)했으며, 삼종손(三從孫) 기재(奇宰)가 글씨를 쓴 것이다.

기정진의 초명은 금사(金賜), 자는 대중(大中), 호는 노사(蘆沙),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기건(奇虔, ?~1460)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기재우(奇在祐, 1769~1815)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권덕언(權德彦)의 딸이다. 1815년에 양친을 여의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순창에서 장성 하남(河南)으로 이사하였다. 기정진의 부인은 울산김씨 하서 김인후의 후예로 진사(進士) 의휴(宜休)의 딸인데, 정부인(貞夫人)에 증직(贈職)되었다. 조선 성리학의 대가이다.

【전면】

朝鮮蘆沙奇先生之墓

贈貞夫人蔚山金氏祔左

9. 동화면 동호리 김기(金紀)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420-18(백산) • 제작연대 미상(150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46, 비신높이 118, 너비 55, 두께 19

동호리 백산 마을의 숭모사(崇慕祠) 뒤에 있는 문신 김기(金紀, ?~1533)의 묘비이다. 숭모사는 광산김씨 문숙공 김주정과 그의 두 아들을 모시는 곳이다. 비는 개석(蓋石)이 없는 원수형이다. 큰아들이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지낸 요월정(邀月亭) 김경우(金景愚, 1517~1559)이다. 묘비 우측에는 1976년(병진)에 건립된 묘갈명비가 서 있다. 김기의 자는 중강(重鋼), 호는 옥곡(玉谷),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151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1522년에 정언(正言)이 되고, 1525년에 헌납(獻納)·지평(持平)이 되었다. 홍문관 전한(典翰)을 지낸 뒤 병을 얻어 1533년에 조졸(早卒)했다. 숙인(淑人) 나주진씨(羅州陳氏)를 부좌(祔左)하였다. 비문은 4행 12자이다.

【전면】

奉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　　修官光山金公紀之墓
教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　　淑 人 羅 州 陳 氏 祔左

10. 동화면 동호리 김경우(金景愚)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420-18(백산) • 제작연대 미상(150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40, 비신높이 110, 너비 50, 두께 19

동호리 백산 마을 숭모재 뒤의 광산김씨 묘역에 있는 요월정(邀月亭) 김경우(金景愚, 1517~1559)의 묘비이다. 비는 원수형이며, 비석의 전면에만 글씨가 새겨져 있다. 묘에는 숙인(淑人) 풍천임씨(豊川任氏)가 부좌(祔左)되었다. 묘비 우측에 1976년에 건립한 묘갈비가 서 있다.

김경우는 홍문관 전한(典翰)을 지낸 김기(金紀)의 아들이며, 사림파의 거두 정우당(淨友堂) 김식(金湜, 1482~1520)의 문인(門人)이다.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지냈으며, 1550년대에 황룡리 황룡강 기슭에 요월정(邀月亭)을 세우고 소요하였다. 비문은 4행 9자이다.

【전면】

贈　通訓大夫司僕寺正
　　行宣敎郎工曹佐郎光
　　山金公景愚之墓
贈　淑人豊川任氏祔左

11. 동화면 동호리 김대진(金大振)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420-18(백산) • 제작연대 미상(160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38, 비신높이 103, 너비 51, 두께 18

동호리 백산 마을 숭모재 뒤의 광산김씨 묘역에 있는 김대진(金大振, 1548~1619)의 묘비이다. 묘비는 원수형이고, 두 분의 숙부인이 부좌되었다. 묘비 우측으로 1976년에 건립된 팔작지붕형 가첨석이 있는 묘갈비가 서 있다.

김대진의 자는 문원(聞遠), 본관은 광산으로, 요월정(邀月亭) 김경우(金景愚, 1517~1599)의 아들이며, 옥곡(玉谷) 김기(金紀)의 손자이다. 선공감봉사(繕工監奉事)를 역임하고,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비문은 4행 13자이다.

【전면】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
　筵參贊官光山金公大振之墓
贈　淑夫人靈光金氏　祔左
贈　淑夫人興陽柳氏　祔後

12. 동화면 송계리 김정(金禎)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374 • 제작연대 미상(1540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47, 비신높이 72, 너비 42.5, 두께 13.6

조선 중종대 통선랑(通善郎) 의주교수(義州敎授)를 지낸 김정(金禎, 1473~1539)의 묘비이다. 연꽃잎이 새겨진 사각형 대석에 하엽수형 비수를 한 비신이 일체형으로 세워져 있다. 특이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야 한다. 이 비는 김정의 부부합장묘 하단 좌측에 별도로 안내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합장묘 오른편에는 묘갈명비가 세워져 있는데, 1980년에 이가원이 찬술한 것으로, 참고해 보면 김정은 광산(光山) 김태현의 후손인 중문(重文)의 아들로, 일찍이 유술(儒術)에 힘쓰고 윤리와 도의로 마음을 닦고 교수직(敎授職)에 나아가 마침내 의주교수에 이르렀으며, 나중에 봉정대부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증직되었다. 그리고 묘는 광산군 마지촌 선창산에 있다고 하고, 원래 비문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짓고,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썼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묘비에서는 이러한 글을 확인할 길이 없다. 묘는 최근에 광주 선창산에서 장

성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광주 풍영정주인 김언거(金彦琚)의 부친이다.

【전면】

夫婦合葬

通善郎行義州敎授金禎之墓

恭 人 兆 陽 林 氏 之 墓

【안내비】

이碑는先祖通善郎義州敎授贈司憲府執義光

山金公禎之墓碑이온데距今四百六十有餘年

前에周愼齋先生께서撰하시고李退溪先生께

서書하시였는바歲久風磨하여文字磨滅되였

음으로새로히碑를謹立하고여기에奉安하였

습니다

庚申年 十月 十日

13. 삼서면 보생리 이재인(李在仁)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산35-4(하남) • 제작연대 미상(1500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08, 비신높이 69, 너비 41, 두께 12.5

보생리 하남마을 서쪽 산자락 끝에 있는 이재인(李在仁, 1418~?)의 묘비는 사각 비좌에 하엽수형 비두와 비신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것이다. 옆에는 1974년에 새로 세운 묘표가 서 있는데 권창현(權昌鉉)이 찬술한 것이다. 이재인의 호는 정헌(靜軒)이고, 본관은 경주로, 익재 이제현의 5세손이다. 장수현감(長水縣監)을 지냈으며, 이때 사람들이 크게 만족하여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고 한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과 도의로 사귀었는데 무오사화 후 영광에 은거하여 백산의 남쪽에 정사인 화초정(花草亭)·관개정(冠蓋亭)을 짓고 꽃과 대를 심고서 생을 마쳤다. 비문은 2행 7자이다.

【전면】

長水縣監李
在仁之廟本慶州

14. 삼서면 보생리 이재인(李在仁)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산35-4(하남) • 제작연대 1909년(己酉)
• 크　기 전체높이 186, 비신높이 122, 너비 40.5, 두께 14.5

보생리 하남마을 서쪽 산자락 끝에 있는 이재인(李在仁, 1418~?)의 묘갈비로, 1909년에 세운 것이다. 묘앞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얇은 가첨석을 올렸다. 비신의 상단의 정면·좌측면·후면을 돌아가면서 큰 글씨로 '通訓大夫長水縣監李公墓碣銘'이라 쓰고, 아래에서는 비제를 따로 쓰지 않았다. 비문은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짓고 글씨는 김재찬(金在贊)이 썼다. 말미에 문중 유사를 기록하였다. 기우만의 『송사집(松沙集)』에 묘갈명이 실려 있는데 대동소이하다. 다른 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행	비문	『송사집(松沙集)』	행	비문	『송사집(松沙集)』
3	君	公	13	相續也	相屬也
3	辭不獲命	宇萬辭不獲	15	女奉寅監察嗚呼	嗚呼
6	大學士	太學士	17	未始	未始非
7,8	乙未	戊戌	20	惡影避跡	息影避跡
10	弟有仁	弟大憲有仁	22	我躬式鞠	過者必式
12	卒年	年月			

비문은 24행 30자이다.

[두액] 通訓大夫長水縣監李公墓碣銘

【전면】

李之秀士圭桓圭植若雨聯鞭過余曰縣監公諱在仁寔吾李南下祖昔年煩君筆遺事牲石之刻宜求之作家而見今艱虞甄逢僕馬遠遊非時旣伐石事不可停重煩於君遺事寧寢此不得闕辭不獲命謹按慶州之李以新羅佐命功臣謁平爲姓祖蘇判居明亦新羅名臣悅軒翮高麗評理　贈尙書左僕射東庵瑱檢校政丞臨海君諡文定寔益齋先生齊賢祖若考益齋德業文章爲時冠冕歷事七朝諡文忠卽公五世大學士達尊號雲窩郡守德林　贈司諫安撫使伸郡守繼蕃　贈叅判高曾祖禰妣茂松尹氏父縣監常公生永樂乙未才俊識博早試長水縣監治化溢境去思有碑從金佔畢講道義戊午禍後南遯武靈築精舍白山之南蒔花種竹以畢其生不復作當世意成就後學爲

【좌면】

己任弟有仁南學士趎名行尤卓然從孫再思亦受學於公卒業畢門同其禍後以承宣召公起不得遞軸之志文忠影幀置堂追慕因以爲書院自淑而淑於人者博矣以天年終卒年不傳　朝家命庇喪葬盖嘉其行義也後人名

【후면】

其居曰花草亭冠盖亭盖以若花若草慕公手澤而公在公亡冠盖相續也墓
郡之河南坤坐夫人驪州陳氏叅議蘊女四男公準司馬公衡佐郎公權司正
公信府使女奉寅監察鳴呼公色擧天山息影滅跡雖緣時禍蔑正茅茹彙貞
而十世遺安飯稻羹魚　中朝波浪不相及及今蹄跡接武薙緇剝膚近沿尤
然而衣冠數十家猶能讀聖賢而談義理未始公先見之力也嗣後文行孝烈
譜不絶書菀然南土名族吁盛矣銘曰

卓卓益齋百世之師承以雲窩世風足知五世而公克繩祖武薄試一縣仁政
足覩賢門講道功在後學超然遐擧惡影避跡天山一區蒔花種竹荷衣蕙帶
遺像可覿身否道亨百世芬馥不食有報孫承祖德冠儒服儒不斬其澤河南

【우면】

之阡我躬式鞠生芻一束其人如玉

歲己酉淸明節幸州奇宇萬撰

光山金在賛書　　有司鍾炫 鍾厚

〈통훈대부 장수현감 이재인(李在仁) 묘갈명〉

수사(秀士) 이규환(李圭桓)·이규식(李圭植)·이약우(李若雨)가 채찍을 나란히 하고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현감공 재인(在仁)은 실로 우리 이씨의 남하 선조입니다. 옛날에 그대에게 유사(遺事)를 써달라고 번거롭게 한 적이 있으니, 묘갈명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견봉(甄逢)의 복마(僕馬)[20]가 멀리 길을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이미 석재를 마련하여 일을 멈출 수 없기에 그대를 거듭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 유사를 포기할지언정 이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내가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신라(新羅)의 좌명공신(佐命功臣) 알평(謁平)이 시조이고, 소판(蘇判) 거명(居明) 또한 신라의 명신이었다. 열헌(悅軒) 핵(翮)은 고려(高麗)에서 평리(評理)를 지냈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추증되었다. 동암(東庵) 진(瑱)은 검교정승(檢校政丞)을 지냈고, 임해군(臨海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이분들이 익재(益齋) 선생 제현(齊賢)의 조부와 아버지이다. 익재의 덕업(德業)과 문장은 당시 으뜸으로 손꼽혔고, 일곱 임금을 차례로 모셨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니, 바로 공의 5대조이다. 태학사(大學士)를 지내고 호가

20 견봉(甄逢)의 복마(僕馬) : 견봉은 당(唐)의 명인(名人) 견제(甄濟)의 아들이다. 견제가 안녹산(安祿山)이 반역할 것을 알고서 속이고 떠났는데, 안녹산이 뒤쫓아가 죽이려고 하여도 고집하고 나오지 않아 마침내 절의를 지켰다. 한유(韓愈)가 사관(史官)에 임명되자 견봉의 친구인 원진이 한유에게 편지를 보내 그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唐書 卷194』

운와(雲窩)인 달존(達尊), 군수를 지낸 덕림(德林)은 사간에 추증되고, 안렴사(安撫使) 신(伸), 군수 계번(繼蕃)은 참판에 추증되었으니, 고조와 증조, 조부와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무송윤씨(茂松尹氏)로, 부친은 현감을 지낸 상(常)이다.

공은 영락(永樂) 을미년[21]에 태어나 재주가 뛰어나고 식견이 넓었다. 일찍이 장수현감(長水縣監)을 지냈는데, 훌륭한 교화가 고을의 경계를 넘을 정도여서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을 따라 도의를 강마하였는데, 무오년의 화를 당한 뒤에 남쪽 무령(武靈, 영광)에 은둔하여 백산(白山)의 남쪽에 정사(精舍)를 짓고, 꽃을 모종하고 대나무를 심으면서 생을 마치도록 다시는 세상에 나갈 뜻을 품지 않았다. 후학들을 성취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니, 아우인 대사헌 유인(有仁)과 학사(學士) 남주(南趎)가 명망과 덕행이 더욱 탁월하였다. 종손(從孫)인 재사당(再思堂) 원(黿) 또한 공에게 학문을 배웠고, 점필재 문하에서 학업을 마치고서 그 화를 함께 입었다. 후일 조정에서 승지를 보내 공을 불렀으나 과축(蓋軸, 은거)의 뜻을 꺾지 못하였다.

문충공(文忠公, 김종직(金宗直))의 영정(影幀)을 집에 걸어 추모하였고, 이어서 서원으로 삼아 스스로 맑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도 맑게 한 것이 많았다.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연월일이 전하지 않는다. 조정에서 상장례를 도우라고 명하였으니, 대개 그의 행의를 가상히 여긴 것이다. 뒤에 사람들이 그 거처를 '화초정(花草亭)'과 '관개정(冠盖亭)'이라고 이름 지었으니, 이는 꽃이나 풀에 남아 있는 공의 손때를 그리워한 것이고, 공이 살았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나 관개(冠蓋)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묘는 군(郡)의 하남 곤좌(坤坐)에 있다.

부인은 여주진씨(驪州陳氏) 참의 온(蘊)의 따님으로, 네 아들을 두었으니, 사마(司馬) 공준(公準), 좌랑 공형(公衡), 사정(司正) 공권(公權), 부사(府使) 공신(公信)이다. 딸 봉인(奉寅)은 감찰(監察)이다.

아! 공이 미리 기미를 보고 천산(天山)에 자취를 감춘 것은 비록 당시의 재앙이 바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띠풀이 곧은 부류에 엉겨 붙어있는 것을 인연한 것일지라도 십대 동안 편안함을 남겨 쌀밥에 생선국을 먹었고 조정의 파란도 미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말발굽이 이어지고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화가 들이닥치니, 부근 연해 지역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선비 집안 수십 집이 그래도 성현의 책을 읽고 의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애당초 공의 선견지명의 힘이 아님이 없다. 후손의 문행과 효열이 족보에 끊이지 않아 완연하게 남쪽 지역의 명족이 되었으니, 아! 성대하도다.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卓卓益齋　　우뚝한 익재는,
百世之師　　백세의 스승이었고,
承以雲窩　　운와가 이어받았으니,

21 영락(永樂) 을미년 : 1415년을 말하는데, 기우만의 문집에는 무술년(1418)이라 쓰여 있고, 또 권창현(權昌鉉)이 찬술한 묘표에도 무술년이라 적혀 있다.

世風足知　　대를 이은 풍도 알 만하네.
五世而公　　오대를 지나 공이,
克繩祖武　　선조의 자취 잘 계승하여,
薄試一縣　　한 고을살이 잠시 시험하였으니,
仁政足覩　　어진 정사 볼만하였네.
賢門講道　　어진 스승에게 도를 배워,
功在後學　　그 공덕 후학에 남았네.
超然遐擧　　초연히 멀리 떠나,
惡影避跡　　자취를 감추고,
天山一區　　천산 한 구역에,
蒔花種竹　　꽃 가꾸고 대나무 심었네.
荷衣蕙帶　　연잎 옷 입고 혜초 띠 두르니,
遺像可覿　　남긴 형상 볼만하네.
身否道亨　　몸은 비색했어도 도는 형통하여,
百世芬馥　　백세토록 향기롭네.
不食有報　　없어지지 않은 보답이 있어,
孫承祖德　　후손이 선조의 덕을 계승함에,
冠儒服儒　　유자의 관을 쓰고 유자의 옷 입으니,
不斬其澤　　은택이 끊이지 않았네.
河南之阡　　하남의 무덤에는,
我躬式鞠　　지나는 사람 반드시 공경하리라.
生芻一束　　싱싱한 풀 한 다발 올리니,
其人如玉　　그 사람 백옥처럼 아름답네.

해는 기유년(1909) 청명절(淸明節)에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이 찬하고, 광산(光山) 김재찬(金在贊)이 쓰다. 유사(有司)는 종현(鍾炫)·종후(鍾厚)이다.

15. 삼서면 삼계리 김상경(金尙敬)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282-2(삼봉산) • 제작연대 1789년(崇禎後三己酉)
• 크　기 전체높이 150, 비신높이 103, 너비 45.5, 두께 25

김상경(金尙敬, 1601~1670)의 묘표는 삼서면 소재지에서 삼계 1구 가는 도중 삼봉산 끝자락의 쌍분 앞에 서 있다. 비석은 대석과 비신과 가첨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석은 비례에 맞지 않게 매우 큰 편이다. 그리고 대석은 비신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에 와서 시멘트로 봉합을 하였다. 옆에는 임만수(林晩洙)가 지은 묘갈명비가 병진년(1976)에 세워져 있다. 김상경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옥과현감 이흥발(李興浡) 등 5현이 보낸 격문에 응하여 거의를 하였다가 돌아와 죽을 때까지 두문불출하며 지냈다. 비문은 11행 16자이다.

【전면】

有明朝鮮竹齋處士

金公尙敬之墓壬坐

配孺人信川康氏祔

【후면】

公諱尙敬字質夫系出商山開國功臣輔

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諱云寶八世

孫判官諱廷彧子　宣廟辛丑生受業於

睡隱姜先生以文行見推當丙子之亂應

五賢檄文至淸州聞媾成痛哭而歸杜門

謝世以未死於和成之日爲平生至恨

【좌면】

顯廟庚戌卒事載郡誌及節義錄

崇禎後三己酉三月　日

〈유명 조선 죽재처사 김상경(金尙敬)의 묘(임좌), 배위 유인 신천강씨(信川康氏) 부장〉

공의 이름은 상경(尙敬)이고, 자는 질부(質夫)이며, 본관은 상산(商山)이다. 개국공신인 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운보(云寶)의 8세손이자, 판관 정욱(廷彧)의 아들로서, 선조 신축년(1601)에 태어났다. 수은(睡隱) 강(姜)선생에게 수업하여 문행(文行)으로 추중을 받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오현(五賢)의 격문(檄文)에 응하여 청주까지 갔다가 화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돌아와서 두문불출하며 세상일을 사양했는데, 화의가 이루어진 날에 죽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현종 경술년(1670)에 사망하였다. 일이 군지와 절의록에 실려 있다.

숭정 기원후 3번째 기유년(1789) 3월에 세우다.

16. 삼서면 수양리 이훈(李纁)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산1(함동) • 제작연대 미상(1600년대 중반)
• 크　기 전체높이 170, 비신높이 103, 너비 47.5, 두께 18.5

이훈(李纁, 1610~1640)의 묘비는 수양리 함동(수양)저수지 상류 동쪽에 있다. 사각 대석에 하엽수형 비두와 하나의 돌로 만든 비신을 세웠다. 부인을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이훈을 썼다. 왼쪽에 1976년에 세운 묘갈명이 있다. 이훈은 장수현감 이재인의 손자로, 생부는 이재인의 둘째 아들 이공형(李公衡)인데, 넷째인 이공신(李公信)에게 입양되었다. 비문은 2행 10자이다.

【전면】

進勇校尉部將李纁之墓

宜 人 金 氏 之 墓

17. 삼계면 내계리 송흠(宋欽)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1(천방) • 제작연대 미상(1548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51, 비신높이 91, 너비 39, 두께 15.5

송흠(宋欽, 1459~1547)의 묘표는 내계리 천방마을 관수정에서 동쪽 옆길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정에 있다. 비는 사각 비좌 위에 비신과 하엽수형 비두를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웠다. 뒷면에 그의 가계와 생애, 경력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송흠의 자는 흠지(欽之), 호는 지지당(知止堂), 본관은 신평이다. 성종 임자년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판중추에 이르렀다. 기사(耆社, 늙은 정승들의 모임)에 들고 청백리로 뽑혔다. 시호는 효헌공(孝憲公)이다. 송흠의 증조부 송구(宋龜, 1379~1449)는 세종 시절에 형 노송당 송희경과 함께 호남으로 이거하여 송희경은 담양군에, 송구는 영광군 삼계면에 정착하였다. 묘비의 건립연대는 송흠의 신도비에 의하면 1548년에 예장했다고 하니, 그 무렵이 아닐까 한다. 비문은 11행 24자이다.

【전면】

崇政大夫判中樞府事宋　　公之墓

【후면】

公姓宋諱欽字欽之本新平居靈光妣河陰奉氏生四男一女
長益忱早逝生一男名碩果次益憬進士及第秩居五品顯官
次益恂生員秩居叅奉次益惺將仕郎女適生員鄭宗濩成化
十六年司馬弘治五年登第拜弘文正字歷著作博士修撰移
拜正言歷獻納正郎出拜全羅都事入拜持平出除寶城沃川
礪山以淸白入拜掌令歷金正判府移拜舍人特陞堂上出拜
全州入拜承旨出拜光州羅州又拜潭陽長興以府伯特陞嘉
善翌年拜全羅監司入拜辛丑特陞兵判書移拜政府叅贊乞
老退歸八十三特陞崇政拜判中樞府事上表遥謝年八十九
嘉靖丁未十一月十五日卒　　國家以▨▨之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공(宋公)의 묘〉

공의 성은 송(宋)이요, 휘는 흠(欽), 자는 흠지(欽之)로, 본관은 신평(新平)이며, 영광(靈光)에 살았다. 배위는 하음봉씨(河陰奉氏)이니, 4남 1녀를 낳았다. 장남 익침(益忱)은 일찍 죽었고, 1남을 두었으니 이름이 석과(碩果)이다. 차남 익경(益憬)은 진사에 급제하여 품계가 5품의 높은 관직에 올랐다. 차남 익순(益恂)은 생원으로 품계가 참봉이다. 차남 익성(益惺)은 장사랑(將仕郎)이다. 딸은 생원 정종호(鄭宗濩)에게 출가하였다.

성화(成化) 16년(1480)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홍치(弘治) 5년(1492)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제수되었다. 저작(著作), 박사(博士), 수찬(修撰)을 거쳐 정언(正言)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헌납(獻納)과 정랑(正郎)을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 나가 전라도사(全羅都事)에 제수되었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지평에 제수되었다. 나가서는 보성(寶城), 옥천(沃川), 여산(礪山) 수령에 제수되었고, 청백(淸白)으로써 들어와서는 장령에 제수되었으며, 금정판부(金正判府)를 역임하다 옮겨서 사인(舍人)에 제수되었고, 특별히 당상(堂上)에 올랐다. 나가서 전주(全州)에 제수되고 들어와 승지에 제수되었으며, 나가 광주(光州)와 나주(羅州)에 제수되고, 또 담양과 장흥에 제수되어 부백(府伯)으로써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이듬해 전라감사에 제수되고, 들어와서 신축년(1541)에 특별히 병조판서로 승진하였으며, 의정부 참찬으로 옮겨 제수되었다가 물러나기를 청하여 돌아오니 83세였다. 특별히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여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었는데 상주문을 올리고 대궐을 향해 사은하니, 나이가 89세였다. 가정(嘉靖) 정미년(1547) 11월 15일에 죽으니, 나라에서 예로서 장례를 해주었다.

18. 삼계면 내계리 송붕표(宋弸彪)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1(천방) • 제작연대 1639년(己卯)
• 크　기 전체높이 170, 비신높이 120, 너비 45, 두께 16.5

내계리 천방마을의 관수정 뒷산에 세운 송붕표(宋弸彪)의 묘비이다. 송흠의 묘 앞에 있다.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송붕표는 송흠의 증손자로 할아버지는 송익침(宋益忱), 아버지는 송석과(宋碩果)이고, 이광(李珖)의 사위이자 송두선(宋斗先)의 아버지이다. 비문은 3행 11자이다.

【전면】

通政大夫工曹叅議兼成均
館事宋公弸彪之墓
己卯十月 日

19. 삼계면 내계리 송구(宋龜)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1(천방) • 제작연대 미상(150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01, 비신높이 60, 너비 30.5, 두께 13.5

조선전기에 세운 송구(宋龜, 1379~1449)의 묘비는 내계리 천방마을 북동쪽 골짜기(천방마을 정자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농로의 끝부분) 중턱의 신평송씨 묘역 가운데 가장 위쪽에 있다. 장성 내계리 오층석탑(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에서 바라다 보인다. 비는 사각형 대석 위에 하엽수형 비두를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웠다. 비신과 비두가 분리되었으나 시멘트로 결합하였다. 제작시기는 송흠의 묘비 및 하음봉씨 묘비와 양식적으로 유사하고 재료도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오른쪽에 1997년에 세운 묘갈명이 있다. 송구는 송흠(宋欽)의 증조부로, 연산(連山)에서 태어나 삼계(森溪)로 이거하였는데 삼계 신평송씨의 입향조가 된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嘉善大夫兵曺叅判兼
知義禁府事宋龜之墓

20. 삼계면 내계리 송처은(宋處殷)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1(천방) • 제작연대 1547년(丁未)
• 크　기 전체높이 107, 비신높이 70, 너비 36, 두께 17.5

송처은(宋處殷)의 묘비는 내계리 천방마을 북동쪽 골짜기 중턱의 신평송씨 묘역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 있다. 즉 송구의 묘 아래이다. 비는 사각형 대석 위에 비신과 하엽수형 비두를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웠다. 그의 아들 송가원(宋可元)의 묘비와 함께 정미년(丁未年)에 함께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정미년은 1547년으로 추정된다. 송처은은 송구의 아들이며, 송흠의 조부이다. 비문은 4행 9자이다.

【전면】

正憲大夫　贈禮曺判
書兼弘文館藝文館大
提學行禮曺正郎宋公
處殷之墓　丁未四月　日

21. 삼계면 내계리 하음봉씨(河陰奉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1(천방) • 제작연대 미상(150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10, 비신높이 65, 너비 28, 두께 15

송흠의 부인 하음봉씨(河陰奉氏, 1461~1539)의 묘비는 내계리 천방마을 북동쪽 골짜기 중턱의 신평송씨 묘역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다. 비는 사각형 대석 위에 비신과 하엽수형 비두를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웠다. 남편인 송흠의 묘비와 양식이나 석재가 유사하여 조선 전기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음봉씨는 봉여해(奉汝諧)의 손녀로, 아버지는 봉인(奉寅)이다. 비문은 1행 10자이다.

【전면】
貞敬夫人河陰奉氏之墓

22. 삼계면 내계리 송두선(宋斗先) 묘상석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1(천방) • 제작연대 1681년(辛酉)
• 크　기 가로 123.5, 세로 84, 높이 35.5

송두선(宋斗先, 1586~1626)의 묘앞에 놓인 상석이다. 송두선의 묘는 내계리 천방마을 북동쪽 골짜기 중턱의 신평송씨 묘역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다. 즉 송구의 묘 아래, 송처은의 묘 오른쪽이다. 송두선은 송흠의 현손(玄孫)이며 송붕표의 넷째 아들이다. 상석은 송처은, 송가원의 묘 상석보다 두꺼운 편이며 다른 석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부인의 묘소 위치는 '靈光 塩所面 唐頭里'에 있다고 하였다.

【상석】

朝奉大夫」司憲府執」義新平宋」公斗先之」墓　坐」
配淑夫人」靈光金氏」墓在靈光」塩所面唐」頭里後麓」丁坐
辛酉十一月 日

23. 삼계면 내계리 송가원(宋可元)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1(천방) • 제작연대 1547년(丁未)
• 크　기 전체높이 120, 비신높이 94, 너비 39-33, 두께 18

송가원(宋可元, ?~1502)의 묘비는 내계리 천방 마을 북동쪽 골짜기 중턱의 신평송씨 묘역 못 미쳐 오른쪽에 있는 묘역 중 위에서 두 번째에 있다. 비는 사각형 작은 대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비례가 맞지 않은 둔중한 가첨석을 올렸다. 비신은 위가 넓고 아래가 약간 좁다. 묘비를 쓰면서 부인을 첫 부분인 오른쪽에 쓰고 남편인 송가원을 왼쪽에 썼다. 아마도 묘소의 위치대로 쓴 것으로 짐작된다.[22]

송가원은 송처은의 아들이며, 송흠의 아버지이다.

22 부부 쌍분일 경우 묘표나 묘갈의 표기를 남편부터 왼쪽에 쓰고 대부분 아내 다음에 '祔左'라 하여 여성을 남성의 좌측(정면에서 묘를 보았을 때 우측)에 묻었음을 밝히고 있어, 이 경우에도 좌측에 여성의 무덤이 있다는 암시일 가능성이 있다. 표기 방식이 시대적 변화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많은 사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문은 4행 12자이다.

【전면】

貞敬夫人河東鄭氏之墓
崇政大夫　贈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宋公
可元之墓　　丁未四月　日

24. 삼계면 내계리 송익경(宋益憬)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39-5(천방) • 제작연대 미상(1500년대)
• 크　기 전체높이 112, 비신높이 66, 너비 34, 두께 15.3

송익경(宋益憬)의 묘비는 내계리 천방마을 끝에 있는 '장성 내계리 오층석탑(내계리 51)' 앞까지 가서 산쪽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 쌍분 앞에 있다. 비석은 사각 비좌 위에 비신과 하엽수형 비두를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웠다. 옆면과 뒷면에는 글씨가 없다. 송익경은 송흠의 4남 중 둘째아들이다. 송익경이 무장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545년부터 1547년까지이다. 비문은 3행 8자이다.

【전면】

通政大夫茂長縣監
新平宋公益憬之墓
配淑夫人李氏合兆

25. 삼계면 내계리 나덕전(羅德全)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산40(천방) • 제작연대 1842년(崇禎四壬寅)
• 크　기 전체높이 190, 비신높이 108, 너비 54, 두께 18

1842년에 다시 새긴 나덕전(羅德全, 1544~1583)의 묘비는 내계리 천방마을 동쪽 능선의 금성나씨 묘역 가운데 가장 위쪽에 있다. 천방마을 정자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농로를 따라가다 중간쯤에서 왼쪽으로 올라간다. 비는 대석 측면에 안상과 윗면에 연판문을 새긴 사각 비좌에 운수형 비두와 한 돌인 비신을 세웠다. 비는 1842년에 9대손 경신에 의해 다시 새겨지는데, 뒷면에 나덕전의 관직명 일부가 1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비를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을 다시 새긴 것은 글자가 마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부인 옥천설씨(玉川薛氏)를 합장하고 다시 새겼을 가능성도 있다. 정면에는 부인의 묘가 같이 있다고 하였으나, 후면에는 중앙에 한 줄만 흔적이 있다. 처음에는 나덕전의 묘였는데 1842년 비문을 다시 새기기 전 다른 장소에 있던 부인의 묘를 이곳에 합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에 1997년에 세운 묘갈명이 있다.

나덕전은 송재(松齋) 나세찬(羅世讚)의 손자로, 아버지 나협(羅協)이 영광(현 장성 삼계)으로 이거하였다. 아들로 연서(連緖), 봉서(逢緖), 통서(通緖), 준서(遵緖), 건서(建緖)를 두었다. 삼서면 우치리 259-2번지에는 금성나씨삼강문(錦城羅氏三綱門)이 있는데, 이것은 충신 나통서(羅通緖, 1572~1637), 효자 나봉서(羅逢緖, 1570~?), 열녀 나덕전(羅德全)의 처 옥천설씨(沃川薛氏), 열녀 나준서(羅遵緖)의 처 공산이씨(公山李氏)의 정려각이다. 비문은 6행 13자이다.

【정면】

贈工曺叅判羅公德全之墓
配貞烈夫人玉川薛氏祔
崇禎四壬寅
十月改刊九
代孫敬臣▨

【후면】

▨▨▨夫贈工曺叅判羅公▨▨

26. 삼계면 주산리 김종손(金終孫)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8(백산) • 제작연대 1688년(崇禎後再戊辰)
• 크　기 전체높이 98, 비신높이 93, 너비 61, 두께 11

1688년에 세운 김종손(金終孫)의 묘비는 주산리 백산마을 건너편 광산김씨 제각[追遠齋]과 유유정(悠悠亭) 뒤의 광산김씨 묘역 가운데 맨 윗단의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사각 비좌에 대리석으로 만든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여기의 광산김씨 묘역은 최근에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손부터 5대손까지 3단으로 17기의 묘가 있다. 묘표 앞면의 표기에서 부인을 오른쪽에 썼다. 비문은 7행 11자이다.

【전면】

恭人李氏祔

奉訓郎金公之墓

【후면】

公諱終孫光山人

化平府院君忠肅公六代孫

長子泰仁縣監崇壽

次子恩津縣監崇老

崇禎後再戊辰十一月日立

〈봉훈랑(奉訓郞) 김공(金公)의 묘, 공인 이씨 부장〉

공의 휘는 종손(終孫)으로, 광산인(光山人)이다. 화평부원군(化平府院君) 충숙공(忠肅公)의 6대손이다. 장자는 태인현감(泰仁縣監) 숭수(崇壽)이고, 차자는 은진현감(恩津縣監) 숭로(崇老)이다.

숭정후 재 무진년(1688) 11월에 세우다.

27. 삼계면 주산리 김숭로(金崇老)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8(백산) • 제작연대 1748년(崇禎後三戊辰)
• 크　기 전체높이 118, 비신높이 99, 너비 41.5, 두께 13

1748년에 세운 김숭로(金崇老)의 묘표는 광산김씨 묘역 가운데 맨 윗단의 오른쪽에 있다. 사각형의 별도 대석에 대리석으로 만든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그의 묘 왼쪽, 즉 김종손 묘와의 사이에는 형 숭수(崇壽)의 묘가 있다. 김숭로는 김종손의 둘째 아들이다. 묘표 앞면의 표기에서 부인을 오른쪽에 썼다. 비문은 7행 15자이다.

【전면】

淑人靈光金氏祔

通訓大夫行恩津縣監金公之墓

【후면】

公諱崇老字頤仲光山人 正德二年
丁卯 中廟朝中生員試長子約 明
廟朝文科行陰竹縣監次子繪行軍資
監奉事長孫調元 贈叅議
崇禎後三戊辰十二月日立

〈통훈대부 행 은진현감(恩津縣監) 김공(金公)의 묘, 숙인 영광김씨 부장〉

공의 휘는 숭로(崇老)이고, 자는 이중(頤仲)이며, 광산인(光山人)이다. 정덕(正德) 2년 정묘년(1507)인 중종 때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큰아들 약(約)은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행(行) 음죽현감(陰竹縣監)을 지냈고, 작은아들 회(繪)는 행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를 지냈다. 장손 조원(調元)은 참의에 증직되었다.

숭정후 3 무진년(1748) 12월에 세우다.

28. 삼계면 주산리 김약(金約)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8(백산) • 제작연대 1797년(崇禎後三丁巳)
• 크　기 전체높이 117, 비신높이 101, 너비 43, 두께 12.5

1797년에 세운 김약(金約)의 묘표는 광산김씨 묘역 가운데 두 번째 단,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다.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김약은 김숭로의 큰아들이다. 묘표 앞면의 표기에서 부인을 오른쪽에 썼다. 비는 1779년에 세웠다고 후면 말미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우측면 하단에도 '後四戊辰三月日'이라고 쓰여 있다. 비문은 10행 16자이다.

【전면】

淑人靈光金氏祔
通訓大夫吏曺銓郎行
陰竹縣監金公之墓

【후면】

公諱約字叔儉光山人　明廟朝文科考
諱崇老行恩津縣監前配呂氏世澂之女
只有一女墓在白山村東沙乃洞庚向之
原後配金氏益精之女有子二長曰賛元
壬辰奮義守城次曰調元以行誼薦徵辟
不就　贈叅議　崇禎後三丁巳四月 日立

【우면】

後四戊辰三月日

〈통훈대부 이조전랑 행 음죽현감(陰竹縣監) 김공의 묘, 숙인 영광김씨 부장〉

공의 휘는 약(約)이고, 자는 숙검(叔儉)으로, 광산인(光山人)이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아버지의 휘는 숭노(崇老)로, 행 은진현감(恩津縣監)을 지냈고, 전배(前配) 여씨(呂氏)는 세징(世澂)의 딸로, 다만 1녀만을 두었으며, 묘는 백산촌(白山村) 동쪽 사내동(沙乃洞)의 경향(庚向) 언덕에 있다. 후배(後配) 김씨(金氏)는 익정(益精)의 딸로, 2남을 낳았다. 큰아들 찬원(賛元)은 임진왜란 때 의기를 떨쳐 성을 지켰고, 작은아들 조원(調元)은 행의(行誼)로 천거되었지만 징벽(徵辟, 임금이 초야에 있는 사람을 예를 갖추어 불러서 벼슬을 시킴)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숭정후 3 정사년(1797) 4월에 세우다.

29. 삼계면 주산리 김조원(金調元)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8(백산) • 제작연대 1780년(崇禎後三庚子)
• 크　기 전체높이 164, 비신높이 109, 너비 39, 두께 10

1780년에 세운 김조원(金調元)의 묘표는 광산김씨 묘역 가운데 세 번째 단,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다. 무늬없는 사각형 대석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김조원은 김약의 아들이다. 묘표 앞면의 표기에서 부인을 오른쪽에 썼다. 오른쪽에 1985년(乙丑)에 세운 묘갈이 있다. 비문은 9행 22자이다.

【전면】

淑夫人文化柳氏祔

通政大夫工曺叅議金公之墓

【후면】

公諱調元字士燮光山人化平府院君忠肅公諱深九代孫縣監諱約子號悠悠亭河西金先生門人學問高明孝行出俗遭親喪奉几筵守廬墓下世名其山曰祭廳山事見鄕誌行誼聞於世　朝家旌召之典稠疊連不就仕末梢　恩命至于冬官叅議之秩有五男一女長瑞龍別提次見龍次彦龍察訪次德龍季伏龍武科女適徐昶

【우면】

崇禎紀元後三庚子五月　日立

〈통정대부 공조참의 김공의 묘, 숙부인 문화유씨 부장〉

공의 휘는 조원(調元)이고, 자는 사섭(士燮)이며, 광산인(光山人)이다. 화평부원군(化平府院君) 충숙공(忠肅公) 심(深)의 9대손이며, 현감 약(約)의 아들이다. 호는 유유정(悠悠亭)이다. 하서(河西) 김선생의 문인이다. 학문이 고명하고 효행이 세속에서 출중하였다. 친상(親喪)을 당하여 궤연(几筵)을 받들고 여묘살이를 하였으니, 세상에서는 그 산의 이름을 제청산(祭廳山)이라고 하였다. 사적이 향지(鄕誌)에 보인다. 행의(行誼)가 세상에 알려져 조정에서 예를 갖추어 부르는 은전이 거듭 내렸지만 계속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에는 은명(恩命)이 공조참의의 작질에 이르렀다. 5남 1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서룡(瑞龍)으로, 별제(別提)이고, 차자는 현룡(見龍), 다음은 언룡(彦龍)으로, 찰방(察訪)을 지냈다. 다음은 덕룡(德龍)이고, 막내는 복룡(伏龍)으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따님은 서창(徐昶)에게 시집갔다.

숭정 기원후 3 경자년(1780) 5월 일에 세우다.

30. 삼계면 주산리 김서룡(金瑞龍)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8(백산) • 제작연대 1900년(崇禎後五庚子)
• 크　기 전체높이 150, 비신높이 89, 너비 46, 두께 14

1900년에 세운 김서룡(金瑞龍)의 묘표는 광산김씨 묘역 가운데 세 번째 단,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다. 연꽃잎이 새겨진 사각형 대석에 구름무늬가 새겨진 운수형 비두와 하나의 돌인 비신을 세웠다. 김서룡은 김조원의 아들이다. 오른쪽에 1985년에 새로 만든 묘갈명이 서 있다. 비문은 9행 13자이다.

【전면】

恭人光州安氏祔
恭人咸陽朴氏祔
通善郎行造紙署別提金公之墓

【후면】

公諱瑞龍字應吉光山人化平府
院君忠肅公諱深十世孫考諱調
元叅議前配一子二女子禔通德
郎女適南平忠義尉尹先甲次適
鄭祐孫就鍊次益鍊通德郎
崇禎後五庚子九月 日修立

〈통선랑(通善郎) 행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 김공의 묘, 공인(恭人) 함양박씨(咸陽朴氏) 부장, 공인(恭人) 광주안씨(光州安氏) 부장〉

공의 휘는 서룡(瑞龍)이고, 자는 응길(應吉)이니, 광산인(光山人)이다. 화평부원군(化平府院君) 충숙공(忠肅公) 심(深)의 10세손이다. 선고의 휘는 조원(調元)이니, 참의를 지냈다. 전배(前配)는 1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 식(禔)은 통덕랑이고, 딸은 남평충의위(南平忠義尉) 윤선갑(尹先甲)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정우(鄭祐)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취련(就鍊)이고, 또 익련(益鍊)이니 통덕랑이다.

숭정(崇禎)후 5 경자년(1900) 9월 일에 세우다.

31. 삼계면 주산리 김한룡(金翰龍)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8(백산) • 제작연대 1897년(丁酉)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113, 비신높이 100, 너비 52, 두께 11.5

김한룡(金翰龍)의 묘비는 광산김씨 묘역 가운데 세 번째 단, 왼쪽에서 여섯 번째에 있다.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오른쪽에 새로 만든 비가 있다. 김한룡은 김회의 손자로,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김천일 최경회 등과 함께 순절한 김보원(金輔元)이다. 비문은 3행 12자이다.

【전면】

學生光山金公諱翰龍之墓

配孺人咸平盧氏墓基洞艮坐

【좌면】

丁酉十月日　有司在滿

32. 황룡면 금호리 박수량(朴守良) 백비(白碑)와 묘지명

① 박수량 백비

•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산33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기념물 198호(2001.12.13.)
• 제작연대 1554년(명종 1) • 크 기 전체높이 154, 비신높이 130, 너비 46, 두께 16

---

① 박수량 백비

황룡면 금호리 호사동에 있는 백비는 청백리(淸白吏)로 유명한 박수량(朴守良, 1491~1554)이 세상을 뜨자 명종(明宗)이 직접 하사한 비석이다. 박수량의 묘 앞에 있는 이 묘비(墓碑)는 장방형의 대석 위에 원수형의 비신을 세운 것으로, 비문 내용을 새기지 않아 백비(白碑)로 불리운다.

박수량은 38년여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도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청렴하여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는데, 그가 돌아간 뒤에도 남은 양식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초상(初喪)마저 치를 수 없었다. 당시 대사헌 윤춘년(尹春年, 1514~1567)이 명종에게, "박수량은 청백한 사람이라 멀리 서울에 올라와서 벼슬살이 하면서도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었으므로 고향인 장성(長城)으로 돌려보내

② 박수량(朴守良) 묘지명비

• 제작연대 1888년(上之二十五年戊子) • 크　기 전체높이 258, 비신높이 210 , 너비 65, 두께 24

장사지내고자 하나 도저히 자력(自力)으로 할 수 없으니, 만일 이런 사람을 나라에서 표창하여 주면 청백한 모든 관리들에게 크게 장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겨우 장례를 치렀다.

박수량의 청렴결백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명종은 그의 부고(訃告)를 듣고서 애석해하며 사흘 동안 조회(朝會)를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서해(西海)의 암석에서 빗돌을 골라 내리면서, "박수량의 청백을 알면서 비에 새삼스럽게 결백했던 내용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청렴을 잘못 아는 결과가 될지 모르니, 비문(碑文)없이 그대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청백리 박수량은 생전에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초야(草野)의 출신으로 외람되게 판서(判書)의 반열에 올랐으니, 영광이 분수에 넘쳤다. 내가 죽거든 절대 시호를 청하거나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는데, 백비는 이러한 그의 청빈한 삶과 청백리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② 박수량(朴守良) 묘지명비

묘비는 1888년(고종 25) 3월 장성 황룡면 금호리 호사마을 박수량의 묘 왼쪽에 세워졌는데, 가첨석을 갖춘 비이다. 1년 전인 1887년에 호사마을 묘역 입구에 박수량신도비(朴守良神道碑)가 건립되었다. 묘지명(墓誌銘)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쓴 것이 새겨져 있다. 우측면에는 묘비를 세운 후손의 추기(追記)가 있는데, 1805년(순조 5)에 비로소 시호가 내려짐에 따라 1888년(고종 25) 3월에 묘지명을 새겨 묘비를 세운다고 밝혀 놓았다. 묘비의 글씨는 대사헌(大司憲) 김만식(金晩植, 1834~1901)이 썼다.

박수량의 신도비명을 찬술한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은 박수량의 유고(遺藁)가 불에 타 없어진 상태에서 김인후의 묘지명은 고대 중국의 정려(鼎呂)보다 귀중하다고 평가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김인후의 문집에 실린 글과 똑같은데, 다만 후면 5행의 '而以司藝軍器寺正'이 김인후의 문집에는 '而以司藝還朝 又爲司成及內贍軍器寺正'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비문은 21행 80자이다.

【전면】

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
諡貞惠朴公諱守良之墓
貞夫人茂松庾氏祔左

【후면】

有明朝鮮國資憲大夫議政府參贊朴公墓誌銘
公諱守良字君遂泰山縣人少受學於鄕先生金學士湜沈潛勤敏未嘗一字放過出入場屋不挾一卷書爲文詞有法度選正德八年進士九年中乙科第二名入成均館分教廣州州學金公世弼牧于州嘗與爲國學師生特愛公專精好問及是論文講學亹亹不倦越明年移入承文院自副正字至博士階宣

務轉成均典籍禮曹佐郎司諫院正言出爲湖西都事兼春秋記注官佐孫公仲暾秩滿遷刑曹正郎兼館職如故拜司憲持平往來秋官者三移郎于兵以親老乞養得守古阜郡之 命乃嘉靖四年也居三歲喪考終制拜獻納歷掌令奉常僉正司諫司纂副正十年以司成爲母夫人又辭歸守寶城郡踰年而以司藝軍器寺正十五年判校承文院兼春秋館編修特陞通政大夫兵曹參知拜承政院同副承旨兼 經筵參贊春秋修撰等官次遷左承旨又 命加嘉善拜戶曹參判事在十六年出按咸鏡道三移病改軍職尋爲漢城右尹同知中樞府工曹參判又移戶曹十八年由都摠府副摠管復參判于禮曹又乞養拜潭陽府使盡三年仍留侍二十一年大夫人終服除朝命累下而病偏頭重聽不克仕實 上卽位之明年二十五年始以上護軍拜 命進階資憲知中樞府事賞淸德也歷漢城判尹刑曹判書二十九年拜議政府右參贊兼知 經筵義禁春秋事五衛都摠管三十年朝廷擬本道觀察使推崇秩可鎭服者卽 命公帶京職兼之一年入兼都摠管再以判尹還右參贊改戶曹判書又爲判尹三十三年正月庚申以知中樞府事病卒享年六十四訃聞 上爲之輟朝二日辛未遣禮官諭祭其文有內實有餘外似不足家無餘粟益用嘉惜語 命有司特以禮葬又 下監司厚恤其家蓋 經筵官服其淸貧因進講以啓也公簡重愼密以禮律自居自勝愈強而退然如不勝衣有文而不露酒無定量剛制不亂與人不爲翕翕交居鄕惟謹常以止足爲戒其在潭陽母夫人患痢且劇躬自湯藥衣不解帶者數十日取嘗糞甜苦疾因以瘳服喪勤禮步不出墓廬之外旣免猶切切不已以有宗兄奉魂帛自隨朔望齋祭極其誠敬爲全羅監司也直抵齋廬瞻掃封塋上下周省卒無惰容行成政修而移治于官所在無不擧其職非其義也人不敢以一毫及之立 朝三十有八年以至卿相無數椽之宅壬子冬 上又褒廉謹臣僚錫宴于闕庭給物有差酒樂皆用一等且 命從容醉罷至暮歸以 宮燭有天災邊警恒以爲憂常語二子曰我自草澤濫陞入 命榮幸踰分我死愼勿爲請謚立碑二月丙申發還于長城縣以五月庚申葬于狐丘先塋之左丑首未趾之穴曾祖禦侮將軍虎賁衛大護軍諱文雅 贈通政大夫左承旨兼 經筵修撰官祖宣略將軍諱賢孫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考諱宗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妣李氏 贈貞夫人公娶通政大夫前行副司直庾玉輅之女亦封貞夫人生二子長思愚進士行義禁府都事次思魯豐儲倉奉事孫二尙敬尙謹公之侄孫甥吳大朴以都事之言托銘於族人金麟厚麟厚病且拙於辭無以發揚德美然義有所不得辭也敢作銘曰金精玉粟畜內制外約奉卑牧不交于害榮窮祖先數異身後勖哉承慶勿替永久

【우면】

不請謚立碑遺命也十世不敢違 純廟乙丑懿諡始降雲仍私伸庶可次第今以幽誌作顯刻非不欲別爲表碣而遺命微意恐遂埋鏟此於先祖之意子孫之私庶並行而不悖矣十一世孫東洙追記上之二十五年戊子三月 日

資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金晩植並書

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 시호가 정혜(貞惠)이신 박수량(朴守良) 공의 묘

정부인(貞夫人) 무송유씨(茂松庾氏)를 왼쪽에 합장함

〈유명 조선국 자헌대부 의정부참찬 박공(朴公) 묘지명〉

공의 휘(諱)는 수량(守良)이고, 자(字)는 군수(君遂)이며, 태산현 사람이다. 젊어서 향선생인 학사(學士) 김개(金漑)에게 수학하였는데, 차분하며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한 글자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다. 과장에 드나들 때는 한 권의 책도 들고 가지 않았으며, 문사 지을 때는 법도가 있었다. 정덕 8년(1513)의 진사과에 뽑히고 9년에 을과 2등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광주(廣州) 주학(州學)으로 파견되어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고을 목사인 김세필(金世弼) 공은 일찍이 태학에서 사제로 있을 때부터 공이 학문에 전념하여 좋아하는 것을 특별히 사랑하였는데, 이곳으로 오게 되자 글을 논하고 학문을 강론함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부지런하였다.

이듬해 승문원으로 들어와서 부정자에서 박사에 이르고 계급은 선무랑에서 성균 전적, 예조 좌랑, 사간원 정언으로 옮겼다. 외직으로 나가 호서도사(湖西都事) 겸 춘추기주관이 되어 손중돈(孫仲暾) 공을 보좌하였다. 임기가 차자 형조 좌랑으로 옮겼는데, 겸직은 이전과 같았다.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어 형조의 벼슬에 오간 것이 세 번이었으며, 병조 정랑으로 옮겼다가 양친이 연로하여 봉양하기를 빌어서 고부 군수의 명을 받았으니, 바로 가정 4년(1525)이었다.

3년이 지난 뒤에 부친상을 당해 복제를 마치고 헌납에 제수되었으며, 장령, 봉상첨정, 사간, 사도, 부정 등을 역임하였다. 가정 10년(1531)에 사성(司成)에 있다가 모부인을 위해 사직하고 돌아가 보성 군수에 임명되었다가 다음 해 사예(司藝)로서 조정에 돌아와 사성 및 내섬, 군기시 정이 되었다. 가정 15년(1536)에 판교승문원 겸 춘추관편수에 있다가 특별히 통정대부 병조 참지에 승진되었으며 승문원동부승지 겸 경연참찬 춘추수찬 등의 관에 제수되고 다음에 좌승지로 옮겼다. 또 명하여 가선대부로 직급을 올리고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가정 16년에 함경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세 번 자리를 옮겼는데, 병으로 군직(軍職)으로 옮겼다가 곧이어 한성 우윤, 동지중추부, 공조 참판 등이 되었으며 또다시 호조로 옮겼다. 가정 18년에 도총부부총관에서 다시 예조 참판으로 되었다가 또다시 걸양하여 담양 부사에 제수되었다. 삼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곳에 눌러앉아 자친을 모셨다.

가정 21년(1542)에 대부인이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자 조정의 명이 누차 내려왔으나 편두통을 앓고 귀가 어두워 출사하지 못하였다. 주상이 즉위한 다음 해 가정 25년(1546)에 처음으로 상호군에 제수되어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자급이 올랐으니, 맑은 덕을 높인 것이다. 한성 좌윤과 형조 판서를 지냈다. 가정 29년에 의정부 우참찬 겸 지경연의금춘추사 오위도총관에 제수되었다. 가정 30년(1551) 조정에서 본도(本道, 전라도) 관찰사를 의망하며 높은 직급으로 민심을 진복(鎭服)할 만한 자를 추천하였는데, 바로 공에게 명하여 서울의 직급을 지닌 채로 겸하게 하였다. 1년 만에 내직으로 들어와 도총관을 겸하고 다시 판윤으로서 우참찬에 돌아왔다가 호조 판서로 옮겼으며 또다시 판윤이 되었다.

가정 33년(1554) 정월 경신일에 지중추부사에 있다가 병이 나서 타계하니, 향년 64세였다. 부음이 조정에 알려지자, 주상은 그를 위해 이틀 조회를 철회하였으며 신미일에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 제문에서 "속은 꽉 차 넘치는데 밖에서 보면 부족한 듯하다. 집에 남은 곡식이 없으니 더욱 가상하고 애석하다."는 말이 있다. 유사에게 명하여 특별히 예로써 장사 지내게 하고, 또한 감사에게 명을 내려 그 집안을 잘 보살피라고 하였으니, 대개 경연관이 그 청빈함에 감복하여 진강할 때 아뢰었기 때문이다.

공은 간중(簡重)하고 신밀하여 예로써 자신의 행동을 다스렸으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더욱 강하였지만 겸퇴(謙退)하여 마치 입은 옷도 가누지 못할 듯하였다. 문장이 뛰어났으나 드러내지 않았으며, 술은 한정이 없었지만 강하게 억제하여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사람과 사귈 때 지나치게 온화하지 않았으며, 고을에 거처할 때 더욱 조심하여 항상 지족(止足)으로 경계를 삼았다.

담양에 있을 때 모부인께서 이질을 앓아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는데, 몸소 약을 달이며 수십 일을 옷에서 띠를 풀지 않았다. 변이 단가 쓴가를 맛보아 병을 다스려 이내 낫게 되었다. 상을 당하자 예를 지켜 한 걸음도 묘려(墓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상을 마쳐서도 오히려 애절해 마지않았는데, 장형(長兄)이 있기에 혼백을 받들고 스스로 따랐다. 삭망(朔望)의 재계와 제사에 그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다. 전라 감사가 되었을 때도 곧바로 재려(齋廬)에 당도하여 묘역을 청소하고 상하 두루 살폈는데, 끝까지 태만한 모습이 없었다.

행실이 훌륭하고 집안이 닦여짐에 관으로 그 다스림을 옮기니 그가 있은 곳에는 그 직책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의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감히 일호라도 주고받지 못하였으니, 조정에 벼슬한 지 38년 동안 경상의 지위에 올랐어도 두어 칸의 집도 없었다. 임자년(1552) 겨울에 주상께서 청렴한 신하를 포양(褒揚)하기 위해 대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차등을 두어 물건을 하사하였는데, 술과 음악은 모두 제일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취하도록 마시고서 파하도록 명하였으며 저물녘에 돌아갈 때 궁궐 촛불을 내주었다.

천재(天災)나 변방의 경계가 있으면 항상 걱정하였다. 늘 두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초야에서부터 외람되이 팔명(八命)[23]에 이르렀으니 분수에 넘치는 영광이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시호를 청하거나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 하였다. 2월 병신일에 발인하여 장성현으로 돌아와서 5월 경신일에 고향 선영의 왼편 축좌미향(丑坐未向)의 혈에 장사 지냈다.

증조는 어모 장군 호분위대호군으로 휘는 문아(文雅)인데, 통정대부 좌승지 겸 경연수찬관에 추증되었다. 조부는 선략 장군으로 휘는 현손(賢孫)인데, 가선대부 병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선친의 휘는 종원(宗元)으로, 자헌대부 이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으며, 선비(先妣) 이씨는 정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은 통정대부 전 행부사직 유옥로(庾玉輅)의 따님으로 또한 정부인에 봉해졌다. 두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은 사우(思愚)로 진사이며 행의금부도사이다. 차남은

23 팔명(八命) : 주의 관직 제도에 1명관부터 9명관까지 있다. 9명은 상공(上公)으로 그 다음이다.

사로(思魯)로 풍저창봉사이다. 손자는 둘인데, 상경(尙敬)과 상근(尙謹)이다. 공의 조카 손녀 사위 오대박(吳大朴)이 도사인 사우의 부탁으로 친족인 나 김인후에게 명을 부탁하였다. 나는 병들고 또 문장에도 졸렬하여 그 덕의 아름다움을 드날릴 수 없다. 그러나 의리상 사양할 수 없기에 감히 명을 짓는다.

金精玉栗　　순수한 금인양 굳은 옥인 양,
畜內制外　　안으로 기르고 밖으로 삼갔어라.
約奉卑牧　　검약하고 겸손하여,
不交于害　　악한 이와 어울리지 않았네.
榮窮祖先　　조상에게 영화 바치고,
數異身後　　죽은 뒤에도 은총 받았네.
勖哉承慶　　힘써 이 경사 계승하여,
勿替永久　　영원히 쇠퇴하지 말기를.

불청시입비(不請諡立碑, 시호를 청하거나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명(遺命)이라서 10대 동안 감히 어기지 못했는데, 순조 을축년(1805)에 시호가 비로소 내려와 후손들의 사사로운 정을 차례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묘지(墓誌)로서 비석을 만든 것은 특별히 묘갈로 삼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유언에 깃든 의미가 마침내 매몰될까 두려워서이다. 이것은 선조의 뜻과 자손의 사사로운 정성이 서로 병행해도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11세손 동수(東洙)가 추기(追記)함.

고종 25년 무자(1888) 3월에, 자헌대부 행 사헌부 대사헌 김만식(金晩植) 씀.

33. 황룡면 맥호리 김령(金齡)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번지 • 제작연대 미상(1560년 이전)
• 크　기 전체높이 155, 비신높이 141, 너비 58, 두께 16

하서 김인후 묘역에 함께 있는 김령(金齡, 1474~1549)의 묘비이다. 원수형 비로, 상석(床石) 바로 뒤에 있다. 종사랑(從仕郎) 의릉참봉(義陵參奉)을 역임한 김령의 자는 인로(仁老)로, 하서 김인후(金麟厚)의 아버지이다. 증조부는 충좌위(忠佐衛) 김달원(金達源)이며, 조부는 사온서직장(司醞署直長) 김의강(金義剛)이고, 부친은 금구훈도(金溝訓導)를 지낸 김환(金丸)이다. 이 묘갈명은 면앙정 송순(宋純, 1493~1582)이 찬술한 것이어서 송순의 『면앙집』에도 들어있는데, 내용은 한 글자의 틀림도 없이 똑같다. 묘소의 우측에 1926년에 13대손 통정대부(通政大夫) 비서원승(秘書院丞) 경중(暻中, 1863~1945)이 다시 세운 신비가 있는데 이 내용도 같다. 비문은 23행 46자이다.

【전면】

妻 趙 氏 之 墓

金 君 仁 老 甫 之 墓

【후면】

公諱齡字仁老姓金氏其先蔚山人仕高麗有以功封鶴城府院君者曰德摯其後十四代有孫諱環重大匡鶴城君是

生季興奉翊大夫版圖判書判書生貺奉常大夫典工摠郎摠郎生穩卽公之高祖官至中訓大夫密陽府使自幼小時

聰慧絶人登洪武戊辰科是年我

太祖入威化島爲給料官厥後臨官咸以剖決稱之爲刑曹都官正郎時夫人閔氏世父霽藉呂威欲枉訟理掉頭不肯竟與

所當得者人皆曰公直無若此郎閔氏乃

元敬王后從姊妹及其卒來葬於長城子孫之爲縣人始於此曾祖達源忠佐衛中領司正祖義剛司醞署直長同正父丸金

溝訓導訓導先娶稷山金石崇之女是於　世子左司經知孝爲孫女生公三歲夫婦道暌離歸托於本宗門有朴貴孫

第二配謂公無寄養人理可憐收以撫育公旣有知省侍奉養咸極其誠雖荷包箬裹亦無不致訓導公頗愍其情及公

有室許令歸奉或爲之顧視公之誠有激而然也如遇生辰令節能自拔貧爲辨不暇有尺寸後計致父老令極歡娛母

夫人終執喪惟禮旣除有常薦必哀哭一如初時及丁外服氣力已衰加以素疾相乘治喪展哀亦無少懈公之諸弟妹

皆與公爲異母產遇之咸無間橫逆雖或來加處之裕如訓導公疾革且曰吾兒眞孝子也母夫人卒訓導公終以彥陽

金氏爲繼室及其喪諸弟多異議公倡爲三年之服配享如儀人服其能順父志公成化十年十二月辛卯生于長城麥

洞里嘉靖二十八年十月己酉終于淳昌南山後里享年七十有六十二月庚申返葬于長城家西南願堂洞向南之原

公拙於生產所居廳事不過草廬三間至於祠宇堂室器庫一遵禮制梁桷赤白煥然惟新平生待惡以寬臨財以簡人

無怨言常以勤謹誠信脩身順命之說勸敎子孫嚴且懇至如科第末事殊無汲汲之望雖在僮使之賤咸察其飢寒見

慢則輒加誘誨不喜用笞朴嘗爲擧子業晩能致意於古不爲世俗學公娶淳昌趙氏爲配高麗侍中瑚之後訓導勣之

女性仁厚安重年二十有五歸于公逮事舅姑更歷諸母孝順諧翕有人所難能者奉祭祀必以誠輔公身必以道或値

其怒務爲之寬解雖犬馬不輕毆訶產業蕭然擔石屢空急於濟人施予無少靳嘉靖三十年六月戊午卒亦年七十有

六九月丙午從葬于公異穴同兆男麟厚生而粹異自七八歲名譽大行德業文詞俱冠一世人方以遠大爲期待內外

之敎有所賴也中庚子科曾入弘文館歷著作博士轉至副修撰女適士人盧宗嘉善大夫前吏曹參判宋純從公兒而

知公德久矣故哀而銘之其詞曰行莫孝大德莫仁盛公能有二宜受多慶旣享其壽又得其兒於千萬年永光厥垂

〈종사랑 의릉참봉 울산인 김령(金齡)의 묘, 유인 옥천조씨(玉川趙氏) 합장〉

공의 휘는 령(齡)이고, 자는 인로(仁老)이며, 성은 김씨(金氏)이다. 그 선조는 울산인(蔚山人)으로, 고려(高麗)에서 벼슬하여 공훈으로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에 봉해진 분이 계시니 덕지(德摯)이다. 그 뒤로 14대손 환(環)이 있는데 삼중대광(三重大匡) 학성군(鶴城君)으로, 이분이 계흥(季興)을 낳았으니, 봉익대부(奉翊大夫) 판도판서(版圖判書)이다. 판도판서가 황(貺)을 낳았으니, 봉상대부(奉常大夫) 전공총랑(典工摠郞)이고, 전공총랑이 온(穩)을 낳았으니, 바로 공의 고조이시다. 관직은 중훈대부(中訓大夫) 밀양부사(密陽府使)에 이르렀다.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홍무(洪武) 무진년(1388) 과거시험에 급제하였다. 이해에 우리 태조(太祖)가 위화도(威化島)로 들어갔으니, 이때 급료관(給料官)이 되었다. 그 뒤 관직에 임함에 모두 명쾌하게 판단한다고 칭찬하였다. 형조 도관 정랑이 되었을 때 부인 민씨(閔氏)의 세부(世父, 伯父) 민제(閔霽)가 궁중의 위세를 믿고 송사를 왜곡되게 판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머리를 흔들며 하고자 하지 않고 끝내 마땅히 이겨야 할 자의 편을 들어주니, 사람들이 모두 "공정하고 정직한 것이 이 낭관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다. 민씨(閔氏)는 바로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종자매(從姊妹)이다. 그가 죽자 와서 장성(長城)에 장사지냈다. 자손이 장성현(長城縣)에 살게 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증조는 달원(達源)이니, 충좌위 중령사정(忠佐衛中領司正)이고, 조부는 의강(義剛)이니, 사온서 직장 동정(司醞署直長同正)이다. 아버지는 환(丸)이니, 금구훈도(金溝訓導)이다. 금구훈도는 먼저 직산(稷山) 김석숭(金石崇)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이분은 세자좌사경(世子左司經) 지효(知孝)의 손녀이다.

공을 낳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부부가 헤어져 친정으로 돌아가 의탁하였다. 박귀손(朴貴孫)의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공을 맡아서 키울 사람이 없자 사람의 도리상 가련하다고 생각하고 거두어 키웠다. 공이 철이 들자 시봉하고 봉양하는 것을 모두 극진한 정성을 바쳤으니, 비록 하포(荷包)나 약과(箬裹)라도 또한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훈도공(訓導公)이 자못 그 정을 가련하게 여겨 공이 가정을 이루자 가서 봉양하게 하였다. 혹 살펴보려 들렸을 때 공의 정성을 보고 감격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만일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스스로 가난한 형편에도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후일을 위해 남겨 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부로(父老)들을 불러다 매우 즐겁게 해 주었다.

모부인(母夫人)이 별세하자 집상(執喪)을 예(禮)대로 하였다. 상복을 벗고 법도대로 제사를 올리면서 반드시 처음 상을 당하였을 때처럼 한결같이 애도하고 곡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자 기력이 이미 쇠하였고, 또 평소 앓던 질병이 번갈아 발병하였지만 장사를 치르면서 애통한 정성을 펴고 또한 조금도 나태함이 없었다.

공의 아우와 누이는 모두 공과는 배다른 형제였지만 모두 친동생처럼 대하였다. 횡역(橫逆)이 비록 혹 더해지더라도 여유롭게 대처하였다. 훈도공(訓導公)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또 말하기를 "나의 아이는 진정 효자이다."라고 하였다. 모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훈도공이 끝내 언양김씨(彦陽金氏)를 계실(繼室)로 삼았는데, 계모의 초상에 미쳐서 동생들은 다른 의견이 많았지만 공이 창도하여 삼년복을 입고, 가묘에 의례와 같이 배향하니,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것에 탄복하였다.

공은 성화(成化) 10년(1474) 12월 신묘일에 장성(長城) 맥동리(麥洞里)에서 태어나 가정(嘉靖) 28년(1549) 10월 기유일에 순창(淳昌) 남산후리(南山後里)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니, 향년 76세이었다. 12월 경신일에 장성(長城)의 집 서남쪽 원당동(願堂洞) 남쪽을 향한 언덕에 반장(返葬)하였다.

공은 재물을 늘리는 데에는 재주가 없어 거처하는 집은 초가삼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사당과 당실(堂室), 기고(器庫)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예제(禮制)를 따랐으니, 들보와 서까래의 붉고 흰 색깔은 환하게 새로웠다. 평생 악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였고, 재물 앞에서는 검소하였으니, 사람들은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늘 부지런하고 조심하며 성실하고 미덥게 몸을 닦고 천명을 따르라는 말로 자손을 권면하여 가르쳤는데, 엄격하면서도 매우 정성스러웠다. 과거시험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 특별히 급급하게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비록 천한 노비라도 굶주리는지 추위에 떠는지를 모두 살폈다.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문득 말로 깨우침을 주고 매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젊어서 과거 공부를 하였지만 만년에는 늘 고인(古人)의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세속의 학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은 순창조씨(淳昌趙氏)에게 장가들어 배필로 삼았으니, 고려(高麗) 시중(侍中) 여(璵)의 후손이며, 훈도(訓導) 적(勣)의 따님이다. 성품은 인후(仁厚)하고 안중(安重)하였으며, 나이 25세에 공에게 시집왔다. 시부모를 섬기고 다시 서모(庶母)를 겪었지만, 효순(孝順)하고 조화롭게 하였으니, 남들이 능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제사를 받듦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성으로써 하고 공을 보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로써 하였다. 혹 노여워하는 일이 있으면 힘써 너그럽게 마음을 풀어주었다. 비록 견마라도 함부로 때리거나 꾸짖지 않았다. 재산이 없어서 양식이 자주 떨어졌지만 사람 구제하는 것에 급하였으니, 베풂에 조금도 아낌이 없었다. 가정(嘉靖) 30년 6월 무오일에 별세하였으니, 또한 나이 76세였다. 9월 병오일에 공의 곁에 장사지냈으니, 묘혈은 다르고 묘역은 같다.

아들 인후(麟厚)는 태어날 때부터 순수함이 보통 사람과 달라서 7~8세부터 명예가 크게 행해졌다. 덕업(德業)과 문사(文詞)가 모두 당대에 으뜸이어서 사람들이 바야흐로 원대한 뜻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니, 내외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가 있었다. 경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일찍이 홍문관에 들어가 저작(著作)과 박사(博士)를 역임하고 부수찬에 이르렀다. 따님은 사인(士人) 노종(盧宗)에게 시집갔다.

가선대부 전 이조참판 송순(宋純)은 공을 어릴 적부터 따라서 공의 덕을 안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애도하며 명을 짓는다. 그 사(詞)에 이른다.

行莫孝大　　행실은 효보다 큰 것이 없고,
德莫仁盛　　덕은 인을 성대하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네.
公能有二　　공은 두 가지를 소유하였으니,
宜受多慶　　마땅히 많은 경사를 받을 것이라.
旣享其壽　　이미 수를 누렸고,
又得其兒　　또 훌륭한 아들 얻었네.
於千萬年　　천년 만년 뒤에도,
永光厥垂　　드리운 은택 영원히 빛나리라.

34. 황룡면 맥호리 김형복(金亨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전체높이 168, 비신높이 155, 너비 58, 두께 23

승훈랑(承訓郎) 김형복(金亨福)의 묘비는 김인후 묘 뒤편 왼쪽에 있다. 둥근 사각형 대석에 비수가 방형에 가까운 원수형 비신이 세워져 있다. 김형복의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부인은 황주변씨이다. 비문은 2행 12자이다.

【전면】

承訓郎蔚山金公諱亨福之墓

配宜人黃州邊氏祔左

35. 황룡면 아곡리 기원(奇遠)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43 • 제작연대 1728년(戊申)
• 크　기 전체높이 180, 비신높이 146, 너비 41, 두께 17

황룡면 아곡리 행주기씨 묘역은 원래 황룡면 관동리 제청산에 있던 것을 최근인 10여 년전에 아곡리 보룡산 아래로 옮겨와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행주기씨 묘역 중 가장 위쪽에 있는 기원(奇遠)의 묘비는 대석 측면에 안상과 윗면에 연판문을 새긴 사각 비좌에 하엽형 비수와 한 몸인 비신을 세웠다. 묘는 부인과 합폄이고, 좌우에 문인석과 양모양의 석수가 서 있다. 그리고 향우측에는 1969년에 세운 국한문혼용의 비가 서 있다.

기원(奇遠,?~1522)의 자는 자허(子虛)로, 기건(奇虔)의 증손이며, 행주기씨가 장성으로 낙남한 시조가 된다. 비석은 원래 1545년에 비문을 써서 세웠고, 그후 184년후인 무신년에 다시 비석을 새겨서 세웠다. 비문은 10행 38자이다.

【전면】

宜人安東金氏之墓

敦勇校尉奇公諱遠之墓

【후면】

公姓奇諱遠字子虛系出幸州曾祖諱虔判中樞府事謚貞武公祖諱軸豊儲倉副使贈左承旨考諱襸弘文館應敎贈吏曹參判妣坡平尹氏僉知俊元之女公其次子也配安東金氏讓寧大君外孫壽仁之女公氣度沈靜言語純慤人稱奇氏有後金氏亦婉順有德上下和睦公之季服齋公死於己卯禍自是絶意仕進去京南來居於長城子孫因家焉公以嘉靖壬午六月卒金氏哀毁成疾翌年癸未繼逝剛柔配德俱未享壽哀哉子三人長大益次大有贈戶曹判書高興君次大頤大益之子孝寬孝弘孝毅大有之子長孝諫隱德不仕號錦江贈戶曹參議次孝說武縣令次孝謹亦武縣令策宣武勳贈兵曹判書皆伯君次孝諄大頤之子孝祥孝祐孝祉孝禎內外曾玄今至二百餘人豈非公之陰德也歟嘉靖乙巳竪石略敍如右其後百八十四年戊申再改石刻立

〈돈용교위 기원의 묘, 의인 안동김씨의 묘〉

공의 성은 기(奇)이고, 이름은 원(遠)이며, 자는 자허(子虛)로, 보계(譜系)는 행주(幸州)에서 나왔다. 증조의 이름은 건(虔)으로 판중추부사이며 시호는 정무공(貞武公)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축(軸)으로,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이며 좌승지에 증직되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찬(襸)으로 홍문관 응교이며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파평윤씨로 첨지(僉知) 준원(俊元)의 딸이다. 부인은 안동김씨로 양녕대군의 외손인 수인(壽仁)의 딸이다.

공은 성품이 조용하고 언어가 순수하여 사람들이 '기씨가 후손을 두었다'고 말하였고, 김씨도 유순하게 덕을 갖추고 있어서 상하 모두 화목하였다. 공의 동생 복재공이 기묘사화에 죽임을 당하자 이때부터 벼슬에 대한 생각을 끊고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 장성에서 살았고, 자손들이 가문을 이루었다.

공은 가정 임오년(1522) 6월에 졸하였는데, 김씨는 너무 애통해하다가 병이 들어 다음 해인 계미년(1523)에 이어서 세상을 떠났다. 강유함이 공과 덕을 짝했지만 모두 수를 누리지 못했으니, 슬프도다.

아들 3명을 두었으니, 큰아들은 대익(大益)이고, 둘째아들은 대유(大有)로 호조판서 고흥군에 증직되었으며, 셋째아들은 대이(大頤)이다. 대익의 아들은 효관(孝寬)·효홍(孝弘)·효의(孝毅)이고, 대유의 아들 중 큰아들 효간(孝諫)은 덕을 감추고 벼슬하지 않았으며, 호는 금강(錦江)이고,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둘째 아들 효열(孝說)은 무과에 급제하여 현령(縣令)을 지냈고, 셋째아들 효근(孝謹)도 무과에 급제하여 현령을 지냈으며, 선무훈(宣武勳)에 책록되고 병조판서 개백군에 증직되었다. 넷째아들은 효순(孝諄)이다. 대이의 아들은 효상(孝祥)·효우(孝祐)·효지(孝祉)·효정(孝禎)이

다. 내외의 증손과 현손들이 지금 이백여 명에 이르니, 어찌 공의 음덕이 아니겠는가?

가정 을사년(1545)에 비석을 세우고 위와 같이 대략 서술하였는데, 그후 184년이 지난 무신년(1728)에 다시 비석을 고쳐 세우다.

36. 황룡면 아곡리 기대유(奇大有)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43 • 제작연대 미상(1644년?)
• 크　기 전체높이 130, 비신높이 102, 너비 45.5, 두께 28

황룡면 아곡리 행주기씨 묘역 중 기원의 묘 아래쪽 향우측에 있는 묘가 기대유(奇大有)의 묘이다. 그 앞에 세워진 묘비는 대석 측면에 안상과 윗면에 연판문을 새긴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가 세워진 형태이다. 부인 함양오씨의 묘는 영광(현 무안군 현경면) 다경진에 있다고 적고 있다. 기계헌(奇啓獻)의 묘표에 '崇禎後甲辰三月連三位墓表同日立'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석을 세운 시기는 1664년이 아닌가 한다.

기대유(奇大有)의 자는 덕우(德優)로, 생몰년은 밝혀져 있지 않았다. 기원의 둘째 아들이다. 부인은 함양오씨 오림(吳琳)의 딸이자 오종한(吳宗漢)의 손녀이다.

【전면】

贈純忠補祚功臣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高興君行進勇校尉龍驤衛副司果奇公諱大有之墓

【좌면】

贈貞夫人咸陽吳氏墓在靈光多慶鎭 山 向之原

37. 황룡면 아곡리 기효간(奇孝諫)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43 • 제작연대 미상(1664년?)
• 크　기 전체높이 168, 비신높이 134, 너비 55, 두께 34.5

기효간(奇孝諫)의 묘는 황룡면 아곡리 행주기씨 묘역 중 기원의 묘 아래쪽 향좌측에 있다. 그앞에 대석 측면에 안상과 윗면에 연판문을 새긴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가 세워져 있는데, 비신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기계헌(奇啓獻)의 묘표에 '崇禎後甲辰三月連三位墓表同日立'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석을 세운 시기는 1664년이 아닌가 한다. 기효간(奇孝諫, 1530~1593)의 자는 백고(伯顧), 호는 금강(錦江)·인재(忍齋)로, 기대유(奇大有)의 큰아들이다. 부인은 태인박씨 박수검(朴守儉)의 딸이다.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에 참여, 주도적으로 활약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봉해졌다. 현재 장성 추산서원(秋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전면】

贈淑夫人詩山朴氏祔

贈通政大夫戶曹參議錦江處士奇公諱孝諫之墓

38. 황룡면 아곡리 기계헌(奇啓獻)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43 • 제작연대 1664년(崇禎後甲辰)
• 크　기 전체높이 127, 비신높이 103, 너비 48, 두께 20

기계헌(奇啓獻)의 묘는 황룡면 아곡리 행주기씨 묘역 중 기원의 묘 아래쪽에 있다. 대석 측면에 안상과 윗면에 연판문을 새긴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가 세워져 있는데, 비신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기계헌(奇啓獻)의 자는 사옥(士沃)으로, 기효간의 큰아들이다. 선무원종훈에 녹훈되었다. 부인은 경주최씨 최척(崔滌)의 딸이자 최송년(崔松年)의 손녀이다.

【전면】

宜人月城崔氏　祔
贈承訓郎戶曹佐郎奇公諱啓獻」之墓

【좌면】

崇禎後甲辰三月連三位墓表同日立

39. 황룡면 아곡리 기진탁(奇震鐸)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43 • 제작연대 미상(18세기)
• 크　기 전체높이 134, 비신높이 120, 너비 48.5, 두께 18

기진탁(奇震鐸)의 묘는 황룡면 아곡리 행주기씨 묘역 중 아랫부분에 있으며, 묘비는 묘의 향우측에 세워져 있는데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이다.

기진탁(奇震鐸, 1607~1653)의 자는 선명(善鳴)으로, 기효간의 증손자이며, 아버지는 기처겸(奇處謙)이다. 부인의 묘와 합폄이다. 부인은 금성나씨 나무춘(羅茂春)의 딸이다.

【전면】

宜 人 羅 州 羅 氏 祔 左

成均進士奇公諱震鐸之墓

40. 황룡면 아곡리 기정하(奇挺夏) 묘상석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43 • 제작연대 미상(18세기)
• 크　기 가로 157, 세로 101, 두께 26

기정하(奇挺夏)의 묘는 황룡면 아곡리 행주기씨 묘역 중 아랫부분 향우측에 있으며, 묘상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최근에 세운 묘표가 묘 향우측에 세워져 있다. 기정하(奇挺夏, 1623~?)의 자는 자임(子任)으로, 기진탁(奇震鐸, 1607~1653)의 큰아들이다. 두 부인과는 품(品)자형으로 합폄이다. 두 부인은 광산김씨 김여간(金汝鐗)의 딸과 강진김씨 김석몽(金錫夢)의 딸이다. 상석의 글씨는 아들 기념이 기록한 것이다.

【전면】

德陽」奇公之墓
光山」金氏祔右
道康」金氏祔左
擴壙取品字」墳用合制
不肖子撮謹誌

41. 황룡면 아곡리 기형(奇泂) 묘상석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43 • 제작연대 미상(18세기)
• 크　기 가로 126, 세로 82, 두께 22.5

기형(奇泂)의 묘는 황룡면 아곡리 행주기씨 묘역 중 아랫부분의 가장 우측에 있으며, 묘상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2002년에 세운 비음기(碑陰記, 奇老柏 찬)가 묘 우측에 세워져 있다. 기형(奇泂 1642~?)의 자는 원익(源益)으로, 기정하의 큰아들이다. 부인은 충주박씨 박사원(朴思遠)의 딸이다.

【전면】

德陽」奇公」諱泂」之墓

孺人」忠州」朴氏」祔左

42. 황룡면 아곡리 박세대(朴世大)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266-1 • 제작연대 1884년(甲申)
• 크　기 전체높이 215, 비신높이 144, 너비 52, 두께 24

홍길동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의 건너편 산에 있는 초당(草堂) 박세대(朴世大, 1644~1697)의 묘비이다. 가첨석을 갖춘 비이다. 박세대의 본관은 태인(泰仁), 자는 대재(大哉), 호는 초당으로, 아곡(莪谷) 박수량(朴守良, 1491~1554)의 5대손이다. 송암(松巖)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의 문인이다. 박세대의 묘갈명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1884년에 지었으며, 글씨는 10세손 래흠(來欽)이 썼다. 비문은 기우만의 문집에 실린 글과 비교했을 때 한두 자의 출입만 있을 뿐 내용은 똑같다. 비문은 24행 35자이다.

【전면】
草堂處士密城朴公世大之墓
配孺人全州崔氏附左

【좌면】

草堂朴公墓碣銘

吾鄕先輩長德可數而密城朴氏諱世大字大哉先生其一也幼簡重行步言談大異凡兒甫就傅從吾家松巖府君學自受小學書愛親隆師以至灑掃之節一如所學府君亟稱之凡看書不得不措尤用力於庸學心經近思等書爲平生受用之地嘗曰買櫝遺珠讀書之大病孝天植生養志體喪盡情文丁外憂旣練遘疹不省事猶令家人不廢饋食服闋日晨

【후면】

謁於廟奉偏慈生事聊落而盡其歡心慈夫人垂老患疽醫不治晝夜號泣扶救百方竟得復和鄕里感其至誠一赴禮部試書試券未旣却紙毫徑出人怪而問之曰千里赴試本爲慰悅親心今卒然失氣若強卒業必添病地遠滯久慰悅未得貽憂大矣禮事諸父勤於酬賓有庶弟四人恩義俱摯無間適己宗黨中事有睽乖難處則皆推公裁置而公斷以義理敦以睦誼聽者心服人無間言橫逆之來未嘗與之較強暴卒乃致恭自志學非有疾病事故常靜處一室終日危坐俯讀仰思晝夜無倦於榮悴得喪恬淡不以介意臨事剛毅不可屈牢確不可變丁丑以疾卒距生甲申爲五十四時老慈在堂公以爲不瞑之恨而語未及他事始葬錦城之北後移長城小谷先兆負乾原小谷卽生長里也五世祖諱守良　中廟名臣官至參贊諡貞惠河西金先生稱以玉栗金精高祖諱思愚曾祖諱尙謹皆縣監祖諱允誠考諱就仁皆司果妣南平潘氏允佐女娶全州崔氏通政以仁女擧六男二女先公坳後光陽林氏時曎女擧二男一女男崇遠崇厚崇初崇渾崇久崇道崇孝崇天女適徐之臨金百升金壽賢七世孫汶容從吾先子學從遂旣久以朴遜齋所爲狀俾宇萬銘之曰子松

【우면】

巖之裔盍於子是圖不敢以文下辭銘曰　公生名家貞惠之孫厥惟從學松巖之門自省不棄欽公之文人一己百輿覽有云剛毅牢確遜老有言孝友立家施及後人公室肯堂志事式傳公阡有石過者式焉

公生後五周甲申鄕里後學奇宇萬謹述

十世孫 來欽謹書

〈초당(草堂) 박공(朴公) 묘갈명(墓碣銘)〉

우리 고향 선배 가운데 큰 덕을 지닌 분으로 헤아려볼만한 이는 밀성박씨(密城朴氏) 휘 세대(世大), 자 대재(大哉)인 선생이 그 가운데 한 분이다. 어려서부터 장엄하고 진중하여 걸음걸이와 말하는 것이 보통 아이와 크게 달랐다. 겨우 스승에게 나아갈 나이에 우리 집안 송암(松巖) 부군(府君)에게 배웠는데, 『소학(小學)』 책을 수업하고부터 어버이를 사랑하고 스승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쇄소응대하는 예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배운 대로 하니, 부군이 자주 칭찬하였다. 무릇 책을 볼 적

에 터득하지 못하면 놓지 않았다. 『중용』, 『대학』,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에 더욱 힘을 써서 평생 수용해야 할 것으로 삼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상자만 사고 구슬은 버리는 것[24]이 독서의 큰 병통이다."라고 하였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뜻과 몸을 함께 봉양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마음과 예법을 다하였다. 부친상을 당해서는 이미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 홍진에 걸려 일을 살필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궤식(饋食)을 폐하지 말게 하였다. 상복을 벗은 뒤에도 날마다 새벽이면 사당에 참배하였다. 홀어머니를 모실 적에는 생계가 좋지 못했지만 더없이 기쁘게 해 드렸다. 어머니가 노년에 악창을 앓아 의원이 치료할 수 없자 밤낮으로 통곡하며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여 끝내 낫게 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이 공의 지성에 감동하였다. 한 번 예부시(禮部試)에 응시하였을 적에 시권(試券)을 다 쓰지 않았는데 종이와 붓을 던지고 지레 나왔다.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천리 길을 와서 시험에 응시한 것은 본래 어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기운을 잃어 몸이 좋지 않으니, 만약 억지로 시험지 쓰는 것을 마친다면 반드시 병만 더하여 먼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됨으로써 위로와 기쁨은 드리지 못하고 크게 근심만 끼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부(諸父)들을 예로 섬겼고, 손님 접대를 부지런히 하였다. 서제(庶弟) 네 명이 있었는데, 은혜와 의리가 모두 지극하여 적자인 자신과 차이를 두지 않았다. 종친 가운데 어긋나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공을 추천해 처리했는데, 공은 의리에 맞게 결단하고 화목의 정을 돈독하게 하니, 듣는 자가 마음으로 복종하여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닥쳤을 적에 일찍이 상대와 따진 적이 없자, 강포(強暴)한 사람도 끝내는 공손해졌다.

학문에 뜻을 둔 15세 무렵부터 질병이 있거나 일이 있지 않으면 항상 한 방에 조용히 거처하며 종일토록 꼿꼿이 앉아서 굽혀서는 책을 읽고 우러러서는 생각하길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영욕과 득실에 대해서 담박하여 개의치 않았고, 일에 임해서는 굳세어 굽히지 않았고 확고하여 변하지 않았다.

정축년(1697)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태어난 갑신년(1644)에서 54년이 지난 때였다. 당시에 늙은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 공이 눈을 감지 못할 한으로 여겨 다른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금성(錦城) 북쪽에 장사지냈다가 뒤에 장성(長城) 소곡(小谷)에 있는 선영의 부건(負乾, 서북쪽을 등진) 언덕에 장사지냈다. 소곡은 바로 공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마을이다.

5대조 수량(守良)은 중묘(中廟, 中宗)의 명신으로, 관직이 참찬(參贊)에 이르렀고 시호는 정혜

24 상자만……것 : 핵심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안다는 말이다. 매독(買櫝)은 매독환주(買櫝還珠)의 준말로, 춘추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옥으로 꾸미고 향기를 쐰 목란(木蘭) 상자에 보배 구슬을 담아서 정(鄭)나라에 가서 팔자 어떤 정나라 사람이 상자만 사고 구슬을 돌려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韓非子 外儲說左上』

(貞惠)니, 하서(河西) 김선생(金先生)이 '단단한 옥 같고 정한 금 같다'고 칭술하였다. 고조 사우(思愚)와 증조 상근(尙謹)은 모두 현감을 지냈다. 조부는 윤성(允誠)이고, 아버지는 취인(就仁)인데 모두 사과(司果)이다. 어머니는 남평반씨(南平潘氏) 윤좌(允佐)의 따님이다. 전주최씨(全州崔氏)에게 장가들었으니, 통정대부 이인(以仁)의 따님이다. 모두 6남 2녀를 낳았고,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후처는 광양임씨(光陽林氏) 시욱(時暾)의 따님인데, 모두 2남 1녀를 낳았다. 아들은 숭원(崇遠), 숭후(崇厚), 숭초(崇初), 숭혼(崇渾), 숭구(崇久), 숭도(崇道), 숭효(崇孝), 숭천(崇天)이고, 딸은 서지임(徐之臨), 김백승(金百升), 김수현(金壽賢)에게 시집갔다.

7세손 문용(汶容)이 나의 선친에게 배웠던 터라, 나와 종유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박손재(朴遜齋)가 지은 행장을 가지고 나에게 명을 짓게 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송암(松巖, 奇挺翼)의 후손이니, 어찌 그대에게 이것을 도모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내가 감히 글재주가 없다는 말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公生名家　　공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니,
貞惠之孫　　정혜공의 후손이네.
厥惟從學　　공이 수학한 곳은,
松巖之門　　송암의 문하였네.
自省不棄　　자신을 살피고 포기하지 않았으니,[25]
欽公之文　　공의 글을 흠모하네.
人一己百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백번 하였으니,[26]
輿覽有云　　『여지승람』에 실려 있고,[27]
剛毅牢確　　굳세고 확고하다는 것은,
遜老有言　　손재 노인의 말이라네.
孝友立家　　효도와 우애로 집안을 세우니,
施及後人　　베푼 은혜 후손에게 미치고,
公室肯堂　　공이 집터를 닦으니,
志事式傳　　뜻과 사업이 전해졌네.

---

25 자신을……않았으니 : 『손재집』 8권 <처사박공행장(處士朴公行狀)>에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버리지 말라[自省不自棄]〉 등의 글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였다."라고 하였다.

26 남이……것 : 『중용장구(中庸章句)』에 이르기를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하여야 한다.[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공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말인 듯하다.

27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고 : 『손재집』 8권 <처사박공행장(處士朴公行狀)>에 "『여지승람』을 편찬할 때 고을 사람들이 공을 훌륭한 행실이 있다고 천거하여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였다. 시기로 보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보완할 목적으로 1757년부터 편찬한 『여지도서』인 듯한데, 위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公阡有石　　공의 무덤에 비석 서 있으니,
過者式焉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를 표하리.
공이 태어난 지 5주년이 되는 갑신년(1884)에 향리(鄕里)의 후학(後學) 기우만(奇宇萬)이 삼가 서술하고, 10세손 내흠(來欽)이 삼가 쓰다.

43. 황룡면 아곡리 이견의(李堅義)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83-1 • 제작연대 1499년(己未)
• 크　기 전체높이 119, 비신높이 119, 너비 45.5, 두께 21

홍길동 테마마크 입구에서 동쪽으로 마을 뒤 산기슭에 있는 이견의(李堅義)의 묘비이다. 원수형 비로, 좌면에는 비석을 세운 연도인 '기미년(1499) 8월'이 새겨져 있다. 이견의는 인제 이씨로, 정사공신(定社功臣)이며, 남원군에 봉해졌고, 시호는 숙경(肅敬)이다. 현재 아곡리에 그의 후손이 살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왕조실록 기록을 참조하면 1435년에 제주판관, 1439년에 곡성현감, 1451년에 사헌부 장령, 1456년 여산군사(礪山郡事)를 역임했다. 비문은 5행 10자이다.

【전면】

定社功臣中直大夫行寶
文館直提學南原君
贈諡肅敬公麟蹄李堅義
之墓　　卯龍癸坐

【좌면】

己未八月 日

44. 북이면 신월리 해주오씨(海州吳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542(오동) • 제작연대 미상(1700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55, 비신높이 120, 너비 49, 두께 21

신월리 오동촌 마을 안에는 송암재(松巖齋)가 있는데, 그 뒤편 오른쪽 야산에 해주오씨의 비가 있다. 사각형 기단 위에 원수형 비신을 세운 구비가 있고, 그 왼편에는 2000년에 세운 '유인 해주오씨 비음기'가 서 있다. 해주오씨는 송암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의 후배(後配)로서, 오집(吳輯)의 딸이다. 기정익의 묘는 마을 오른쪽 앞산의 행주기씨 묘역에 있다. 해주오씨 묘 아래에는 노사 기정진의 제자인 기홍연(奇弘衍, 1828~1898)의 묘가 있다.

【전면】

孺人海州吳氏之墓

45. 북이면 신월리 기처겸(奇處謙)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552(오동) • 제작연대 1694년(崇禎紀元後再甲戌)
• 크　기 전체높이 131, 비신높이 112, 너비 47, 두께 19

신월리 오동촌의 앞산 행주기씨 묘역에 있는 기처겸(奇處謙)의 묘비이다. 마을회관에서 오른편 산쪽을 보면 보인다. 여기에는 제일 위쪽에 기처겸 부부묘가 있고, 중앙에는 손자 기정익(奇挺翼)의 묘가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기정익의 아들인 기호(奇灝)의 묘가 있다. 묘비는 연판문이 새겨진 사각형 대석 위에 원수형 비신이 세워져 있다. 기처겸의 묘는 아래 두 묘와는 좌향을 달리하고 있다. 기처겸은 기효간(奇孝諫)의 손자이자, 기진탁(奇震鐸)의 아버지이다. 기처겸(奇處謙)이 1624년 11월 2일에 노비(奴婢) 2구(口)와 논 10마지기를 장자 기진탁에게 별급(別給)해주면서 작성해준 문서가 남아있다.

【전면】
德陽奇公諱處謙之墓
孺人坡平尹氏附左

【좌면】
崇禎紀元後再甲戌三月 日立

46. 북이면 신월리 기호(奇灝) 묘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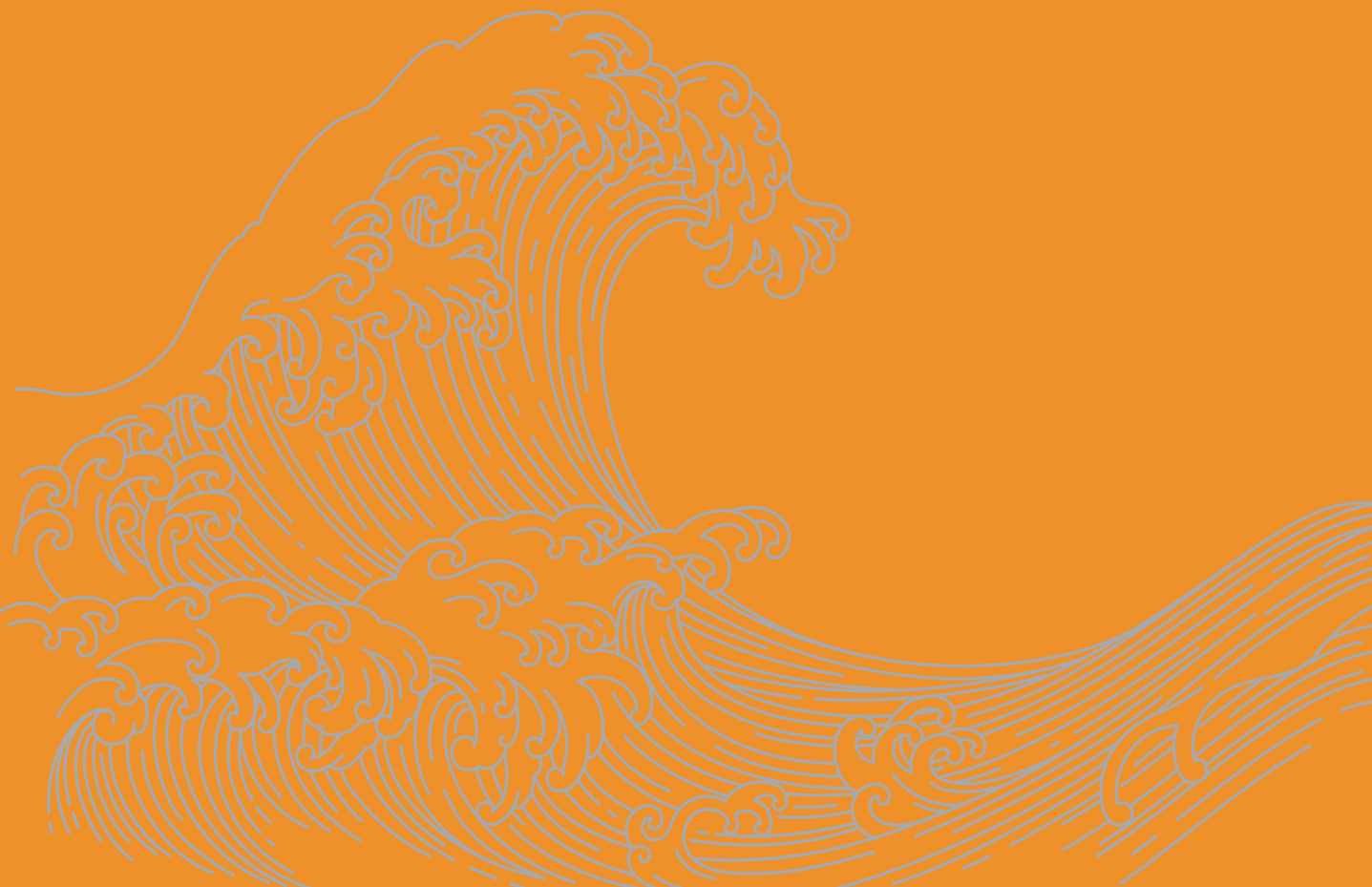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553(오동) • 제작연대 : 미상(1700년대)
• 크　기 세로 83.5, 가로 123, 두께 34

신월리 오동촌의 앞산 행주기씨 묘역에 있는 기호(奇灝)의 묘상석이다. 묘비는 없고 상석만 있다. 여기에는 제일 위쪽에 기처겸 부부묘가 있고, 중앙에는 손자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의 묘가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기정익의 아들인 기호(奇灝)의 묘가 있다. 기호의 자는 문약(文若)이고, 배는 광산인 김방(金霧)의 딸이다.

【전면】

幸州」奇公」諱灝」之墓」孺人」光山」金氏」合窆

Ⅳ. 충효열비



1. 장성읍 기산리 행주기씨(幸州奇氏) 정려각

•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143
• 제작연대 1888년(崇禎五戊子) • 크 기 1×1칸, 맞배지붕

기산리 장성군 생활체육공원 건너편 야산 위에 있는 행주기씨 정려각이다. 행주기씨는 기효근(奇孝謹)의 딸이자, 원종공신 이문룡(李文龍)의 처로,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인 1597년 9월 21일에 아이를 업고 피난을 하다가 왜인들이 달려들자 아이를 업은 채 강물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선조가 정려를 내렸다.

이문룡은 청안이씨 석탄 이기남의 셋째 아들로, 백의로서 용만까지 임금을 호종하였다. 정려각은 1845년(崇禎四乙巳)에 중수를 한 것이 퇴락하여 다시 중수를 하면서 기양연(奇陽衍, 1827~1895)[28]

28 기양연(奇陽衍, 1827~1895) : 자는 자민(子敏), 호는 백석헌(柏石軒), 본관은 행주이다. 기원(奇遠)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기윤진(奇允鎭), 어머니는 반남박씨(潘南朴氏) 종한(宗漢)의 딸이다. 일찍 숙부인 노사(蘆沙)

에게 중수기를 부탁하여 받은 것이다. 안에는 현판과 함께 2011년에 세운 비석이 서 있다.

【현판1】

烈女故原」從功臣」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李文龍」妻淑人幸」州奇氏之」閭」宣廟朝」命旌

【현판2】

旌閭重修記

奇氏系幸州壬辰功臣皆伯君諱孝謹高興君諱大有夫人之父若祖也自未笄時有閨譽嫁爲李公諱文龍妻李公淸安世家石灘處士諱箕南第三子克紹庭訓有學行夫人奉承無違婦德甚備壬辰之亂李公以白衣扈駕龍灣六年而還時湖南賊勢猶猖獗李公與夫人避賊于海上一日賊兵猝迫夫人度不免卽負兒投水乃丁酉九月二十一日也其始投水也體魄墊沒漂流不知所在過三日還溯大洋至李公所留島前沿洄不去李公怪之使奴往視之乃夫人屍也面貌如生所負兒尙在背因卽拯出欲借木道而歸則舟人以臭惡爲嫌李公爲文告由臭卽止舟人咸歎其靈異事實詳載東國三綱錄噫臨亂潔身擲鴻毛如衽席固已烈烈乎無以議爲而至於沒後精靈能以其體魄不許他人犯手必使其所天拯之又能內其惡臭而不出是何神異之卓絶也此則古烈婦之所未有而不昧之靈可以不磨泐於千古矣李公後以原從勳　除司憲府監察夫人從夫職爲淑人 天旌在

宣廟朝而成 命年月舊記文不載重修在

崇禎四乙巳其後歲寢久棹楔傾圮不成樣觀瞻者齎咨雲仍殫誠合謀以重新之尸其役者夫人七世孫邦新氏也功旣訖使陽衍記其事竊念鴻匠鉅筆世多其人必索文於陽衍者陽衍忝夫人本黨裔屬也不敢以文拙終辭謹取其舊記文及李氏譜牒所載參考而記其略如右來請文者邦新氏猶子京煥與其族孫在圭名云

崇禎五戊子正月上澣前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奇陽衍謹記

【전 면】

貞節夫人幸州奇氏旌閭碑

【후 면】

정절부인행주기씨는청안이씨岐湖公文龍의처로一五六八년생이다첫번째부인문화유씨가젊어서卒하자공의두번째부인으로혼인하여아들을낳았으나丁酉之亂이일어나왜인들이삼남지방을짓밟을때아이를업고남편과엇갈려피하다가왜인들이달려들자아이를업은채강물로몸을던졌다그날이一五九七년九월二十一일인데三일후에물을거슬러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1867년에 대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마지막 관직은 정언이다. 고향에 내려와 있을 때는 백석헌(柏石軒)과 농소(農巢)를 짓고, 지인들로부터 기문과 차운시를 받았는데, 이때 받은 100여 수의 시문이 문집 초고본에 실려 있다. 그는 이후 가족을 이끌고 방장산에 들어가 생을 마감했다. 저서로는『백석헌유집(柏石軒遺集)』이 있다.

공이숨어있는곳으로올라와뱃사공들로하여시신을건지게하였는데악취가너무심해공이부적의글을지어낭송하자악취가사라졌다고한다선조대왕은이말을전해듣고旌閭閣을세우라고명하여이곳에정려각을세웠는데그때현판에는烈女原從功臣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李文龍妻淑人幸州奇氏之女宣祖朝命旌이라씌여있었다夫人의정려각은전라남도문화유산로지정되었다세번째부인여주이씨는四男二女를두었다그후정려각은一八八八년부인의七대손邦新이중수하고二000년十대손順錫이중수하였으며閣안의입비는二千十一년十一월順錫洛龍得洙등이세웠고글은후손변호사正錫이지었다

〈정려(旌閭) 중수기(重修記)〉

기씨(奇氏)의 계보는 행주(幸州)이니, 임진왜란 공신 개백군(皆伯君) 휘(諱) 효근(孝謹)과 고흥군(高興君) 휘(諱) 대유(大有)가 부인의 부친과 조부이다. 시집가지 않았을 때부터 규방에서 좋은 평판이 있었고, 시집가서 이문룡(李文龍) 공의 아내가 되었다. 이공은 청안(淸安) 세가 석탄처사(石灘處士) 기남(箕南)의 셋째 아들로, 집안의 가르침을 잘 이었고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다. 부인은 남편을 잘 섬기며 어김이 없었고, 부덕을 잘 갖추었다.

임진왜란 때 이공은 백의로 용만(龍灣)에서 임금을 호위하다가 6년이 지나 돌아왔다. 당시 호남에는 적병의 기세가 여전히 사나워, 이공은 부인과 함께 적병을 피해 바닷가로 갔다. 어느 날 적병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부인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곧 아이를 업고 물에 몸을 던졌다. 이때가 정유년(1597) 9월 21일이다.

처음에 물에 몸을 던졌을 때, 몸이 물에 잠겨 표류함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나 큰 바다를 거슬러 이공이 머물던 섬 앞까지 왔고, 물가를 돌며 떠나지 않았다. 이공이 이를 이상히 여겨 종에게 가서 보게 하였더니, 바로 부인의 시신이었다. 얼굴은 살아 있는 것 같았고, 업고 있던 아이도 여전히 등에 있었다. 이에 곧 시신을 건지고 배를 빌려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뱃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꺼렸다. 이공이 고유문(告由文)을 지으니, 냄새가 즉시 멈추었다. 뱃사람들은 모두 그 영험하고 기이한 일에 탄복하였다. 이 사실이 『동국삼강록(東國三綱錄)』에 자세히 실려 있다.

아! 전란을 만나 몸을 깨끗이 지키고 목숨 버리기를 자리에 눕듯이 편안히 여겼으니, 본디 열렬하여 더 논의할 것도 없다. 죽은 뒤에도 정령이 그 몸을 다른 사람이 손대도록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남편이 건져내게 하였고, 또한 악취를 안으로 감추어 밖으로 풍기지 않게 했으니, 이 어찌 탁월하게 신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는 옛날의 열녀들에게도 없었던 일이니, 밝은 혼령은 천년 뒤에도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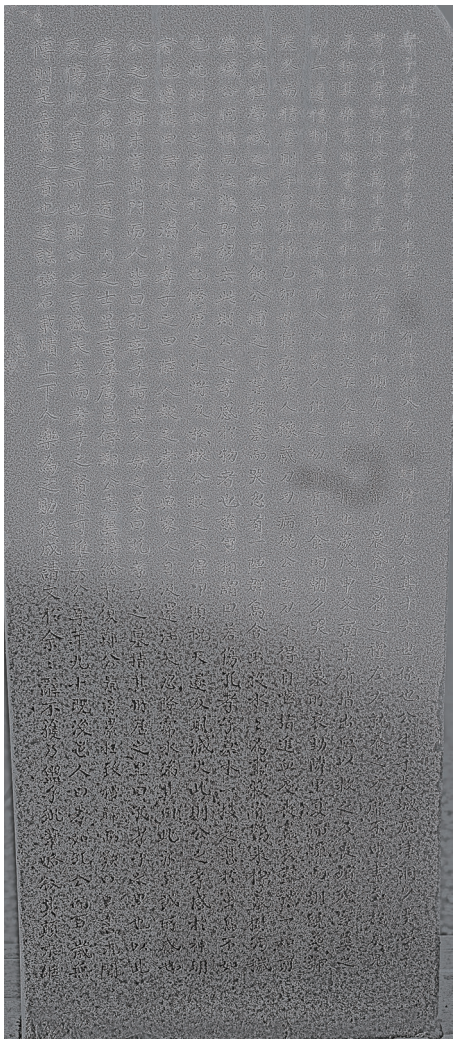
이공은 뒤에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되어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고, 부인도 남편의 관직에 따라 숙인(淑人)이 되었다. 정려는 선조 조에 내려졌으나, 연월이 오래되어 기문에 남아 있지 않다. 중수한 것은 숭정 네 번째 을사년(1845)이었는데, 그 후 세월이 오래되어 정려문이 기울고 무너져

모양을 이루지 못함에 이를 본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후손들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아 다시 고쳤으니,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은 부인의 7세손 방신(邦新) 씨이다. 공사가 끝난 뒤 나 양연에게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대단한 문장가들이 세상에 많은데도 굳이 나에게 글을 부탁한 것은 내가 외람되게도 부인의 본가 후손이기 때문이니, 감히 글이 서툴다는 이유로 끝내 사양할 수 없어 삼가 옛 기문과 이씨(李氏) 족보에 실린 내용을 가져다가 참고하여 그 대략을 이상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에게 와서 글을 청한 사람은 방신씨의 조카 경환(京煥)과 족손(族孫) 재규(在圭)라 한다.

숭정(崇禎) 다섯 번째 무자년(1888) 1월 상순에, 전 행 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기양연(奇陽衍)이 삼가 쓰다.

2. 남면 녹진리 공필장(孔弼章) 효자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녹진리 163-6(마산) • 제작연대 1786년(崇禎後三丙午)
• 크　기 전체높이 150, 비신높이 148, 너비 66-57, 두께 23-18.5

디지털 탁본

1786년에 녹진리 마산마을에 세운 공필장(孔弼章, 1631~?)의 효자비이다. 효자비는 석조로 된 비각 속에 세워져 있는데, 마을 앞(동쪽) 감나무 과수원 가운데 큰 느티나무 근처에 있다. 원래는 목조 효자각이 있었으나 1980년에 석조로 다시 지었다고 한다. 형태는 둥근 돌기둥을 4개 세우고 개석을 올렸으며, 그 안에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의 폭과 두께가 위로 갈수록 넓어진다.

공필장은 1668년(戊申)에 아버지가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 구하였고,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육식

을 하지 않으면서 눈비가 와도 묘소를 지켰다. 1675년(乙卯) 어머니가 아팠을 때도 아버지 때와 같이하였다. 묘역의 소나무를 송충이가 갉아 먹자 슬피 우니 새떼가 날아와서 송충이를 없애는 등의 이적이 있었고 90세까지 장수하였다. 공필장의 효행과 관련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기록되었다.[29] 공필장에 대해서 황윤석(黃胤錫)의 『이재속고』 권5에 황윤석이 변득량의 대작으로 지은 제문이 실려있다.

비문은 기언정(奇彦鼎, 1716~1797)[30]이 짓고, 김필의(金必宜)가 글씨를 썼다. 정려의 위치가 『장성군사』나 『장성군의 문화유적』의 내용과 서로 다른데, 옮긴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비문은 23행 42자이다.

【전면】

孝子孔弼章之碑

【좌면】

營建都有司 金尙孝
別有司 朴尙初
邊相奎
朴乃淳
典穀 朴思良

【후면】

孝子姓孔名弼章系出先聖元末有諱紹入東國封檜原君公其十六世孫也公生于長城鹿津洞少受學于孝行察訪徐公萬里盖其天姿淸明和順尤篤於愛親凡晨昏定省之禮左右就養之方靡不曲盡至於友兄弟極其樂處鄕黨極其和恤孤窮如恐不及皆孝之推也歲戊申父病革斫指出血以救之及喪殯殮窆葬之節一遵禮制三年啜粥菜葅不入口家人化之幼稚亦不食肉朝夕哭于墓所哀動隣里夏而驟雨則繞墓號哭冬而積雪則手箒往掃乙卯母寢疾家人豫藏刀刃病亟公索刀不得自嚙指進血及喪盡哀盡禮一如前喪手植塋域之松爲虫所蝕公捕之不禁環墓而哭忽有一陣群鳥含虫投水〃爲盡蔽有鸛來棲墓樹汚穢塋域公抱樹而泣鸛卽移去此則公之孝感於物者也樵軍相謂曰若傷孔孝子墓木一枝是甚於虫鳥不如也此則公之孝感於人者也燎原之火將及松楸公救之不得叩頭祝天遂及風滅火此則公之孝感於神明者也適隣田儲水穴漏於孝子之田隣人疑之孝子與家人自汲還注天忽降霈水滿其田此亦至誠所感也公之足跡未嘗出門而人皆曰孔孝子指其父母之墓曰孔孝子之墓指其所居之里曰孔孝子之里也以此孝子之名聞於一道〃內之士呈書屢薦邑倅鄭公志翼特給私復鄭公景淳累枉致禮歸而歎曰呈書求聞

29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2월 29일 계묘 기사, 정조 10년 9월 30일 경자 기사, 영조실록 영조 39년 8월 1일 기사, 정조 10년 2월 29일 기사 등

30 기언정(奇彦鼎, 1716~1797) : 기대승의 후예로 1793년 병과로 급제한 뒤 승정원 동부승지, 대사간, 대사헌,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反傷此人置之可也鄭公之言誠美矣而孝子之賢亦可推矣公享年九十旣沒邑人曰孝如孔公而百歲無傳則是吾黨之責也遂謀鑱石載蹟上下人樂爲之助役成請文於余〃辭不獲乃盥手泚筆略叙其顚末繼

【우면】

而歎曰盛矣哉孝子之賢也旣能於孝子何不得徵物猶感矧玆秉彝鹿津之原三尺巋然此石可泐孝子之名不朽吾必曰長城古有徐節孝今有孔孝子

崇禎後三丙午七月 日通政大夫行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奇彦鼎撰

幼學金必宜書

【상량문】

河龍 先聖誕降后貳千五百參拾壹年庚申十月貳拾參日午時立柱同日上樑 伏願上樑之後 子子孫孫 永世繁昌 洛龜

〈효자 공필장(孔弼章)의 비〉

효자의 성은 공(孔)이고, 이름은 필장(弼章)으로, 선성(先聖)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원(元)나라 말엽 휘(諱) 소(紹)[31]가 동국(東國)으로 들어와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는데, 공은 그의 16대 후손이다. 공은 장성(長城) 녹진동(鹿津洞)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는 효행으로 찰방에 임명된 서만리(徐萬里) 공에게 학문을 익혔다.

대저 공은 타고난 자질이 청명하고 화순하였다. 더욱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독실하여 무릇 혼정신성하는 예절과 곁에서 모시는 방도가 모두 곡진하였다. 형제들과는 우애롭게 지냄에 즐거움을 다하였고, 마을 어른을 공경함에 온화함을 다하였으며, 외롭고 힘든 사람을 구휼함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하였으니, 모두 효성을 미루어 확대한 일이다.

무신년(1668) 부친의 병환이 위급했을 때는 손가락을 베고 피를 내어 구호하였고, 상(喪)을 치르게 되어서는 빈렴(殯殮)과 폄장(窆葬) 등의 일을 한결같이 상례(喪禮) 제도를 따랐으며, 3년 동안 죽만 마시고 채소나 김치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집안사람들도 공에 감화되어 어린아이조차 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묘소에서 곡을 하여 서글픈 곡성(哭聲)이 이웃 마을까지 울려 퍼졌다. 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면 묘소를 돌면서 소리를 내어 슬피 울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손수 빗자루를 들고 가서 묘소를 쓸었다.

을묘년(1675)에 모친이 병석에 눕자 집안사람들이 미리 칼을 숨겼는데, 병세가 위급해지자 공이 칼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올렸다. 초상을 당해서는 부친상을

31 소(紹) : 공자의 53대손으로, 창원 공씨(昌原孔氏)의 시조이다. 초명은 소(昭)였으나 고려 광종의 이름을 피하여 '소(紹)'라 하였다. 원(元)나라 순제(順帝) 때 한림 학사에 임명되었는데, 공민왕 때 왕비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배종하여 고려에 와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가 되고 창원백(昌原伯)에 봉해졌다.

당했을 때와 똑같이 슬픔을 다하고 예를 극진히 하였다.

묘소에 손수 심은 소나무가 병충해를 입게 되어 공이 잡는 것으로는 막지 못하게 되자 묘소를 돌면서 곡을 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새 한 무리가 나타나서 벌레들을 물어다 물에 던지니 물이 전부 벌레로 뒤덮여 버렸다. 황새가 날아와 묘소 곁의 나무에 둥지를 틀어 묘소가 더럽혀지자 공이 나무를 끌어안고 목놓아 우니, 황새가 즉시 둥지를 옮기고 떠났다. 이는 공의 효성에 사물이 감동한 일이다. 나무꾼들은 서로에게 "만약 공효자의 묘목(墓木)을 한 그루라도 상하게 한다면 새나 벌레보다도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의 효성에 사람들이 감동한 것이다. 들판에서 일어난 불이 장차 묘소 둘레의 나무에 옮겨붙게 되었는데 공이 이를 구하려해도 못하게 됨에 땅에 머리를 찧으면서 하늘을 향해 빌자 마침내 바람이 불어와 불을 끄기도 하였다. 이것은 공의 효성에 신명(神明)이 감동한 일이다. 마침 이웃의 논에 저장된 물이 구멍을 통해 효자의 논으로 흘러드는 일이 있었는데, 이웃 사람이 효자를 의심하자 효자는 몸소 집안사람들과 물을 퍼 이웃의 논에 담아주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큰비가 내려 효자의 논을 가득 채웠다. 이것 또한 효자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응한 일이다.

공의 발걸음은 일찍이 문밖을 나서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공효자'라고 하고, 그 부모의 묘소를 가리켜 '공효자의 묘소'라고 하였으며, 그가 사는 마을을 가리켜 '공효자의 마을'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효자의 이름이 도 전체에 알려지자 도내의 선비들이 글을 올려 여러 차례 천거하였다. 고을 수령인 정지익(鄭志翼) 공은 특별히 사적인 복호(復戶)를 내려주었고, 정경순(鄭景淳) 공은 여러 차례 찾아와 예를 행하고 돌아가 탄식하기를 , "글을 올려 명성을 구하는 것은 도리어 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니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정공(鄭公)의 말이 참으로 아름다우며, 효자의 현명함 또한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공은 향년(享年) 90세였는데, 죽고 난 뒤 고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공(孔公)과 같은 효성이 오래도록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당(黨)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돌에 새겨 행적을 기록할 것을 도모하니, 상하 사람들이 기꺼이 그 일을 도왔다. 일을 마치자 나에게 글을 청하기에 내가 사양하지 못하고 마침내 손을 씻고 붓을 들어 그 전말을 대략 서술한다.

이어서 탄식하여 말한다. 성대하도다, 효자의 현명함이여! 이미 효자가 되기에 충분하니, 어찌 미물(微物)까지 감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러한 병이(秉彝)가 녹진(鹿津)의 언덕에 세 척 높이로 우뚝 솟아 있으니, 이 돌이 마멸되더라도 효자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장성 고을에 옛날에는 서절효(徐節孝, 서능)가 있고 지금은 공효자(孔孝子)가 있다고 말하리라.

숭정(崇禎)후 세 번째 병오년(1786) 7월에, 통정대부 행 승정원좌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기언정(奇彦鼎)이 짓고, 유학(幼學) 김필의(金必宜)가 쓰다.

영건도유사(營建都有司)는 김상효(金尙孝), 별유사(別有司)는 박상초(朴尙初), 변상규(邊相奎),

박내순(朴乃淳), 전곡(典穀)은 박사량(朴思良)이 맡았다.

【상량문】

<하룡(河龍)> 선성(先聖)께서 태어나시고 2531년이 지난 뒤 경신년(1980) 10월 13일 오시(午時)에 입주(立柱)하고 같은 날 상량(上樑)한다. 상량한 뒤에 자자손손 영원토록 번창하기를 삼가 비노라. <낙구(洛龜)>

3. 삼계면 생촌리 경주섭씨(慶州葉氏) 정려각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19(성암) • 제작연대 1875년(光緖元年) 명정
• 크　기 2×1칸, 맞배지붕

1875년에 명정된 효자 섭장권(葉章權)과 그의 며느리이자 섭도동(葉都東)의 부인인 열녀 인동장씨(仁同張氏)의 정려이다. 정려는 생촌리 성암마을 앞 경주섭씨세장비(慶州葉氏世葬碑) 옆에 있다. 정면 2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사방에 토석담장을 두르고 사주문이 있다. 정려와 사주문은 시멘트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목조와가로 중건하였다. 오른쪽 칸에는 정면에 섭장권의 정려현판이 있고 우측에 발(跋) 현판이 있다. 왼쪽 칸에는 정면에 인동장씨의 정려현판이 있고 왼쪽에 효열정려서(孝烈旌閭序) 현판이 있다. 정려서는 이원조(李源祚, 1792~1871)가 짓고, 발은 신좌모(申佐模)가 써는데 모두 1875년에 지은 것이다.

【현판1】

孝子」贈通政」大夫慶」州葉章」權之閭

【현판2】

烈女孺」人仁同」張氏之」閭

光緖元年四月十」五日入」啓同月二十日回」命旌閭

【현판3】

孝烈旌閭序

序記也記其舊蹟而傳其後也昔者周濂溪之宰雲南褒忠康
信之篤行朱晦菴之守南康奬節義之懿躅至若范文正公
復嚴光后四家以奉其祀皆曠古仁政詔後世誦之爲美事庸
有已乎今右副承旨李公根命進士奇公雲永提擧雲觀 啓
言葉氏孝烈事蹟猥蒙 允下屬余記誌而余顧識蔑屢辭不獲
盖謹按葉氏古族也先自宋紹興末與八學士沿海至全羅道綾州諱
公濟號晩悟堂累世淸宦逮至 我朝副護軍公 諱日長以靺鞨
之亂剿賊平靖勳在盟府豈不卓乎偉哉其後孫司諫公諱千枝
以文名淸宦顯載淸野錄其後孫 贈通政大夫諱章權卽副護軍
十一世孫也司諫公之曾孫也自幼少天性至孝事親奉養之節惋順
之容極盡其孝其父不幸有疾嘗糞禱天不解衣帶不交眉睫及
其隕命之境初以割股再以斫脂回甦三日天命竟終三年居廬一不
下家三年已過雖風寒暑雨省楸之行無少懈怠豈非天出之孝
乎其子婦張氏卽都東之妻也旅軒張先生之後裔也自在本家
性行貞淑孝於父母友於昆季及其出嫁極執婦道孝事父母敬事
君子隣里憾化鄕隣稱譽曰孝子之家又生賢哲之婦云耳
其夫不幸搆疾至於難救之境張氏晝宵祝天呼泣以身
願代初割左股再割右股天命奈何竟至不救三年守喪盡
哀盡禮再期奄迫夕晨奠禮後暗抱遺書從容自縊於後园
栗木下下從匹夫此豈非天出之烈乎命道奇薄天緣無奈
氷玉之心靑年謝世扶綱大義眞是介石之場復何盡論
哉魏時令女斷鼻潔節之行奉天竇氏投崖就死之義焉
可過於此乎星霜累度墓木已拱矣雖樵叟行路之人指
其里曰孝子村孝子塚指其里曰烈女村烈女塚其舅以孝
行有偉天之道其子婦張氏以烈行若是噫烈烈其死兮
凜凜如生雖嫺世之閥罕有其比於乎其盛矣乎

崇禎紀元後四乙亥四月下浣 資憲大夫工曺判書

星山李源祚謹書

通政大夫公之九世孫正模

丙辰四月二十三日修理

【현판4】

跋

忠良之國(臣)必有顯遂之典孝烈之家亦或有贊
揚之擧乃是春秋大義古今通誼也而况 我
國尙禮尙義之風訖于五百年通行之盛典
也苟或有卓異之行貞固之節遐士淳俗曠
百代而有憾永萬世而不墜故出於傳者亦多
而忠孝烈女傳之稱美爲傳篇之賛揚矣近
有湖南士人葉氏以孝烈卓異之行旣有
蒙褒而余雖薄識豈惜一辭無以賛哉盖
葉氏自麗世晩悟堂諱公濟文學爲東國推
重而其後逮 我朝副護軍公諱日長咸鏡
道鞂鞨之亂旣戰旣捷忠勳炳燿一世懿哉其
后孫司諫公諱千枝文名淸宦勳載淸野謨
錄其后孫 贈通政大夫諱章權自在齠齡
天性至純孝事父母極盡其道惟親所思無
怨不遂不幸其父有疾祝天身代無藥不進
割股斫脂回甦三日天命有限竟遭父喪三
年居廬一不下家年至七十雖隆寒盛暑無
日不省階下當有兩膝穿處人皆曰此豈非出等之
孝乎其子婦張氏都東之妻也卽旅軒張先生
之六世孫寬宥之女也自在本家性行貞淑隣里
欽歎矣及其出嫁孝事舅姑敬事君子四隣稱誦
孝子之門天以賢哲所畀也歟其夫不幸搆疾張氏
晝宵祝天願以身代病至危境再三割股竟至不救三
年守喪極盡其禮再期奄及奉行夕晨奠禮後抱
遺書從容自縊於後园栗下下從亡夫秋霜皎日若
是貞節豈非天出乎子之於父孝爲百行之源其

舅有之婦之於夫從死殉節三綱之大目也其子
婦張氏有之豈不偉哉 嗚呼士不自愛其身而忍耻
以偸生者聞張氏之風宜少知愧哉
崇禎紀元後四乙亥八月下浣嘉善大夫前行兵曺叅
判經筵春秋館五衛都摠副摠管靈川申佐謨書

〈현판1〉

효자 증 통정대부 경주 섭장권(葉章權)의 정려

〈현판2〉

열녀 유인 인동장씨(仁同張氏)의 정려

광서(光緖) 원년(1875) 4월 15일에 입계(入啓)하여 같은 달 20일에 정려(旌閭)를 명함.

현판3 〈효열정려서(孝烈旌閭序)〉

서기(序記)는 그 옛 공적을 기록하여 그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옛날 주렴계(周濂溪)가 운남(雲南)을 다스릴 때 충신을 성실하게 실행한 사람을 포상하였고, 주회암(朱晦菴)이 남강(南康)을 다스릴 때 절의(節義)의 아름다운 자취를 장려하였다. 범문정공(范文正公)에 이르러서는 엄광(嚴光)의 후손 네 집안을 회복시켜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으니, 모두 옛적에 없던 어진 정사인지라 후세에 가르침을 남겨 전하여 아름다운 일로 여기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지금 우부승지 이근명(李根命) 공과 진사(進士) 기운영(奇雲永) 공 및 서운관(書雲觀)의 제거(提擧)가 계사(啓辭)를 올려서 섭씨(葉氏)의 효열(孝烈) 사적을 말함에 외람되이 윤허를 받아서 나에게 지(誌)를 기록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나를 돌아보건대 식견이 부족하여 여러 차례 사양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대개 삼가 살피건대 섭씨는 고족(古族)이다. 선조는 송(宋)나라 소흥(紹興) 말엽에 팔학사(八學士)와 더불어 해변을 따라 전라도 능주(綾州)에 이른 휘 공제(公濟), 호 만호당(晩悟堂)이란 분이다. 여러 대에 걸쳐 청환(淸宦)을 지내다가 조선에 이르러서는 부호군(副護軍) 일장(日長)이 말갈(靺鞨)의 난리에 적을 토벌하여 평정하였기에 공훈이 충훈부(忠勳府)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어찌 탁월하고 위대하지 않겠는가? 그 후손 사간공(司諫公) 천지(千枝)는 문학의 명성과 청환으로 『청야록(淸野錄)』에 실렸다. 그 후손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증직된 장권(章權)은 바로 부호군의 11세손이며, 사간공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버이를 섬김에 봉양하는 절도와 완순[32]한 용모로 그 효를 극진히 하였다. 그 아버지가 불행히 병이 들자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빌었으며, 의대(衣帶)를 풀지 않고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가 운명할 지경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고 다

32 완순 : 원문은 '惋'은 문맥에 근거하여 '婉'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음으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입에 흘려 넣어드려 사흘을 회생시켰다. 천명이 끝내 다하자 3년 동안 시묘살이하면서 한 번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3년이 이미 지났지만 찬바람과 장마비 속에서도 선영에 가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어찌 타고난 효성이 아니겠는가?

그 자부(子婦) 장씨(張氏)는 바로 도동(都東)의 처이며, 여헌(旅軒) 장선생(張先生)의 후손이다. 시집가기 전 본가에 있을 때부터 타고난 행실이 정숙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출가하여서는 부인의 도를 지극히 다하여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남편을 공경히 섬김에 이웃 마을까지 감화되었다. 향린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효자의 집안에 또 현철한 부인이 났구나."라고 하였다.

그 남편이 불행하게도 병에 걸려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장씨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자신이 대신하기를 원했다. 처음에 왼쪽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고 다음으로 우측의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었지만 천명(天命)을 어찌할 수 없어서 끝내 살리지 못하였다. 3년 동안 상(喪)을 치르며 슬픔과 예를 다하였다. 두 번째 기일이 문득 다가오자 조석으로 전례(奠禮)를 올리고 몰래 유서를 품고 차분하게 후원의 밤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남편을 따라 죽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에서 타고난 의열이 아니겠는가?

운명이 기구하여 하늘이 정한 연분 어찌할 수 없어 빙옥(氷玉)같은 마음을 간직한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대의를 부지한 것은 참으로 굳은 바위와 같은 정절이니, 다시 무엇을 논하랴? 위(魏)나라 때 영녀(令女)가 코를 베어 정절을 깨끗하게 한 행실[33]과 봉천현(奉天縣) 두씨(竇氏)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의리[34]가 어찌 이보다 지나치겠는가? 여러 해가 지나 묘소의 나무가 이미 크게 자랐다. 비록 나무꾼이나 행인이라도 그 마을을 가리켜 효자촌(孝子村) 효자총(孝子塚)이라고 하고, 그 마을을 가리켜 열녀촌(烈女村) 열녀총(孝子塚)이라고 한다. 그 시아비는 효행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하는 도가 있었고, 그 자부 장씨는 열행으로 이와 같이 하였다. 열열한 그 죽음이여! 늠름하게 살아 있는 듯하니, 비록 대대로 빛나는 문벌이라도 견줄 자가 드물다. 아! 성대하도다.

숭정(崇禎) 기원 후 네 번째 을해년(1875) 4월 하완(下浣)에 자헌대부 공조판서 성산(星山) 이원조(李源祚)가 삼가 쓰다. 통정대부공의 9세손 정모(正模)가 병진년(1916) 4월 23일에 수리하다.

---

33 위(魏)나라……행실 : 삼국시대 위(魏)나라 조상(曹爽)의 종제(從弟)인 조문숙(曹文叔)의 아내가 된 하후문녕(夏侯文寧)의 딸 영녀(令女)가 있었는데, 남편 문숙이 요절하자 친정에서 자신을 재가시킬까 염려하여, 처음에는 머리를 잘랐다가 나중에는 칼로 두 귀를 베어 버렸다. 시댁이 멸문의 화를 당하고 난 뒤에도 스스로 코를 베면서까지 수절하다가 결국 국가의 특명으로 양자를 들여 조씨의 대를 잇게 하였다. 『三國志 魏書 曹爽傳』

34 봉천현(奉天縣)……의리 : 당(唐)나라 봉천현에 살았던 두씨 집안의 두 딸이 비록 시골에서 생장하였지만 어려서부터 지조가 있었는데 대종(代宗) 영태(永泰) 연간에 도적 수천 명이 그 마을을 약탈하였다. 도적들이 겁박하자 큰딸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치욕을 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는 높은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져 죽었고, 작은딸도 이어서 몸을 던져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으깨져 유혈이 낭자하자 도적들이 놀라서 그냥 떠나갔다. 뒤에 경조윤(京兆尹) 제오기(第五琦)의 상주로 정려를 세우고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 주었다. 『舊唐書 卷193 列女列傳 奉天縣竇氏二女』

현판4 〈발(跋)〉

충량(忠良)의 신하에 대해서는 필시 발탁하는 은전이 있고, 효열(孝烈)의 집안에 대해서도 혹 찬양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바로 춘추대의(春秋大義)이고 고금에 통용되는 바른 도리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예와 의를 숭상하는 풍도가 500년 동안 통행된 성대한 전례(典禮)이다. 만약 혹 탁월한 행실과 굳건한 절개가 있다면 먼 곳의 선비나 순박한 풍속은 백대가 지나도 유감이 있어 만세토록 영원히 실추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에 나오는 것이 또한 많고, 충효전과 열녀전으로 찬미하고 전편(傳篇)을 만들어 찬양하는 것이다.

근래에 호남의 사인(士人) 섭씨(葉氏)는 효열의 탁월한 행실로 이미 포상하는 은전을 받았는데, 내가 비록 식견이 천박하지만 어찌 한마디 말을 아껴서 찬미하는 말이 없겠는가?

대개 섭씨는 고려 시대에 만오당(晩悟堂) 공제(公濟)가 문학으로 우리 동방에서 추중되었고, 그 뒤에 조선에 이르러서는 부호군(副護軍) 일장(日長)이 함경도 말갈(靺鞨)의 난리 때 전투에서 승리하여 충훈(忠勳)이 당대에 빛났으니, 아름답도다! 그 후손 사간공 천지(千枝)는 문학의 명성과 청환(淸宦)으로 공훈이 『청야만록(淸野謾錄)』에 실려 있다. 그 후손으로 통정대부에 추증된 장권(章權)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천성이 지극히 순수하고 부모를 효도로 섬기는 데 그 도를 극진히 하여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불행히 그 아버지에게 병이 있자 하늘에 빌어 자신이 대신하게 하였고, 올리지 않는 약이 없었다.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고 손가락을 잘라 사흘을 회생시켰지만 천명은 정해져 있는지라 마침내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다. 3년 동안 시묘살이하면서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 나이가 70살에 이르러 비록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라도 할지라도 성묘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섬돌 아래 양 무릎이 닿는 곳에는 홈이 패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것이 어찌 보통을 뛰어넘는 효성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자부(子婦) 장씨(張氏)는 바로 도동(都東)의 처이니, 곧 여헌(旅軒) 장선생(張先生)의 6세손 관유(寬宥)의 딸이다. 본가에 있을 때부터 성품과 행실이 정숙하여 이웃 마을 사람들이 흠탄하였다. 출가하여서는 시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남편을 공경스럽게 섬겨서 사방에서 칭송하길, '효자의 가문에 하늘이 현철한 사람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 남편이 불행하게도 병에 걸리자, 장씨(張氏)는 밤낮으로 하늘에 빌어 자신이 대신하기를 원하였다. 병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재삼 허벅다리 살을 떼어 병을 고치려 하였지만 끝내 살리지 못했다. 3년 동안 영전(靈前)을 지키며 예를 극진히 하였다. 두 번째 기일에 문득 제사를 지내고 조석으로 전례(奠禮)를 행한 뒤에 유서를 품고서 조용하게 후원의 밤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남편을 따랐다.

가을 서리나 밝은 해와 같은 정절은 어찌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 아니겠는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백행의 근원이 되니 시아비가 여기에 해당하고,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따라 죽어 순절하는 것은 삼강행실의 큰 조목이니 그 자부 장씨(張氏)가 여기에 해당한다.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아! 선비로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참으며 구차하게 살아가는 자는 장씨

의 풍모를 듣고 마땅히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 알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네 번째 을해년(1875) 8월 하완(下浣)에, 가선대부 전 행 병조참판 경연춘추관 오위도총부총관 영천(靈川) 신좌모(申佐謨)가 삼가 쓰다.

4. 황룡면 맥호리 서령류씨(瑞寧柳氏) 정려각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220 • 제작연대 1839년(己亥)
• 크　기 1×1칸, 팔작지붕/ 전체높이 134, 비신높이 118, 너비 50, 두께 21

1839년에 건립된 성균생원 김응휴(金膺休, 1806~?)의 처 열녀(烈女) 서령류씨(瑞寧柳氏, 1807~1831)의 정려각과 정려비(旌閭碑)이다. 정려각은 앞면 1칸×옆면 1칸의 팔작지붕이고, 안에는 1개의 비석과 3개의 현판이 걸려있다. 비석은 호패형으로 앞면의 내용은 정려 현판과 같고 별도 비문은 없다. 비석과 내용이 같은 정려 현판과 1839년 10월에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쓴 <정려기(旌閭記)> 및 후손 김관수(金冠洙)가 1983년에 쓴 <정려이건기(旌閭移建記)> 현판이 있다. 정려기는 『노사집』에 실린 <烈婦柳氏旌閭記>와 내용이 똑같고, 다만 15행과 16행에 걸쳐있는 '夫人雖不牢却 而竟亦不以非禮斯須處也'란 구절이 문집에는 빠져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서령류씨의 정려각은 1832년 9월 황룡면 월평리 본채 앞에 있었는데, 1839년 왕명(王命)으로 정표가 내려진 이후 김인후의 후예들이 뜻을 모아 기정진에게 글을 부탁하였고, 그후 정려각은 정문 인접한 곳에 철도를 부설하게 되자, 1983년 4월에 현재 위치로 옮겨 건립된 것이라고 한다.

【전면】

烈女成均生員金膺休妻瑞寧柳氏之閭

上之五年己亥四月日 命旌

【현판1】

烈女」成均」生員」金膺」休之」妻瑞」寧柳」氏之」閭
上之五年己亥四月日
命 旌閭

【현판2】

旌閭記

柳氏父系瑞寧進士東煥承旨匡天爲
父若祖諱丁卯生十六嫁爲蔚山金膺
休妻膺休風彩秀異其登庠也時丁亥
代理爲 賜梨園樂以寵之鄕邦榮焉
粵三年膺休歿先初朞一朔柳氏捐生
下殉後八年及 上聞有旌閭之 命
乃 上之五年己亥也夫人自在父家
著閨範及歸金氏媚于舅姑夫嬰痼疾
經年浸以危劇夫人每露禱嘗藥殫誠
力冀得回天而竟不救夫人惟一女無
男自以三從義盡晝哭之哀非有以駭
於常度而神意所湊將非久爲未亡在
世者家人曉其然婢侍不離側凡所以
慰藉防備者靡不用極夫人雖不牢却
而竟亦不以非禮斯須處也夫人家外
內皆饒益綺穀芻豢生習然也自遭閔
凶髮不櫛衣不易夏不啓扉冬不近煖
有人所不堪者而處之若固然者若是
朞年防備少解而厥舅進士公亦篤疾
屢濱危殆夫人忍死時月者蓋有待也
一日舅入言吾疾今則間歇矣夫人垂
頭無語舅旣出傍側乍曠夫人已自經
矣傍有手縫裹衣上下具欲以斂也三
遺書家及父家各一己出一家言九日
合窆及繼後事父家自陳薄命不孝及
鞠養己出事女言就鞠外氏以及成人
之禮縷悉而不亂噫辦命固人一大事
而夫人能從容以就盡篤義而不忘恩
其尤難矣果以是日窆嗣續亦將有托
云旌表 成命四月十七日宗伯金公
履載承旨金公景善進士公諱邦默河
西之裔棹楔成膺休之弟景休俾正鎭
記其畧十月上旬參奉幸州奇正鎭謹
記

【현판3】

旌閭移建記

本瑞寧柳氏旌閭는西
紀一八三二年인朝鮮
朝純祖三二年壬辰九
月長城郡黃龍面月坪
里本第大門前數十步
位置에建閣立石하였
으며憲宗五年己亥年
王命이내린旌閭인바
旌門에隣接한鐵道를
復設케되여諸後孫合
心으로西紀一九八三
年一月十五日長城郡

黃龍面麥洞文正公河
西先祖祭閣前에原貌
를復新移建工事를着
工하여同年四月五日
에完工하다
西紀一九八三年四月
玄孫 冠洙 謹記

〈정려기(旌閭記)〉

류씨(柳氏)의 관향은 서녕(瑞寧)으로, 진사 동환(東煥)과 승지 광천(匡天)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휘(諱)이다. 정묘년에 태어났으며, 16세에 시집가서 울산(蔚山) 김응휴(金膺休)의 아내가 되었다. 김응휴는 풍채가 빼어났는데, 그가 성균관에 입학한 것은 정해년(1827) 대리청정하였을 때[35]이다. 이원악(梨園樂)[36]을 하사하여 총애하였으니, 향리에서 영화롭게 여겼다. 3년 뒤에 김응휴가 세상을 떠나고, 초기(初朞, 小祥) 한 달 전에 류씨가 생명을 버리고 따라 죽었다. 8년 뒤에 조정에 소식이 알려지자 정려(旌閭)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으니, 바로 금상(헌종) 5년 기해년(1839)이다.

부인은 친정에 있을 때부터 규범(閨範)이 드러났고, 김씨 집안에 시집가서는 시부모에게 잘하였다. 남편이 고질병을 앓아 해를 넘기면서 차츰 위독해졌는데, 부인은 매양 맨땅에서 기도하고 약을 맛보며 정성과 힘을 다하여 병이 낫기를 바랐지만 끝내 명을 구하지 못했다.

부인은 딸 하나를 낳고 아들은 낳지 못했는데, 스스로 삼종지도(三從之道)가 끝났다는 것으로 남편을 곡함[37]에 상도에 비춰 볼 때 놀랄 만한 것이 있지 않지만, 정신과 마음이 모이는 바는 장차 오래지 않아 죽어 세상에 살아 있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집안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서 여종에게 곁을 떠나지 말고 잘 지키게 하였으며, 무릇 위로하고 방비하는 것이 극진하지 않음이 없었다.

부인이 비록 굳게 물리치지 않았을지라도 필경에는 예가 아닌 것으로 잠시 처한 것이 아니다. 부인 집안의 내외 사람들이 모두 부요하게 비단옷을 두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타고난 습관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흉한 초상을 만나고부터는 머리는 빗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며, 여름에는 사립문을 열지 않고, 겨울에는 난방하지 않았으니, 사람으로서 견디지 못할 바가 있었지만 본디 그러한 것처럼 태연하게 지냈다. 이처럼 일 년 동안 지내다가 방비가 조금 느슨해지고, 시아버지 진사공(進士公)도 심한 병에 걸려 자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부인은 죽음을 견디며 시간을 보낸 것은 대개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들어와 말하기를 "나의 병은 지금 차도가 있다."라고 하자, 부인이 고개를 드리운 채 말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나간 뒤에 곁에 잠깐

---

35 정해년 대리청정하였을 때 : 익종(翼宗)은 조선 제23대 순조(純祖)의 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추존(追尊) 호칭이며 헌종의 아버지이다. 1827년 부왕인 순조의 명으로 대리청정(代理聽政)하였다.

36 이원악(梨園樂) : 어전악(御前樂)의 한 종류인데, 그 곡이 일정하지 않다. 『林下筆記 卷33 華東玉糝編』

37 남편을 곡함 : 주곡(晝哭)을 풀이한 말이다.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재상 문백(文伯)의 어머니 경강(敬姜)이 남편 목백(穆伯)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낮에만 곡을 하고, 아들 문백의 상을 당해서는 주야로 곡을 하였는데, 공자가 이를 두고 경강이 예(禮)를 안다고 평했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禮記 檀弓下』

사람이 없는 틈에 부인이 스스로 목을 매었다. 곁에는 손수 바느질한 상하의가 보자기에 싸여있었으니, 이것으로 염을 하게 한 것이다.

세 통의 유서(遺書)를 남겼으니, 시집과 친정에 각각 한 통, 딸에게 한 통이었다. 시집에 대해서는 9일에 합폄(合窆)하는 것과 후사를 잇게 하라는 말이었고, 친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운명이 기구하여 불효하는 것과 자신의 딸을 잘 길러달라는 말이었으며, 딸에게는 외가에 가서 양육 받아 혼례를 치르라는 말이었으니, 자세하게 다 말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았다.

아! 운명을 결단함은 실로 사람의 중대한 일인데, 부인은 조용히 자진하여 의리를 돈독히 하고 은혜를 잊지 않았으니, 그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과연 이날에 하관하였고, 후사를 잇는 것 또한 장차 부탁할 데가 있다고 한다. 정표(旌表)하라는 명이 내린 것은 4월 17일이다. 종백(宗伯)은 김이재(金履載), 승지(承旨)는 김경선(金景善)이다. 진사공(進士公) 방묵(邦默)은 하서(河西)의 후손인데 작설(綽楔)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응휴(膺休)의 아우 경휴(景休)가 나 기정진(奇正鎭)에게 그 약전을 기록해 주기를 청하였다.

10월 상순(上旬)에 참봉(參奉) 행주(幸州) 기정진(奇正鎭)은 삼가 기록한다.

〈정려이건기(旌閭移建記)〉

본관이 서녕(瑞寧)인 류씨(柳氏)의 정려(旌閭)는 서기(西紀) 1832년인 조선(朝鮮) 순조(純祖) 32년 임진년 9월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월평리(月坪里) 본제(本第) 대문 앞 수십 보 위치에 정각을 세우고 비석을 세웠으며, 헌종(憲宗) 5년 기해년에 왕의 명이 내린 정려(旌閭)인 바 정문(旌門)에 인접한 철도(鐵道)를 복설(復設)하게 되어 후손들이 합심하여 서기 1983년 1월 15일에 장성군 황룡면 맥동(麥洞) 문정공(文正公) 하서(河西) 선조의 제각(祭閣) 앞에 원래 모양대로 다시 새롭게 옮겨 세우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4월 5일에 완공하였다.

서기(西紀) 1983년 4월에 현손 관수(冠洙)는 삼가 기록한다.

5. 황룡면 맥호리 연안김씨(延安金氏) 순열비(殉烈碑)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1-4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전체높이 207, 비신높이 157, 너비 60, 두께 35

정유재란 때 왜구를 피해 순절(殉節)한 숙인(淑人) 연안김씨(延安金氏, ?~1597)의 열행을 기리는 순열비(殉烈碑)는 붓바위[필암]에서 백화정 가는 쪽으로 조금만 가면 길가에 세워져 있다. 그 옆에 나란히 세워진 비석은 1981년에 세운 신비로, 연안김씨에 대한 기적(紀蹟)을 적었다. 신비에 따르면 연안김씨는 울산김씨 맥로(麥老) 김성길(金成吉, 1562~1639)의 처로, 정유재란 때 남편 김성길이 병환 중인 모친과 먼저 산속으로 피신한 뒤 가구(家具)를 수습해 뒤따르려다가 왜적을 만나 쫓기던 중 절벽 위 큰 나무에서 투신해 순절(殉節)하였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麥老先生蔚山金公諱成吉　　配淑人延安金氏殉烈碑

6. 황룡면 장산리 이학승(李學承) 순의비(殉義碑)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356번지(황룡전적지) • 제작연대 1897년(上之三十四年丁酉)
• 크　기 전체높이 180, 비신높이 162, 너비 64, 두께 25

1894년 4월 동학농민전쟁 초기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토벌군으로 전사한 장위영대관(壯衛營隊官) 이학승(李學承, 1852~1894)의 충절을 기린 순의비(殉義碑)는 사각 대석 위에 원수형 비신을 세운 것이다. 사적 제406호 황룡전적지에서 왼쪽으로 조금 떨어진 논밭길 끝에 서 있다.

이학승의 자는 경습(景習), 본관은 전주(全州)로,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났다. 1874년 무과(武科)에 급제했으며, 1883년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가 되었는데, 1894년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의 지휘 아래 장위영대관으로서 소속부대를 이끌고 출동하였다. 이학승이 이끈 선봉대는 1894년 4월 18일 전주성을 나와 남하를 시작하였고 동학농민군과 장성에서 마주쳤는데, 당시 이학승은 선봉장으로 300명을 이끌고 월평(月坪) 전투에서 싸우다 패배하고 전사하였다.

이학승은 1894년 7월 18일 의정부(議政府)의 건의로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는데, 순의비는 향촌 인사들이 이학승의 절의(節義)를 기리고 충성스런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뜻을 모아 건립하였다. 비문은 1897년 11월에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찬술하였는데, 문집에 실린 글과 비문이 일치한다. 당시 침랑(寢郎)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그 순의비 건립 의론(議論)을 이끌고 지부(知府) 김성규(金星奎, 1864~ ?)가 힘을 더했으며, 유생(儒生) 송영순과 박만승이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학승의 묘는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에 있다. 비문은 23행 40자이다.

【전면】

贈左承旨李公學承殉義碑

【좌면】

嗚呼此長城府西十里莘峴故宣傳官李公學承殉義之地也曩在甲午東賊猖獗于湖南連陷郡縣所過人民殆魚肉　朝廷差洪啓薰爲招討使將兵擊之公以壯衛營隊官從戎留陣靈光時賊徒數萬盤據長之月坪公領軍二百人爲前鋒夾水而戰斬賊百餘然寡不可敵衆而大軍尙遠於是賊渡水三面圍迫士卒遂潰麾下士挽公請跳公笑曰丈夫死爾不可臨難而苟活也挺然獨立罵賊不屈而死卽四月二十三日也雖古之杲卿何以加焉迨其反葬逆賊於路至有剖棺刺屍之變公之禍尤其慘矣賊未

【후면】

旋踵墜馬自斃豈非公精英之氣不隨死而亡有此靈驗者歟事聞特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命遣官致侑錄其弟道承爲金浦郡守蓋非獨以慰忠魂於九原實爲萬世樹民彝爲臣子勸也至矣鄕之人士相與言曰昔朱宋兩夫子叙列忠義雖微必書如唐衛士李士龍之倫亦皆著之簡編況以公節義之磊落而可無識乎將立石以表其忠徵士奇宇萬倡其論知府金星奎助其力儒生宋榮淳朴萬升幹其事朴君以金漢穆所爲傳北走八百里徵文於不佞不佞讀之未半不覺淚潸然下矣雖在異世猶可激昂况並時同朝耳目所逮者乎盖嘗論之人有五常君親爲大士有百行忠孝爲先所在致死分定故也而苟非辨於義者甚明養於中者有素則倉卒危迫之際喪失本心而忽不自知其所惡有甚於死

者多矣公以移孝之忠常懷慷慨之志及遭王事多難之日終能蹈白刃喪其元而不悔所謂疾風勁草大冬寒松者捨公而誰也天高地下日月照臨閱千禩而不朽者其惟李公之死節也歟公字景習　成宗王子景明君諡貞敏公諱忱之後也中葉有諱齊衡文執義諱端錫文參判　贈吏曹判書號雙壺堂俱以淸白孝行享長川書院於公爲七世六世五世諱復淵武統制使曾祖武副摠管應燁祖通德郎厚址考武郡守鍾奎公以　睿陵壬子生今　上甲戌登武科筮仕武兼歷都判經僉壯衛營哨官兼帶宣傳官卒年僅四十三銘曰

【우면】

捨生取義是云大節士方平居罔不揭揭變故臨之鮮能自立公惟從容內篤操執成敗利鈍所仗者忠捐身爲國無愧蒼穹生行死歸　王心斯惻何以　贈之銀臺顯職龍江不渴英風俱長刻詞于石昭示无彊

上之三十四年丁酉復月上澣　　月城崔益鉉 撰

〈증 좌승지 이학승(李學承) 순의비(殉義碑)〉

아! 이곳 장성부(長城府) 서쪽 10리 신현(莘峴)은 고(故) 선전관(宣傳官) 이학승(李學承) 공이 의를 위해 순절한 곳이다. 지난 갑오년(1894)에 동적(東賊)이 호남에서 창궐하여 연달아 군현을 함락시키고 지나는 곳마다 백성들을 마구 짓밟았다. 조정에서는 홍계훈(洪啓薰)을 차정하여 초토사(招討使)로 삼고 병사를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였다. 공은 장위영(壯衛營)의 대관(隊官)으로서 종군하여 영광(靈光)에 머물며 진을 쳤다. 당시에 적도들 수만명이 장성부의 월평(月坪)을 점거하였는데, 공이 군인 200명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강을 끼고 싸움으로써 역적 100여 명을 참하였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는 많은 무리를 대적할 수 없었고, 구원할 대군(大軍)은 오히려 멀리 있었다. 이에 적이 강을 건너 삼면을 포위함에 사졸들이 마침내 궤멸되었다. 휘하의 군사가 공을 만류하며 달아나기를 청하니,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장부는 죽음으로 맞설 따름이지 난에 임하여 구차히 살 수 없다."라고 하며 우뚝 홀로 서서 굴복하지 않고 적병을 꾸짖다가 죽으니, 바로 4월 23일이다. 비록 옛날의 안고경(顔杲卿)[38]일지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반장(反葬)함에 미쳐서는 길에서 적을 만나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베는 변고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공의 변고가 더욱 참혹하였다. 그러나 적이 발 돌릴 새 없이 말에서 떨어져 스스로 죽으니, 어찌 공의 정영(精英)한 기가 죽음을 따라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영험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이 알려지자 특별히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그 아우 도승(道承)을 녹훈하여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삼았다. 대개 충혼(忠魂)을 구원(九原)에

38 안고경(顔杲卿) : 당현종(唐玄宗) 시기 안녹산(安祿山)의 반란 때 상산태수(常山太守)로서 의병을 일으켜 안녹산의 군사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사사명(史思明)에게 사로잡혀 사지가 찢기면서도 혀가 끊어질 때까지 준열하게 안녹산을 꾸짖다가 순절하였다. 『新唐書 忠義列傳 顔杲卿』

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로 만세에 인륜을 붙들어 세운 것이고, 신하를 권면한 것이 지극하다. 향리의 인사들이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옛날 주부자(朱夫子)와 송부자(宋夫子)가 충의(忠義)가 있는 사람을 기술할 적에 비록 은미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였으니, 이를테면 당위사(唐衛士)[39], 이사룡(李士龍)[40]의 무리 또한 모두 전기에 드러내었다. 더구나 공의 우뚝한 절의로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차 비석을 세워 그 충의를 드러내려고 함에 침랑(寢郞) 기우만(奇宇萬)이 그 논의를 제창하고, 지부(知府) 김성규(金星奎)가 힘을 보탰으며, 유생(儒生) 송영순(宋榮淳)과 박만승(朴萬升)이 그 일을 주관하였다. 박군(朴君)은 김한목(金漢穆)이 지은 전(傳)을 가지고 북쪽으로 800리를 달려와서 재주가 없는 나(최익현)에게 글을 부탁하였다. 나는 반도 읽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비록 동시대에 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격앙할 수 있는데, 더구나 동시대에 한 조정에서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일찍이 논하건대, 사람은 다섯 가지 떳떳한 성(性)을 간직하고 있는데 군친(君親)이 위대하며, 선비는 모든 행실에서 충(忠)과 효(孝)가 우선이니, 현재 있는 곳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의리를 변별하는 데 매우 분명하고 평소 마음에 기른 것이 있는 자가 아니면 황급하고 급박한 즈음에 본심을 상실하고, 문득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공은 효를 충으로 옮겨서 항상 강개한 뜻을 품었다. 국사가 어려울 때를 만나서는 끝내 시퍼런 칼날을 밟아 자기 머리를 잃어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른바 '거센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굳센 풀이나 한겨울의 찬 소나무 같은 것'은 공 말고 누가 있겠는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해와 달이 그 사이를 비추니,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공(李公)의 사절(死節)일 것이다.

공의 자는 경습(景習)이니, 성종(成宗)의 왕자 경명군(景明君)으로 시호는 정민공(貞敏公)이며 휘는 침(忱)인 사람의 후손이다. 중엽에 휘 제형(齊衡)이란 분이 계시니, 문과에 급제하여 집의를 역임하였다. 휘 단석(端錫)은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역임하였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호는 쌍호당(雙壺堂)이다. 모두 청백(淸白)과 효행(孝行)으로 장천서원(長川書院)에 배향되었는데, 공에게는 7대조와 6대조가 된다. 5대조의 휘는 복연(復淵)이니, 무과에 급제하고 통제사를 지냈다. 증

---

39 당위사(唐衛士) : 남송(南宋) 초기에 성을 지키지 않고 금(金)나라에 항복한 이업(李鄴)을 저격하려다 실패하여 잡혀 죽은 당기(唐琦)를 가리킨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나라를 배반한 이업을 나무라는 등 굴하지 않는 충절을 보였기에, 주희는 그 일을 기록하였다. 『晦菴集 卷83 跋朱奉使奏狀』, 『宋史 卷448 忠義列傳 唐琦』

40 이사룡(李士龍) : 인조 18년(1640)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하여 영병장(領兵將) 유림(柳琳)을 금주위(錦州衛)로 보내 싸우게 하였을 때 참전한 포수이다. 이때 이사룡이 명나라 군사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면서 탄환을 뺀 채 거짓으로 총을 쏘다가 청군(淸軍)에게 발각되어 참수되었다. 정조가 이해 7월에 이사룡에게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추증(追贈)하고 그의 후손 중에서 벼슬할 만한 사람을 군문(軍門)에 조용(調用)하도록 하였다. 송시열이 지은 이사룡전(李士龍傳)에 보인다.

조는 무과에 급제하고 부총관(副摠管)을 지낸 응혁(應爀)이고, 조부는 통덕랑(通德郞) 후지(厚址)이다. 아버지는 무과에 급제하고 군수를 지낸 종규(鍾奎)이다.

공은 예릉(睿陵, 철종) 임자년(1852)에 태어났고, 금상(今上, 고종) 갑술년(1874)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첫 벼슬은 무겸(武兼)으로 시작하여 도판(都判), 경첨(經僉), 장위영초관(壯衛營哨官), 겸대선전관(兼帶宣傳官)을 역임하였다. 죽을 때의 나이가 겨우 43세였다.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捨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하였으니,
是云大節　　이를 대절이라고 하네.
士方平居　　선비들이 평소에 지낼 적에는,
罔不揭揭　　의기 높지 않은 자 어디 있으랴.
變故臨之　　변고가 갑자기 앞에 닥치면,
鮮能自立　　지조를 지키는 자 드무네.
公惟從容　　공은 오직 조용히,
內篤操執　　내면의 마음가짐 굳게 지켰네.
成敗利鈍　　성공과 실패, 이로움과 불리함에서,
所仗者忠　　의지한 것은 충이었네.
捐身爲國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無愧蒼穹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네.
生行死歸　　살아서 나갔다가 죽어 돌아왔으니,
王心斯惻　　왕이 측은하게 여겼네.
何以贈之　　무엇으로 증직하였는가,
銀臺顯職　　승정원의 좌승지였네.
龍江不渴　　황룡강이 마르지 않듯이,
英風俱長　　영령의 풍성도 함께 장구하리.
刻詞于石　　이 사연을 비석에 새겨,
昭示无彊　　무궁한 후세에 밝게 보이노라.

금상 34년 정유년(1897) 11월 상한(上澣)에, 월성인 최익현(崔益鉉)이 짓다.

7. 북일면 문암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정려각비

• 소재지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142-2(제암) • 제작연대 1798년(崇禎紀元後三戊午)
• 크　기 1×1칸, 맞배지붕 / 전체높이 153, 비신높이 134, 너비 45.3, 두께 19.3

임진왜란 당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좌승지 조찬한(趙纘韓)[41]의 처 고흥류씨(高興柳氏, 1572~1597)의 정려각이다. 문암리 매남에서 굴평마을로 가는 길 향우측에 위치한다. 자연석을 쌓아 만든 높은 담장을 둘렀고, 건물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태이다. 정려각 내부에는 정려현판 1개와 비석 1기가 있다. 벽에는 류씨부인과 몸종, 그리고 개의 그림이 있었으나 지금은 퇴색해서 알아볼 수 없다. 예전의 정려각은 담장이 없이 한때 몹시 퇴락되었으나 어느 날 변양섭(1892~1942)이 사냥을 하다가 정려각 밑에서 잠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연로한 할머니가 나타나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내실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고 꾸짖었다고 하며 그 후 변양섭의 꿈 이야기를 듣고 문중에서 담을 쌓고 문을 달았다고 한다. 고흥류씨는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자 자결하여 정절을 지켰고, 이를 지켜보던 몸종이 부인 뒤를 따라 자결하니 몸종이 기르던 개도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서 죽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1798년에 정

41 조찬한(趙纘韓. 1572~1631) : 자는 선술(善述), 호는 현주(玄洲),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조방언(趙邦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옥(趙玉)이고, 아버지는 조양정(趙揚庭)이며, 어머니는 한응성(韓應星)의 딸이다. 조위한(趙緯韓)의 아우이다. 1601년 생원시에 합격, 1606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인조반정 후 형조참의에 제수되고 다음해 좌승지를 거쳐 선산부사가 되었다. 권필(權韠)·이안눌(李安訥)·임숙영(任叔英) 등과 교우하였으며, 후진으로 이경석(李景奭)·오숙(吳䎘)·신천익(愼天翊) 등이 있다. 장성 추산사(秋山祠)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현주집』이 있다.

려를 포상했고 문중에서 정려문을 건립하였다. 정려 비석의 뒷면에 새겨진 '열녀고흥류씨사적'은 이단하(李端夏)가 지은 것으로, 1988년에 세운 것이다. 이단하의 문집인『외재집(畏齋集)』에는 <贈淑夫人柳氏墓表>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내용은 같고, 다만 자세한 점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으니, 문집을 통해서 고흥류씨의 증조부 이름이 '해(瀣)'라는 것과 목사 소두산(蘇斗山)이 이 일을 도운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문의 6행과 7행에 걸쳐있는 '其服節素所定而卒乃勇決如此'라는 구절은 문집에는 없다는 점이 다르다.

【현판】

有明」朝鮮烈女

左承旨」趙纘韓」妻 贈」淑夫人」高興柳」氏之門

崇禎紀元後」三戊午二」月日」命旌閭

【전면】

有明

朝鮮烈女左承旨趙纘韓妻 贈淑夫人

高興柳氏之門

崇禎紀元後三戊午二月 日

命旌閭

【좌면】

崇禎紀元后三戊午即正祖二十二年也

【후면】

烈女高興柳氏事蹟

夫人高興柳氏考持平 贈都承旨澂祖長興府使忠貞曾祖副司直妣新平宋氏工曹佐郎遇女夫人弱失怙恃執喪致哀癸巳適趙公纘韓承事箴規婦道克備丁酉避倭于羅州三鄕一夕賊猝逼蒼黃奔迸與趙公相失三赴水婢輒援止趙公潛行遇人適指其處急徃救之未幾又遭賊鋒夫人力勸趙公走避得脫候賊退還訪夫人已死血流塗草刀在其頸即趙公平日所佩刀而夫人自遇亂自佩腰間者也其服節素所定而卒乃勇決如此趙公有文章官至承旨嘗爲文祭墓備敍貞烈今載遺集刊行後七十三年己酉羅士張復紀等三十三人呈文本州請轉聞于朝旌楔其門而趙公後配有曰休龍宮縣監備文科濟用正皆早世備有二子曰麟祥龜祥樹表夫人墓以成先志夫人生壬申 月 日萬曆丁酉九月二十日卒墓在羅州草谷艮坐原

通訓大夫弘文館應校李端夏識

【우면】

一九八八年 四月 日

長城郡守 十三代孫 成武

傍　　孫 鍾湳 謹立

十一代孫 炳喜 謹書

〈열녀 고흥류씨(高興柳氏) 사적(事蹟)〉

부인 고흥류씨(高興柳氏)의 아버지는 지평을 지냈고 도승지에 추증된 은(濦)이다. 조부는 장흥 부사(長興府使)인 충정(忠貞)이요, 증조는 부사직(副司直)이다. 어머니는 신평송씨(新平宋氏)이니, 공조좌랑(工曹佐郎) 우(遇)의 따님이다. 부인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상을 치르면서 슬픔을 다하였다. 계사년(1593)에 조찬한(趙纘韓)공에게 시집갔다. 남편을 섬기길 경계로써 하였으니, 부도(婦道)를 두루 갖추었다. 정유년(1597)에 왜구를 피해 나주(羅州) 삼향(三鄕)으로 피난 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적이 갑자기 닥치자 황급히 달아나느라 조공(趙公)과 헤어지게 되었다. 세 번이나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여종이 번번이 제지하였다. 조공이 숨어다니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그곳을 가리켜서 급히 가서 구하게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또 쳐들어오는 적을 만나자 부인이 조공에게 달아나서 벗어나기를 힘써 권유하였다. 적이 물러난 뒤에 다시 찾으니 부인은 이미 죽어있었다. 흐른 피가 풀에 묻어 있었고 칼이 그 목에 있었으니, 바로 조공이 평소 차던 칼로, 부인이 난을 만난 뒤로 스스로 허리 사이에 찼던 것이다.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은 평소 먹은 마음이지만 끝내 이처럼 용감하게 결단한 것이다.

조공은 문장력이 있어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다. 일찍이 제문을 지어 묘에서 제사 지내면서 정절(貞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지금 유집(遺集)에 실어 간행하였다. 73년 뒤 기유년(1669)에 나주 선비 장복기(張復紀) 등 33인이 본주(本州)에 정문(呈文)하여 조정에 알려서 그 문에 정려 내리기를 청하였다. 조공의 후배(後配)가 낳은 아들에 휴(休)가 있으니 용궁현감(龍宮縣監)이고, 비(備)는 문과에 급제하여 제용감정(濟用監正)을 지냈는데,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다. 비(備)는 아들 둘을 낳았으니, 인상(麟祥)과 귀상(龜祥)이다. 부인의 묘소에 표석을 세워 선친의 뜻을 이루었다.

부인은 임신년(1572)에 태어났고, 만력(萬曆) 정유년(1597) 9월 20일에 졸하였다. 묘소는 나주(羅州) 초곡(草谷) 간좌(艮坐) 언덕에 있다.

통훈대부 홍문관 응교 이단하(李端夏)가 기록하다.

8. 북일면 문암리 서산류씨(瑞山柳氏) 정려각

• 소 재 지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99-2(광암) • 원위치 나주 본가(1615년) 장성군 문암리 108(1874년)
• 제작연대 1874년(甲戌) • 크 기 1×1칸, 맞배지붕

서산류씨(瑞山柳氏) 정려각은 친정집에서 정유재란을 만나 친정부모와 피난하던 중 그의 모친이 왜군에게 살해당하자 왜병을 꾸짖으며 시체를 안고 함께 따라 죽은 서산류씨의 절효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정려이다. 신흥로와 북일천 사이 소로인 신흥로 889번지 집앞에 위치한다. 토석혼축의 높은 담장을 두르고 그 위에 기와지붕을 올렸으며, 입구는 와가문에 철문을 달았다. 단청은 상태가 양호하니 최근인 2014년에 칠한 것이다. 정려각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목조와가이다. 내부에는 현판 1개만 정면에 걸려있다.

서산류씨는 하동인 정성일(鄭聖一)의 처로, 1597년에 친정집에 갔다가 정유재란을 만나 친정부모와 피난하던 중 그의 모친이 왜군에게 살해당하자 왜병을 꾸짖으며 시체를 안고 함께 따라 죽었다. 서산류씨 절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주목사 조수준(趙守準)의 상소로 사후 18년이 지난 1615년에 나라에서 정려를 명받아 나주 본가에 정려문을 건립하였으나 쇠퇴하여 무너지자 259년후 1874

년에 장성군 문암리 108번지에 이설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문암천 정비사업대상에 편입되어 지금의 위치인 문암리 99-2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2014년 8월 15일(음 7월 20일) 12시(午時)에 이축 상량하였으며 정려문 해체 시 사용 가능한 들보 2개를 재사용하여 역사적인 근거를 남겼다고 한다.

【현판】

通德郎」鄭聖一」妻孝女」恭人瑞」山柳氏」之閭

丁酉亂在羅」州本第殉于」母乙卯」命旌歲久頹圮」甲戌移復長」城

【상량문】

河龍 西紀二千四年甲午年八月十五日陰七月二十日日午時移築上樑 洛龜

9. 북일면 박산리 서능(徐稜) 정려비

• 소재지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458-2(봉암)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162호(1988.03.16)
• 제작연대 1578년(萬曆六年) • 크　기 1×1칸, 팔작지붕/ 전체높이 272.6, 비신높이 134.3, 너비 62, 두께 23

서능(徐稜) 정려비는 문하시중으로 있을 때 어머니가 병이 들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정성으로 간호하였고 어머니의 목에 악성 종기가 나자 나무에서 살아 있는 개구리가 약탕관으로 떨어져 그 약으로 어머니 병환이 나았다는 효행설화를 탄생시킨 서능(徐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후손과 유림들에 의해 건립된 정려비이다. 적동마을에서 조양리 상공마을로 가는 길가 향좌측에 위치한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목조와가 건물이다. 단청은 상태가 양호하여 최근에 칠한 것이다. 정려비는 넓은 연화문을 복련으로 조각한 3단 비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올려진 이수에는 구름문이 가득하다. 출입문에 '高麗侍中節孝徐先生之碑閣'이란 현판이 걸려있고, 내부 정면에 <節孝徐先生碑重修記>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향우측면에는 <有司案>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비각은 원래 1669년 변휴 등 12인의 유림들이 주동이 되어 중건하기 시작해 1694년 완결했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정려각의 편액을 썼으며, 이후 1824년 김장환(金章煥) 등에

의해 중수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13년 당시 전 장성 군수였던 서택환(徐宅煥) 등의 주도로 다시 중건한 것이다. 이때 쓴 중수기가 현판에 걸려있는데, 1913년에 기재(奇宰)가 지은 것이다. 비석 표면은 풍화가 심해 글씨 있는 부분이 많이 박락되었다. 최근에 세워둔 비문에 의하면 이 비석은 1578년에 건립하였으며 사암 박순이 비명과 서문을 짓고 옥봉 백광훈이 글씨를 썼다고 한다.

서능(徐稜)의 자는 대방(大方), 본관은 이천(利川)으로, 아버지는 흥위위(興威衛) 보승별장(保勝別將)을 지낸 서희팔(徐希八)이고, 어머니는 합천이씨(陜川李氏) 이순목(李純牧)의 딸이다. 1246년 12월 겨울에 어머니의 목에 악성 종기가 났을 때 개구리가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약 만드는 그릇으로 들어가 그것으로 약을 만들어 어머니 종기를 낫게 했고, 1232년 무렵 조모상을 당하여서는 「거가십훈(居家十訓)」을 지었다. 고려 고종(高宗)이 절효(節孝)라는 시호를 내렸고, 『고려사』 효우(孝友) 열전에 입전되었다. 비문은 마멸이 심하여 판독 불능이지만, 정려비각 입구에 2007년 5월에 세운 중수비가 있고, 박순의 문집인 『사암집』에도 실려 있어서 이것을 참조하였다.

[두전]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

【전면】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幷序

孝者人道之大經自隆古以來見於孔子刪正之書以爲法者兩人在書曰君陳在詩曰張仲降及後世嗚呼尠矣今有人焉一國之人皆稱之爲孝子則固一國之善士若鰲城徐公殆其人歟公諱稜字大方弱冠擢大科任高麗安孝王之朝官至侍中天性至孝解官歸家專心奉母是猶安仁賦閒居之意也母發項疽迎醫視之醫曰若不得生蛙不可治公曰當此冱寒豈得生蛙母疾殆不可爲已號泣不已醫曰雖無生蛙可姑合藥以試之遂熬藥于樹下忽有物從樹上墮鼎中視之乃生蛙也醫驚曰子之誠孝格天天卽賜之母疾必瘳於是更爲劑合貼患處立愈事聞旌閭迄今數百載猶不廢見之者莫不諮嗟感涕知事親之必盡誠其激立民志裨補風敎亦如何哉嗚呼上天之載本無聲臭之可求而玆心能一則感應如響至於斡造化而廻天機吾於節孝公見之公著居家十訓實羽翼乎呂氏鄕約之書其所學之正又如此然國史所傳只記其孝而不及於學豈非韜眞晦光惟務自厚而流俗不知之故歟公十五世孫曰荃服義思孝無替家風懼歲月滋久德音或湮願斲堅石假辭紀美建諸舊閭之上以圖不朽於無窮屬余銘之余旣慕徐公之德且嘉荃之眷懇不以鄙絀辭遂爲之銘曰

於休先生 盡孝承親 非性之揉 實出愈眞 母疾無藥 號天而泣

霜雪旣降 坏戶咸蟄 有誠必感 天貺斯申 錦襖皤腹 妙劑通神
壽康而悅 慈顔復春 玄造冥冥 孰識其機 秉心無二 天亦不違
懿乎其純 卓乎所履 故里不改 山崔水瀰 令聞永振 吁嗟曷已
萬曆六年五月 日立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經筵事 朴 淳 撰
從仕郎 靖陵參奉 白光勳 書

〈고려 시중 절효선생(節孝先生) 서공(徐公) 비명(碑銘)〉

효(孝)라는 것은 인도(人道)의 대경(大經)이다. 상고(上古) 이래로 공자(孔子)께서 산정(刪正)한 경서(經書)에 나타나 본받을 만한 인물로 여겨지는 효자(孝子)가 두 사람이니, 『서경(書經)』에서는 군진(君陳)이요, 『시경(詩經)』에서는 장중(張仲)이다. 후세에 내려와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물 드물도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효자라고 칭찬한다면 그는 참으로 국중의 선사(善士)이다. 오성(鰲城, 장성)의 서공(徐公) 같은 사람이 아마도 이러한 선사이리라.

공은 휘(諱)가 능(稜)이고, 자(字)는 대방(大方)인데, 약관(弱冠)의 나이에 대과(大科)에 급제하고 고려(高麗) 안효왕(安孝王)의 조정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시중(侍中)에까지 이르렀다. 타고난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관직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전심전력으로 모친을 받들었으니, 그것이 곧 「안인부(安仁賦)」에서 읊은 '한가하게 지낸다'는 뜻이다. 모친의 목에 종기가 나서 공이 의원을 데려다 보였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만약 살아 있는 개구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지금 이와 같은 한 겨울을 당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개구리를 구한단 말인가? 어머니의 병을 아마도 고치지 못하고 말겠구나."라고 하고는 울부짖길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의원이 "비록 살아 있는 개구리는 없다 하더라도, 우선 약을 조제해서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침내 어느 나무 밑에서 약을 닳였다. 그때 어떤 물체가 나무 위에서 솥 안으로 떨어지므로 들여다보니 곧 살아 있는 개구리였다. 의원이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그대의 성효(誠孝)가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 하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모친의 병환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다시 약을 조제하여 환부에 붙이니 곧바로 종기가 나았고, 그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공의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일이 민멸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어버이를 섬김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공께서 사람들의 뜻을 격발(激發)하여 확립시키고 풍교(風敎)를 보조(補助)하여 수립한 공로 또한 어떠하다 하겠는가?

아! 하늘의 일은 원래 찾아볼 수 있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이러한 효심을 한결같이 할 수 있다면 그 감응은 바로 즉각 반응하는 메아리 소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조화(造化)를 만들어

내고 천기(天機)를 되돌려놓는 것 같은 경우를 내가 절효(節孝) 공에게서 보았다.

공은 『거가십훈(居家十訓)』을 지었는데, 그것은 실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보조(補助)하는 책이니, 공께서 배운 공부의 올바름이 또한 이와 같다. 그러나 국사(國史)에 전(傳)해지는 글은 단지 그의 효성만을 기록한 것이고 그의 학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찌 공께서 진면목을 숨기고 빛을 감춘 채 오로지 자신의 인격만을 두터이 닦은 결과 세속의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인품을 알아보지 못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공의 15세손은 전(荃)인데, 의(義)를 명심하고 효(孝)를 생각하며 가풍(家風)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다. 세월이 점차 오래되어 공의 덕음(德音)이 인멸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석을 다듬고 비문을 청하여 아름다운 행적을 기록한 다음 그것을 옛 정문(旌門)의 위쪽에다 세워둠으로써 영구히 소멸되지 않기를 도모하고, 나에게 명문(銘文)을 써줄 것을 청하였다. 나는 이미 서공(徐公)의 덕을 사모하고 있는 데다가 전(荃)의 정성도 또한 가상하게 여기므로, 글을 잘 짓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양을 하지 못하고 마침내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於休先生　　아름답구나 선생께서는,
盡孝承親　　효성을 다하여 어버이를 받드셨네.
非性之揉　　그것은 성품을 고쳐서가 아니라,
實出愈眞　　실로 타고난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
母疾無藥　　모친의 병환에 약이 없으므로,
號天而泣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울었다네.
霜雪旣降　　서리와 눈발이 이미 내린 뒤여서,
坏戶咸蟄　　모든 벌레들까지 겨울잠에 들었구나.
有誠必感　　그러나 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을 감동시키는 법,
天貺斯申　　하늘이 이에 선물을 주니,
錦襖皤腹　　비단같은 몸에 하얀배 볼록하네.
妙劑通神　　묘한 약제는 신통한 효험이 있어서,
壽康而悅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즐겁게 되었으니,
慈顔復春　　어머니의 얼굴에 봄빛이 돌아왔네.
玄造冥冥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의 이치는,
孰識其機　　그 누가 그 기미를 알 수 있으리오.
秉心無二　　다만 마음가짐만 한결같다면,
天亦不違　　하늘도 어김없이 따라준다네.
懿乎其純　　아름답도다 그 순수한 마음이여,
卓乎所履　　우뚝하도다 그 효행이여.

故里不改　　마을의 옛 모습은 고쳐지지 않았고,
山崔水瀰　　산과 강은 높고 깊으매,
令聞永振　　아름다운 소문은 영원히 떨칠지니,
吁嗟曷已　　아, 이것이 어찌 끝날 때가 있으리오.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 박순(朴淳)이 비문(碑文)을 짓고, 종사랑 정릉참봉(靖陵參奉) 백광훈(白光勳)이 글씨를 쓰다.

10. 북이면 백암리 조영규(趙英圭) 정려

• 소재지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63(백암)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78호(1985.02.15.)
• 제작연대 1669년(己酉) • 크　기 2×1칸, 맞배지붕

조영규(趙英圭) 정려[42]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조영규(趙英圭)의 충성과 아들 조정로(趙廷老)의 효성을 기리는 건물이다. 백암마을 앞 방장로 15번 지방도의 길가에 위치한다. 토석혼축의 담장에 기와를 얹었고 출입문을 달았으며, 정려각은 앞면 2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안에는 편액 4개가 걸려있는데, 충신 조영규와 효자 조정로의 명정 편액과 정려중수기 등이다.

조영규(趙英圭, 1535~1592)의 자는 옥첨(玉瞻), 본관은 직산(稷山)으로, 백암리에서 조준(趙準)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과에 올라 용천부사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는데, 임진왜란 때 양산군수로 있으면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동래성을 수비하다가 전사하였다. 호조참판에 추증되고 양산의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그의 아들 조정로(趙廷老)는 아버지의 시신을 다 수습하지 못해 평생 죄인으로 자처하다 세상을 마쳤다. 사후에 선무랑(宣武郞) 빙고별검(氷庫別檢)에 증직되고

42 국가유산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모두 '장흥고씨정려'의 주소로 착오 기재됨

정려가 내려졌다. 이후 1669년에 송준길(宋浚吉)이 이들 부자의 일을 아뢰어 명정되었다. 이 정려각은 이후 1949년과 1978년에 중수되었다.

【현판1】

忠臣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通政大」夫梁山郡」守趙英圭」之閭

顯宗十年」己酉」命旌

【현판2】

孝子

贈宣」務郎」氷庫」別檢」趙廷」老之」閭

顯宗十年」己酉」命旌

【현판3】

稷山趙氏忠孝旌閭重建記

嗚乎此稷山趙氏兩世忠孝旌閭趙公諱英圭字國獻成均司藝諱扑其五世祖高祖諱召仝縣監曾祖諱命訥祖諱順琚副司果考諱準奉事以　中宗乙未生于長城白巖里受稟英偉性且至孝旣長膂力絕倫登武科自主簿出爲濟州判官及茂長縣監丁外艱解官居廬後爲萬頃靈山龍川樂安寧海等郡淸白自守爲政嚴明　宣祖壬辰莅梁山倭賊大至先陷釜山直搗東萊時邊圍空踈公爲死守計聞東萊府使宋公象賢多所規畫卽往問曰國事至此公將奈何宋公曰當堅守此城公曰吾亦有一死計請與公同守宋公大喜公曰吾有老母在郡歸訣後赴約卽歸郡泣辭母夫人爲陳大義所在不敢循私恩母夫人許之命子處士廷老奉歸長城且教避兵策卽馳還萊府賊圍已三匝公張目拔劒躍馬突入宋公知公來開門迎納遂與誓心力戰及城陷與宋公不離頃步宋公北向再拜公亦同拜擧張巡生未討賊死爲厲鬼語爲結縷時所祝遂同日死處士公字台卿生于明宗己未至誠事親多行人所不能者及在梁山泣受父命奉祖母晝伏夜行觸冒危險月餘始達長城擇避兵所安奉祖母出探聞萊府陷絶而復甦卽自盟赴死至則賊已撤去積尸盈城未得收骸只招魂而歸泣血三年祥禫旣過猶哀

慟不已曰余以人子未復父讐未收父骸此何人斯歠粥面墨如初遂築土室廬容一身常處其中不出門外所著笠制如喪冠以松枝覆其如廁路盖不忍與賊共戴一天也處身常如執喪如是二十餘年以疾殉于土室　仁祖己丑萊府建忠烈祠享梁山公　顯宗丁未配享公父子于徐節孝慕巖院戊申東萊建碑尤菴宋文正公書公父子忠孝己酉同春宋文正公以其事陳啓筵席始贈職旌閭噫其精忠至孝遇大賢而大揚天終不可掩也閭年久頹毁後孫秉宇章烈旁孫斗明拔貧重建其尊祖之誠尤可尚也公緦麻之親又有柳氏之烈亦事聞旌閭趙氏一門三綱顧世所罕聞者前賢之贊揚已備豈後生之所敢容喙秉宇來請板記憙承淺劣昏耄辭而不獲記其大略如右己酉後二百八十一年己丑三月日

後學昌山曺憙承謹記

【현판4】

忠孝旌閭重修記

長城治北白巖之里有一門雙旌者即郡守趙公英圭暨子處士廷老是已公之先稷山人自高祖縣監召同始居于此公以弓馬出身歷典七邑穆陵壬辰至梁山任所倭數萬賊直犯釜山僉使鄭撥死公聞變赴東萊與府使宋公象賢約共死守復歸梁託母於廷老而授以避兵策還萊城則賊圍三匝公厲聲大呼馳突而至府使信公來遂迎入城督戰數日力盡城陷與宋公不離頃步同日死節此其忠也廷老奉祖母衝冒矢石晝伏夜行月餘到長城避其祖母於可隱處出探萊信有傳其實者氣絕復甦誓心赴死及至于梁則賊已撤移矣積屍盈城未克收骸招魂返葬泣血三年自以爲不復父讐難戴一天制大笠蔽面目取松枝覆厠路常處土室絕朋交不役奴如是終其身此其孝也　顯廟朝同春宋先生陳啓筵席并命旌閭而郡守贈戶曹參判處士贈氷庫別檢聖朝褒忠彰孝之典如是其盛矣閭之建歲經三百間有累度修補而今復毁頹甚矣知郡白柱元特捐郡費易瓦補壁修墻立門又及於淨化周邊使過者聳瞻俟之誠至矣功亦大矣役將畢別檢十三代孫鉉默顧余曰採吾兩祖之事蹟列于吾鄉十三名人者尊門松溪友益以此告于春翁得蒙褒揚者聽流堂烋也今又吾子前後周章重新是圖撫念今古感入髓骨因責余以記實之文雖甚淺拙辭亦無義盖兩公之卓忠至孝已有西厓柳文忠尤菴宋子完南李忠貞退憂金相國諸賢所論著如日月於千古不敢復贅只記閭之始末太守慕賢尙節之誠如右云

戊午至月十七日 黃州邊時淵 記

〈직산조씨(稷山趙氏) 충효정려(忠孝旌閭) 중건기(重建記)〉

아! 이는 직산 조씨 두 세대의 충효 정려(忠孝旌閭)이다. 조공의 휘는 영규(英圭)이고, 자는 국헌(國獻)이며, 성균관 사예(司藝)였던 휘 변(抃)이 그 5대조이다. 고조의 휘는 소동(召仝)으로 현감(縣監)을 지냈고, 증조의 휘는 명눌(命訥)이며, 조부의 휘는 순거(順琚)로 부사과(副司果)를 지냈고, 부친의 휘는 준(準)으로 봉사(奉事)를 지냈다.

공은 중종 을미년(1535)에 장성(長城) 백암리(白巖里)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기질이 영특하고 위대했으며, 성품 또한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장성한 뒤에는 체력이 남달랐고,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가 되었으며, 이어 제주판관과 무장현감을 지냈다. 부친상을 당해서는 벼슬을 버리고 여막에 거처하였고, 그뒤 만경(萬頃), 영산(靈山), 용천(龍川), 낙안(樂安), 영해(寧海)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이 되어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지키고 엄하고도 분명하게 정사를 펼쳤다.

선조 임진년(1592)에 양산(梁山)에 부임하였는데, 왜적이 크게 들이닥쳐 먼저 부산을 함락시키고 곧장 동래(東萊)를 쳤다. 이때 변방은 비고 허술하였으므로, 공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공이 여러모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듣고 곧장 찾아가 묻기를, "국가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공은 장차 어찌하시겠소?"라고 하니, 송공이 답하기를, "이 성을 굳게 지키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나 또한 한 목숨 바칠 각오가 있으니, 부디 공과 함께 지키고자 하오."라고 하니, 송공이 크게 기뻐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나의 노모가 고을에 계시니, 돌아가 고별한 뒤 약속을 지키러 오겠소."라고 하고서, 곧장 고을로 돌아가 모친에게 눈물로 하직하며 대의가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사사로운 은혜를 좇을 수 없음을 고하였다. 모친이 허락하자, 아들 처사 정로에게 명하여 장성으로 모시고 돌아가게 하고, 또한 피난할 방책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곧장 달려 돌아와 다시 동래부에 이르니, 적이 이미 세 겹으로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공은 눈을 부릅뜨고 칼을 뽑아 말을 타고 돌진하여 들어갔다. 송공이 공이 온 것을 알고 성문을 열어 맞아들이니, 드디어 함께 굳게 맹세하고 힘을 다해 싸웠다.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송공과 한 치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였다. 송공이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니, 공도 함께 절하며, 장순(張巡)이 살아있을 때 적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죽어서 여귀(厲鬼)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맹세할 때 비는 말로 삼았다. 마침내 같은 날 함께 순절하였다.

처사공(處士公)의 자는 태경(台卿)으로, 명종 기미년(1559)에 태어났다.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하였다. 양산에 있을 때 부친의 명을 눈물로 받들어 조모를 모시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한 달 남짓 만에 장성에 도착하였다. 피난처를 골라 조모를 편안히 모시고 나서, 나가서 동래부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하였다가 깨어났다. 곧바로 스스로 맹세하고 죽으러 달려갔으나 이미 적이 물러간 뒤였고, 시신이 성에 가득하여 부친의 시신을 거둘 수 없었다. 오직 혼만 불러 모시고 돌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삼년상을 치렀고, 상복을 벗은 뒤에도 애통해하길 그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친의 원수를

갚지 못했고 부친의 시신도 거두지 못했으니, 내가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죽만 먹어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변한 모습이 처음 상을 치를 때와 같았다. 마침내 흙으로 방을 짓고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게 하여 항상 그 안에 머물고 문밖을 나가지 않았다. 삿갓을 썼는데 상중의 관처럼 만들었고, 소나무 가지로 화장실 가는 길을 덮어서 차마 적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몸가짐을 항상 상중에 있는 것처럼 하였고, 이와 같이 20여 년을 지내다가 병을 얻어 흙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인조 기축년(1649)에 동래부에서 충렬사(忠烈祠)를 세워 양산공을 제향하였고, 현종 정미년(1667)에 공과 공의 부친을 모암(慕巖) 서절효(徐節孝)의 서원[43]에 배향하였다. 무신년(1668)에 동래에 비를 세웠는데, 문정공 우암 송시열이 공과 공의 부친의 충효를 쓴 것이다. 기유년(1669) 봄에 동춘당 송문정공이 이 일을 조정에 아뢰어 비로소 관직에 추증되고 정려를 받았다.

아! 그 지극한 충성과 효성이 큰 현인을 만나 크게 드러났으니, 하늘을 끝내 가릴 수 없는 일이다. 정려가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지자, 후손 병우(秉宇)와 장렬(章烈), 방손 두명(斗明) 등이 가난을 무릅쓰고 다시 세웠으니, 조상을 높이려는 그 정성이 더욱 가상하다. 공의 삼년상 친족 가운데 또 류씨의 열행이 있어 역시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조씨 한 집안에 삼강(三綱)이 있으니, 세상에 드문 일이다. 전현들의 찬양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후생이 감히 말을 더하겠는가? 병우가 와서 나 덕승에게 비문을 부탁하니, 내가 재주 없고 어리석다고 사양하였지만 얻지 못하고 그 대략을 위와 같이 기록한다.

기유년(1669)에서 281년이 지난 기축년(1949) 3월에 후학 창산(昌山) 조덕승(曺悳承)이 삼가 기록하다.

〈충효정려(忠孝旌閭) 중수기(重修記)〉

장성(長城) 치소(治所)의 북쪽 백암리(白巖里)에는 한 집안에 두 명이 정려를 받은 곳이 있으니, 바로 군수 조영규(趙英圭) 공과 그의 아들 처사 정로(廷老)가 바로 그들이다. 공의 선조는 직산(稷山) 사람으로, 현감을 지낸 고조 소동(召同)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다. 공은 무과로 과거에 급제하여 일곱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선조 임진년에 양산(梁山)의 임지에 이르렀는데, 왜적 수만 명이 곧장 부산을 침범하여 첨사 정발(鄭撥)이 전사하였다. 공은 변고를 듣고 동래로 달려가 부사 송상현(宋象賢) 공과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다시 양산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정로에게 맡기고 피난 방책을 일러준 뒤, 동래성으로 돌아갔다. 이때 적이 이미 세 겹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공은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며 말을 달려 돌진하여 도착하였다. 부사가 공이 온 것을 믿고 성문을 열어 맞이하였으며, 며칠 동안 함께 싸움을 독려하였다. 힘이 다하여 성이 함락되자, 송공과 한 치도 떨어지지

43 모암(慕巖) 서절효(徐節孝)의 서원 : 고려 때에 '절효(節孝)'라는 시호를 받은 모암 서릉(徐稜)을 추모하기 위해 1587년(선조20)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에 창건한 모암서원을 가리킨다.

않고 같은 날 순절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공의 충절이다.

정로는 조모를 모시고 화살 사이를 뚫으며, 낮에는 숨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여 한 달 남짓 만에 장성에 도착하였다. 조모를 숨길 만한 곳에 피신시키고, 나가서 동래의 소식을 탐문하였는데, 그 실상을 전해 듣고는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스스로 죽기로 맹세하였다. 양산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적이 물러난 뒤였다. 시신이 성에 가득하여 시신을 거둘 수 없어 혼만 불러와 장사지내고, 피눈물을 흘리며 삼년상을 치렀다. 스스로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지 않고 한 하늘 아래 살기 어렵다고 여겨 큰 삿갓을 만들어 얼굴을 가리고, 솔가지를 꺾어 화장실 가는 길을 덮었으며, 항상 흙방에 머물고 벗과 교유를 끊었다. 종도 부리지도 않고 이와 같이 평생을 마쳤으니, 이것이 바로 공의 효행이다.

현종조에 이르러,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선생이 이 일을 연석에서 아뢰니, 현종이 아울러 정려를 명하였고, 군수에게는 호조참판을, 처사에게는 빙고별검을 추증하였다. 어진 임금의 조정에서 충절을 포상하고 효행을 드러내는 전례가 이처럼 성대했다. 정려가 세워진 지 30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보수하였으나, 지금 다시 심하게 무너졌다. 군수 백주원(白柱元)이 특별히 군의 비용을 내어 기와를 바꾸고 벽을 보수하였으며, 담을 고치고 문을 세웠다. 또 주변을 깨끗이 정화함에 이르러서는 지나가는 이들이 우러러보게 하였으니, 군수의 정성이 지극하고 공로 또한 크다.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별검공의 13대손 현묵(鉉默)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우리 두 조상의 사적을 모아 우리 고장의 13 명인에 나란하게 된 것은 존문의 송계(松溪) 우익(友益, 1601~1670)이니, 이를 춘옹(春翁, 동춘당)에게 알림으로써 포양(褒揚)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청류당(聽流堂) 휴(烋)의 덕입니다. 이제 또 저의 아들이 앞뒤로 수고하여 다시 이 일을 도모하였으니, 옛날과 오늘을 생각할 때 감회가 뼛속 깊이 스며듭니다."라고 하며 이어서 사실을 기록하는 글을 나에게 부탁하니, 내가 비록 문장이 매우 얕고 졸렬하나 사양할 말이 없었다. 대저 두 분의 빼어난 충성과 지극한 효행은 이미 문충공(文忠公)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충정공(忠定公) 완남(完南) 이후원(李厚源), 상국(相國) 퇴우(退憂) 김기지(金起之) 등 여러 현인이 논술하여 해와 달처럼 천고에 빛나니 감히 더 보탤 수 없고, 다만 정려의 시말과 고을 수령이 현인을 사모하고 절개를 숭상한 정성을 위와 같이 기록한다.

무오년(1978) 11월 17일에, 황주(黃州) 변시연(邊時淵)이 기록하다.

11. 북이면 백암리 장흥고씨(長興高氏) 정려각

• 소재지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66-1(백암) • 제작연대 1893년(上之三十年癸巳)
• 크　기 2×1칸, 맞배지붕

백암마을 앞 방장로 15번 지방도 길가에 위치한 조석우(趙錫宇)의 처(妻) 열녀 장흥고씨(長興高氏)와 아들 효자 조석주(趙錫疇)의 정려각[44]이다. 붉은 내화벽돌로 축조된 담장을 두르고 기와를 얹은 출입문을 달았으며, 정려각은 앞면 2칸×옆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안에는 1893년에 명정된 열녀 공인(恭人) 장흥고씨(長興高氏)와 아들 효자 조석주(趙錫疇)의 명정 편액과 정봉시(鄭鳳時)가 1935년에 지은 정려기 현판이 있다.

[문액]
烈孝門

44 국가유산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카카오맵 모두 '조영규 정려'로 잘못 기재됨.

【현판1】

烈女 贈」朝奉大夫」童蒙敎官」昌寧曺錫」宇之妻恭」人長興高」氏之閭

上之三十年癸」巳七月 日」命旌

【현판2】

孝子

學生昌」寧曺錫」疇之閭

上之三十年癸」巳七月 日」命旌

【현판3】

昌寧曺氏烈孝旌閭記

昔在我 高宗癸巳湖南進士羅東允等以茂長縣 贈童蒙敎官昌寧曺公錫宇妻高氏烈行上言于大宗伯綽楔命下謹按其狀高氏系出長興忠烈公霽峯先生敬命后修撰廷鳳孫通德郎時龜女以忠孝家範于歸詩禮名門事舅姑奉君子夙著女宗之譽不幸中身喪天矢心下從屢被家人之防守而未果旣而幡然曰上有七耋之姑下有一歲之孩自我辦命甘旨誰供宗祀誰托隱忍掩抑自居未亡人姑以天年終執喪欒欒而胡天道之無知膝下之孩又至夭折乃呼九歲姪命以宗祀因抱殤尸蒙被而訣家人曰三從之道今焉已矣下殉同穴不負素心積十四日絶粒而終此乃夫人實行之大槩也正宜士林之有公議 朝家之有恩褒也敎官公有弟錫疇亦以孝聞雖其出於天質之美學問之力而觀感於嫂氏夫人亦云多矣曺氏昌寧世家翰林鼎谷先生大中后司諫喜有將仕郎英眞祖若考早服庭訓志體無闕而叵耐祖禰兩喪疊仍於兩年之內伯兄夭逝嫂氏下殉崩迫之威無望生全而愼終踐禮毫無差失所謂凡百君子不可以單孝目之也 憲宗丁酉命擧各郡孝廉時宰以公首薦曰根天孝友出人才藝公之爲公因此可槩且宜鄕道交薦典降表宅也公之出后子參奉日承卽烈婦所命九歲姪也自茂長移寓于長城之白巖常懷建閭而力綿未果齎志而終日承胤秉彛甫克紹父志修造于所居旌門洞所謂孝子不匱永錫爾類者也蓋白巖舊有趙梁山父子忠孝閣故名其地曰旌門今又曺氏嫂叔以烈孝幷閭由是而言則白岩一區乃三綱之淵海也世之後君離親背夫之徒踐其土則必有蹭蹬躑躅之狀矣昔曾子回車于勝母之里以地名之不美也今此地名之美豈無膏車一覽之願老且病不可得記事之托其在歆艷之情不以文拙而牢辭

時旃蒙大淵獻暮春者

嘉善大夫前行奎章閣副提學

八溪鄭鳳時謹記

〈창녕조씨(昌寧曺氏) 열효정려기(烈孝旌閭記)〉

옛날 우리 고종(高宗) 계사년(1893)에 호남의 진사 나동윤(羅東允) 등이 무장현(茂長縣)의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된 창녕(昌寧) 조석우(曺錫宇) 공의 처 고씨(高氏)의 열행(烈行)으로 대종백(大宗伯)[45]에게 상언(上言)하여 정려(旌閭)의 명이 내려왔다.

삼가 그 글을 살펴보건대, 고씨(高氏)는 선계가 장흥(長興) 충렬공(忠烈公) 제봉선생(霽峯先生) 경명(敬命)의 후손에서 나왔으니, 수찬 정봉(廷鳳)의 손녀이고, 통덕랑(通德郞) 시귀(時龜)의 따님이다. 충효가(忠孝家)의 범절로 시례(詩禮)[46]의 명문(名門)에 시집와서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받듦에 일찍 여종(女宗)[47]의 칭송이 드러났다. 불행하게도 중년에 남편의 상을 당하여 따라 죽으려 마음속으로 맹세하였으나 여러 차례 집안사람이 막고 지킨 까닭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마음을 바꾸어 말하기를 "위로는 칠순의 시어머니가 계시고 아래로는 한 살 난 어린아이가 있어 나로부터 명이 판가름 나니, 맛있는 음식을 누가 바치겠으며, 종사(宗祀)를 누구에게 의탁하겠는가?"라고 하고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억누르며 미망인(未亡人)으로 자처하였다. 시어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름에 수척해졌다. 그러나 어찌 하늘의 도는 무지하여 슬하의 어린아이가 또 요절함에 이르렀는가? 이에 9세의 조카를 불러 종사(宗祀)를 명령하고, 인하여 요절한 시체를 끌어안고 이불을 덮어쓴 채로 가인(家人)에게 영결을 고하기를 "삼종(三從)의 도[48]가 지금은 이미 끝났으니, 따라 죽어 같은 묘소에 묻히는 것이 평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오."라고 하고는 14일 동안 곡기를 끊고 죽었다. 이것이 바로 부인 실행(實行)의 대강이니, 정히 사림(士林)에 공의(公議)가 있고 조정에서 은혜로운 포장(褒奬)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교관공(敎官公)의 아우 석주(錫疇) 또한 효성으로 알려졌으니, 비록 타고난 자질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힘에서 나온 것이지만, 형수에게서 보고 감동한 것이 또한 많았다고 하겠다.

조씨(曺氏)는 창녕(昌寧)의 세가(世家)로, 한림(翰林) 정곡(鼎谷)선생 대중(大中)의 후손이고, 사간(司諫) 희유(喜有)와 장사랑(將仕郞) 영진(英眞)이 조부와 부친이다. 일찍 가정의 가르침을 받아 지체(志體)의 봉양[49]에 빠뜨림이 없었지만, 조부와 부친의 두 상사(喪事)가 두 해 사이에 겹쳤고, 백형(伯兄)이 요절하고 형수가 따라 죽어, 절박한 상황에 생명을 온전히 할 가망이 없었다. 그러

45 대종백(大宗伯) : 예조판서의 별칭이다. 옛날 주(周)나라 관제(官制)에 나라의 제사를 관장하고 예를 맡아보던 벼슬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46 시례(詩禮) : 가학(家學)이나 집안의 교육을 말한다. 공자의 아들 리(鯉)가 뜰에서 공자 앞을 공손하게 종종걸음으로 지나다가 공자로부터 시(詩)와 예(禮)를 배우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論語 季氏』

47 여종(女宗) : 여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이른다.

48 삼종(三從)의 도 : 여자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도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한 뒤에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는 것을 말한다.

49 지체(志體)의 봉양 :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養志]과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養體]을 말한다. 『孟子 離婁上』

나 장사를 치름에 예(禮)를 실천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군자는 효(孝)만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종(憲宗) 정유년(1837)에 각 군(郡)의 효렴(孝廉)을 천거하도록 명하였는데, 당시 재신(宰臣)이 공을 으뜸으로 천거하기를 "천성에 근본한 효우(孝友)이고, 남보다 뛰어난 재예(才藝)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이 공이 되는 것을 이로 인해서 대략 알 수 있다. 또 고을과 도에서 서로 천거하니, 은전을 내려 집에 정표한 것이 마땅하다.

공의 출후자(出后子)인 참봉(參奉) 일승(日承)은 바로 열부(烈婦)가 명한 9세 조카이다. 무장(茂長)에서 장성(長城)의 백암(白巖)으로 이사하여 항상 정려(旌閭)를 세울 것을 생각하였으나 힘이 모자라 실행하지 못하고 뜻만 가진 채 죽었다. 일승의 아들 병채(秉彩)가 부친의 뜻을 잘 계승하여 살고있는 정문동(旌門洞)에 정려각을 지었으니, 『시경』「대아(大雅) 기취(旣醉)」에 이른바 "효자의 정성이 다하지 않으니, 길이 너에게 선을 주리라.[孝子不匱, 永錫爾類.]"라는 것이다.

대개 백암(白巖)에는 옛날에 조양산(趙梁山) 부자(父子)[50]의 충효각(忠孝閣)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정문(旌門)이라 하였고, 지금 또 조씨(曺氏)의 수숙(嫂叔)이 열효(烈孝)로 나란히 정려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백암 한 구역은 바로 삼강(三綱)의 연해(淵海, 보고)이다. 세상에서 임금을 뒤로 여기고 어버이를 떠나며 남편을 배반하는 무리가 그 땅을 밟는다면 반드시 넘어지고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옛날 증자(曾子)가 승모(勝母)의 마을에서 수레를 돌린 것[51]은 지명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곳의 지명이 아름다우니, 어찌 수레에 기름을 쳐서 한번 찾고 싶은 소원이 없겠는가만, 늙고 병들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일을 기록해 달라는 부탁은 부러운 마음을 가진 입장에서 문장이 졸렬하다고 굳게 사양할 수 없었다.

때는 전몽대연헌(旃蒙大淵獻, 을해, 1935) 3월에 가선대부 전 행 규장각부제학 팔계(八溪) 정봉시(鄭鳳時)[52]가 삼가 기록하다.

---

50 조양산(趙梁山) 부자(父子) : 조영규(趙英圭, 1535~1592)와 그이 아들 조정로(趙廷老)를 말한다.

51 증자(曾子)가……것 : 『사기』〈추양열전(鄒陽列傳)〉에 증삼(曾參)은 공자의 제자로서 효도로 이름났었는데, 승모(勝母)라는 마을 이름이 어머니를 이긴다는 뜻이었으므로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52 정봉시(鄭鳳時, 1855~1937) : 자는 성소(聖韶), 호는 송리(松里),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12. 북이면 원덕리 전일귀(全日貴) 효자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573(원덕) • 제작연대 1789년
• 크　기 남은 높이 100, 너비 46, 두께 17.7

전일귀(全日貴) 효자비는 장성에서 정읍으로 가는 1번 국도가 원덕리 마을을 통과하기 직전 도로변(새 도로 아래쪽)에 세워져 있다. 옆에는 1977년에 지역 주민들이 새로 세운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 상단부가 파괴되었는데 대략 ⅓ 정도로 추정된다. 둥그런 자연석 비좌 위에 검은색 돌 비신을 세웠다. 이 비석은 원덕마을 사람들이 세웠던 것으로, 동학혁명 때 전봉준을 위시한 동학군들이 여기서 쉬어가다가 전일귀의 효도에 탄복하고, 또한 같은 전씨라 하여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주었는데, 그 뒤 관군들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실을 알고 전봉준에 대한 악화된 감정이 올라와 그 비석

을 때려부수어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현재 앞면은 '일귀지비(日貴之碑)'라는 글자만 남았다. 앞면의 대자 글씨는 기유(奇洧)가 쓰고, 뒷면 비문은 유명천(劉命天)이 썼다. 좌우측면에는 글씨가 없고 뒷면에는 10행 24자의 글씨가 남아 있다.

전일귀는 조선 정조대의 효자로, 원덕리 사람이었다. 원래는 불효자였으나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모친상을 당한 뒤에 시묘살이를 할 때는 호랑이가 그를 지켜주었다고 한다. 전일귀의 효행이 알려져 조정에서 명정(銘旌)을 내리고 향중 유림들이 비를 세워 전일귀의 효행을 기렸다고 한다.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 기록(기유년 8월 28일 일기)에 의하면 "김군 두 사람과 서로 작별하고 원덕점(院德店)을 지나가다가 옛 효자 전일귀의 비석을 찾아가 보았는데, 곧 내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깊이 부러워하던 것이다. 근래 복호(復戶)의 명이 있어서 향인들이 합력하여 길가에 비석을 세웠는데, 기로(奇老)가 동쪽 면에 대자를 쓰고 그 좌우에 모두 10구의 명(銘)을 보태었고, 부사 임준호(林俊浩)가 음기를 지었는데, 빠뜨린 것은 내가 또 그 남쪽 모퉁이에 이어 지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어서 <孝子全日貴碑續記>[53]를 적었다.

즉 황윤석의 기록을 참조해볼 때 1789년에 비석이 세워졌고, 앞면(동쪽면)에는 기유(奇洧)가 쓴 "孝子全公日貴之碑"라는 큰 글씨와 기유가 지은 좌우의 10구 명(銘)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부사 임준호(林俊浩, 1787~1790년 재임)가 짓고 유명천(劉命天)이 쓴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측면(남쪽)에는 황윤석이 비문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넣은 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측면에서는 글씨를 찾아보기 힘들다.

구비와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신비가 세워져 있는데, 1977년에 변시연(邊時淵)이 짓고 이병현(李炳鉉)이 쓴 것이다.

【전면】

又奔哭

(孝子全公)**日 貴 之 碑**

之感

幸州奇洧書幷銘

【후면】

一鄕其遺風餘韻豈無觀感而▨

右日貴卑微人也少而尙氣放逸父憂而責之孝子始感悟革

二親盡誠敬父病飢齋沐而禱指血而進絶而復甦後竟不淑

53 황윤석의 『이재난고』 기유년 8월 28일 일기 중 <孝子全日貴碑續記>, "於玆文靖金子之鄕 天安全孝子日貴遺跡之刻也 備矣休哉 然靡我先英宗大王五十年 作人盛化 又曷其興孝若是 輒本之補之 庶太史氏采焉 大統餘分三己酉抄秋 前翊贊越松黃胤錫續識"

者咸感悅及葬廬墓朝夕哭踊風雨而不廢家人往省責以
虎當廬而據孝子患之呪曰吾守親墓而誠未篤爲汝所害
也虎俛而聽若有會意者輒曉往暮來如相護去母繼逝
是冠盖過廬下者屛騶躬存行旅亦莫不咨嗟起敬道
焉孝子歿鄉人懼泯沒立石以表之蓋全君地卑
天之孝而凡民之秀者也其姓籍天安云爾
劉命天 書

13. 북하면 대악리 여주이씨(驪州李氏) 정려각

•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435(풍기) • 제작연대 1900년(光武四年)
• 크　기 1×1칸, 우진각지붕

대악리 풍기마을에서 남동쪽 방향인 작은아타골로 가는 길가 양씨묘역 맞은편에 양종기(梁鍾麒)처 여주이씨(驪州李氏) 정려각이 있다. 원래 대악리 대방마을 입구 길가에 훼손이 심한 상태로 있었으나 최근 주변 도로개설 후 현재의 위치로 이설했다. 정려각은 붉은벽돌로 낮은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우진각지붕 형태의 목조와가 건물이다. 내부에는 정려현판 1개와 정려기 현판 1개가 걸려 있다. 정려 현판은 광무 4년에 기록한 것이고, 정려기는 1893년에 기우만(奇宇萬)이 쓴 것이다. 그런데 기우만의 문집『송사집』에는 관련글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정려 현판 뒤에도 기록이 있으니, 바로 '有明」朝鮮孝」烈女」梁鍾麒」妻」驪州李氏」之生旌」閭」光緖十九年癸巳月日'이라는 내용이다. 즉 나라에서 정려문을 내리기 7년 전인 1893년에도 이미 정려문을 건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이씨가 살아있을 때이다.

여주이씨는 양종기 처로 일찍이 부군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정성을 다하여 간호했으나 차도가 없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였으며, 남편이 죽자 따라 죽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였으니 열부(烈婦)가 효부(孝婦)를 겸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효열부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1900년에 정려를 받아 세웠는데, 이미 7년 전에 정려의 명을 받은 것이다.

【현판1】

孝烈女

贈童蒙教官」朝奉大夫」梁鍾麒妻」贈淑人」驪州李氏」之閭

光武四年五月日

【현판2】

孝烈婦李氏生　旌閭記

近世以夫死下從爲烈吾不曰不烈而不以亡夫之心爲心則蓋有未盡於烈者矣與李氏心亡夫心而不死者豈可同曰而語也第念己身爲父單子無他兄弟而死托其妻以終養吾父雖未及發於口而心中豈有他哉不思亡夫之心托而遽以下從使老舅失養則亡夫之目未瞑於九原矣此則李氏之罪人也李氏歸梁氏爲鍾麒妻夫沉疴祝天願代五朔如一日不救則裂指灌血自恨誠薄矢心下從旣而曰舅老誰養起視事誠信喪葬養舅加夫在舅今八十餘無恙此烈婦兼孝婦也鄕里嘉之交章縣道事聞而　旌蓋實行也豈惟一時之褒闡有修東國言行者必不以李氏闕焉嗚呼舅已八十餘天年之後吾恐李氏又下從其夫以伸己心歸以吾言告之立族子爲後以成家戶亦未嘗非亡夫心也李氏之伸己心恐無其日也梁君鍾雲鍾龍李氏夫家人以記事之文屬余時

癸巳孟秋幸州后人 奇宇萬書

〈효열부(孝烈婦) 이씨(李氏) 생정려기(生旌閭記)〉

근세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것을 열(烈)로 여기는데, 내가 열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죽은 남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지 않는다면, 대개 열(烈)에 미진한 점이 있을 것이니, 이씨(李氏)가 죽은 남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죽지 않은 것과 어찌 똑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자신이 부모의 외아들이고 다른 형제가 없이 죽을 경우 그 아내에게 내 부모를 종신토록 봉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비록 말로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죽은 남편이 마음으로 부탁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따라 죽음으로써 늙은 시아버지로 하여금 봉양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죽은 남편의 눈은 저승에서도 감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씨가 죄인인 것이다.

이씨(李氏)가 양씨(梁氏)에게 시집가서 종기(鍾麒)의 처가 되었는데, 남편이 병들자 하늘에 대신 죽기를 빌면서 5개월을 하루같이 하였고, 구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먹이면서 자신의 성의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한탄하여 따라 죽으려 맹세하였다. 이윽고 말하기를 "늙은 시아버지는 누가 봉양할 것인가?"라고 하고는 일어나 일을 보면서 장사 치르는 것과 시아버지를 봉양하기를 성신(誠信)으로 하여 남편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하였다. 시아버지가 지금 80여 세인데도 무탈하니, 이는 열부(烈婦)가 효부(孝婦)를 겸한 것이다. 향리(鄕里)에서 가상히 여겨 현(縣)과 도(道)에서 서로 글을 올리고 일이 알려져 정려를 내렸으니, 대개 실재 행적이다. 어찌 오직 한 때의 표창일 뿐이겠는가? 동국(東國)의 언행을 기록하는 자가 있으면 필시 이씨를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오호라! 시아버지가 이미 80여 세이니, 돌아가신 뒤에 나는 이씨가 또 그 남편을 따라 죽어 자신의 마음을 펼칠까 두렵다. 돌아가 나의 말로 고하시라. 족자(族子)를 세워 후사로 삼아 집안을 성립시키는 것 또한 죽은 남편의 마음이 아닌 것이 없다고. 이씨가 자신의 마음을 펼 수 있는 날이 아마 없을 것이다.

양군(梁君) 종운(鍾雲)과 종룡(鍾龍)은 이씨(李氏)의 남편 집안사람인데, 일을 기록하는 글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때는 계사년(1893) 초가을에, 행주(幸州) 후인(后人) 기우만(奇宇萬)이 쓰다.

14. 북하면 신성리 윤진(尹軫) 순의비(殉義碑)

•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696(입암산성) • 제작연대 1742년(崇禎紀元後再壬戌)
• 크　기 전체높이 163, 비신높이 122.5, 너비 58.5, 두께 28.5

임진왜란 때 장성 입암산성(長城笠岩山城, 사적 제384호)에서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윤진(尹軫, 1548~1597)을 기리는 비석으로, 입암산성 내에 있다. 장성부사 이현윤(李顯允)이 조정의 명을 받아 세웠다. 윤진 순의비 옆에는 윤진의 부하 이경국과 이안국을 기리는 정유재란비도 세워져 있다. 비는 자연석을 비좌로 삼고 비신이 들어갈 만큼 파내서 비신을 세운 뒤 위에는 팔작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올렸다. 주변에는 돌을 쌓아 작게 담장을 둘렀던 흔적이 남아 있다. 비의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윤진 장군의 행적과 윤진 장군이 죽자 부인 권씨가 자결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비문은 26행 37자이다.

윤진과 관련된 자료는 『강재집(剛齋集)』의 <오천김공행장(鰲川金公行狀)>과 권필의 『석주집(石洲集)』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필의 누이가 윤진에게 시집갔는데 정유년(1597) 8월 매부 윤진이 남원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자 누이도 자결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비에 적힌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두전] 贈左承旨尹公殉義碑銘

【전면】

有明朝鮮國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尹公殉義碑銘竝序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權磏撰

通政大夫長城都護府使李顯允書

昔在趙宋末元兵徇池州通判趙公昺發繕壁聚糧爲固守計及至事不可濟乃置酒會親友與訣謂妻雍氏曰吾守臣不當去汝先出走雍曰若爲忠臣吾獨不得爲忠臣婦乎願與同死昺發笑而許之遂與共縊于從容堂不俟讀書至此未嘗不掩卷流涕悲其事奇其節今觀夫栗亭尹公事蹟其夫婦同死節義雙成眞可謂千載一揆百世相感者詎不偉歟烈哉謹按公諱軫字季邦坡平人也麗代諱英贊以討賊功封南原四代祖諱諿禮部員外與成三問朴彭年友善　光廟朝棄官歸長城考諱剛元判校以直道屢忤權凶杖配楊口寔娶縣監李時榮女生公于配所嘉靖二十七年戊申歲也甫髫齔河西金先生一見大異之期以遠大稍長不事擧業留心正學逮遭判校艱居廬三年攀慕踰度朝夕哭墓哀動傍人閎制擧孝行拜　慶基殿參奉例陞奉事庚寅丁內艱壬辰正月去喪四月倭寇犯京城遂挈家歸長城別業公素性慷慨慕古人節義每月夜誦諸葛公出師表胡澹庵封事未嘗不擊節於邑至癸巳湖南伯李公廷馣以笠巖山城形

【후면】

勢斗拔可以遮截賊路　啓公董築公以爲此城卽　國家保障重地遂應辟不辭身操版鍤日夜籌畫設砲樓建倉庫儲軍糧以固必守丁酉秋賊兵陷閒山島公携妻子入城及南原失守兇鋒遍湖甸公之親舊咸勸出避曰公受　命築城不受命守城公正色曰此城城乃吾死地今日乃吾死日隣守數人約與共守者皆不至公獨聚義兵數百竭力警守城陷戈劍交勁而顔色不

變罵不絶口兀坐受刃妻權氏故參議擘之女見賊至引佩刀自決賊義而哀之不脫衣服而去倘所謂夫婦同死節義雙成者豈不信然矣乎亂定　贈公左承旨旌閭權氏隱卒之典亦至矣噫公之世德可見於南原禮部兩公而公早受判校公義方之訓耳濡目染無非忠孝節行畢竟所成就如彼卓卓至今湖中父老說其事往往出涕義烈之感人有如此也長城守李公顯允莅任二載百廢俱興尤致力於固圍崇節之方首先修治笠巖城偏感公義烈伐石樹碑欲表章事實以激勵來世遂馳書請記之不佞適按此道而權夫人寔爲從高祖姑顧念先故義不敢辭略述公立懂始末以歸之凡我同志之士庶或諒余慕義感舊之心而恕其僭妄也耶係曰瞻彼南紀有岩屹屹夫死於忠婦死於節一體成仁萬古並烈嵓之不泐名與不滅

崇禎紀元後再壬戌十月 日立

〈유명 조선국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윤공 순의비명 병서〉

옛날 조송(趙宋) 말엽에 원나라 군대가 지주(池州)를 침범했을 적에 통판 조묘발(趙昴發)이 성벽을 수리하고 양식을 모아 굳건히 수비할 계책을 행하다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미쳐서는 마침내 술자리를 두고 벗들을 모아 더불어 이별하고, 아내 옹씨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을의 수령[守臣]이라서 떠날 수가 없소. 그대는 먼저 탈출하시오."라고 하니, 옹씨가 말하기를 "당신이 충신이 되는데 저인들 충신의 지어미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원컨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묘발이 웃으며 이를 허락하고 마침내 함께 종용당(從容堂)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재주 없는 내가 글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일찍이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슬피 여기고 그 절개를 기특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제 저 율정(栗亭) 윤공(尹公)의 사적을 보니, 그 부부가 함께 죽어 절개와 의리를 함께 이룬 것은 참으로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통하는 동일한 도리이며, 백세(百世) 뒤에도 서로 감통(感通)한다'는 것이라고 말할만하다.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장렬하도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진(軫)이요, 자는 계방(季邦)이며, 본관은 파평이다. 고려 때의 휘 영찬(英贊)은 도적을 토벌한 공으로 남원군에 봉해졌으며, 4대조 휘 혜(譓)는 예부 원외랑이 되어 성삼문·박팽년과 벗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광묘(光廟, 세조) 때에 관직을 버리고 장성으로 귀향하였다. 부친이신 휘 강원(剛元)은 판교로써 바른말을 하여 여러 번 권세가를 거스르다가 양구(楊口)로 장배(杖配)되었는데, 이 사람이 현감 이시영(李時榮)의 딸을 아내로 맞아 유배지에서 공을 낳았으니 가정 27년 무신년(1548)이었다.

초츤의 나이에 하서 김선생께서 한번 만나보고 크게 특이하게 여겨서 원대한 성과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금 장성하여서는 과거공부를 일삼지 않고 바른 학문에 마음을 두었다. 부친상을 당함에 미쳐서는 삼년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 사모함이 정도를 지나쳐서 아침저녁으로 묘에서 통곡하니, 슬픈 소리가 주변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복을 마친 후 효행으로 제거(制擧)되어 경기전 참

봉에 제수되었다가 관례대로 봉사에 승진되었다. 경인년(1590)에 모친상을 당하여 임진년 정월에 탈상하였는데, 4월에 왜구가 경성을 침범하자 마침내 가솔을 이끌고 장성의 별업(別業)으로 돌아왔다.

공은 본디 타고난 성품이 강개(慷慨)하고 옛사람의 절의를 사모하여 매양 달 밝은 밤에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와 호담암(胡澹庵)의 봉사(封事)를 송독할 때마다 일찍이 무릎을 치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계사년(1593)에 이르러 전라관찰사 이정암(李廷馣)이 입암산성의 형세가 험준하고 우뚝 솟아서 왜적의 행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여겨 계문(啓聞)하고 공에게 축성을 감독하게 하였다. 공이 이 성은 곧 국가의 보장중지(保障重地)라고 여겨서 마침내 부름에 응하여 사양하지 않았다. 몸소 판자와 삽을 잡고 밤낮으로 계책을 세워 포루를 설치하고 창고를 세워 군량미를 저장함으로써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였다.

정유년 가을에 적군이 한산도를 함락시키자 공이 처자를 이끌고 성으로 들어왔다. 남원이 함락되고 적의 칼끝이 경기·충청까지 다다른 때에 미쳐서는 공의 친구들이 모두 성을 나가 피할 것을 권하며 말하기를, "공은 성을 쌓을 것만을 명받았지, 성을 지키라는 명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공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이 성이 바로 내가 죽을 곳이요, 오늘이 바로 내가 죽을 날이다."라고 하였다. 이웃 고을의 수령 몇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약조한 자들이 모두 오지 않자, 공이 홀로 의병 수백 명을 모아 힘을 다해 경계하고 지켰으나 성이 함락되었다. 창칼로 겨루면서도 안색이 변치 않았으며, 적을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그치지 않았고 꼿꼿이 앉아 칼날을 받았다.

아내 권씨는 고 참의 권벽(權擗)의 딸인데, 도적이 다다른 것을 보고 차고 있던 칼로 자결하였다. 왜적들이 부인을 의롭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 의복을 벗기지 않고 떠났으니, 과연 이른바 부부가 함께 죽어 절개와 의리를 함께 이루었다는 말이 어찌 사실임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난이 평정되자 공은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부인 권씨는 정려를 받았으니, 죽은 공신을 애도하여 추봉하는 법[隱卒之典]이 또한 지극하다 아! 공의 대대로 전해지는 덕은 남원(南原, 윤영찬)과 예부(禮部, 윤혜) 두 공(公)에게서 볼 수 있다. 공이 일찍부터 판교공(윤강원)의 가르침을 받아 귀로 익숙히 듣고 눈으로 익숙히 본 것이 충효와 절행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마침내 성취한 것이 저와 같이 탁월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호중(湖中)의 부로들이 그 일을 말하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니, 의열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이와 같음이 있구나!

장성수령 이현윤(李顯允)이 부임해온 지 2년 동안에 온갖 폐해졌던 좋은 제도를 모두 다시 행하고, 변방의 방비를 굳건히 하고 절의를 숭상하는 방도에 더욱 힘을 다하였다. 가장 먼저 입암성을 중수하였는데, 공의 의열에 유달리 감동하여 돌을 다듬어 비석을 세우고 의열을 표창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을 격발시키고자 하였다. 마침내 글을 보내 비문 써주기를 청해오니, 재주 없는 내가 마침 이 전라도의 관찰사이고 권부인이 나의 종고조모가 되는지라, 선조의 의리를 되돌아보면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 대략 공의 입근(立懃, 절의를 위해 목숨을 버림)한 시말을 기술하여 우리의 뜻을 같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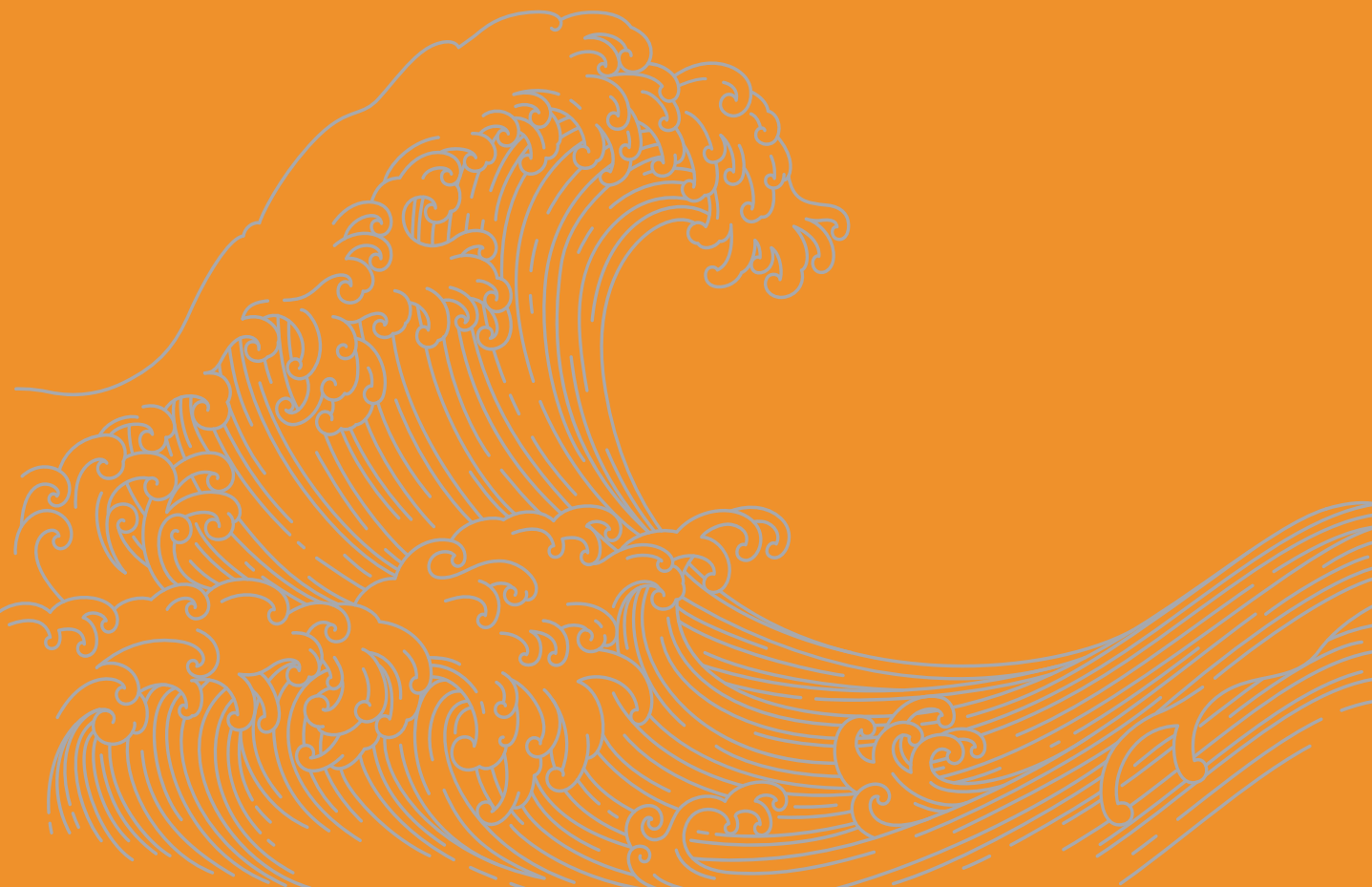
선비들에게 돌린다. 혹여 나의 의를 사모하고 옛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참람되고 망령됨을 용서해주겠지? 이어서 찬하노라.

瞻彼南紀　　저 남쪽의 강기(綱紀) 바라보니,
有岩屹屹　　바위처럼 우뚝하구나.
夫死於忠　　남편은 충성을 다하여 죽고,
婦死於節　　아내는 절개를 지켜 죽으니,
一體成仁　　한 몸 되어 인을 이뤘도다.
萬古並烈　　만고에 나란한 의열,
嵂之不泐　　부서지지 않는 바위와 같아서,
名與不滅　　이름과 함께 없어지지 않으리.

숭정기원 후 두 번째 임술년(1742) 10월에 세움.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 권적(權樀)이 글을 짓고, 통정대부 장성도호부사 이현윤(李顯允)이 글씨를 쓰다.

Ⅴ. 기타 금석문



1. 장성읍 유탕리 오성진곤비(鰲城鎭坤碑)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36 • 제작연대 1880년(崇禎紀元後伍庚辰)
• 크　기 전체높이 237, 비신높이 227, 너비 63, 두께 30

오성진곤비(鰲城鎭坤碑)는 유탕리 장성 소방서 건너편 개인집 정원 안에 있다. 옆에는 진원리 오층석탑으로 전해지는 오층석탑이 서 있다. 호패형 비석으로 이중무늬가 있는 사각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내용은 진원과 오산이 합쳐진 뒤 백성들이 생활이 빈곤하게 된 것은 산이 대부분 우거지고 물도 세차게 내달리게 되어 수구에 결함이 있게 된 것이니, 수구의 결함이 있는 곳에 산을 쌓고 탑을 세워야 지탱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병자년(1876) 봄에 진원의 폐사지에서 탑을 운반하고 조산을 하다가 흉년을 만나 중도에서 그치고 3년이 지난 기묘년(1879) 가을에 일을 다시 시작하여 일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문에는 1880년 9월에 호장 손의환(孫宜煥), 이방 이용원(李容元), 감관 정의행(鄭義幸)·서일용(徐馹龍), 색리 손의규(孫宜奎)·공창규(孔昶奎) 등이 주도하여 세운 기록이 들어있다. 비문은 16행 43자이다.

【전면】

[두액] 鰲城鎭坤碑

天有缺而媧石補焉地有傾而鰲柱鎭焉陟州之退潮碑爲州民而防災潭州之翁仲石因地形而縫虛蓋以天

地尙有不足而人自用功而完之可使參天地贊造化者也粤若長城之爲邑曾是二縣南曰珍原北曰鰲山在

昔龍蛇兵火之餘合爲一府卽長城府也以來數百年邑孱民貧其故何也堪輿家云山多莽鬱水亦奔射水口

傾缺必築山立塔庶可支將乃於府之南爲造山竪塔之計丙子春鳩財合丁一以造山一以運塔塔卽舊珍原

廢久者也經紀未了歲値大無半途而止越三年己卯秋更董人民負石而築之簣土而積之大其小高其低累

累然平地起峰足可謂一拳石之多也府民又各出力建其未建之塔彌月告訖山不過數仞石不過數層而自

府中望之若越州之飛來峰也嗚呼人誠所到必有天感而地應府民庶幾有安堵富興之望乎夫物之廢興不

可得以知也安知幾百年冥行黑月墜坎之身移作今日之功塔乎然而修善如山之積成據德如塔之峻峙進

而不虧久而不泐亦可以永世保完矣

崇禎紀元後伍庚辰九月　日

【후면】

時　戶長 孫宜煥

吏房 李容元

監官 鄭義幸

徐馹龍

色吏 孫宜奎

孔昶奎

〈오성의 땅 기운을 진압하는 비〉

하늘에 결점이 있으면 와석(媧石)[54]으로 보충하고, 땅에 결점이 있으면 자라처럼 생긴 돌로 눌러 준다. 척주(陟州, 삼척)에는 퇴조비(退潮碑)를 세워 고을 백성들을 위하여 재앙을 막았고, 담주(潭州, 담양)에는 옹중석(翁仲石)으로 지형의 결점을 메웠으니, 대개 하늘과 땅에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하고 천지에 참여하여 조화를 도운 것이다.

장성의 고을은 일찍이 두 현(縣)이었으니, 남쪽은 진원(珍原)이고 북쪽은 오산(鰲山)이다. 옛날 임진왜란을 겪은 나머지 합하여 한 부(府)가 되었으니 즉 장성부(長城府)이다. 이후 수백 년을 지내오는 동안 고을은 잔약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니,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풍수지리가들이 말하기를 "산이 너무 우거졌고 물도 세차게 내달리니, 수구가 결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산을 쌓고 탑을 세워야만 거의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의 남쪽에 산을 만들고 탑을 세우는 계획을 하고, 병자년(1876) 봄에 재물을 모으고 장정들을 규합하여 한편으로는 산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탑을 운반하니, 탑은 곧 옛 진원의 폐한 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흉년을 만나 중도에서 그치고, 3년이 지난 기묘년(1879) 가을에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여 돌을 짊어져다 토대를 다지고 흙을 삼태기로 담아다 쌓아갔다. 작은 것을 크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하길 거듭하다 보니, 평지에 봉우리가 솟아났다. 과연 주먹만한 돌이 많이 쌓인 것이다. 부민들도 각각 힘을 쏟아 세우지 못한 탑을 세워 한 달만에 일이 끝남을 고하니, 산은 몇 미터에 불과하고 돌은 몇 층에 불과하지만, 부중(府中)에서 바라보면 중국 월주(越州)의 비래봉과 같다.

아! 사람들의 정성이 지극한 곳에는 반드시 하늘과 땅이 감응함이 있는 것이니, 부민들은 거의 안도하고 부흥하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대저 사물의 흥폐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몇백 년 동

---

54 와석(媧石) : 여와씨(女媧氏)의 돌. 여와씨는 중국 상고의 임금 복희씨(伏羲氏)의 누이로서 복희씨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어 처음으로 생황(笙簧)을 만들었고, 제후 공공씨(共工氏)가 축융(祝融)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화가 나서 머리를 부주산(不周山)에 부딪쳐 죽자 천주(天柱)가 부러지고 지유(地維)가 손상되니, 여와씨가 오색석(五色石)을 만들어 하늘을 보완하고 오족(鰲足)을 잘라서 사극(四極)을 세웠다 한다.

안 컴컴한 밤에 어둡게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는 몸이 금일의 공든 탑을 세워 재앙이 없어짐을 알겠는가? 그러나 착한 일 닦기를 산을 쌓은 것 같이하고, 덕에 의거하길 탑을 높다랗게 세운 것 같이하여 나아가서 이지러지지 않고 오래되어도 닳아지지 않는다면, 또한 영세토록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승정기원 후 다섯 번째 경진(1880년) 9월 일,

담당한 사람 : 호장 손의환(孫宜煥), 이방 이용원(李容元)

감관 정의행(鄭義幸)·서일용(徐馹龍), 색리 손의규(孫宜奎)·공창규(孔昶奎)

2. 삼계면 화산리 축맥식목기(築脉植木記)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산148-2(부성) • 제작연대 1803년(嘉慶八年)
• 크 기 전체높이 125, 비신높이 105, 너비 47-41, 두께 17

삼계면 화산리 부성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비로, 화산마을에서 액을 막기 위해 재물을 모아 논을 사고, 맥을 쌓고 나무를 심은 것을 기록하여 1803년에 세운 비이다. 비는 삼계에서 화산마을 앞을 지나 부성마을 버스정류장 못 미쳐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200미터 쯤 가면 보호수가 여러 그루 있고, 그 오른쪽 길가에 서 있다. 위치는 화산마을 동쪽에 해당되고, 마을에서는 '이장춘비'라고 전한다.

비문의 대략은 '마을의 성쇠와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청룡의 맥이 끊어진 까닭이므로 재물을 모아 논을 마련하여 맥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보호수가 그 때 심은 나무일

수도 있겠다. 원형의 비좌에 시멘트를 바르고, 원수형으로 위가 아래보다 넓은 비신을 세웠다. 원형 비좌가 원래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비신의 후면은 다듬지 않았다. 시멘트에는 '소내면작'이라 썼는데, 보수할 때 쓴 것이다. 비문은 5행 15자이다.

【전면】

花山卽舊基而村之盛衰人之夭札由
於靑龍之斷脉故 嘉慶五年春
乞功鳩財買得餘字畓四升付於李
再雲處築脉植木永矢保護用壽于
石 嘉慶八年七月日 李▨▨ 筆

화산(花山)은 바로 옛터인데, 마을의 성쇠와 사람의 요절이 청룡의 단맥(斷脈, 맥을 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때문에 가경(嘉慶) 5년 봄에 걸공(乞功)하고 재물을 모아 여자답(餘字畓) 4승락을 사서 이재운(李再雲)에게 부치며, 혈맥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영구히 보호하도록 하고, 돌에 새겨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한다.

가경(嘉慶) 8년(1803, 순조3) 7월에 李○○가 쓰다.

3. 황룡면 맥호리 난산비(卵山碑)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0번지(맥동)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241호(2003.10.4)
• 제작연대 1843년(皇明永曆四癸卯) • 크　기 전체높이 190, 비신높이 175, 너비 76, 두께 40

난산비는 맥호리 난산 위의 비각 속에 서 있는 비석으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매년 인종(仁宗, 재위 1544~1545)의 기일(忌日)이면 난산(卵山)에 올라 북망통곡(北望慟哭)했던 것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연판문의 사각 대석 위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비문은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이 짓고, 이익회(李翊會, 1767~1843)가 글씨를 썼다. 앞면 상단에 전서(篆書)로 '난산지비(卵山之碑)'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비석의 우측면에는 1843년에 홍문관교리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이 쓴 추기(追記)가 있다. 윤정현은 윤행임의 아들로, 광주목사(光州牧使) 조철영(趙徹永, 1777~1853)의 성현(聖賢)을 존숭하는 정성에 힘입어 비석을 건립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비문은 31행 26자이다.

【전면】

[두전] 卵山之碑

卵山碑

通政大夫吏曹參議 奎章閣檢校直閣知製 敎尹行恁撰

資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提學 李翊會書

聖子山西行十有五里爲筆巖有屋穹然而起者河西金先生之祠也祠之傍有谷曰願堂而墓者金先生衣履之藏也墓南有山如卵形故曰卵山處乎平野之中其高不及尋仞而尙能使志士仁人旁皇瞻顧歔欷不忍去望之若魁斗仰之若嵩華者乃金先生慟哭之地也哭者哀聲也心有感發之爲聲其感切故其聲哀其聲哀故天地動而鬼神泣是以鄒子仰天而哭夏日爲之降霜杞氏之婦善哭而國俗變嗚呼先生胡爲乎哭之慟也噫嘻必有以也其可已而不

【후면】

可已也歟余嘗聞先生之哭盖在 孝陵之諱辰而輒北望長慟竟夕而返初先生以講官事 孝陵日講學雷肆被眷遇甚隆 鶴駕至直廬朝夕從容者屢嘗畫竹數本出崖谷間亭亭有擎天之勢因予之先生先生起而拜之遂以身許及 孝陵光御寶位仁聞薄海人皆想望新化而時事顧凜然纔數月遽棄群臣當是時受特達之知而抱不窮之寃直欲籲天不顧其生者惟先生一人耳遂携畫竹歸鄉不受祿以沒其身先生之哭 諱辰於此凡十有五年而止嗚呼 孝陵聖人也得一先生焉將以大有爲也運之嗇也聖人亦無可奈何故歲寒之期盡以喩意然則先生之哭雖在滄桑百變之餘湖山千里之外其心之感而哀哀而慟慟而至於哭之而不能已者

【좌면】

嗚呼可知也已先生諱麟厚諡曰文靖後孫直賢莊士也將伐石以表之問于余余遂泣而書曰

世傳 孝陵石人之像慽慽乎若號泣狀盖彼匠氏之微尙能感 孝陵之仁而相其役也故其眉眼愀然如號而如泣今若有如古匠氏鐫之吾知其後百世而可與語者惟此一片之石

【우면】

此吾先大夫之所撰也

正廟丙辰從祀先生于夫子廟改諡文正此書文靖初諡也碑文之成盖在丙辰前而余幼不能記也今年春光州牧使趙候徹永伐石以刻之俾余爲識余惟先生之於玆山不可無碑而二

卯山碑

通政大夫吏曹參議 奎章閣檢校直閣知製 教尹行恁撰
資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提學李翊會書

聖子山西行十有五里為華巖有屋宇欤而起者河西金先生之祠也祠之傍有谷曰願堂而墓者金先生衣屨之藏也墓南有山如卯形故曰卯山歲乎平野之中其高不及尋仞而尚能使志士仁人景皇瞻顧歔欷不忍去望之若魁斗仰之若嵩華者乃金先生慟哭之地也哭者哀聲也心有感發之為聲其感切故其聲哀其聲哀故天地動而鬼神泣是以鄒子仰天而哭夏日為之降霜杞氏之婦善哭而國俗變嗚呼先生胡為乎哭之慟也噫嘻必有以也其可已而不

百年後始克有文父之成又將五十年乃克立之今而後人皆知先生痛哭之處卽玆山也非趙候尊賢慕古之誠疇克有成哉余於是尤有感焉

皇明永曆四癸卯 月　　朝奉大夫行弘文館校理尹定鉉謹識

〈난산비(卵山碑)〉

성자산(聖子山) 서쪽 15리 필암(筆巖)에 우뚝 솟아오른 건물이 있으니, 하서(河西) 김선생(金先生)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사당 곁 원당곡(願堂谷)에 있는 묘는 김선생의 옷과 신발이 묻힌 곳이다. 묘의 남쪽에 알처럼 생긴 산이 있으므로 난산(卵山)이라고 하는데, 평야의 가운데 있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오히려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으로 하여금 머뭇거리고 돌아보며 슬픔에 잠겨 차마 떠나지 못하게 한다. 바라보면 마치 북두와 같고, 우러러보면 숭산(嵩山)이나 화산(華山)과 같은 것은 바로 김선생이 통곡한 곳이다.

곡이라는 것은 슬픈 소리이니,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 발하여 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 느끼는 것이 간절하므로 그 소리가 애처롭고, 그 소리가 애처로우므로 천지가 감동하고 귀신이 운다. 이 때문에 추자(鄒子)가 하늘을 향해 통곡하니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55] 기씨(杞氏) 부인이 곡을 잘하여 나라의 풍속이 변하였다.[56]

아! 선생은 어찌하여 애통하게 곡을 하였는가? 아!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그만둘만하여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이리라. 내가 일찍이 듣건대, 선생의 통곡은 대개 효릉(孝陵, 인종(仁宗))의 휘신(諱辰)에 있었는데, 문득 북쪽으로 바라보며 길게 통곡하다가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였다.

처음에 선생이 강관(講官)으로서 효릉을 섬겨 날마다 뇌사(雷肆,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강학하고 매우 융숭한 권우(眷遇)를 입었다. 학가(鶴駕)[57]가 숙직하는 방에 이르러 조석으로 머문 것이 여러 번이었다. 일찍이 대나무 몇 그루가 바위 골짜기에서 솟아난 그림[58]을 그렸는데, 우뚝 솟아 하늘을 받드는 기세가 있었다. 인하여 선생께 주니 선생이 일어나 절하고 마침내 마음을 다하기를 맹세

---

55 추자(鄒子)가……내리고 : 추연(鄒衍)은 전국시대 연(燕)나라 사람으로 소왕(昭王)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뒤에 소왕이 죽고 혜왕(惠王)이 즉위하자 신하들의 모략을 받아 투옥되었다. 이에 추연이 감옥에서 통곡을 하자 여름철이었는데도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論衡 變動篇』

56 기씨(杞氏)……변하였다 :『맹자 고자(告子)하』에 "화주와 기량의 아내가 그 남편의 상(喪)에 곡을 잘하여 나라의 풍속을 변화시켰다.[華周杞梁之妻, 善哭其夫而變國俗]"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주(註)에서 "화주와 기량 두 사람은 모두 제나라 신하이다. 거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 아내들이 곡하기를 애통하게 하니, 나라의 풍속이 변화하여 모두 곡을 잘하게 되었다.[華周杞梁, 二人皆齊臣, 戰死於莒, 其妻哭之哀, 國俗化之, 皆善哭.]"라고 하였다.

57 학가(鶴駕) :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太子)인 진(晉)이 일찍이 백학(白鶴)을 타고 구지산(緱氏山) 꼭대기에 머물렀다는 데에서 유래한 고사(故事)로, 세자의 거가(車駕) 또는 태자를 이른다.『漢語大詞典』

58 대나무……그림 : 김인후가 시강원 겸설서(侍講院兼說書)로 입직하고 있을 때 당시 세자였던 인종이 묵죽을 그리고 김인후에게 시를 짓도록 하여, 김인후가 칠언시 1절을 지었는데, 그 묵죽도(墨竹圖)가 필암서원(筆巖書院) 경장각(敬藏閣)에 보관되어 있다.『국역 숙종실록 6년 6월 19일』

하였다. 효릉이 보위(寶位)에 오름에 미쳐서는 어질다는 명성이 온 누리에 펴졌으니,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교화를 기대하였지만 정세가 도리어 늠연하여 겨우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신하들을 떠났다. 이 때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아 무궁한 원통함을 지니고 곧장 하늘에 호소하고자 하여 제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는 오직 선생 한 사람뿐이었다. 마침내 화죽(畫竹)을 가지고 귀향하여 죽을 때까지 작록을 받지 않았다. 선생은 인종의 기일(忌日)이 되면 여기에서 통곡한 것이 무릇 15년이었다.

아! 효릉은 성인(聖人)이다. 한번 선생을 만나서 장차 크게 포부를 펼치려 하였는데, 운수가 인색한 것은 성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세한(歲寒)의 기약[59]은 그림으로 뜻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선생의 통곡은 비록 세상의 많은 변화를 겪은 나머지, 호산(湖山) 천 리 밖에 있더라도 그 마음에 느낌이 있어 슬퍼하고, 슬퍼하여 애통해하며, 애통해하여 통곡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선생의 휘는 인후(麟厚),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후손 직현(直賢)은 단정한 선비이다. 장차 비석을 세워 드러내고자 하면서 나에게 명을 부탁하였다. 내가 마침내 울면서 쓴다.

세상에 전하기를 '효릉의 석인상(石人像)은 근심스럽게 울부짖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니, 대개 저 보잘것없는 장인도 오히려 효릉의 인자함에 감응하여 그 일을 도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호소하는 듯 울부짖는 듯한 것이다. 지금 만약 옛날의 장인과 같은 자가 있어 새긴다면 나는 백대 뒤에 더불어 말할 만한 것은 오직 이 한 비석뿐이라는 것을 알겠다.

통정대부 이조참의 규장각 검교 직각 지제교 윤행임(尹行恁)이 찬하고,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홍문관제학 이익회(李翊會)가 쓰다.

[추기]

이것은 나의 선대부가 지은 것이다.

정묘(正廟) 병진년(1796)에 문묘에 선생을 배향하고 시호를 문정(文正)으로 고쳤다. 여기에서 문정(文靖)이라고 쓴 것은 처음 시호이다. 비문이 완성된 것은 대개 병진년(1736) 이전이므로 나는 어려서 기억하지 못한다. 금년 봄에 광주목사 조철영(趙徹永)이 돌을 캐어 새기면서 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였다. 나는 이 산에 선생에 대한 비석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200년 뒤에 비로소 비문이 있게 되었다. 비문이 완성되고 또 50년 만에 마침내 세우게 되었으니, 지금 이후로는 사람들이 모두 선생이 통곡한 곳이 바로 이 산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현인을 존숭하고 옛 풍모를 사모하는 목사 조철영의 정성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룰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에 더욱 느낌이 있다.

황명(皇明) 영력(永曆) 네 번째 계묘년(1843)에 조봉대부 행 홍문관교리 윤정현(尹定鉉)은 삼가 기록한다.

---

59 세한(歲寒)의 기약: 『논어 자한』에 "해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절개를 굳게 지키려는 의지를 지녔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4. 북이면 사거리 오산남문창의비(鰲山南門倡義碑)

• 소재지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14(사남)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120호(1985. 2. 25.)
• 제작연대 1802년(壬戌) • 크　기 전체높이 195.6, 비신높이 147.8, 너비 62.5, 두께 30.5

오산남문창의비(鰲山南門倡義碑)는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현재 북일면 오산리)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의사(義士)들의 충의정신(忠義精神)을 기리기 위하여 1802년에 호남의 유림(儒林)들이 건립한 것이다. 백양사역에서 사남북길을 따라 남쪽으로 300여미터 떨어진 길가 향좌측에 위치한다. 토석혼축의 돌담장을 두르고 기와지붕을 올렸으며,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비각 안에 놓여 있는 비석은 방형 비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올렸다. 이곳에서 약 3킬로미터 거리에 오산창의사가 있다.

오산 남문창의(南門倡義)는 1592년 7월 20일에 김경수(金景壽)·기효간(奇孝諫)·윤진(尹軫) 등이 격문(檄文)을 각 고을에 보내어 의병을 모아 11월에는 초단(草壇)을 설치, 김경수(金景壽)를 맹주(盟主)로 추대하고 김제민(金齊閔)을 의병장으로 삼았다. 그 후 의병군은 북으로 진군하여 직산(稷山)·진성(振城)·용인(龍仁)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많은 왜병을 사살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

다. 이 비에 새겨진 77인의 선열(先烈) 가운데는 승려가 9명, 노복(奴僕)이 1명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홍양호(洪良浩)가 지었으며, 글씨는 황승원(黃昇源)이 쓰고, 김이도(金履度)가 전액을 썼다. 53행 40자이다.

[문액] 倡義碑閣

[두전] 有明朝鮮湖南鰲山南門倡義碑

【전면】

諸賢位次　贈參判金景男　教官金克純　判官金信男　禦侮將軍崔寶義　義僧將
地主忠定公李貴　主簿金億鎰　察訪李克扶　僉正徐弘渡　贈參議洪繼勳　處能 學仁
盟主同中樞金景壽　贈左參贊金彦勗　學生李克揚　參奉金麒壽　判官金景佑　慈惠 戒閒
義兵將忠剛公金齊閔　贈執義柳希津　贈掌樂正金彦希　奉事朴安東　司僕朴雲　義寶 惠仁
副使 贈參議奇孝諫　內禁將金麟渾　學生柳希汶　別提徐挺厚　部將朴應春　啓默 私奴
參謀佐郎金弘宇　司宰正尹趪　奉事金曄　參奉金蘭　學生全瑞　德忍 愛命
從事 贈參議尹軫　訓練正金溥　縣監金昕　同中樞金德器　學生朴遊　處閒

湖南鰲山南門倡義碑

義穀將縣監奇孝曾　贈參判金弘遠　學生金克溫　學生李元愷　學生金翼熊
從事直長朴璟　軍資正洪遠　同倡　護軍劉德文　學生金武哲
都有司訓導徐滾　子弟從事　直長金後進　主簿鄭忠良　參奉吳仁甲
首倡生員李應鍾　副護軍金光宇　別提金大立　習讀宋廷春　學生金國瑞
贈參判李守一　同中樞金德宇　主簿金垓　部將鄭得良　司果李根
別提鄭愉　直長金溟　奉事金重器　學生曺汝一　□□□□
贈左承旨鄭雲龍　參奉金克厚　參奉金聲振　學生許尙徵　□□□□ □□□□十一年壬戌立

【좌면】

余嘗奉使湖南踰蘆嶺過長城登其南門緬想壬辰擧義之蹟如見諸義士沫血奮拳北首赴難狀爲之愾然興感而恨未能揚厲于今二百年泯翳不章也乃者湖南諸儒發憤倡論呈于禮部又編當時事實名曰南門倡義錄將立碑紀功跋涉千里求辭于不佞余受而讀之昔在萬曆壬辰島夷大擧入寇舳艫蔽海毒丸利劒觸之皆碎先陷釜山東萊凶鋒直指京城趙文烈首擧義旗與高霽峰金健齋先後摧敗三南瓦解人心鼎沸長城人鰲川金景壽聞錦山之敗與同郡奇錦江孝諫尹栗亭軫倡義于郡南門發檄號召於是鄭霞谷雲龍自同郡李四梅應鍾自靈光金白谷弘宇自高敞李隱菴守一自泰仁金瑞石彦勖自潭陽金梅竹景男金竹軒溥洪松菴遠自羅州鄭月村愉自咸平金晩休億鎰金退憂垓金海翁弘遠自扶安奇涵齋孝曾朴竹林璟自光州徐朋來澥自興德尹老坡趪自務安柳執義希津自井邑金參奉聲振自茂長爭起來應各帥子弟與家僮鄉少年會者幾二千李忠定貴時爲邑守助成之於是設

【후면】

壇誓衆推景壽爲盟主鰲峯金齊閔以淳昌縣監擊破熊峙賊聞風來會遂推爲義兵將勒兵許行尙徵軍西向上書獻策于體察使鄭公澈到稷山遇賊斬數十級洪系勳金景佑朴雲朴應春探賊金蘭吳仁甲尤著前至振威又斬偵倭十三進軍龍仁金信男朴安東以繼粮餉聞天將李公如松收復平壤乘勝至碧蹄驛爲倭將行長所敗經略宋公應昌主和禁戰諸義士慟哭捲兵而還退守礪山遏南下之賊奇涵齋聚義穀二千石由水路輸餉于　行在　上嘉之曰凍天颶風千里利涉奇哉于時李四梅聞靈光倅遭喪去官江湖保障不可虛也還守郡城衆推爲將癸巳五月　天兵復南下諸義將發檄召散兵李公貴抄送精銳號曰膽勇軍兵勢益張設奇遮路擒斬賊酋高沛朴儉同又以浙江陣法教邑兵三百應募者益衆前至咸陽聞晉州被圍諸義士從復讐將從高厚入晉陽城與健齋力戰死丁酉八月聞南原急諸義將抽壯士百餘人到全州召募兵粟轉而北上金白谷從　天將解生大破賊于素沙賊走匿傍縣諸將追斬三十餘級奪被俘男女十七人九月罷兵歸嗚呼壬丁之緜卽東方百六之運也當時擁重兵守大鎭者莫不鼠竄而鳥散三京皆沒車駕西遷惟湖南一路獲全疆土　命令始通餽餉不絶終成復國之績實惟　皇朝再造之恩而抑亦諸義士左右扶挈之力若趙文烈高忠烈二公奮身殉國忠義貫日月聲威撼山嶽而如長城南門之擧抑其亞也獨恨不得一當大敵未就雋功而其志其節不可以生死殊觀也況鰲川兩子克厚克純暨金公麟渾徐公弘渡金公彦希駢首於晉陽城栗亭則死於笠巖役又若鄭月村尹老坡金竹軒柳執義金參奉金公溟相繼戰歿可謂無遜於高趙之烈而鄭公忠良六處唐浦乃梁安骨鳴梁露梁曳橋報捷尤可尙矣蓋諸將俱當代名閥或經術稱或文行著其平日所存不但爲一時慷慨捐生之比也由是觀之國家之重儒術所以張士氣也鞏邦基也數百年培植之功於是驗矣可不勒之石而垂諸後乎遂不讓而爲之序張之以辭曰　維壬之夏炎海溢兮長蛇起陸封豕突兮有髡其首齒則漆兮千艘連檣蔽白日兮毒丸如雷舞長鎩兮釜山先焚萊城奪兮火烈風迅莫之遏兮凶鋒直上指京　闕兮列郡披靡如瓦裂兮維高與趙奮忠烈兮自潭至錦次第沒兮天步遠播邦軆疏兮苞桑之繫凜旒綴兮嶷嶷義士共沫血兮鋤耰白梃勇

【우면】

氣勃兮蘆嶺之南長城屹兮飛檄遠邇風聲洌兮如響之應若霧列兮選卒二千思敢決兮謇賊熊峙牙角脫兮進次駒城奮撻伐兮　天兵東下平壤拔兮輕騎不戒碧蹄蹶兮元帥氣沮和議發兮三軍解體鼓聲竭兮蓄銳齊發肆江浙兮馘斷二酋輿櫝洩兮丁酉再擧時八月兮完山礪山行以律兮素沙一膊天討訖兮八載搶攘干戈撤兮擲劒解甲反布葛兮維諸義士南之傑兮忘身報國心如結兮或死或生其義一兮百世之下風激越兮鯨濤永息尙震怛兮湖水東注流活活兮有石嶄巖彰偉節兮赫赫其光太史筆兮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知　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成均館事世子左賓客洪良浩

資憲大夫行議政府右參贊兼同知　經筵事春秋館事弘文館提學黃昇源書

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金履度篆

湖南鰲山南門倡義碑

〈호남 오산남문창의비(鰲山南門倡義碑)〉

내가 일찍이 호남(湖南)에 사명을 받들고 갈 때[60] 노령(蘆嶺)[61]을 넘어 장성(長城)을 지나다가 그 남문(南門)에 올라 임진년에 거의(擧義)한 자취를 아득히 상상하니, 마치 의사들이 피를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북쪽을 향해 난리에 달려가는 형상을 보는 듯하여 개연히 감회(感懷)가 일었다. 그러나 한스럽게도 드러내지 못하여 지금껏 200년 동안 민멸되고 가려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호남의 유생들이 발분(發憤)하여 예부(禮部)에 글을 올리고, 또 당시의 사실을 편집하여 <남문창의록(南門倡義錄)>이라 이름을 붙이고 장차 비석을 세워 공을 기리려고 하면서 천 리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나에게 와서 글을 구하였다.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옛날 만력(萬曆) 임진년에 섬 오랑캐들이 크게 쳐들어와 노략질할 때 배가 바다를 뒤덮었고, 독한 탄환과 날카로운 칼에 닿자마자 모두가 부서졌다. 먼저 부산(釜山)과 동래(東萊)를 함락하고 흉적의 칼날이 곧장 경성(京城)을 가리켰다. 조문렬(趙文烈)[62]이 맨 먼저 의기(義旗)를 들어 고제봉(高霽峯)[63]·김건재(金健齋)[64]와 함께 선후로 꺾이고 패하자 삼남(三南)[65]이 와해되어 민심이 들끓었다. 장성사람 오천(鰲川) 김경수(金景壽)[66]가 금산(錦山)의 패배를 듣고, 같은 고을 사람 금강(錦江) 기

60 내가……때 : 홍양호(洪良浩)의 나이 31세 때인 1754년에 호남좌도 경시관(湖南左道京試官)이 되었던 것을 말한다.

61 노령(蘆嶺) : 장성 갈재라고 부르며, 예로부터 전라도의 남북을 가르는 중요한 고개였다. 현재의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경계에 있다.

62 조문렬(趙文烈) : 조헌(趙憲, 1544~1592)을 말한다.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沃川)에서 의병 1700여 명을 모아 영규(靈圭) 등 승병과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했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錦山)으로 향했지만, 관군의 방해로 의병 대부분이 해산되고, 700명의 의병으로 금산 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의병들과 함께 모두 전사했다. 영의정에 추증, 문묘(文廟)에 배향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금산의 성곡서원(聖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 되었다. 저서로는 『중봉집』이 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63 고제봉(高霽峯) :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을 말한다.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태헌(苔軒),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1558년 문과에 합격하여 정언, 지평, 한성부 부윤 및 순창(淳昌)과 동래(東萊)의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아들 고종후(高從厚)·고인후(高因厚)를 대동하고 김천일(金千鎰)·류팽로(柳彭老) 등과 함께 담양(潭陽)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금산(錦山)에서 고인후와 함께 전사하였다. 저서로는 『제봉집』, 『서석록(瑞石錄)』, 『정기록(正氣錄)』 등이 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64 김건재(金健齋) : 김천일(金千鎰, 1537~1593)을 말한다.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극념당(克念堂), 본관은 언양(彦陽)이다. 이항(李恒)의 문인이다. 1573년 경명행수인(經明行修人)으로 뽑혀 군기시주부, 용안현감(龍安縣監), 강원도와 경상도 도사, 담양과 수원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왜란이 일어나자 향자제(鄕子弟)들을 모아 의병을 결성, 창의사(倡義使)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양천(陽川), 김포(金浦) 등지의 왜병을 격퇴하였으며, 진주(晉州)에서 격전을 벌이다 성이 함락되자 남강(南江)에 투신하여 순절하였다. 나주의 정렬사(旌烈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 순창의 화산서원(花山書院), 임실의 학정서원(鶴亭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건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65 삼남(三南)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66 김경수(金景壽, 1543~1621) : 자는 백형(伯亨), 호는 오천(鰲川),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장성 출생으로, 의금

효간(奇孝諫)[67], 율정(栗亭) 윤진(尹軫)[68]과 함께 군(郡)의 남문(南門)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격문(檄文)을 내어 호소하였다. 이에 하곡(霞谷) 정운룡(鄭雲龍)은 동군(同郡)에서, 사매(四梅) 이응종(李應鍾)은 영광(靈光)에서, 백곡(白谷) 김홍우(金弘宇)는 고창(高敞)에서, 은암(隱菴) 이수일(李守一)은 태인(泰仁)에서, 서석(瑞石) 김언욱(金彦勗)은 담양(潭陽)에서, 매죽(梅竹) 김경남(金景男)과 죽헌(竹軒) 김부(金溥)와 송암(松菴) 홍원(洪遠)은 나주(羅州)에서, 월촌(月村) 정절(鄭崱)은 함평(咸平)에서, 노휴(老休) 김억일(金億鎰)과 퇴우(退憂) 김해(金垓)와 해옹(海翁) 김홍원(金弘遠)은 부안(扶安)에서, 함재(涵齋) 기효증(奇孝曾)과 죽림(竹林) 박경(朴璟)은 광주(光州)에서, 붕래(朋來) 서연(徐漣)은 흥덕(興德)에서, 노파(老坡) 윤황(尹趪)은 무안(務安)에서, 집의(執義) 류희진(柳希津)은 정읍(井邑)에서, 참봉(參奉) 김성진(金聲振)은 무장(茂長)에서 다투어서 응하여, 각각 자제(子弟)들과 가동(家僮), 고을의 소년들을 거느리니, 모인 자가 거의 2,000명이었다. 충정(忠定) 이귀(李貴)[69]가 당시 고을 수령으로서 도와 이루어 주었다.

이에 단(壇)을 설치하고 대중들과 맹세하고, 경수(景壽)를 추대하여 맹주(盟主)로 삼았다. 오봉(鰲峯) 김제민(金齊閔)은 순창현감(淳昌縣監)으로서 웅치(熊峙)의 적병을 격파하였다는 풍문을 듣고 와서 모였다가 마침내 의병장(義兵將)으로 추대되었다. 병사를 정돈하여[허상징(許尙徵)의 행군(行軍)] 서쪽을 향해 가서 상서(上書)로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 공에게 계책을 바치고, 직산(稷山)에 이르러 적을 만나 수십의 수급을 베었다.[홍계훈(洪繼勳), 김경우(金景佑), 박운(朴雲), 박응춘(朴應春)이 적을 정탐하였는데 김란(金蘭)과 오인갑(吳仁甲)이 더욱 드러났다.] 전진하여 진위(振威)에 이르러 또 정탐하던 왜인 13명을 베고, 용인(龍仁)으로 진군(進軍)하였다.[김신남(金信男)과 박안동(朴安東)이 군량을 대었다.] 듣기에 천장(天將) 이여송(李如松)이 평양(平壤)을

부 도사 응정(應井)의 아들이다. 1591년 정철(鄭澈)의 천거로 예조좌랑이 되었으나, 정철이 강계로 유배되자 두문불출하였다. 임진왜란 때 장성에서 군량을 모아 의병장 기효증(奇孝曾)에게 보내고, 의병 800명을 모집하여 아들 극후(克厚)·극순(克純)에게 인솔시켜 고종후(高從厚)에게 보냈으나 모두 순절하였다. 정유재란 때도 의병을 모집하였다. 저서로는 『오천집』이 있다.

67 기효간(奇孝諫, 1530~1593) : 자는 백고(伯顧), 호는 금강,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기준(奇遵)의 손자이며, 대유(大有)의 아들이다. 김인후(金麟厚)와 이항(李恒)의 문인이며, 당숙인 기대승(奇大升)에게서도 수학하였다. 서태수(徐台壽)·변성온(卞成溫)·변이중(邊以中) 등의 학자와 교유하였다. 일생동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에 참여, 주도적으로 활약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봉해졌다. 현재 장성 추산서원(秋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68 윤진(尹軫, 1548~1597) : 자는 계방(季邦), 호는 율정,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효행이 뛰어나 음서(蔭敍)로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경수(金景壽)를 맹주로 한 장성 남문창의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다. 1597년 왜적이 남원을 유린하고 장성에 침입하자, 수백 명의 의병을 지휘하여 입암산성을 사수하려 하였으나 힘이 부쳐 산성의 함락과 함께 순국하였다. 승지에 추증되고 봉암사(鳳巖祠)에 제향되었다.

69 이귀(李貴, 1557~1633) : 자는 옥여(玉汝),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연안(延安), 시호는 충정이다.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수복(收復)하고, 승기를 타고 벽제역(碧蹄驛)에 이르렀다가 왜장(倭將) 행장(行長)에게 패하였으며,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은 강화(講和)를 주장하고 전쟁을 금지하여 의사(義士)들이 통곡하며 군대를 거두고 물러나서 여산(礪山)을 지키면서 남하하는 적을 막고 있다고 한다. 기함재(奇涵齋)가 의곡(義穀) 2,000섬 모은 것을 수로(水路)를 통해 행재소에 수송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기며 말하기를, "추운 날씨에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천 리 먼 길을 순조롭게 왔으니, 기이하도다!"라고 하였다. 이때 이사매(李四梅)가 영광(靈光) 수령이 상을 당해 관직을 버리고 갔다는 것을 듣고, 강호(江湖)의 보장(保障)을 비워서는 안 된다고 여겨 돌아와 군성(郡城)을 지키니, 여러 사람이 추대하여 장수로 삼았다.

계사년 5월에 천병(天兵)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자 의병장들이 격문(檄文)을 내어 흩어진 군사를 불렀는데, 이귀(李貴) 공이 정예병을 뽑아 보내며 담용군(膽勇軍)이라 하였다. 병사의 형세가 더욱 커짐에 기병(奇兵)을 설치하여 길을 막고 적추(賊酋) 고패(高沛)와 박검동(朴儉同)을 사로잡아 베었다. 또 절강(浙江)의 진법(陣法)으로 고을의 병사 300명을 가르쳤는데, 응모한 자가 더욱 많았다. 전진하여 함양(咸陽)에 이르러 진주(晉州)가 포위되었다는 말을 듣고 의사(義士)들이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를 따라 진양성(晉陽城)으로 들어가 건재(健齋)와 함께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다.

정유년 8월에는 남원(南原)의 급보(急報)를 듣고 의병장들이 장사(壯士) 100여 명을 뽑고 전주(全州)에 이르러 병사와 곡식을 모집하여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다. 김백곡(金白谷)이 천장 해생(解生)을 따라 소사(素沙)에서 크게 적을 격파하였고, 적이 도망쳐 옆 현(縣)에 숨었는데, 장수들이 추격하여 30여 급(級)을 참수하고 포로가 된 남녀 17인을 빼앗아 9월에 파하고 돌아왔다.

아! 임진년과 정유년의 난리는 바로 우리나라 백륙(百六)[70]의 운수(運數)였다. 당시에 중요한 군대를 거느리고 큰 진(鎭)을 지키던 자들은 모두 쥐처럼 숨고 새처럼 흩어지지 않음이 없었고 삼경(三京)[71]의 모든 거가(車駕)가 서쪽으로 옮겨 갔는데, 오직 호남(湖南) 일로(一路)는 영토를 온전하게 하여 명령이 비로소 통하고 군량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적을 이루었으니, 실로 황조(皇朝)에서 다시 살려 준 은혜이며, 또한 의사(義士)들이 좌우에서 부축하여 이끌어준 힘이다.

조문렬(趙文烈)과 고충렬(高忠烈) 두 공(公) 같은 분은 몸을 떨쳐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충의(忠義)가 해와 달을 꿰뚫고 명성이 산악(山嶽)을 뒤흔들었으며, 장성(長城) 남문(南門)의 일 같은 것은 또한 그 다음이었다. 유독 한 번 대적(大敵)을 당하지 못하여 높은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지, 그 뜻과 절개는 생사로서 다르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오천(鰲川)의 두 아들 극후

---

70 백육(百六) : 106년을 가리키는데, 4500년이 1원(元)이고 1원 중에 5번의 양액(陽厄)과 4번의 음액(陰厄)이 있어 106년마다 액운이 찾아온다고 하였다. 『漢書 卷21 律歷志上』

71 삼경(三京) : 남경(南京)인 서울, 중경(中京)인 개성(開城), 서경(西京)인 평양(平壤)을 말한다.

(克厚)와 극순(克純) 및 김인혼(金麟渾)·서홍도(徐弘渡)·김언희(金彦希) 공은 함께 진양성(晉陽城)에서 머리를 나란히 하여 죽었으며, 율정(栗亭, 윤진)은 입암산성(笠巖山城)을 지키다가 죽었고, 또 정월촌(鄭月村)·윤노파(尹老坡)·김죽헌(金竹軒)·류집의(柳執義)·김참봉(金參奉)·김명(金溟) 공 같은 분은 서로 이어 싸우다가 죽었으니, 과연 조문렬과 고충렬의 공렬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할 만하다. 그리고 정충량(鄭忠良) 공의 여섯 곳에서의[당포(唐浦)·내량(乃梁)·안골(安骨)·명량(鳴梁)·노량(露梁)·예교(曳橋)] 승첩(勝捷)은 더욱 가상하다.

대개 장수들은 모두 당대의 명문(名門)으로, 혹 경술(經術)로 칭송을 받거나 혹 문행(文行)으로 드러났으니, 평소에 보존한 것은 다만 한때 강개한 마음으로 목숨을 버린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나라에서 유학(儒學)을 중시하는 것은 사기(士氣)를 펼치고 나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수백 년 동안 배양한 공(功)을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으니, 돌에 새겨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드디어 사양하지 않고 서문을 짓고 다음과 같이 말을 펼친다.

維壬之夏　　임진년 여름은,
炎海溢兮　　무더위가 흘러넘쳤네.
長蛇起陸　　긴 뱀이 육지로 올라와,
封豕突兮　　큰 멧돼지처럼 돌진하였네.
有髡其首　　그 머리는 빡빡 깎았고,
齒則漆兮　　이빨은 검었네.
千艘連檣　　천 척의 배가 돛대를 연이어,
蔽白日兮　　밝은 해를 가렸네.
毒丸如雷　　독한 탄환은 우레와 같고,
舞長鎩兮　　긴 창은 춤을 추었네.
釜山先焚　　부산이 먼저 불에 타고,
萊城奪兮　　동래성도 빼앗겼네.
火烈風迅　　불같이 맹렬하고 바람같이 신속하여,
莫之遏兮　　막을 수가 없었네.
凶鋒直上　　흉봉이 곧장 위로 올라가,
指京闕兮　　서울의 대궐을 가리켰네.
列郡披靡　　고을들이 쓰러지니,
如瓦裂兮　　기와가 찢어지는 듯하였네.
維高與趙　　오직 고경명과 조헌이,
奮忠烈兮　　충렬을 분발하였네.
自潭至錦　　담양에서 금산에 이르러,

次第沒兮　　차례로 돌아가셨네.
天步遠播　　임금님 행차 멀리 파천하여,
邦鼃虺兮　　나라가 위태로웠네.
苞桑之繫　　뽕나무 뿌리에 매어놓아야 하니,
凓旒綴兮　　유철[72]이 위태롭네.
嶷嶷義士　　씩씩한 의사들,
共沫血兮　　함께 피눈물 흘렸네.
耨耰白梃　　농기구와 흰 몽둥이로,
勇氣勃兮　　용기가 대단하였네.
蘆嶺之南　　노령의 남쪽은,
長城屹兮　　장성이 우뚝하였네.
飛檄遠邇　　원근에 격문 날리니,
風聲洌兮　　풍성이 차가웠네.
如響之應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若霧列兮　　마치 안개가 자욱한 듯하였네.
選卒二千　　군졸 이천 명을 선발하여,
思敢決兮　　감히 결전을 생각하였네.
遑賊熊峙　　적을 웅치에서 만나니,
牙角脫兮　　아각이 빠진 듯하였네.
進次駒城　　구성에 전진하여 주둔하며,
奮撻伐兮　　분발하여 정벌하였네.
天兵東下　　명나라 군사가 동쪽으로 내려가,
平壤拔兮　　평양을 탈환했네.
輕騎不戒　　가벼운 기병 경계하지 않다가,
碧蹄蹶兮　　벽제에서 넘어졌네.
元帥氣沮　　원수는 기가 꺾여,
和議發兮　　화의를 드러내었네.
三軍解體　　삼군은 해체되어,
鼓聲竭兮　　북소리 그치게 되었네.

---

72 유철(旒綴) : 철류(綴旒)라고도 하는데, 유(旒)는 깃술이고 철(綴)은 매단다는 말이다. 곧 깃술이 바람 따라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임금이 권위를 잃고 신하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국가의 위태로움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蓄銳齊發　　정예병 길러 일제히 발동하니,
肄江浙兮　　절강의 진법으로 하였네.
馘斷二酋　　두 명의 추장 수급을 끊으니,
輿憤洩兮　　사람들의 울분이 풀렸네.
丁酉再擧　　정유년에 재차 침입하니,
時八月兮　　때는 8월이었네.
完山礪山　　완산과 여산은,
行以律兮　　군율로 행하였네.
素沙一膊　　소사에서 한 번 무찌르니,
天討訖兮　　천토가 끝났네.
八載搶攘　　8년 동안 전쟁 치러,
干戈撤兮　　창과 방패가 거두어졌네.
擲劒解甲　　검을 던지고 갑옷 벗고는,
反布葛兮　　도로 갈포를 입었네.
維諸義士　　여러 의사들,
南之傑兮　　남방의 호걸이었네.
忘身報國　　자신의 몸 잊고 나라에 보답하기로,
心如結兮　　단단히 결심하였네.
或死或生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였지만,
其義一兮　　그 의리는 하나였네.
百世之下　　백세 뒤에도,
風激越兮　　풍성 격동할 것이네.
鯨濤永息　　사나운 파도 길이 잠잠해졌지만,
尙震怛兮　　아직도 두렵고 떨리네.
湖水東注　　호수가 동으로 흘러,
流活活兮　　세차게 흘러가네.
有石嶄巖　　큰 바윗돌 있으니,
彰偉節兮　　위대한 절의 빛나네.
赫赫其光　　빛나는 광채는,
太史筆兮　　태사의 필치이네.

보국숭록대부 행 판중추부사 겸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

춘추성균관사 세자좌빈객 홍양호(洪良浩)[73]가 짓고, 자헌대부 행 의정부우참찬 겸 동지경연사 춘추관사 홍문관제학 황승원(黃昇源)[74]이 썼으며, 통정대부 승정원우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김이도(金履度)[75]가 전액을 쓰다.

---

73 홍양호(洪良浩, 1724~1802) :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耳溪),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174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52년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저서로는 『이계집』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74 황승원(黃昇源, 1732~1807) : 자는 윤지(允之),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176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771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정언, 황해도 관찰사, 대사헌,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개성유수, 홍문관 대제학, 형조판서, 예문관제학, 판의금부사 등을 지냈고, 1807년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일통표(一統表)』가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75 김이도(金履度, 1750~1813) : 자는 계근(季謹), 호는 화산(華山)·송원(松園),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김창집(金昌集)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김탄행(金坦行)이다. 1800년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부제학, 경기도 관찰사, 한성부판윤, 사헌부대사헌, 수원부유수 등을 역임하였다.

5. 남면 녹진리 천복철(千福哲) 망곡단비(望哭壇碑)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녹진리 산130-9 • 제작연대 1910년(庚戌)
• 크　기 전체높이 215, 비신높이 150, 너비 61, 두께 16

1910년 녹진리에 세워진 천복철(千福哲)의 망곡단비는 분향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1㎞쯤 가면 왼쪽(서쪽)에 영양천씨(潁陽千氏) 선산이 있는데, 선산 입구의 비석 군 중 앞줄 왼쪽에 있다. 최근에 옮겨왔는데 원래의 위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천복철은 구순의 노부모에게 효도하였고, 국

상에는 단을 쌓고 곡을 하였다. 자연석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비문은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1909년에 짓고, 민일호(閔一鎬)가 글씨를 썼다. 그러나 기우만의 문집 『송사집』에서는 관련 글을 찾지 못했다. 비문은 17행 27자이다.

【전면】

千孝子望哭壇碑

【후면】

千生鳳根過余寒泉病室曰曾大父諱福哲號臥松堂孝其
天植養兼志體親年九旬子亦七十餘言不稱老作嬰兒戲
生致其樂喪致其哀祭致其潔雖古孝子實罕其儔移孝之
忠每　國哀築壇望哭至　諱辰至正至朔望以致其哀鄉
稟道顧可徵其實蹟所築之壇至今行人指點不忍其鞠草
謀諸宗將竪石而表之願有識而垂後鳴呼聽卑之天宜有
旌閭而今非其時千氏之爲是役也其善矣乎千氏以花山
君諱萬里爲東來之祖花山君以　天朝提督再遣東方遺
裔實承祖風忠孝傳家據理允矣銘曰　千祖花山於奕其
烈至今感恩含齒戴髮受天之報雲仍千百蔚有祖風孝爲

【우면】

本立志體之養自幼靡闕移之方喪築壇望哭非爲要譽惟性之發使
其立朝輔幼寄百不偶於時樂吾所樂安分知命不一而足聽卑表宅
竢後有日地不忍荒先銘諸石　　歲己酉陽生月幸州奇宇萬撰

【좌면】

歲庚戌六月初二日 驪興閔一鎬書　　宗孫亮根
有司鳳根
壽根

〈천복철(千福哲) 망곡단비(望哭壇碑)〉

천봉근(千鳳根)이 한천(寒泉)의 병실(病室)로 나를 찾아와 말하길, "증대부 휘(諱)는 복철(福哲)이고 호(號)는 와송당(臥松堂)이신 분께서는 타고난 효심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90살이 넘고 자식도 70여 살이 되었지만 자신이 늙었다고 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재롱을 부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봉양의 즐거움을 다하였고, 상을 치를 때는 슬픔을 다하였으며, 제사에는 정결함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옛날의 효자일지라도 실

로 견줄만한 이가 드뭅니다. 효(孝)를 충(忠)으로 옮겨 국상(國喪)을 당할 때마다 단(壇)을 쌓은 뒤 망곡(望哭)을 하고 기일(忌日)이 되거나 정월 초하루나 보름날이 되면 슬픔을 다하였습니다. 고을에서 도(道)에 아뢰었으니 그 실제 행적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증대부께서 쌓았던 단은 지금도 지나는 사람들이 장소를 가리키며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차마 보지 못함에 종족과 의논하여 비석을 세워 표시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아! 낮은 곳의 말을 다 듣는 하늘이 응당 정려(旌閭)를 내렸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니, 천씨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천씨는 화산군(花山君) 만리(萬里)가 동방으로 온 시조가 된다. 화산군은 명(明)나라의 제독(提督)으로서 두 번이나 동방에 파견되었으니, 후손들이 실로 선조의 풍범(風範)을 계승하여 충효(忠孝)가 집안에서 전하는 것은 진실로 이치에 근거한 것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千祖花山　　천씨의 시조는 화산이니,
於奕其烈　　그 공적이 빛나도다.
至今感恩　　지금까지 은덕에 감동하니,
含齒戴髮　　이빨과 머리털 있는 사람이로다.
受天之報　　하늘의 보답을 받아,
雲仍千百　　자손들 천백 명에 가깝고,
蔚有祖風　　선조의 풍범(風範) 울연(蔚然)하니,
孝爲本立　　효성으로 근본을 세웠도다.
志體之養　　부모의 뜻과 몸을 봉양함을,
自幼靡闕　　어려서부터 빠뜨리지 않았으며,
移之方喪　　임금을 위해 상(喪)을 치를 때는,
築壇望哭　　단을 쌓고 망곡(望哭)을 하였네.
非爲要譽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惟性之發　　오직 본성의 발로였으니,
使其立朝　　만약 조정에 나갔다면,
輔幼寄百　　어린 임금을 보좌하고 나라를 맡게 되었으리.
不偶於時　　때를 만나지 못하여,
樂吾所樂　　자신이 즐기는 바를 즐겼으며,
安分知命　　분수에 편안하고 천명을 깨달은 것이,
不一而足　　한둘이 아니었네.
聽卑表宅　　하늘이 알아주어 유택(幽宅)에 비석를 세우고,
竢後有日　　뒷날을 기다리니,

地不忍荒　　땅을 차마 황폐시키지 못하여,

先銘諸石　　먼저 돌에 덕을 새기네.

기유년(1909) 동짓달에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이 짓고, 경술년(1910) 6월 2일에 여흥(驪興) 민일호(閔一鎬)가 쓰다.

유사(有司)는 종손(宗孫) 양근(亮根)과 봉근(鳳根) 및 수근(壽根)이다.

6. 서삼면 모암리 칠현단비(七賢壇碑)

• 소재지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24(칠현유적지)
• 크　기 김우급단비 : 비신높이 85, 너비 36, 두께 10
정운룡단비 : 비신높이 82, 너비 30, 두께 12
박수량단비 : 비신높이 83, 너비 36, 두께 9
조영규단비 : 비신높이 83, 너비 37, 두께 9
• 제작연대 1909년(추정)
조정로단비 : 비신높이 83, 너비 33, 두께 7
서릉유허비 : 비신높이 85, 너비 35, 두께 12
최학령단비 : 비신높이 85, 너비 36, 두께 9

모암서원(慕巖書院)에 배향되었던 추담(秋潭) 김우급(金友伋, 1574~1643), 처사(處士) 조정로(趙廷老, 1559~1612), 하곡(霞谷) 정운룡(鄭雲龍, 1542~1593), 서능(徐稜, 생몰 미상), 아곡(莪谷) 박수량(朴守良, 1491~1554), 율정(栗亭) 최학령(崔鶴齡, 1512~1562), 양산군수(梁山郡守) 조영규(趙英圭, ?~1592)의 단비(壇碑)이다. 단비(壇碑)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형태의 호패형(戶牌形)으로, 일종의 위패처럼 설치한 것이다.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119호 '칠현유적지(七賢遺蹟地)'에 있다.

모암서원은 1587년에 장성현감(長城縣監) 이계(李啓)와 하곡(霞谷) 정운룡(鄭雲龍) 등 고을 사람들이 고려 고종대 문신 서능의 효행(孝行)과 유덕(遺德)을 추모하기 위해 서삼면 모암리에 사당(祠堂)과 강당을 건립한 데에서 비롯된다. 그후 모암서원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48년에

중건하였고, 1667년에 조영규와 조정로 부자를 배향하였으며, 1698년에 최학령·김우급·정운룡을 추가로 배향하였고, 1788년에는 박수량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모암서원은 1868년에 훼철되었으며, 그후 1909년에 장성 유생들이 옛터에 단(壇)을 설립하고 춘추로 향사(享祀)하였으며, 모암서원단기적비(慕巖書院壇紀蹟碑)와 모암서원유허비(慕巖書院遺墟碑)를 건립하였다.

김우급의 자는 사익(士益), 호는 추담(秋潭)으로, 요월정 김경우(金景愚)의 손자이다. 본관은 광산이다. 1612년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1618년 이이첨(李爾瞻)의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여 유적(儒籍)에서 삭거되고, 대책문(對策文)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나 방(榜)에서 삭제당한 후 과거(科擧)를 보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와 학문에 정진하여 후진 양성에 힘써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변이중(邊以中)의 문인이고, 기처겸(奇處謙), 이익(李瀷) 등과 교유하였다.

조정로는 효자로, 자는 선우(善遇), 본관은 직산(稷山)이다. 조영규의 아들로 임진왜란 때 한 달이나 걸려서 할머니를 양산(梁山)에서 장성(長城)으로 피신시켰다. 아버지인 조영규가 동래성(東萊城) 전투에서 전사한 뒤 시신을 찾지 못하자 초혼장(招魂葬)을 치르고 3년 상을 마쳤으며, 할머니를 봉양하였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장계(狀啓)를 올려 효자로 명정(銘旌)되었으며, 모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정운룡의 자는 경우(慶遇), 호는 하곡(霞谷), 본관은 하동이다.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문인으로 학행(學行)이 남달라 참봉(參奉)에 임명되었으나, 학문에 정진하였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 당시 선조(宣祖)의 신임을 받고, 왕자 사부(師傅)와 고창현감 등을 지냈으며, 장성현감 이계(李啓)가 향교를 세워 그를 선생으로 초빙하였다.

박수량의 자는 군수(君遂), 본관은 태인(泰仁)이다. 아버지는 박종원(朴宗元), 어머니는 이씨(李氏)이며, 향선생(鄕先生) 김개(金漑)에게 배웠다. 15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서 을과 2등으로 급제해, 광주향교(廣州鄕校)의 교수(敎授)로 취임했다가 다음 해 승문원부정자로 옮겼다. 이어 내외의 주요한 관직을 두루 거친 후 1550년 우참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경기도관찰사를 겸임했고 숭록대부로 올랐다. 1554년에 지중추부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청백리이다.

최학령의 자는 운노(雲老), 호는 율정(栗亭), 본관은 탐진(耽津)이다. 향시(鄕試)와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겼으나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자 3년의 시묘(侍墓)살이에 정성을 다하였다. 효행(孝行)으로 천거되어 모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조영규의 자는 옥첨(玉瞻), 본관은 직산(稷山)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용천부사를 거쳐 양산군수가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을 찾아가 왜적과 끝까지 싸우다가 동래성이 함락되자 송상현과 함께 순절하였다.

【전면】
秋潭金先生

【전면】
處士趙先生

【전면】
霞谷鄭先生

【전면】
節孝徐先生草堂遺墟碑

【전면】
莪谷朴先生

【전면】
栗亭崔先生

【전면】
梁山趙先生

7. 북이면 만무리 곡부공씨(曲阜孔氏) 단비(壇碑)

• 소재지 장성군 북이면 만무리 502-2(율정) • 제작연대 미상(1880년경)
• 크　기 창암단비 : 전체높이 92, 비신높이 85.5, 너비 30.5, 두께 12
어촌단비 : 전체높이 83.5, 비신높이 78.5, 너비 30, 두께 11
고산단비 : 전체높이 86, 비신높이 81.5, 너비 30.4, 두께 11

만무리 율정마을의 사산사(泗山祠) 근처 신위단비 묘역에 있는 단비이다. 출입문과 담장에 기와를 얹었고, 그 안에 3기의 신위단비를 세웠다. 그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비가 창암(昌庵) 공소(孔紹)의 단비이고, 향좌에 있는 비가 어촌(漁村) 공부(孔俯)의 단비이며, 향우에 있는 비가 고산(孤山) 공은(孔僊)의 단비이다. 장방형 비좌 위에 비신을 세웠다. 창암 공소는 곡부공씨 중시조인 회원군(檜原君)을 말하고, 어촌(漁村) 공부(孔俯)는 창암의 손자이며, 고산 공은은 어촌의 동생이다.

【전면】
昌庵孔先生神位

【전면】
魚村孔先生神位

【전면】
孤山孔先生神位

8. 황룡면 필암리 필암서원(筆巖書院) 계생비(繫牲碑)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 제작연대 1905년(乙巳)
• 크　기 전체높이 254, 비신높이 154, 너비 70, 두께 24

필암서원(筆巖書院) 계생비(繫牲碑)는 춘추(春秋) 향사(享祀)에 제물(祭物)로 바칠 '희생제물을 묶어놓은 돌[牲繫之石]'에 대한 음기(陰記) 성격의 비석이다. 1905년 필암서원내 유생들의 재사(齋舍)인 진덕재(進德齋) 앞에 세워졌는데, 비문은 1905년 4월 하순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짓고, 글씨는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1853~1939)가 썼으며, 전서(篆書)는 김영한(金甯漢, 1878~1950)이 썼다. 비석 우측면에 따르면, 봉사(奉事) 송일중(宋日中)이 쓴 전면의 '필암서원계생비'라는 큰 글자를 1930년(庚午)에 추가로 새겼다.

계생비문은 1907년에 편찬된 송병선의 문집인 『연재집(淵齋集)』에는, '필암서원묘정비(筆巖書院廟庭碑)'라 되어있다. 묘정비(廟庭碑) 즉 서원비(書院碑)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문에서 송병선은 서원창설 후 200여년이 지난 당시까지 계생비에 대한 음기(陰記)가 없는 것을 사림(士林)들이 매우 안타까워하자 이에 후손인 경암(敬菴) 김노수(金魯洙, 1878~1956)와 서원 유생 최봉석(崔鳳錫)이 자신을 찾아와 하서 김인후의 일 즉 필암서원에 대한 글을 부탁했다고 적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송병선의 문집 내용과 똑같은데, 다만 후면의 3번째 줄의 '慨然'과 '謹書' 사이에 '而先生後孫金魯洙。院儒崔鳳錫。來謁余文。其於先生事。曷敢以癃廢辭。'라는 구절이 더 들어있는 점이 다르다. 비문은 17행 37자이다.

[두전] 筆巖書院廟庭碑

【전면】

筆巖書院繫牲碑

【좌면】

長城府西文章之麓有廟嶽然寔我文正公河西金先生俎豆之所也先生易簀之三十一年門人章甫就岐山下刱立祠宇以寓羹墻江漢之思後移于甑山 顯廟宣額以筆巖先生古里有巖削立形似筆銳院在數里弱以此仍號焉三遷而妥享于斯以梁鼓巖配侑祠前置一

【후면】

閣奉藏　孝陵墨竹圖及先生遺集板閣下有講堂名曰淸節兩傍有齋左進德右崇義其楣皆同春宋先生筆也其門樓曰廓然者吾先子文正公所書也今距院宇之創二百有餘年而牲繫之石尙闕記陰之刻此士林所以慨然謹書事實顚末俾刻于三分一之庭且以吾先子贊述先生之說告于多士曰以一心而函三才造化之妙以一身而任萬世綱常之重者誠無異濂翁之光霽也雖百世之下聞先生之風則頑必廉而懦必立況入斯院而講先生之道者豈可不惕念而興起也天地二人之詩是先生造道之極處而出處之正無與倫比者石潭夫子豈欺我哉此又不可不知也凡百君子盍相與之勉焉

旃蒙大荒落觀之下澣

後學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 經筵官書筵官恩津宋秉璿謹撰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　海平尹用求 書
通政大夫前秘書院丞　　安東金甯漢 篆

【우면】

前面大字奉事宋日中書
庚午四月 日追刻

〈필암서원(筆巖書院) 계생비(繫牲碑)〉

장성부(長城府) 서쪽 문장산(文章山) 기슭에 우뚝한 사당이 있으니, 이는 우리 문정공(文正公) 하서(河西) 김선생(金先生)을 제향하는 곳이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1년 되었을 때 문인(門人) 유생들이 기산(岐山) 아래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갱장강한(羹墻江漢)[76]의 그리움을 부쳤다. 나중에 증산(甑山)으로 옮겼는데, 현묘(顯廟, 현종) 때 필암서원(筆巖書院)이라는 사액을 내렸다. 선생의 고리(故里)에 깎은 듯한 바위가 있는데 생김새가 붓끝과 비슷하고, 서원은 몇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기에 이것을 그대로 이름하였다. 세 번 옮겨서 여기에서 제향을 올리고 양고암(梁鼓巖, 梁子澂)[77]을 배향하였다. 사당 앞에 한 전각을 두어 효릉(孝陵, 인종)의 묵죽도(墨竹圖)와 선생의 유집 판각을 봉안하였다. 전각 아래에 강당이 있으니, 청절당(淸節堂)이라고 한다. 양쪽 곁에는 재실이 있으니, 왼쪽은 진덕재(進德齋)이고, 오른쪽은 숭의재(崇義齋)이다. 그 문미(門楣)는 모두 동춘(同春) 송선생(宋先生)의 필적이다. 그 문루(門樓)를 확연(廓然)이라고 한 것은 우리 선조 문정공(文正公)이 쓴 것이다.

지금은 원우(院宇)를 창건한 지 200여년이 되었는데, 계생석에 아직도 음기(陰記)를 새긴 것이 없으니, 이것이 사림들이 개탄스러워하는 것이다. 일의 전말을 삼가 써서 묘정 3분의 1 지점에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또 우리 선조께서 선생에 대해 찬술한 설(說)을 가지고 다사(多士)에게 고하길, "한마음으로 삼재조화(三才造化)의 묘리(妙理)를 함축하고, 한 몸으로 만세강상(萬世綱常)의 중책을 맡은 것[78]은 참으로 염옹(濂翁, 주렴계)의 광풍제월(光風霽月)과 다름이 없으니,[79] 비록 백 대

76 갱장강한(羹墻江漢) : 갱장은 요임금이 죽은 뒤에 순임금이 담장을 대해도 요임금의 모습이 보이고 국을 대해도 요임금이 보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늘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고, 강한은 공자의 도덕이 양자강이나 한수의 맑은 물로 빨아 가을볕에 말린 것처럼 더 할 수 없이 희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다.

77 양고암(梁鼓巖) : 양자징(梁子澂, 1523~1594)으로 자는 중명(仲明)이며, 고암은 그의 호이다. 소쇄처사(瀟灑處士) 양산보(梁山甫)의 아들이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사위이자 문인으로 유학에 깊은 성취를 보였으며, 도의로써 송강(松江) 정철(鄭澈)·중봉(重峯) 조헌(趙憲)·우계(牛溪) 성혼(成渾) 등과 교유하였다.

78 한마음으로……것 : 이 내용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를 위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에 보인다. 『河西集』 附錄 <神道碑銘>

79 염옹(濂翁)의……없으니 : 염옹은 송(宋)나라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호이다. 송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시서(濂溪詩序)〉에 "용릉의 주무숙은 인품이 무척이나 고매하니, 흉중이 쇄락함은 마치 맑은 바람이요

의 뒤일지라도 선생의 풍도를 들으면 완악한 지아비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가 뜻을 세우게 된다.[80]

더구나 이 서원에 들어서서 선생의 도를 강론하는 자는 어찌 두려운 생각을 지니고 흥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지이인(天地二人)의 시[81]는 선생께서 도에 나아간 극처이고, 출처의 바름이니, 함께 비교할 자가 없다. 석담부자(石潭夫子)가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이는 또 알지 않을 수 없다. 무릇 군자들은 어찌 서로 면려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을사년 8월 하순에, 후학(後學)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 성균관좨주 시강원찬선 경연관서연관 은진인(恩津人) 송병선(宋秉璿)이 삼가 찬하고, 숭록대부 전 판돈녕원사 해평인(海平人) 윤용구(尹用求)가 썼으며, 통정대부 전 비서원승 안동인(安東人) 김영한(金甯漢)이 전자를 쓰다

앞면의 큰 글자는 봉사(奉事) 송일중(宋日中)이 써서 경오년(1930) 4월에 추각함.

갠 달과 같았다.[春陵周茂叔, 人品甚高, 胸中灑落, 如光風霽月.]"라는 말이 나온다.

80 완악한……된다 : 『맹자』 진심하(盡心下)에 "백이의 풍도를 들은 자는 완악한 지아비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가 뜻을 세우게 된다.[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라고 하였다.

81 천지이인(天地二人)의 시 : 김인후는 〈문인(門人)에게 보이다〉 시에서 공자와 주희(朱熹) 두 사람만을 추대하여 "천지간에 두 사람이 있으니 중니는 원기(元氣)이고 자양은 진기(眞氣)라네.[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라고 하였다.

9. 북이면 만무리 이수(李隨) 묘정비(廟庭碑)

• 소재지 장성군 북이면 만무리 363-1(부동) • 제작연대 1813년(崇禎紀元後四癸酉)/1883년
• 크　기 전체높이 256.6, 비신높이 140.2, 너비 67.8, 두께 19.6

심은(深隱) 이수(李隨)의 묘정비는 부동마을 맨 안쪽 죽림사(竹林祠)의 향우측에 자리한 비각 내의 2기 비석 가운데 향우측에 자리한다. 거북모양 귀부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사각형 이수를 올렸다.

죽림사는 세종대왕의 스승인 심은(深隱) 이수(李隨, 1374~1430) 선생을 기리기 위해 1590년에 향내 유림들의 발의로 장성군 진원면 죽림동에 사우를 창건하였으나 1597년에 병화로 소실되자 1813년에 후손이 북이면 부동에 이거하면서 이곳에 이건하여 복설하였다. 그후 1868년에 서원훼철령에 의해 훼철되었고, 1946년에 현재 위치에 다시 복원하면서 정재(靜齋) 윤홍(尹泓, 1655~1731)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수의 자는 택지(擇之), 호는 심은(深隱)·관곡(寬谷), 본관은 봉산(鳳山)으로, 봉산이씨의 시조이다. 1396년 생원시에 제1위로 합격하였으며, 1411년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소명(召命)을 전하자 상경하여 여러 왕자의 교육을 맡아보았다. 1422년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고부부사(告訃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27년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으며, 1429년 예문관대제학·이조판서에 재등용되고, 이듬해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취중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비명은 1813년에 홍원섭(洪元燮)이 찬술하고, 글씨는 김희순(金羲淳)이 썼으며, 전자는 한용구(韓用龜)가 썼다. 홍원섭의 문집인『태호집(太湖集)』에 비문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 비석은 1883년 8월에 15대손 상근(滲根)과 16대 봉사손 병규(炳奎)가 세웠다. 비문은 38행 35자이다.

[문액] 文靖公深隱李先生廟庭碑閣

[두전] 吏曹判書謚文靖公深隱李先生廟庭碑

【전면】

有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兼集賢殿提學藝文館大提學寶文閣提學同知 經筵事 世子左副賓客五衛都摠府都摠制 贈謚文靖李先生廟庭碑銘 幷序

通政大夫工曹參議洪元燮撰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子右副賓客金羲淳 書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春秋館觀象監事 世子傅韓用龜篆

自夫聖哲生知未有不學而成之故古者自天子以下人皆有師衆人之師固有賢於人者審矣况爲聖人師爲君人師其人可知爾甘盤段干木之賢他不著見然而後世稱述焉以其爲聖王賢主之師也洪惟我 世宗大王以上聖之姿首出神明制作禮樂變夷爲華當是時爲 王左右承弼臣如黃翼成許文敬諸公德業事功之偉磊落相望然而 上皆得而臣之唯吏曹判書文靖李公嘗爲 上舊學以殊禮見待公諱隨字隨卿號爲深隱先生

年二十三擢生員第一　太宗十一年訪求學行經術士有司以公薦再被召而至　世宗在潛邸就師之後數歲由通禮門奉禮登第提學寶文集賢至藝文大提學位冢宰主中權皆以不次進也壽五十七而卒　世宗率百官臨吊甚哀及　世宗禮陟配享廟庭國制配世室者其廟亦不祧公鳳山人所居里曰寬惠公之子始贅于湖南屢遷至長城六世而遭

【좌면】

壬辰之難全家沒于兵燼廟旣墟而祀遂絶唯支裔一派流轉嶺南得脫於兵後復于其鄕今爲長城之李　正宗己酉公十三世孫得元上言臣先祖臣隨生而受賓師之遇歿而膺不祧之典而不幸宗嗣中絶廟主失守雖列在庭享血食百世而其神歸無所私托臣實

【후면】

痛之臣七世祖臣思淑與其兄思精臨難相訣冀幸一全竟又漂落東南不保家世至臣身且二百有餘年禘嘗歸胙之吏不知臣祖臣隨之有不肖後也臣系譜鄕籍與太常諡狀一道宣德五年副丞李命生牒呈行蹟事故紙在此啓下禮曹有　敎文靖公李隨改立木主許其支孫得元父應說爲嗣於是得元父子於其居長城之北釜洞之里建公廟而祭之如初已又來謁于諸公卿大夫求顯公行實得詩若文凡幾十家必曰公位非輔相而得與黃許崔貞烈申文僖同配　聖祖之庭爲可徵焉嗚呼公之顯豈待彼四相而增益者哉謹按國朝登科譜諸氏族考郡誌野乘諸書皆稱公有甘盤之舊或稱　上以師禮尊之環地而錫之土今鳳之文靖坊是也此數語者公自有之殷廟六臣甘盤與焉盖其功在啓迪薰陶成就　聖德以之配天享國則夫豈後於二三同德之臣陳列爲功者哉尙論之士常恨英陵諸臣如黃許嵬蹟尙不能講明正學一以二帝三王之道道之然則我　聖祖緝熙光明之學誠身出治之本必有所資始者若公之朝夕納誨黼黻皇猷之蹟則名山石室之藏出而其顯又可知也近世之士稽古不深於其後人之衆且顯者多知其祖行苟或寒畯卑弱文獻失於瑣尾則雖如公之卓乎多者必待諸公卿大夫之言而後顯悲夫銘曰

截彼蘆岑下土蓁蓁有儼祠屋揭我　王臣　王臣伊何有鳳君子鳳之寬惠實維桑梓後世圖南自光而長寇來不避遂覆構堂季支能脫孑遺如綴其姓則傳公祀久絶廿紀而後荃聽曰可迺治其主迺釁其廈世遠文微孰考前往盍觀乎禘有秩庭饗左右陟降黃許與

【우면】

班彼以伊巫我以甘盤起自皐比遂贊笙鏞虞韶周雅資始告終斥佛遵禮又驗躬行莫多于公不顯其光崇德報功永世不祧爲此刻銘來裔是昭

崇禎紀元後四癸酉紙建後七十年壬午而癸未八月 日十五代孫滉根謹竪

十六代奉祀孫炳奎

〈유명 조선국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집현전제학 예문관대제학 보문각제학 동지경연사 세자좌부빈객 오위도총부도총제 증시 문정(文靖) 이선생 묘정비명(廟庭碑銘) 병서〉

생지(生知)한 성철(聖哲, 공자) 이래로 배우지 않고 이룬 자는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자부터 그 이하로 사람마다 모두 스승이 있었다. 뭇사람의 스승은 본래 남보다 현명한 것이 분명하다. 하물며 성인의 스승이고 군주의 스승이라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있다. 감반(甘盤)과 단간목(段干木)은 그들의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후세인들은 그들을 성왕(聖王)과 현주(賢主)의 스승으로 일컫는다. 우리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지고한 성인의 자질로 신명함을 높이 드러내어 예악(禮樂)을 제작하고 오랑캐 풍습을 중화(中華)의 풍습으로 변화시키셨다. 이때 왕을 좌우로 보필한 신하인 황익성공(黃翼成公, 황희(黃喜)), 허문경공(許文敬公, 허조(許稠)) 등은 덕업(德業)과 공로(功勞)의 위대함이 성대하고 끊임이 없어 주상께서는 모두 이들을 신하로 삼을 수 있었다. 오직 이조판서 문정이공(文靖李公)은 일찍이 상의 스승이었기에 특별한 예로 대우를 받았다.

공의 휘는 수(隨)이고, 자는 수경(隨卿)이며, 호는 심은선생(深隱先生)이다. 23세의 나이에 생원에 제1위로 합격하였다. 태종 11년(1411)에 학행(學行)과 경술(經術)을 갖춘 선비를 널리 찾아 구할 때 유사(有司)가 공을 천거하여 두 번이나 부름을 받았다. 세종이 잠저(潛邸) 때 스승으로 나아간 뒤 여러 해가 지나 통례문 봉례랑(通禮門奉禮郞)을 거쳐 등과(登科)하고 보문각 제학(寶文閣提學), 집현(集賢) 예문대제학(藝文大提學)에 이르렀고 이조판서의 지위에 올라 중권(中權)을 주관하였는데, 모두 파격적인 진용(進用)이었다.

향년 57세에 세상을 떠나자 세종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조문하였으며 몹시 애통해하셨다. 세종께서 승하(昇遐)하시자 공도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나라의 전장제도(典章制度)에 의하면 종묘에 배향된 자는 또한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祠堂)에 모시게 되어있다. 공은 봉산인(鳳山人)으로, 살던 마을은 관혜(寬惠)이다. 공의 아들이 처음에는 호남(湖南)의 처가에 살았는데 여러 차례 이사하여 장성에 이르렀다. 6대가 지나 임진년(1592)의 난리를 만나 전가(全家)가 병화(兵火)에 사라지고 사당(祠堂)도 폐허가 되었으며 제사도 결국 끊기게 되었다. 오직 종파(宗派)에서 갈라져 나간 일파만 영남(嶺南)을 떠돌다 병란에서 벗어나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 장성의 이씨(李氏)가 되었다.

정조 기유년(1789)에 공의 13대손 득원(得元)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선조인 수(隨)는 살아서는 빈사(賓師)로 대우를 받고 죽어서는 부조지전(不祧之典)[82]의 은전(恩典)을 입었지만, 불행하게도 종사(宗嗣)가 중간에 끊어지고 신주(神主)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묘정(廟廷)에 배향되어 백세토록 혈식(血食)[83]을 하더라도 귀신이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신은 실로 통탄스럽습니다. 신의 7대조 사숙(思淑)과 그 형 사정(思精)이 난리가 닥치자 서로 이별하면서 하나라도 온전

82 부조지전(不祧之典) : 나라의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위패(位牌)를 옮기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도록 하는 특전을 말한다.

83 혈식(血食) : 서원에 모셔져 유림의 향사(享祀)가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기를 바랐지만, 끝내 동남쪽을 떠돌고 가세(家世)를 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대(代)에 이르러 거의 200여 년이 되었는데 체례(禘禮)와 상례(嘗禮), 귀조(歸胙)를 맡은 관리가 신의 조상 수(隨)에게 불초(不肖)한 후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신의 계보향적(系譜鄕籍)과 태상시장(太常諡狀) 1도(道), 그리고 선덕(宣德) 5년(1430)에 부승(副丞) 이명생(李命生)이 행적에 관한 일을 첩정(牒呈)한 옛 종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예조(禮曹)에 계하(啓下)하고 전교하기를, "문정공(文靖公) 이수(李隨)의 신주를 다시 세우고 그의 지손(支孫)인 득원(得元)의 아비 응열(應說)을 후사로 삼게 하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득원 부자는 그들이 사는 장성의 북쪽 부동리(釜洞里)에 공의 묘당을 세우고 처음처럼 제사를 받들었다. 이윽고 또 여러 공경대부(公卿大夫)를 찾아가 공의 행실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청하여 시문(詩文)을 받았다. 무릇 몇십여 인이 반드시 말하길, "공의 지위가 보상(輔相)은 아니었지만 황익성공(黃翼成公), 허문경공(許文敬公), 최정렬공(崔貞烈公, 최윤덕(崔潤德)), 신문희공(申文僖公, 신개(申槪))과 성조(聖朝)의 묘정(廟廷)에 함께 배향되었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 공의 명성이 어찌 저 네 재상을 기다려서야 더해지겠는가? 삼가 『국조등과보(國朝登科譜)』, 『제씨족고(諸氏族考)』, 『군지(郡誌)』, 『야승(野乘)』 등을 고찰하면 공을 일컬어 예전에 감반(甘盤)에게 배웠다고 일컫기도 하고 주상께서 스승의 예로 받들었다 하기도 하며 토지를 하사했다 하기도 하니, 지금 봉산(鳳山)의 문정방(文靖坊)이 그곳이다. 이 몇 가지 일은 본래 공에게 있던 일이다. 감반(甘盤)은 은묘(殷廟)의 육신(六臣)에 속한다. 대체로 공의 공적은 깨우쳐 인도하여 성덕(聖德)이 하늘에 짝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이루어주었으니, 어찌 공적으로 배열된 동덕(同德) 2~3명의 신하보다 뒤지겠는가?

고인(古人)의 일을 논하는 선비들은 늘 영릉(英陵, 세종)의 신하들 가운데 황익성공이나 허문경공의 높은 업적으로도 정학(正學)을 밝혀서 이제삼왕(二帝三王)의 도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 성조(聖祖)의 집희광명(緝熙光明)[84]한 학문과 스스로 성실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근본은 반드시 힘입어 시작된 바가 있을 것이다. 공이 아침저녁으로 선언(善言)을 올리고 군주의 치화(治化)를 보좌한 공적은 명산석실(名山石室, 국사(國史))에 보존되고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또 알 수가 있다. 근세의 선비들은 옛날을 살펴보는 것이 깊지 못하다. 후대인에게 유명한 이라면 조상의 행적을 아는 자가 많다. 하지만 한미하고 비루하거나 문헌이 흩어져 버리면 공과 같이 업적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이더라도 반드시 여러 공경대부의 말에 의지한 이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슬프도다! 명문(銘文)은 다음과 같다.

---

84 집희광명(緝熙光明) : 제왕의 학문을 말한다. 『시경 경지(敬之)』에 "나 소자가 총명하지 못하여 공경하지 못하나, 날로 나아가고 달로 진보하여, 배움을 이어 밝혀서 광명함에 이르고자 한다.[維予小子, 不聰敬止, 日就月將, 學有緝熙于光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截彼蘆岑　우뚝한 저 노령의 봉우리,
下土蓁蓁　그 아래 초목이 무성하구나.
有儼祠屋　엄연한 사당이 있으니,
揭我王臣　우리 왕의 신하를 모셨도다.
王臣伊何　왕의 신하는 누구인가,
有鳳君子　봉산의 군자로다.
鳳之寬惠　봉산의 관혜는,
實維桑梓　실로 고향이건만,
後世圖南　후세가 남쪽으로 옮길 것을 도모하여,
自光而長　광주에서 장성으로 이르렀네.
寇來不避　왜적이 밀려와도 피하지 않고,
遂覆構堂　마침내 다시 사당을 세웠네.
季支能脫　지손(支孫)만이 화를 벗어나,
孑遺如綴　겨우 명맥만 이었구나.
其姓則傳　그 성명은 전하지만,
公祀久絶　공의 제사는 끊인 지 오래였네.
卄紀而後　이백 년이 지난 뒤에,
荃聽曰可　임금이 듣고 허락을 하셨네.
迺治其主　이에 신주를 다시 모시고,
迺釁其廈　이에 사당을 다시 손질하였지.
世遠文微　시대는 멀고 문헌은 미미하니,
孰考前往　누가 옛날을 고증하리오마는,
盍觀乎禘　어찌 체제사를 살피지 않았으리,
有秩庭饗　묘정(廟庭)에 나란히 계시었지.
左右陟降　곁에서 모시고 오르락내리락 하길,
黃許與班　황익성공과 허문경공과 나란하였네.
彼以伊巫　저들은 이윤(伊尹)과 무함(巫咸)의 충성이었고.
我以甘盤　공은 감반의 지혜로 받들었네.
起自皐比　스승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遂贊笙鏞　마침내 예악(禮樂)의 교화를 거드셨으니,
虞韶周雅　순임금의 소소(簫韶)와 주나라의 대아(大雅)가,
資始告終　이에게서 말미암아 마침을 고했구나.

斥佛遵禮　　불교를 배척하고 예법을 따르기를,
又驗躬行　　또 몸소 실천하여 증명하였으니,
莫多于公　　공보다 아름다운 이가 없어,
不顯其光　　광채가 크게 빛나도다.
崇德報功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여,
永世不祧　　영원히 부조(不祧)의 은전이 내렸네.
爲此刻銘　　이를 위해 명문을 새겼으니,
來裔是昭　　앞날의 후손들에게 밝게 비추리.

통정대부 공조참의 홍원섭(洪元燮)이 찬술하고,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 동지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세자우부빈객 김희순(金羲淳)이 썼으며,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부 한용구(韓用龜)가 전(篆)함.

숭정기원후 네 번째 계유년(1813)에 종이에 세운 후 70년인 1882년을 지나 1883년 8월에 15대손 상근(豫根)과 16대 봉사손 병규(炳奎)가 삼가 세우다.

10. 북이면 만무리 원향유허비(院享遺墟碑)

• 소재지 장성군 북이면 만무리 363-1(부동) • 제작연대 1882년(崇禎紀元後壬午)
• 크　기 전체높이 197.6, 비신높이 125.6, 너비 52.8, 두께 19.8

이 유허비는 만무리 부동마을 맨 안쪽 죽림사(竹林祠)의 향우측에 세워진 비각 내의 향좌측에 있다. 3단모양의 비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낮은 팔작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올렸다. 죽림사는 세종대왕의 스승 문정공(文靖公) 심은(深隱) 이수(李隨, 1374~1430)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1590년에 향내 유림들의 발의로 장성군 진원면 죽림동에 사우를 창건하였으나 1597년 정유재란에 병화로 소실되었다. 그 뒤 1813년에 후손이 북이면 부동으로 이거하면서 이곳에 이건하여 복설하였다. 장성문화원에서 2019년에 발행한 비문은 『장성군지리지총서』에도 원향유허비가 실려있지만, 왠일인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우면의 원문은 이해하기 쉽도록 줄바꾸기를 해서 입력하였다. 비문은 24행 20자이다.

[문액] 院享遺墟碑閣

【전면】

夫墟之建碑以其後孫感舊而不忘先者也唯
鳳山敬鎭
我　先祖文靖公諱隨以文章道德位至藝文
全州秉曄
大提學爲世宗大王師傅而封黃海道鳳山

先祖諡文靖李公院享遺墟碑

君割本郡西周回四十里而賜號寬谷坊曰
文靖村曰寬惠井曰御授則籍貫於斯自此
始矣及卒 世宗擧哀臨弔撫鬚痛哭命有司

【좌면】

禮葬于鳳山文靖坊魚隱峴午坐原有四男長諱貴從
持平仲諱筮從佐郎次諱福從府使季諱吉從參奉持
平公淪落南土奠居長城臥谷里六世白花而五代祖

【후면】

諱夏復移居北面卜宅此地矣吾伯祖考諱得元迺於
正宗己酉以龍蛇島變　祧廟入燼公祀久曠上言蒙
允仍建不祧廟未遑院事而下世祖考諱章元先考諱
基燦繼父兄慕先之誠遵士林尊賢之議歲乙巳刱建
竹林院以成俎豆之禮矣嗚呼戊辰以　朝令入於毁
掇則後仍之抑鬱爲如何哉瞻彼院基竹林猗猗豈無
切磋之追慕余雖不肖鳩財三道伐石表舊傳于世矣
院長判書洪鐘應縉伸長城府使李章愚府使李秉禮

院貳判書洪淳穆府使鄭愚容府使韓弼教

崇禎紀元後壬午九月　日十五世孫　豫根謹竪

【우면】

各派營建別助錄

長城持平公派 仲孫福元

台根十兩 炳注卄兩 基用卅兩

慶尙道 居昌佐郎公宗派 在復四十兩

哲旭卄兩 光玉十兩 ▨▨ 在敏十兩

東八四十 基煥十五 在純卄五 克明十五

井邑佐郎公 孫進士

秉翊十五 秉灌十五 行淳二十五 允植三十五兩

東燮十五兩 光植十兩 秉宅

〈선조이신 문정공(文靖公) 이공의 원향유허비(院享遺墟碑)〉

대저 옛터에 비석을 세우는 것은 후손이 옛일을 생각하며 선조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 선조 문정공(文靖公) 수(隨)는 문장과 도덕으로 지위가 예문대제학에 이르렀고 세종대왕의 사부가 되었다. 황해도(黃海道)의 봉산군에 봉하고 본군 서쪽 둘레 40리 땅을 떼어주며 관곡(寬谷)이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방을 문정방(文靖坊), 마을을 관혜촌(寬惠村), 우물을 어수정(御授井)이라고 불렀으니, 여기에 본적을 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을 떠나자 세종이 애도하고 조문하며 수염을 어루만지며 통곡하였다. 담당 관사에 명하여 봉산 문정방 어은현(魚隱峴) 오좌(午坐)의 언덕에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4남을 두었으니, 장남 휘 귀종(貴從)은 지평을 지냈고, 차남 휘 서종(筮從)은 좌랑을 지냈으며, 삼남 휘 복종(福從)은 부사를 지냈고, 사남 휘 길종(吉從)은 참봉을 지냈다.

지평공(이귀종)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으며, 장성(長城) 와곡리(臥谷里)에 정착한 사람은 6대조 백화(白花)이다. 5대조 휘 하복(夏復)이 북면(北面)으로 이주하여 이 땅에 집을 지었다. 우리 백조고(伯祖考) 휘 득원(得元)은 정조 기유년(1789)에 임진왜란으로 조묘(祧廟)가 잿더미가 되어 공의 제사가 오래도록 끊겼다고 상언(上言)하여 임금에게 허락을 받고 이어 부조묘(不祧廟)를 지었으나 사원(祠院)의 일을 할 겨를이 없이 돌아가셨다.

조부 휘 장원(章元)과 선친 휘 기찬(基燦)은 부형이 선조를 사모한 정성을 잇고 사림이 현자를 존중한 뜻을 따라 을사년(1845)에 죽림원(竹林院)을 창건하여 제사 지내는 예를 이루었다. 아! 무진년(1868)에 조정의 명령으로 훼철되니, 후손의 억울함이 어떻겠는가? 저 죽림원의 터를 바라보면 대나무 숲이 무성하니, 어찌 간절한 그리움이 없겠는가? 내가 비록 불초하지만 삼도(三道)에서 재물

을 모아 비석을 캐고 옛터에 표시하여 세상에 전한다.

원장(院長)은 판서 홍종응(洪鐘應)이고, 원임(院任)은 판서 홍순목(洪淳穆)이며, 관인(官人)으로는 장성부사(長城府使) 이장우(李章愚), 부사 이병례(李秉禮), 부사 정우용(鄭愚容), 부사 한필교(韓弼敎)이다.

숭정(崇禎) 기원후 임오년(1882) 9월 일에, 15세손 상근(豫根)이 삼가 세우다.

〈각파(各派) 영건(營建) 별조록(別助錄)〉

장성(長城) 지평공파(持平公派) 중손(仲孫) 복원(福元) : 태근(台根) 10냥, 병주(炳注) 20냥, 기용(基用) 30냥.

경상도(慶尙道) 거창(居昌) 좌랑공종파(佐郞公宗派) : 재복(在復) 40냥, 철욱(哲旭) 20냥, 광옥(光玉) 10냥, 재민(在敏) 10냥, 동팔(東八) 40냥, 기환(基煥) 15냥, 재순(在純) 25냥, 극명(克明) 15냥.

정읍(井邑) 좌랑공(佐郞公) 후손 : 진사 병익(秉翊) 15냥, 병관(秉灌) 15냥, 행순(行淳) 25냥, 윤식(允植) 35냥, 동섭(東燮) 15냥, 광식(光植) 10냥, 병택(秉宅).

11. 남면 마령리 심덕부(沈德符) 유허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949(내마) • 제작연대 1906년(光武十年)
• 크　기 전체높이 180, 비신높이 118.5, 너비 51-45.5, 두께 16

1906년에 마령리 내마 마을에 세운 심덕부(沈德符) 및 양계사(良溪祠)의 유허비이다. 비는 양계사 내삼문 앞 왼쪽에 있다. 사각 비좌에 상단이 하단보다 넓은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비문의 배치와 비제, 내용 등이 특이하다. 전면 상단에 횡으로 새긴 전액은 '良溪祠'이고 전면 중앙에 종으로 새긴 표제는 '定安公沈先生德符遺墟碑'이다. 표제 바로 왼쪽부터 시작되는 비제는 '良溪書院遺墟碑陰記'로 전액은 양계사, 표제는 심덕부유허비, 비문은 양계서원유허비음기라 함으로써 하나의 비에 양계사와 심덕부의 유허비를 동시에 새긴 셈이다. 비문의 마지막이 전면 표제 오른쪽에서 끝나는 것도 드문 경우이다.

양계사는 정안공(定安公) 허강(虛江) 심덕부(沈德符, 1328~1401)와 심덕부의 셋째아들 둔재(遁齋) 심계년(沈繼年, 1368~1434) 및 심계년의 아들 애암(愛庵) 심연(沈涓, 1392~1425)를 모신 사당으로, 1834년에 짓고 1838년에 사액을 받았다. 1868년 서원 훼철령에 따라 철거되었다가 1957년 복설하였다. 심덕부는 조선건국 후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다. 다섯째 아들 심온(沈溫)은 세종의 장인(昭憲王后의 아버지)이고, 여섯째 아들 심종(沈淙)은 태조의 부마로 조선왕실과 가까운 사이이다. 그러나 심계년은 고려에서 성주목사(成州牧事)를 지내고 조선건국 후에는 절에 숨어 살다가, 나주목사(羅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진원(珍原) 산중에 은거하였다. 심연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비문은 이도재(李道宰, 1848~1909)가 짓고, 글씨는 심덕부의 18대손 심선택(沈璿澤)이 썼다. 비문은 24행 38자이다.

【전면】

[두전] 良溪祠

定安公十八代孫前成均舘博士璿澤敬書

都有司本孫幼學能春

監董　　能九

前叅奉能文

定安公沈先生德符遺墟碑

良溪書院遺墟碑陰記

長城之南馬嶺故珍原縣也嶺下有良溪書院卽沈虛江

遁齋愛庵三先生二百年妥靈之地不幸中撤紳士之過

墟者莫不齎嗟爰謀伐石以識之石旣具後孫沈君能九

【우면】

徵余一言余雖不文慕賢尙德本乎彝性不敢固辭謹按虛江公

諱德符靑松人官麗朝爲門下贊成事封靑城府院君洎乎我

【후면】

太祖高皇帝龍興以開國勳改封靑城伯拜左相諡定安其第三子
諱繼年麗季官成州牧事及革命托迹浮屠變名道生避地北靑
太祖自徵時聞其賢訪以物色屢徵不就竟拿致之　命補羅州到
州卽投印挈家隱珍原山中號遁齋有子諱涓愛庵其號幼而聰敏
成童能通經且篤孝遠近咸推重年十七聞　太祖晏駕登巖上痛
哭石面盡赭人號其石曰淚血巖在今靑松縣
太宗朝登第　上以長松明月稱之除監察　命曰汝詢監工殿中
彰善斥惡公對曰君禮臣忠都兪之治可復　上甚善之年纔弱冠
早卒嗚呼以虛江公之宿德元勳根深源遠篤生忠孝世趾厥美足
可樹風百世宜其嘏享無替而物之成毁有數道之興廢有時院已

【좌면】

撤而碑又出夫安知不因斯碑而有復院之理也耶姑書此而俟之
光武十年六月 日
正憲大夫湖南道觀察使原任弘文舘學士奎章閣學士侍講院日講官陸軍副將延安李道宰記

정안공 심덕부(沈德符) 선생 유허비

<양계서원(良溪書院) 유허비(遺墟碑) 음기(陰記)>

장성(長城)의 남면 마령(馬嶺)은 옛날의 진원현(珍原縣)이다. 고개 아래에 양계서원이 있는데 곧 심허강(沈虛江)·둔재(遁齋)·애암(愛庵) 세 선생의 영령을 2백년 동안 모셨던 곳이다. 불행히 중간에 철거되어 옛터를 지나던 선비들의 탄식을 자아내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기로 계획하였다. 돌이 마련된 뒤 후손인 심능구(沈能九) 군이 나에게 한마디 말을 청하였다. 내가 비록 문장에 능하지 못하지만 현덕(賢德)을 추숭하는 마음이 이성(彝性)에 근본한 일이었기에 감히 굳게 사양을 하지 못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허강공(虛江公)의 휘는 덕부(德符)요, 청송인(靑松人)이다. 관직은 고려조에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지내고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해졌는데, 우리 태조 고황제(高皇帝)가 창업을 할 때 개국훈(開國勳)으로 청성백(靑城伯)에 개봉(改封)되고, 좌의정에 제수되었으며 시호는 정안(定安)이다. 셋째 아들인 휘 계년(繼年)은 고려 말에 관직이 성주목사(成州牧事)에 이르렀으며, 나라가 바뀌자 불문(佛門)에 몸을 의탁하고 도생(道生)으로 이름을 바꾼 채 세상을 벗어나 북청(北靑)에 은거하였다. 태조께서 제위에 오르기 전부터[85] 그의 현명함을 듣고 물색하여

85 원문에는 '自徵時'로 새겨져 있지만, 문맥상 '自微時'로 바꾸어 번역했다.

찾으며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자, 끝내 억지로 끌고 와 나주(羅州)에 보임하게 하였는데 주에 당도하자 즉시 인수(印綬)를 던지고 가솔을 거느리고 진원산(珍原山)으로 숨어 들어갔으며, 호를 둔재(遁齋)라 하였다.

아들 휘 연(涓)은 호가 애암(愛庵)인데, 어려서부터 총민하였으며, 15세가 되어서는 경전(經典)에 통달하였고, 또한 효성이 독실하여 원근 사람들이 모두 추중(推重)하였다. 나이 17살에 태조(太祖)가 붕어(崩御)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위에 올라 통곡하자 돌 표면이 모두 붉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를 '누혈암(淚血巖)'이라 하며, 지금의 청송현(靑松縣)에 있다. 태종조(太宗朝)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주상이 '장송명월(長松明月)'이라 일컬으며, 감찰(監察)에 제수하고 "너는 대궐 안의 공사를 잘 감독하여 선을 표창하고 악을 내치거라."라고 명하자, 공이 "군주는 예를 다하고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면 요순(堯舜)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주상께서 매우 훌륭하다고 여겼다. 공은 겨우 약관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 허강공의 숙덕원훈(宿德元勳)은 뿌리가 깊고 기원이 오래되었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충효의 자질을 갖추고 대대로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여 영원토록 풍성(風聲)을 세우기에 충분하다. 마땅히 그치지 않고 제향(祭享)을 받들어야 하지만, 사물의 성장과 소멸에 운수가 있고 도의 흥체(興替)에도 시기가 있어 서원이 이미 무너졌지만 비석이 또 나오게 되었다. 대저 이 비석으로 인하여 서원을 다시 세울 이치가 있음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우선 이같이 적어 훗날을 기다린다.

광무 10년(1906) 6월에, 정헌대부 호남관찰사 원임 홍문관학사 규장각학사 시강원일강관 육군부장 연안(延安) 이도재(李道宰)가 짓고, 정안공(定安公) 18대손 전 성균관박사 선택(璿澤)이 삼가 쓰다. 도유사(都有司)는 본손(本孫)인 유학(幼學) 능춘(能春)이고, 감동(監董)은 능구(能九)와 전 참봉 능문(能文)이다.

12. 삼서면 삼계리 계산사(桂山祠) 유허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656(계동) • 제작연대 1903년(癸卯)
• 크　기 전체높이 221, 비신높이 157, 너비 57-47, 두께 28

1903년에 삼계리 계동마을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세운 계산사 유허비이다. 계산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수옹 임두춘(林逗春, 1567~1593)과 그의 종질 임흥진(林興震, 1566~1621) 및 임화진(林華震, 1575~1634)을 모신 사당이다. 1806년에 건립하였으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사각 비좌에 위가 아래보다 넓은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비문은 기우만(奇宇萬)이 짓고, 후손 임기활(林基闊)이 글씨를 썼다. 그러나 기우만의 문집에서는 관련내용을 찾지 못했다. 비문은 27행 37자이다. 오른쪽에 2000년에 이 비문을 번역하여 세운 유허비가 있다.

【전면】

桂山祠遺墟碑

【좌면】

立祠桂山俎豆林氏三賢皆壬辰義士功存　宗社扶植名教宜祭于社水翁諱逗春以尊位於北壁松窩諱興震竹軒諱華震分腏東西盖松伯竹季而於水翁從姪也林氏貫長興以東來學士八及爲初祖大匡頤最顯縣令得蓬奉事繼周習讀元恕其同祖而水翁禰宣敎郎湜松竹二公禰叅判遇春水翁公生　嘉靖丁卯有至性幼而孤能廬墓膂力亦絶倫壬辰燹赴義將沈公友信幕委副將自當一隊殪賊於黃澗淸州之間設伏於禿城以挫賊勢癸巳挈兵入晉州把守東門城陷與金文烈諸公同赴南江而死松窩公生　嘉靖丙寅慷慨多大志常曰大丈夫當獻身

【후면】

殉　國馬革裹屍豈效書生埋首章句臥死牖下盖先見島夷所抱忠勇有地可據遂以武譽授訓鍊主簿　壬辰方家食聞　京城失守　大駕西狩募兵粮將勤　王時慈夫人老在堂屬竹弟而告之曰乃兄委身于國義決一死奉老慈惟汝在卽赴　行在塗道遇賊斬獲十餘級及至竭忠扈　駕國耳忘身感憤抆涕雙袖龍鍾癸巳扈還以寇賊未平不敢歸戊戌始還慈夫人得無恙而夫人鄭氏已遇賊殉烈矣自是謝絶名利不伐其勞馮大樹高處在此而爵賞竟亦不及得年五十六卒於　天啓辛酉竹軒公生　萬曆乙亥文藝夙就孝友篤至志體兼養早孤廬墓壬辰松窩公赴義公自負智勇以俱在兄歸屢請於兄竟以母老無養不能行爲募兵粮以資送焉及丁酉荐食天將失守　國計搶攘乃奮身募義將赴難慈夫人喜曰移孝爲忠豈有二致母有二子一子扈　駕一子赴敵吾雖死榮矣无以母爲也挈兵至啓良山遇賊斬數十百人彼衆我寡被俘拘囚見機乘夜奪其槍劒殺守倭數百脫身而還所著楚囚南冠客漢節北海腸平生奪矟技匈魁血一槍卽寫其時事也盖其氣勇奮義敵愾足當一隅而亂亦自是平正兄弟終養枕被至老晩授司饔院奉事得年六十卒以甲戌并以士論院享旣久

今上初服以大同朝令院撤而墟三十年間獸蹄鳥跡交於國中至于今日而極矣忠勳不祀豈

【우면】

其先兆歟士論久而悶盍遂并碑其遺墟而設壇舍菜以效薄忱雖未及光復舊章又未始非思

活之消息樂聞而記其事致多士之意而俾爲銘林氏東鎭祥鎭長鎭　銘曰

猗歟林氵一門三忠大蹈長江有是水翁松兄竹弟挺然大冬一堂腏享桂山之宮烈烈芬馥百世樹風院撤而墟吾道之窮地荒水廢蹄跡交中幸玆世運有窮必通壇而崇報碑庸記功輿盍少伸過者鞠躬光復舊典佇見其終　　有司 景煥

歲癸卯春三月戊寅幸州奇宇萬撰　　瑚鎭

后孫 基闊 謹寫

〈계산사(桂山祠) 유허비(遺墟碑)〉

계산(桂山)에 사당(祠堂)을 세워 임씨(林氏) 4현(四賢)을 제사하는데,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당시 의사(義士)이다. 이분들은 종묘사직에 공이 있고 명교(名敎)를 붙들어 세웠기에 마땅히 사당에 제사 지낼만하다. 수옹(水翁) 두춘(逗春)은 존위로써 북벽에 모셨고, 송와(松窩) 흥진(興震)과 죽헌(竹軒) 화진(華震)은 동서로 나누어 배향했다. 송와는 맏이이고 죽헌은 아우인데, 모두 수옹의 종질이다.

임씨의 관향은 장흥으로, 동래학사(東來學士) 팔급(八及)을 시조로 삼는다. 대광(大匡) 이(頤)가 가장 현달했고, 현령 득유(得蕤), 봉사 계주(繼周), 습독 원서(元恕)는 그 동조(同祖)가 되는 분들이다. 수옹(水翁)의 부친은 선교랑 식(湜)이고, 송와와 죽헌 두 공의 부친은 참판 우춘(遇春)이다.

수옹공(水翁公)은 가정 정묘년(1567)에 태어났는데, 지극한 성품을 타고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여묘살이를 했고, 체력이 뛰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심우신(沈友信)의 막하로 나아가 부장을 맡았다. 스스로 한 부대를 맡아서 황간(黃澗)과 청주 사이에서 적을 물리쳤고, 독성에 부대를 매복하고 적들의 기세를 꺾었다. 계사년(1593)에 병사를 이끌고 진주성으로 들어가 동문을 지켰으며, 진주성이 함락되자 문열공(文烈公, 金千鎰) 제공과 함께 남강으로 뛰어들어 세상을 마쳤다.

송와공(松窩公)은 가정 병인년(1566)에 태어났는데, 강개하고 큰 뜻이 있어 항상 "대장부는 마땅히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 죽고 말가죽으로 그 시체를 싸야 할 것이다. 어찌 서생으로서 머리를 장구(章句)에 묻고서 들창문 아래 누워 죽을 것인가?"라고 했다. 대개 섬나라의 화란을 선견하고 품고 있는 충용(忠勇)을 펼칠 곳이 있다고 보고,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가 되었다. 임진년에 바야흐로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 서울을 지키지 못하여 임금의 대가가 몽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과 군량미를 모아 장차 근왕을 가려 할 때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죽헌 동생에게 부탁하고 말하길, "형은 나라에 몸을 맡겼으니 의리상 결단코 한 번 죽어야 한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오직 너에게 있다."라고 하고 즉시 행재소로 달려가는데, 도중에 적을 만나 적을 벤 것이 십여 급이었다. 행재소에 이르러서는 충성을 다하여 어가를 호종하였다. 나라를 위해 몸을 잊고 분함으로 눈물을 훔치느라 두 소매가 벗벗해졌다. 계사년에 호종을 하여 돌아오려고 했으나 적들이 평정이

되지 않아 감히 돌아오지 못하고 무술년(1598)에야 비로소 돌아왔다. 어머니는 별탈이 없었으나 부인 정씨(鄭氏)는 이미 적에게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이때부터 명리를 사절하고 그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으며, 풍대수(馮大樹)[86]처럼 높이 이곳에 있었으니, 관작이나 상이 마침내 미치지 않게 되었다. 나이 56세인 천계(天啓) 신유년(1621)에 세상을 떠나셨다.

죽헌공(竹軒公)은 만력 을해년(1575)에 태어났으며, 문예를 일찍 성취하였고, 효도와 우애가 깊었으며, 부모의 지체(志體)를 모두 봉양하였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여묘살이를 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송와공이 거의를 하자 공은 스스로 지략과 용맹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여 형이 돌아오길 누차 청하였지만 마침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하고, 의병과 군량미를 자송(資送)하였다. 이어 정유재란이 일어남에 명나라 장수가 지키지 못하여 나라의 계책이 어지럽게 되자, 곧 몸을 떨치고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여 장차 전쟁터에 나아가려 하는데, 모부인이 기뻐하며 말하길, "효를 옮겨 충성을 하는 것이 어찌 두 가지 이치가 있으랴? 어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어가를 호종하고 한 아들은 전쟁터에 나아가니, 내가 비록 죽는다해도 영광이다. 어미를 위한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

병사를 이끌고 계량산(啓良山)에 이르러 적을 만나 싸워 수백 인을 참획하였다. 적의 수가 많아 중과부적으로 포로가 되셨으나 야음을 이용해 그 창검을 빼앗아서 지키는 왜병 수백 명을 죽이고 탈출하여 돌아왔다. 공이 지은 시 "초나라에서 남관(南冠)을 쓰고 갇힌 객이지만, 한절(漢節)[87]하는 북해의 마음이네. 평생의 창검기술을 다하여 적괴를 한 창에 죽이리."는 곧 그때의 일을 쓴 것이다. 대개 그의 용기와 의분과 적개심은 한 모퉁이를 담당하기 족하였지만, 왜란 또한 이때 평정되었으니, 형제가 부모를 봉양하며 천수를 누리고 늙도록 한 이불을 덮게 되었다. 늦게 사옹원 봉사에 제수되었고, 나이 60세인 갑술년(1634)에 졸하였는데, 사론으로 모두 서원에 향사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금상께서 처음에 대동 조령으로 서원을 철폐함에 30년 동안 폐허가 되니, 나라에는 짐승이나 새의 발자국이 서로 이어지길 지금에 이르러서 더해졌다. 충훈을 제사하지 않는 것이 어찌 그 조짐이었으리오? 사론이 오랫동안 답답해하다가 마침내 그 유허에 함께 비를 세우고 단을 설하여 석채를 함으로써 얕은 정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비록 옛 법도를 회복함에 미치지 못했어도 또한 애초에 사활(思活)의 소식 아닌 것이 아니니, 즐겁게 듣고 그 일을 기록한다. 다사들의 뜻으로 명을 짓게 한 사

---

86 풍대수(馮大樹)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의 장군 풍이(馮異)를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동한기(東漢紀)〉에 "편장군(偏將軍) 풍이는 위인이 겸손하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고 적과 접전(接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하들로 하여금 항상 제군(諸軍)의 뒤에 행군하도록 하였다. 전투가 끝나고 여러 장수를 논공행상(論功行賞)할 적마다 풍이는 항상 나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군중(軍中)에서 대수장군(大樹將軍)으로 호칭하였다."라고 하였다.

87 한절(漢節) : 한(漢)의 절부(節符). 한나라 소무(蘇武)가 무제(武帝) 때에 중랑장(中郎將)으로서 흉노(匈奴)에게 사신 갔다가 억류를 당하여 19년 동안 한나라 절(節)을 가졌다. 『한서(漢書)』 소무전(蘇武傳)에 보인다.

람은 임동진(林東鎭)·임상진(林祥鎭)·임장진(林長鎭)이다. 명에 이른다.

猗歟林林一門三忠　　아 성대하도다 일문의 삼충이여,
大蹈長江有是水翁　　크게 장강을 밟은 사람은 수옹이로다.
松兄竹弟挺然大冬　　송와 죽헌 형제 한겨울에도 우뚝 빼어나,
一堂腏享桂山之宮　　한 집에 배향하니 계산의 궁전이라.
烈烈芬馥百世樹風　　열렬한 향기는 백세동안 풍성을 세웠는데,
院撤而墟吾道之窮　　서원이 훼철되어 유허되자 우리의 도도 궁해져,
地荒水廢蹄跡交中　　땅과 물이 황폐하고 짐승 발자국이 어지러웠네.
幸玆世運有窮必通　　다행이 세운을 만나 궁하면 통하나니,
壇而崇報碑庸記功　　단을 세워 제사하고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네.
輿盍少伸過者鞠躬　　대중의 울분이 조금은 펴지고 지나는 자 국궁하니,
光復舊典佇見其終　　옛 법을 회복할 지 우두커니 그 끝을 보네.

계묘년(1903) 3월 무인일에, 행주인 기우만(奇宇萬)이 짓다.

유사는 경환(景煥)·호진(瑚鎭)이고, 후손 기활(基闊)이 삼가 쓰다.

13. 삼계면 수옥리 수강서원(壽岡書院) 유허비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165-2(수각) • 제작연대 1869년(崇禎紀元後己巳)
• 크　기 전체높이 132, 비신높이 108, 너비 54-44, 두께 24

1869년에 수강서원의 사당터에 세운 유허비이다. 수옥리 수각마을 뒤(수옥리 768)에 있다. 사각 비좌 위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은 위가 아래보다 넓다. 비가 서 있는 자리는 주변에 담장 흔적이 남아있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초석이 남아있어 사당터임을 알 수 있다. 수강서원은 송흠과 이만영 및 이장영을 향사하던 곳인데, 1868년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비는 서원이 훼철된 이듬해에 세워졌다. 비문은 6행 11자이다.

【전면】

壽岡書院遺墟碑

【후면】

孝憲公宋先生設享

爲數百年後至戊辰

朝令裁嚴八域同爲

毁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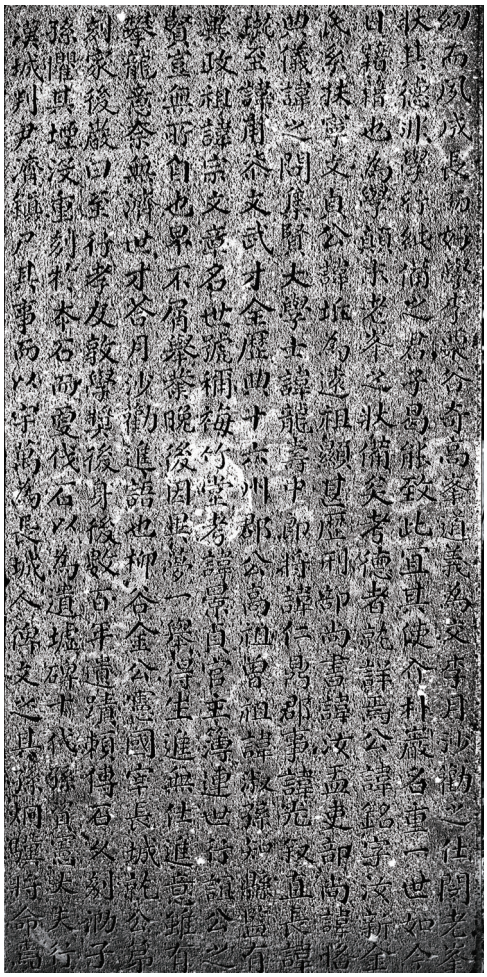
崇禎紀元後己巳十二月日

〈수강서원(壽岡書院) 유허비(遺墟碑)〉

효헌공(孝憲公) 송선생(宋先生, 송흠)을 향사한 지 수백 년이 되었는데, 뒤 무진년(1868)에 이르러 엄한 조령(朝令)에 의해 팔도의 서원이 모두 한 가지로 훼철되었다,

숭정 기원후 기사년(1869) 12월.

14. 북일면 문암리 김명(金銘) 유허비



• 소재지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200-18(제암) • 제작연대 1893년(癸巳)
• 크　기 전체높이 127, 비신높이 92, 너비 38, 두께 18

디지털 탁본

문암리 제암 마을에 있는 화곡 김명(金銘)의 유허비이다. 제암 마을 입구인 매남 버스 정류장 맞은편 바위 앞에 위치한다. 자연석 비좌 위에 비신을 세웠고, 개석은 비신과 한 돌이며 비신보다 앞뒤좌우로 조금 튀어나왔고 상부는 곡면을 살짝 주었다. 비문은 1893년에 송사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짓고 1893년(癸巳)에 건립했다. 뒷면 암벽에는 비문의 한 구절인 '至行孝友敦學奬後'라는 암각문이 종서로 새겨져 있다. 비문은 23행 27자이다. 50여미터 떨어진 길가에 1937년 신비가 세워졌다. 내용은 똑같다.

김명(金銘, 1545~1619)의 자는 여신(汝新), 호는 화곡(火谷), 본관은 부안(扶安)이다.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주부(主簿) 김경정(金景貞)이고, 죽계(竹溪) 김횡(金鉷, 1541~1590)이 그의 형이다. 월사 이정귀(李廷龜)나 율곡 이이(李珥) 등과 가깝게 지냈으며, 61세 되던 1605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만년에 전라남도 장성군 개암[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제암마을]으로 옮겨 살았는데, 그곳에서 후진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근처에 살던 현주(玄洲) 조찬한(趙纘韓)과는 서로 학문을 교류하였으며, 마음을 터놓고 시국을 논하기도 하였다.

기우만의 문집에 실린 내용과 비교하면, 좌측면 4번째 줄 끝부분의 '遠而不見亦聞而知之'란 구절, 후면의 2번째줄 끝부분의 '如今日藉藉也'란 구절, 후면의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에 걸쳐있는 '顯甚歷刑部尙書諱汝盂吏部尙諱恪典儀諱之問集賢大學士諱龍壽中郎將諱仁鼎郡事諱光叙直長諱瑽至諱甫漆文武才全歷典十六州郡公高祖'라는 구절, 8번째 줄 끝부분의 '雖有攀龍意奈無濟世才答月沙勸進語也'라는 구절, 11번째 줄의 '十代孫資憲大夫行漢城判尹濟鎭'이란 구절, 우측면 1번째 줄의 '不獲辭而繫之詩曰' 등이 『송사집』에는 '藉藉於當時', '至今日不替也', '名公巨卿奕葉相承高祖諱甫', '구절빠짐', '後孫應鉉濟鎭', '詩曰' 등으로 단순화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전면】

火谷先生金公遺墟碑

【좌면】

介朴巖於吾鄕僻甚環以崇山水道通巖石間東流二十里入大川人跡罕到望之雲山而入縣界問介朴巖解語童子皆知而詳說之其不僻又如是盖因火谷金公壬辰之燹負親屍避賊鋒隱居於此亂旣平歸葬於扶寧之席洞構亭終老於此四方學者聞風相隨遠而不見亦聞而知之至使三百年之後說爲名村執此像想公之爲公可知已公

【후면】

幼而夙成長而好學李栗谷奇高峯道義爲交李月沙勸之仕閔老峯狀其德非學行純備之君子曷能致此宜其使介朴巖名重一世如今日藉藉也爲學顚末老峯之狀備矣考德者就詳焉公諱銘字汝新金氏系扶寧文貞公諱坵爲遠祖顯甚歷刑部尙書諱汝盂吏部尙諱恪典儀諱之問集賢大學士諱龍壽中郎將諱仁鼎郡事諱光叙直長諱瑽至諱甫漆文武才全歷典十六州郡公高祖曾祖諱淑孫知縣監有異政祖諱宗文章名世號稱梅竹堂考諱景貞官主簿連世行誼公之賢豈無所自也早不屑擧業晩後因異夢一擧得生進無仕進意雖有

攀龍意奈無濟世才答月沙勸進語也柳谷金公憲國宰長城就公第
刻家後巖曰至行孝友敦學奬後身後數百年遺蹟賴傳石久刻泐子
孫懼其湮沒重刻於本石而更伐石以爲遺墟碑十代孫資憲大夫行
漢城判尹濟鎭尸其事而以宇萬爲長城人俾文之其孫炯驥將命焉

【우면】

不獲辭而繫之詩曰　山之高道與之高山之深學與之深所以雲山
一僻村後來尙說如桃源
公入山後五周壬辰之明年癸巳孟春幸州奇宇萬撰
　　九代孫都有司應鉉　　十代孫洛守
　　有司應周　　洛豊謹書

〈화곡(火谷) 김선생(金先生) 유허비(遺墟碑)〉

개박암(介朴巖)은 우리 고을에서 매우 외진 곳이다. 높은 산으로 둘렀고 물길은 바위 사이로 통과하여 동쪽으로 20리를 흘러 큰 내로 들어간다. 인적이 드물고, 구름과 산만 보이는데 현(縣)의 경계로 들어가 개박암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알고 자세히 말하니, 그 외지지 않는 것이 또 이와 같다.

대개 화곡(火谷) 김공(金公)은 임진왜란 때 아버지의 시신을 짊어진 채 적의 칼날을 피해 여기에서 은거하였다. 난이 이미 평정되자 부령(扶寧)의 석동(席洞)으로 돌아가 장사지냈으며, 정자를 짓고 이곳에서 노년을 보냈다. 사방의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따랐으니, 멀리서 보지 못하였더라도 또한 소문을 듣고 알았다. 심지어 300년 뒤에도 유명한 마을이라고 말하게 할 정도였으니, 이것으로 그의 사람됨을 생각해 보면 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숙성(夙成)하였고, 자라서는 학문을 좋아하여 이율곡(李栗谷), 기고봉(奇高峯)과 같은 이들과 도의(道義)로 교분을 맺었다. 이월사(李月沙)가 벼슬하기를 권유하였고, 민노봉(閔老峯)이 그의 행장을 썼으니, 덕행을 겸비한 군자가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개박암으로 하여금 이름이 당대에 무겁게 하여 오늘까지 이름이 자자하게 한 것이 마땅하다. 학문의 전말은 노봉(老峯)이 지은 행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덕을 상고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의 휘는 명(銘)이고, 자는 여신(汝新)이다. 김씨(金氏)의 관향은 부령(扶寧)이니, 문정공(文貞公) 구(坵)가 원조(遠祖)이다. 매우 드러난 사람으로는 형부상서(形部尙書)를 역임한 여우(汝盂),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낸 각(恪), 전의(典議)를 지낸 지문(之問), 집현전 태학사인 용수(龍壽), 중랑장(中郎將)인 인정(仁鼎), 군사(郡事)인 광서(光敍), 직장(直長)인 취(璔) 등이 있고, 보칠(甫漆)에 이르러서는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여 16주군(州郡)을 두루 다스렸으니 바로 공의 고조이다.

증조의 휘는 숙손(淑孫)이니, 현감이 되어 남다른 정사를 펼쳤다. 조부의 휘는 종(宗)이니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고, 호는 매죽당(梅竹堂)이다. 아버지의 휘는 경정(景貞)이니, 관직은 주부이다. 대를 이어 행의(行誼)가 있었으니, 공의 어진 것이 어찌 유래가 없겠는가? 이른 나이부터 과거 공부를 즐겨하지 않았지만 만년이 되어서야 기이한 꿈으로 인하여 일거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었으니, "비록 이름을 떨칠 생각이 있었지만 세상을 구할 재주가 없는 것을 어찌하랴.[雖有攀龍意, 奈無濟世才.]"라고 한 시구는 월사(月沙)가 벼슬하기를 권유한 말에 답한 것이다.

유곡(柳谷) 김헌국(金憲國) 공이 장성현감(長城縣監)이 되어 공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집 뒤에 있는 바위에 "지극한 행실로 효도하고 우애하며, 학문에 독실하고 후배들을 장려하였다.[至行孝友, 敦學奬後.]"라는 문구를 새겼다. 공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유적이 이 덕분에 전해졌다. 비석이 오래되어 새긴 글씨가 갈라지니 자손들이 인몰(湮沒)될까 염려하여 본래 비석에다 중각(重刻)하고, 다시 비석을 세워 유허비를 만들었다.

십대손 자헌대부 행 한성판윤 제진(濟鎭)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나 우만이 장성(長城)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문을 쓰게 하고, 그 손자 형기(炯驥)를 통해 부탁하였다. 사양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시를 붙인다.

山之高道與之高　　산이 높으니 도가 더불어 높고,
山之深學與之深　　산이 깊으니 학문이 더불어 깊네.
所以雲山一僻村　　구름에 둘러싸인 산속 외진 마을,
後來尙說如桃源　　후세 사람들 오히려 도원 같다 하네.

공이 세상을 떠난 뒤 5주년인 임진년의 다음 해 계사년(1893) 맹춘(孟春)에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이 찬술하다.

도유사는 9대손 응현(應鉉)이고 유사는 응주(應周)이며, 10대손 낙수(洛守)와 낙풍(洛豊)이 삼가 쓰다.

15.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白羊寺) 승탑

1) 소요대사탑

2) 서운당 영골탑

3) 무가당탑

4) 모운당탑

5) 벽허당탑

6) 대각명탑

7) 영월당탑

8) 지백당탑

1) 소요대사탑(逍遙大師塔)

* 소 재 지 :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1-1
* 제작연대 : 1649년경
* 문화유산지정 : 보물(2002.09.25)
* 크　　기 : 전체높이 158

소요대사 태능(太能, 1562~1649)의 승탑은 절 입구인 극락교 들어가기 전 쌍계루 뒤편 옛 극락전 부지인 서부도전에서 2007년에 성보박물관 앞뜰에 옮겨 놓았다가 최근 성보박물관 전시실 내부로 이전 전시하였다. 소요대사는 담양 사람으로, 부휴당(浮休堂) 선수(善修)에게서 경전을 배우고, 서산대사 휴정(休靜)에게서 선을 닦았으며, 사명유정(四溟惟靜), 편양언기(鞭羊彦機), 정관일선(靜觀一禪) 등과 함께 문파를 형성하여 조선 후기 불교계를 이끈 인물이다. 그의 시문을 엮은『소요당집(逍遙堂集)』에 행장이 전한다. 이 부도는 2002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제56호에서 보물 제1346호로 승격되었다.

【전면】逍遙堂

2) 서운당(棲雲堂) 영골탑(靈骨塔)

* 소 재 지 :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4
* 크　　기 : 전체높이 112.8
* 제작연대 : 18세기 초경

서운당(棲雲堂)의 영골탑은 절 입구인 극락교 들어가기 전 쌍계루 뒤편 옛 극락전 부지인 서부도전에서 2007년에 지금의 승탑원으로 옮겼다. 백양사 승탑원은 성보박물관 주차장 맞은편 산기슭에 자리한다. 이곳은 옛 암자 터였다고 한다. 승탑원 중심부인 중앙 후면 부도군(35) 가운데 두 번째 줄

향좌 아홉 번째에 위치한다.

【전면】 棲雲堂
靈骨塔

3) 무가당탑(無價堂塔)

* 제작연대 : 17세기~18세기경 * 크 기 : 전체높이 144.2

무가당(無價堂)이라는 당호를 쓴 승려의 승탑은 승탑원 중심부인 중앙 후면 부도군(35) 가운데 세 번째 줄 향좌 세 번째에 위치한다. 무가현옥(無價玄玉)은 1747년 광악자정(光岳自靜)스님과 더불어 운문암을 중창(제3창)한 스님이다.(白羊山雲門庵流傳錄) 만암문집에 실려 있는 '백양사의 역대 주지 방함기'에는 백양사 제28세 주지로 전해지고 있다.

【전면】 無價堂

4) 모운당탑(慕雲堂塔)

* 제작연대 : 1703년 직후 * 크 기 : 전체높이 131.5

진언모운(震言慕雲, 1622~1703)의 승탑은 승탑원 중심부인 중앙 후면 부도군(35) 가운데 네 번째 줄 향좌 네 번째에 위치한다. 모운스님은 법명이 진언(震言)이고 법호(당호)가 모운(慕雲)이며, 자는 취고(就古)이다.

【전면】 慕雲堂

5) 벽허당탑(碧虛堂塔)

* 제작연대 : 19세기 중엽경 * 크 기 : 전체높이 222

벽허원조(碧虛圓照, 18세기 말~19세기 중엽)의 승탑은 승탑원 중심부인 중앙 후면 부도군(35) 가운데 네 번째 줄 향좌 다섯 번째에 위치한다. 벽허당(碧虛堂)은 법명이 원조(圓照)이고 법호(당호)가 벽허(碧虛)이다. 그는 설암 추붕(雪岩 秋鵬, 1758~1839)의 사법제자이며, 영허 성준(靈虛 性俊)이 그의 사법제자이다.

【전면】 碧虛堂

6) 대각명탑(大覺銘塔)

* 제작연대 : 18세기경 * 크 기 : 전체높이 167.6

승탑원 중심부인 중앙 후면 부도군(35) 가운데 네 번째 줄 향좌 일곱 번째에 위치한 이 부도는 새겨진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으나 일반 당탑에 쓰인 글자 수보다는 더 많다.

【전면】大覺▨▨▨▨

7) 영월당탑(影月堂塔)

* 제작연대 : 19세기 말경　　* 크　　기 : 전체높이 164.6

영월당(影月堂)의 승탑은 승탑원 중심부인 중앙 후면 부도군(35) 가운데 네 번째 줄 향좌 여덟 번째에 위치한다. 영월당 경문(鏡文)은 설두 봉기(雪竇 奉琪, 1824~1890)의 동문 형제이므로, 이 부도의 조성시기도 19세기 말 이후로 추정된다.

【전면】影月堂

8) 지백당탑(知白堂塔)

* 제작연대 : 1703년경　　* 크　　기 : 전체높이 156.7

지백계우(知白繼愚)의 승탑은 승탑원 중심부인 중앙 후면 부도군(35) 가운데 다섯 번째 줄 향좌 첫 번째에 위치한다.지백 스님의 행장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백양산운문암 창수사적을 살펴보면 법명이 계우(繼愚)로서 소요(逍遙)스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다. 제자로는 상학(尙學) 등이 있다.

【전면】知白堂

16. 황룡면 관동리 석수암지(石水菴址) 암각문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산66(수연산) • 제작연대 1853년(咸豐三年癸丑)
• 크　기 가로 220, 세로 120

수연산에 있는 석수암 건물지의 축대 뒤편의 암벽면에 새겨진 글씨이다. 글자가 새겨진 부분은 폭 90㎝, 높이 55㎝이다. 김필환, 김후찬, 기중진 등이 함풍 3년 8월에 석수암을 함께 유람하고 새긴 것이다. 기중진(奇重鎭, 1801~1864)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8촌 아우이며, 그의 아들 기홍연(奇弘衍, 1828~1898)은 노사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석수암은 고려시대에 창건한 암자로 알려져 있으며, 구한말에는 의병장 기삼연(奇參衍)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켰던 곳이다. 1926년에 회산(晦山) 변승기(邊昇基, 1866~1937)가 지은 <石水庵重建發文>도 남아있는데, 현재는 폐사된 암자이다. 이곳에는 '동유록(同遊錄)'이라는 암각문 외에도 1931년에 유병찬이 새긴 '觀世音菩薩」竹庵」庾炳鑽」辛未夏'라는 글씨가 곁에 새겨져 있고, 오른쪽 석벽에는 '金肯鉉」辛恒文」金泳奎」二千九百五十五年」丁卯七月 日'이라는 글씨, 그리고 건물 뒤편의 우물 주변의 석벽에 '金永允」書」藥泉」庾氏效'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밖에도 석수암 입구 쪽에 있는 바위에는 '隨緣」洞門'이라는 큰 글씨도 새겨져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장성 관동리 석수암지 학술연구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2020) 참조)

【전면】

同遊錄

金必煥

金後燦

奇重鎭

咸豐三年癸

丑八月日

17. 황룡면 맥호리 필암(筆巖) 암각문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403-2 • 제작연대 1723년
• 크　기 전체높이 230, 글씨높이(가로 20 세로 45), 너비 130, 두께 70

장성군 황룡면 맥동(麥洞) 입구 붓 모양의 자연석 바위 전면에 새겨진 글씨이다. '붓 바위'를 뜻하는 필암(筆巖) 글씨는 조선 영조대 문신 윤봉구(尹鳳九, 1683~1767)의 것으로, 그는 필암서원(筆巖書院)의 청절당(淸節堂) 아래 걸린 필암서원(筆巖書院)이라는 현판 글씨를 썼다. 윤봉구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서응(瑞膺), 호는 병계(屛溪) 또는 구암(久菴)으로, 군자감정·대사헌·공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현상벽(玄尙璧)·채지홍(蔡之洪) 등과 함께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문하에서 수학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중 한 사람이다.

현종대 필암이라는 이름이 사액(賜額)된 것은 김인후의 고향 입구에 붓끝 모양을 닮은 바위가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붓 바위 전설로는, 맥동 마을 출신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바로 이 바위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윤봉구의 필암이라는 글씨가 붓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붓 바위에 새겨진 '필암'이라는 글자 위에 흰색 페인트 칠이 덧입혀져 원래의 해정(楷正)한 멋을 느끼기에 방해가 된다.

【전면】 筆巖

18. 황룡면 아곡리 백석헌(栢石軒) 암각문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83 • 제작연대 1875년(乙亥)
• 크　기 가로 90, 세로 70, 두께 30

아곡리 백석헌 입구 오른편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로, 원래 백석헌의 댓돌로 쓰였다고 한다. 백석헌은 기양연(奇陽衍, 1827~1895)이 거주했던 건물의 이름이자, 기양연의 호이다. 기양연의 자는 자민(子敏)이며, 기윤진(奇允鎭)의 아들로, 숙부인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1867년에 대과에 급제하고 관직생활을 하였다. 기양연은 1874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낙향해 있으면서 백석헌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지인들로부터 받은 많은 시문이 문집 초고본에 들어있다.

【전면】

栢石軒

乙亥十一月 日

19. 서삼면 모암리 모암(慕巖) 암각문

• 소재지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547-5 • 제작연대 미상(1919년 重刊)

서삼면 모암리(慕巖里)의 모암저수지(국립장성치유의숲 모암주차장) 수로(水路) 아래 용쏘 절벽에 새겨진 글씨이다. 현재 '모암(慕巖)'이라는 큰 글자 옆에는 '기미중간(己未重刊)'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어 기미년에 중각(重刻)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초로 글씨가 석각(石刻)된 시기 역시 분명히 알 수 없는데, 『장성군사』에서는 고려 고종대(1213~1259) 효자 시중(侍中) 서능(徐稜, 생몰 미상)의 글씨라고 되어있다.

【전면】

慕巖

己未 重刊

20. 북일면 문암리 지행효우(至行孝友) 암각문

• 소재지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200-18(제암) • 제작연대 1597년 이전
• 크　기 암벽높이 250, 암벽너비 140, 글씨면 가로 21, 글씨면 세로 106, 자경 11

제암 마을 입구인 매남 버스 정류장 맞은편 바위에 새겨진 글씨이다. 화곡(火谷) 김명(金銘)의 유허비와 관련 있는 유적으로, <화곡선생김공유허비> 곁에 있다. 조성연대는 <화곡선생김공유허비>에 쓰여 있듯이 유곡(柳谷) 김헌국(金憲國)이 장성현감(長城縣監)이 되었을 때 화곡 김명을 찾아가서 집 뒤에 있는 바위에 "지극한 행실로 효도하고 우애하며, 학문에 독실하고 후배들을 장려하였다.[至行孝友, 敦學奬後.]"라는 문구를 새긴 것이다.

김명(金銘, 1545~1619)의 자는 여신(汝新), 호는 화곡(火谷), 본관은 부안(扶安)이다.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주부(主簿) 김경정(金景貞)이고, 죽계(竹溪) 김횡(金鉉, 1541~1590)이 그의 형이다. 월사 이정귀(李廷龜)나 율곡 이이(李珥) 등과 가깝게 지냈으며, 61세 되던 1605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만년에 전라남도 장성군 개암[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제암마을]으로 옮겨 살았는데, 그곳에서 후진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근처에 살던 현주(玄洲) 조찬한(趙纘韓)과는 서로 학문을 교류하였으며, 마음을 터놓고 시국을 논하기도 하였다.

【전면】至行孝友敦學奬後

21. 장성읍 성산리 하마석(下馬石)

• 소재지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298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비신높이 117, 너비 47, 두께 18

성산리 장성향교 가는 길에 있다. 향교 입구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전 면】

下馬碑

22. 삼서면 홍정리 가산서원(佳山書院) 하마석

• 소재지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488-2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총고 93, 비신높이 88, 너비 3832, 두께 12

조선후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가산서원(佳山書院)의 하마비이다. 비는 홍정리 가산마을 가산서원 입구에 있다. 자연석 비좌에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가산서원은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이재인(李在仁, 1418~ ?),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을 모신 서원이다.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으나 1960년에 다시 사당을 건립하였다.

【전면】

下馬碑

23. 황룡면 아곡리 하마석(下馬石)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22-1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전체높이 52, 비신높이 52, 너비 38, 두께 30

청백리 박수량의 청백당(淸白堂) 입구에 있는 하마석(下馬石)이다. 황룡면 홍길동 테마파크 내 박수량 유허비 옆에 있다. 청백당은 명종이 박수량에게 하사한 99칸 집으로 본래 아치실에서 하남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빈터에는 유허비와 하마비가 남게 된 것이다.

하마석은 하마비(下馬碑)라고 하며, '노둣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릴 때 디딤돌로 이용된다. 보통 직육면체에 가까운 커다란 돌을 솟을대문 옆에 놓아두는 경우와, 석계(石階)처럼 잘 다듬어 기단(基壇) 앞에 놓아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청백당 앞의 하마석은 직육면체의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이다. 비문은 1행 3자이다.

【전면】
下馬石

24. 황룡면 아곡리 기공(奇公) 표지석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35-3 • 제작연대 1854년(甲寅)
• 크　기 전체높이 142, 비신높이 127, 너비 46, 두께 19

아곡1구 홍길동테마파크 주차장 건너편에 2기의 비석 중 하나이다. 청계당(聽溪堂) 기식(奇湜, 1689~1764)의 묘동(墓洞) 표지석이다. 기식은 송암 기정익(奇挺翼)의 아들이다. 호패형 몸돌의 좌측면에 "묘재소보룡산정무좌(墓在小普龍山頂戊坐) 갑인칠월 일(甲寅七月 日)"이라는 기록이 있다. 기식의 묘가 소보룡산 정상에 있다고 한다. 원래 비는 성재 기삼연(奇參衍)의 집터 아래인 아곡리 479-3번지에 있었는데, 성재 후손이 이거함으로써 비석을 현재의 자리로 옮겼고, 이는 망정와 기태온(奇泰溫)이 마련한 산지기 집터였다고 한다. 비문은 2행 14자이다.

【전면】
聽溪堂德陽奇公墓洞

【좌면】
墓在小普龍山頂戊坐甲寅七月　日

색 인

ㄱ

가산재(柯山齋) 161, 164

강석일(姜晳一) 122

개구리 268, 269, 271

개박암(介朴巖) 355

거사비(去思碑) 89, 172, 176

계량산(啓良山) 349

계방촌(契防村) 119

계산사(桂山祠) 347, 348

계생비(繫牲碑) 328, 329

고경명(高敬命) 48, 57, 153, 154, 155, 156, 312, 315

고산촌 129

고용후(高用厚) 153, 156, 157

고인후(高因厚) 48

고정봉(高廷鳳) 48

고정헌(高廷憲) 48

고종후(高從厚) 312, 313, 314

고흥류씨(高興柳氏) 263, 265

공부(孔俯) 326

공산이씨(公山李氏) 192

공소(孔紹) 326

공창규(孔昶奎) 300

공필장(孔弼章) 241, 242, 243

곽영(郭嶸) 55

관개정(冠蓋亭) 172, 176

관수정(觀水亭) 42, 43, 181, 183

관혜(寬惠) 334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 60

광악자정(光岳自靜) 359

광양임씨(光陽林氏) 229

광주(光州) 55, 56, 58, 61, 182, 313

광주목사(光州牧使) 45, 303

광주향교(廣州鄕校) 71, 324

군량미 293, 348, 349

권덕언(權德彦) 166

권벌(權橃) 46

권벽(權擗) 293

권엄(權欕) 87

권용현(權龍鉉) 27

권익(權翼) 87, 88, 144

권적(權適) 294

권창현(權昌鉉) 172, 176

권필(權韠) 263, 291

금강(錦江) 55, 150, 218, 221, 312

금산(錦山) 55, 312

금성나씨삼강문(錦城羅氏三綱門) 192

기건(奇虔) 166, 217

기계헌(奇啓獻) 220, 221, 222

기대승(奇大升) 313, 324

기대유(奇大有) 220, 221

기묘명현(己卯名賢) 30

기삼연(奇參衍) 361, 370

기식(奇湜) 370
기양연(奇陽衍) 237, 240, 364
기언정(奇彦鼎) 242, 244
기우만(奇宇萬) 174, 176, 177, 226, 230, 259, 261, 287, 289, 320, 322, 347, 350, 353, 354, 356
기운영(奇雲永) 249
기원(奇遠) 217, 237
기유(奇洧) 285
기재우(奇在祐) 166
기정익(奇挺翼) 226, 232, 233, 234, 370
기정진(奇正鎭) 150, 152, 166, 232, 238, 253, 256, 361, 364
기정하(奇挺夏) 224, 225
기준(奇遵) 34, 313
기중진(奇重鎭) 361
기진발(奇震發) 38
기진탁(奇震鐸) 223, 224, 233
기처겸(奇處謙) 223, 233, 234, 324
기태온(奇泰溫) 370
기형(奇泂) 225
기호(奇灝) 233, 234
기홍연(奇弘衍) 232, 361
기효간(奇孝諫) 150, 221, 222, 233, 308, 312, 313
기효근(奇孝謹) 237
기효증(奇孝曾) 313
김개(金漑) 71, 75, 208, 324
김경남(金景男) 313
김경선(金景善) 256
김경수(金景壽) 308
김경우(金景佑) 167, 168, 169, 313, 324
김경우(金景愚) 168, 324
김경정(金景貞) 354, 366
김계휘(金繼輝) 59
김관수(金冠洙) 253
김기(金紀) 167, 169
김기지(金起之) 279
김기하(金器夏) 27
김노수(金魯洙) 328
김달원(金達源) 211
김대진(金大振) 169
김도근(金度根) 97
김란(金蘭) 313
김령(金齡) 211, 213
김로(金魯) 46
김만식(金晩植) 206, 210
김명(金銘) 353, 366
김문현(金文鉉) 117
김방(金霧) 234
김백균(金百鈞) 60
김백승(金百升) 229
김보원(金輔元) 203
김보인(金寶仁) 123
김부(金溥) 313
김상경(金尙敬) 178, 179
김상효(金尙孝) 244
김서룡(金瑞龍) 201
김석몽(金錫夢) 224
김석숭(金石崇) 213
김성규(金星奎) 261
김성길(金成吉) 257
김성진(金聲振) 313
김성헌(金成憲) 56
김세필(金世弼) 75, 208
김수현(金壽賢) 229

김숭로(金崇老) 195, 197
김승집(金升集) 86
김식(金湜) 168
김신남(金信男) 313
김안국(金安國) 27, 37, 46
김안로(金安老) 37
김약(金約) 197, 199
김억일(金億鎰) 313
김언거(金彦琚) 171
김언욱(金彦勗) 313
김언희(金彦希) 315
김여간(金汝鐧) 224
김여지(金汝知) 332
김영한(金甯漢) 330
김오현(金五鉉) 110
김유일(金有一) 134
김윤현(金胤鉉) 109
김응휴(金膺休) 253, 255
김의강(金義剛) 211
김이도(金履度) 309, 318
김이재(金履載) 256
김이정(金履禎) 97
김인혼(金麟渾) 315
김인후(金麟厚) 27, 30, 73, 75, 77, 149, 166, 206, 210, 211, 216, 253, 303, 306, 313, 328, 329, 330, 363
김장생(金長生) 37
김재찬(金在贊) 174, 177
김재홍(金在弘) 105
김정(金淨) 46, 170, 171
김제민(金齊閔) 308
김조연(金祖淵) 98, 99, 131
김조원(金調元) 199, 201
김종구(金鍾九) 139, 140, 141, 142
김종손(金終孫) 193, 195
김종직(金宗直) 172, 176
김진교(金晉敎) 101, 102, 125
김진상(金鎭商) 40
김천일(金千鎰) 48, 55, 57, 203, 312
김필의(金必宜) 242, 244
김필환 361
김한룡(金翰龍) 203
김한목(金漢穆) 261
김해(金垓) 313
김헌국(金憲國) 356, 366
김헌수(金憲秀) 111
김형복(金亨福) 216
김홍우(金弘宇) 313
김홍원(金弘遠) 313
김환(金丸) 211
김횡(金鉉) 354
김후찬 361
김희순(金羲淳) 332, 337

ㄴ

나덕전(羅德全) 192
나동윤(羅東允) 282
나무춘(羅茂春) 223
나봉서(羅逢緖) 192
나세찬(羅世讚) 192
나숙(羅淑) 46
나주진씨(羅州陳氏) 167
나준서(羅遵緖) 192
나통서(羅通緖) 192

나협(羅協) 192
난산(卵山) 303, 306
남문창의(南門倡義) 221
남문창의록(南門倡義錄) 312
남원교수(南原敎授) 45
남평반씨(南平潘氏) 229
남행 89, 90, 92, 93, 101, 105, 106, 107, 108, 130
노사(蘆沙) 166, 361
노상룡(盧尙龍) 61
노종(盧宗) 215

ㄷ

다경진 220
담양부(潭陽府) 55
도학(道學) 33, 39
동학농민군 259

ㄹ

류경렴(柳景濂) 38
류성룡(柳成龍) 279
류인숙(柳仁淑) 46
류희진(柳希津) 313

ㅁ

만곡사(萬谷祠) 64, 66
망곡단비(望哭壇碑) 319, 320
몰세불망비(沒世不忘碑) 92
묘정비(廟庭碑) 328, 331
무가당(無價堂) 359
무송유씨(茂松庾氏) 76, 208
무장현감 190, 277
묵헌(默軒) 67, 69
문과 출신 91, 94, 112
문옹(文翁) 84
문장(文章) 33, 38, 59, 60
민영복(閔泳復) 112
민일호(閔一鎬) 320, 322
민제(閔霽) 213

ㅂ

박경(朴璟) 313
박귀손(朴貴孫) 213
박내순(朴乃淳) 245
박만승(朴萬升) 261
박사량(朴思良) 245
박사원(朴思遠) 225
박상초(朴尙初) 244
박세대(朴世大) 226
박수검(朴守儉) 221
박수량(朴守良) 71, 73, 204, 206, 207, 226, 323, 324, 369
박숙(朴橚) 57, 61
박순(朴淳) 149, 269, 273
박시경(朴時璟) 93
박안동(朴安東) 313
박운(朴雲) 313
박응춘(朴應春) 313
박종원(朴宗元) 71
박좌원(朴左源) 90
박중림(朴仲林) 68
박증휘(朴增輝) 94
박지효(朴之孝) 58
박태상(朴泰尙) 47
박팽년(朴彭年) 66, 68

백계리 81, 113
백광훈(白光勳) 273
백비(白碑) 204, 206
백인걸(白仁傑) 58
백주원(白柱元) 279
벽허원조(碧虛圓照) 359
변상규(邊相奎) 244
변승기(邊昇基) 361
변시연(邊時淵) 279, 285
변이중(邊以中) 313, 324
복호(復戶) 244, 285
봉여해(奉汝諧) 64, 66, 68, 186
봉인(奉寅) 186
봉인귀(奉仁龜) 66
부휴당(浮休堂) 358
불망비(不忘碑) 81, 86, 99, 100, 106, 107, 108, 109, 110, 115, 116, 117, 118, 119, 139, 143

ㅅ

사가독서(賜暇讀書) 30, 34, 58
사산사(泗山祠) 326
삼계사(森溪祠) 69
색리 298, 300
서경덕(徐敬德) 36
서능(徐稜) 268, 269, 323, 365
서령류씨(瑞寧柳氏) 253
서만리(徐萬里) 243
서산류씨(瑞山柳氏) 266
서상정(徐相鼎) 115
서연(徐淵) 313
서운당(棲雲堂) 358
서유민(徐有民) 83, 84
서유소(徐有素) 136
서일용(徐馹龍) 300
서지임(徐之臨) 229
서창(徐昶) 200
서택환(徐宅煥) 269
서홍도(徐弘渡) 315
서희팔(徐希八) 269
석탄(石灘) 149, 151, 237
석탄처사(石灘處士) 151, 239
선공비(善功碑) 123
선방산(船舫山) 46
선정비(善政碑) 87, 89, 90, 91, 92, 93, 94,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2, 125, 127, 131, 133, 136, 137, 138, 144
선창산 170
설두 봉기(雪竇 奉琪) 360
섭도동(葉都東) 246
섭장권(葉章權) 246, 249
성삼고(成三顧) 68
성삼문(成三問) 67
성정호(成鼎鎬) 106
성혼(成渾) 57, 313, 329
소두산(蘇斗山) 264
소세양(蘇世讓) 46
소요대사 태능(太能) 358
손의규(孫宜奎) 300
손의환(孫宜煥) 298, 300
손중돈(孫仲暾) 75, 208
송가원(宋可元) 42, 185, 187, 188
송구(宋龜) 42, 181, 184, 185, 187

송두선(宋斗先) 183, 187
송래희(宋來熙) 70, 159
송병선(宋秉璿) 71, 73, 77, 206, 328, 330
송붕표(宋弸彪) 183, 187
송상현(宋象賢) 274, 277, 278
송석과(宋碩果) 183
송순(宋純) 211, 215
송시열(宋時烈) 40, 279, 329
송암재(松巖齋) 232
송영순(宋榮淳) 261
송익경(宋益憬) 190
송익침(宋益忱) 183
송인수(宋麟壽) 46
송일중(宋日中) 330
송주헌(宋柱獻) 66
송준길(宋浚吉) 268, 275, 279, 324
송처은(宋處殷) 42, 185, 187, 188
송환기(宋煥箕) 70
송흠(宋欽) 41, 42, 44, 66, 69,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90, 351, 352
수강사(壽岡祠) 43, 192
수강서원(壽岡書院) 351, 352
수은(睡隱) 179
순의비(殉義碑) 259, 260, 290
승군(僧軍) 57
신개(申槪) 335
신좌모(申佐模) 246, 252
신평송씨(新平宋氏) 265
심계년(沈繼年) 343
심능구(沈能九) 344
심덕부(沈德符) 160, 343, 344
심상호(沈相鎬) 159
심선택(沈璿澤) 343
심연(沈涓) 160, 343
심온(沈溫) 343
심의복(沈宜復) 100
심종(沈淙) 343
심종하(沈宗夏) 159, 160

ㅇ

안당(安瑭) 46
안영(安瑛) 48, 56
양계사(良溪祠) 343
양산숙(梁山璹) 57
양자징(梁子徵) 38
양종기(梁鍾麒) 287
양팽손(梁彭孫) 46
언양김씨(彦陽金氏) 214
여산(礪山) 55, 182, 314
여산군사(礪山郡事) 231
여주이씨(驪州李氏) 287
여주진씨(驪州陳氏) 176
연안김씨(延安金氏) 257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86, 99, 106, 109, 110, 116, 117, 119, 120, 130, 131, 138
영양천씨(潁陽千氏) 319
영월당(影月堂) 360
경문(鏡文) 360
오대박(吳大朴) 210
오림(吳琳) 220
오산남문창의비(鰲山南門倡義碑) 308, 312
오인갑(吳仁甲) 313
오종한(吳宗漢) 220
오집(吳輯) 232

오현(五賢) 179
오희안(吳希顔) 127
옥과(玉果) 55
옥과현감(玉果縣監) 30, 35
옥천설씨(玉川薛氏) 192
옥천조씨(玉川趙氏) 34, 213
와석(媧石) 299
왕경민(王敬民) 59
요월정(邀月亭) 167, 168, 169, 324
우치산(牛峙山) 67
울산김씨(蔚山金氏) 60
원경순(元景淳) 113
원경하(元景夏) 154, 155
원당곡(願堂谷) 306
원당동(願堂洞) 214
원당산(願堂山) 38
원두표(元斗杓) 113
원종공신(原從功臣) 237, 239
유명천(劉命天) 285
유병찬 361
유애불망비(遺愛不忘碑) 88
유옥로(庾玉輅) 209
유유정(悠悠亭) 193, 200
유팽로(柳彭老) 48, 55, 56
유허비(遺墟碑) 339, 343, 344, 347, 348, 351, 352, 353, 355, 356, 366, 369
유혜불망비(遺惠不忘碑) 118, 145
윤근수(尹根壽) 48, 63, 155
윤두수(尹斗壽) 61
윤봉구(尹鳳九) 363
윤선갑(尹先甲) 202
윤용구(尹用求) 330
윤웅렬(尹雄烈) 118
윤정현(尹定鉉) 303, 307
윤증(尹拯) 47
윤진(尹軫) 291, 308
윤추(尹推) 47
윤춘년(尹春年) 204
윤행임(尹行恁) 303, 307
윤홍(尹泓) 332
윤황(尹煌) 313
은진현감(恩津縣監) 194, 196, 198
을사사화(乙巳士禍) 30
음죽현감(陰竹縣監) 196, 198
의병(義兵) 57, 308
의주교수(義州敎授) 170
이개(李塏) 69
이견의(李堅義) 231
이경국 291
이계맹(李繼孟) 66
이공신(李公信) 180
이공형(李公衡) 180
이광(李珖) 183
이귀(李貴) 313
이규명(李奎明) 38
이규식(李圭植) 175
이규환(李圭桓) 175
이근명(李根命) 249
이기남(李箕南) 149, 237
이낙수(李洛秀) 89
이단하(李端夏) 264, 265
이도재(李道宰) 343
이만영 351
이면상(李冕相) 119

이명생(李命生) 335
이문건(李文楗) 47
이문룡(李文龍) 237, 239
이방 298, 300
이병례(李秉禮) 103, 132, 137, 145, 341
이병현(李炳鉉) 285
이수(李隨) 332
이수일(李守一) 313
이순목(李純牧) 269
이시영(李時榮) 292
이안국 291
이약우(李若雨) 175
이언적(李彦迪) 37
이영(李瑛) 46
이용원(李容元) 71, 77, 298, 300
이우(李堣) 130
이원굉(李元紘) 161, 164
이원조(李源祚) 246, 250
이윤종(李胤宗) 161, 164
이응종(李應鍾) 313
이이(李珥) 59, 313, 354, 366
이익(李瀷) 324
이익회(李翊會) 303, 307
이장영 351
이장우(李章愚) 341
이장춘비 301
이재(李縡) 40
이재운(李再雲) 302
이재인(李在仁) 172, 174, 180
이정귀(李廷龜) 354, 366
이정암(李廷馣) 58, 293
이제현(李齊賢) 172, 368
이주진(李周鎭) 154, 155
이학승(李學承) 259, 260
이항(李恒) 36, 312, 313
이항복(李恒福) 155, 368
이헌직(李憲稙) 116
이현윤(李顯允) 291
이황(李滉) 170
이후원(李厚源) 279
이훈(李勳) 180
이흥발(李興浡) 178
인동장씨(仁同張氏) 246, 249
임기활(林基闊) 347
임동진(林東鎭) 350
임두춘(林逗春) 347
임만수(林晩洙) 178
임상진(林祥鎭) 350
임세량(林世良) 92
임억령(林億齡) 46
임장진(林長鎭) 350
임준호(林俊浩) 285
임진왜란 48, 198, 203, 221, 239, 263, 274, 291, 299, 308, 312, 313, 323, 324, 340, 347, 348, 349, 355
임피현령(臨陂縣令) 61
임화진(林華震) 347
임흥진(林興震) 347

ㅈ

자선불망비 139, 140
작약동 159
장복기(張復紀) 265
장성 입암산성(長城笠岩山城) 291

장수현감(長水縣監) 172, 175, 176, 180
장흥고씨(長興高氏) 58, 134, 274, 280
장흥부사(長興府使) 45
전봉준 284
전일귀(全日貴) 284
절의(節義) 33, 39, 249, 259
절효선생(節孝先生) 271
정경순(鄭景淳) 244
정계묵(鄭季默) 123
정발(鄭撥) 278
정봉시(鄭鳳時) 280
정성일(鄭聖一) 266
정우(鄭祐) 202
정우용(鄭愚容) 104, 133, 341
정운룡(鄭雲龍) 313
정운소(鄭雲韶) 107
정의행(鄭義幸) 300
정이암(鄭李菴) 150, 151
정재규(鄭載圭) 166
정절(鄭節) 313
정제두(鄭齊斗) 149
정종호(鄭宗護) 47, 182
정지익(鄭志翼) 244
정철(鄭澈) 60, 149, 150, 151, 313, 329
정필주(鄭弼周) 43
정혜(貞惠) 75, 76, 77, 207, 228
제봉(霽峯) 48, 55, 60
제봉선생(霽峯先生) 157, 282
제청산(祭廳山) 200, 217
조광조(趙光祖) 46
조덕승(曺悳承) 278
조석우(趙錫宇) 280
조석주(趙錫疇) 280
조수준(趙守準) 266
조영규(趙英圭) 274, 278
조원기(趙元紀) 45
조준(趙準) 274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 202
조찬한(趙纘韓) 263, 265, 354, 366
조철영(趙徹永) 303, 307
조헌(趙憲) 312, 315, 329
조희문(趙希文) 38
좌수 85
주세붕(周世鵬) 170
죽림동 332, 339
죽림사(竹林祠) 332, 339
죽림원(竹林院) 340
죽재처사 179
지백계우(知白繼愚) 360
지지당(知止堂) 44
진산(珍山) 55
진언모운(震言慕雲) 359
진오진(陳午鎭) 126
진주성(晉州城) 61, 203, 348
진처명(陳處命) 85
진효연(陳孝淵) 69

ㅊ

찰방(察訪) 38, 81, 122, 200, 243
참봉(參奉) 33, 38, 47, 140, 152, 182, 211, 213, 256, 283, 292, 313, 324, 340, 345
천복철(千福哲) 319
천봉근(千鳳根) 320
청검불망비(淸儉不忘碑) 125, 126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88, 90, 93, 94, 95, 97, 104, 128, 129, 132, 133
청덕휼민선정비 103
청백리(淸白吏) 71, 181, 204, 206, 324, 369
청백선정비 96, 98, 101, 105, 111, 112, 122
청안이씨(淸安李氏) 149, 237, 238
최경회 203
최봉석(崔鳳錫) 328
최산두(崔山斗) 27
최송년(崔松年) 222
최윤덕(崔潤德) 335
최익현(崔益鉉) 77, 262
최종주(崔宗周) 91
최척(崔滌) 222
최학령(崔鶴齡) 128
최흥한(崔興翰) 129
최희열(崔希說) 128
추기(追記) 27, 30, 206, 210, 303, 307
추산서원(秋山書院) 221
충렬사(忠烈祠) 278

ㅌ

탁기욱(卓驥郁) 121
태인현감(泰仁縣監) 61, 194

ㅍ

팔명(八命) 76, 209
포충(褒忠) 58
표리(表裏) 35, 45
풍대수(馮大樹) 349
풍천임씨(豊川任氏) 168
필암(筆巖) 38, 306, 363
필암서원(筆巖書院) 30, 306, 328, 329, 363

ㅎ

하생(河泩) 158
하서(河西) 33
하연학(河連鶴) 158
하음봉씨(河陰奉氏) 47, 64, 66, 182, 184, 186
하정(河丁) 158
하진(河珍) 158
학교 84
한용구(韓用龜) 332, 337
한진명(韓振溟) 96
한필교(韓弼敎) 341
향청(鄕廳) 85
허상징(許尙徵) 313
혜휼영세불망비(惠恤永世不忘碑) 115
호사동(狐寺洞) 71, 76
호장 298, 300
홍계훈(洪繼勳) 313
홍계훈(洪啓薰) 259, 260
홍병위(洪秉瑋) 138, 143
홍석규(洪錫圭) 81
홍순목(洪淳穆) 341
홍양호(洪良浩) 309, 312, 318
홍우건(洪祐健) 66, 70
홍원(洪遠) 313
홍원섭(洪元燮) 332, 337
홍종응(洪鐘應) 341
홍직필(洪直弼) 69, 70
화곡(火谷) 354, 355, 366
화산(花山) 302
화초정(花草亭) 172, 176

황간(黃澗) 55, 348
황승원(黃昇源) 318
황윤석(黃胤錫) 242, 285
황홍헌(黃洪憲) 59
회원군(檜原君) 243, 326
휼민선정비(恤民善政碑) 91, 103, 136
흑토평(黑土坪) 57, 154
흥덕(興德) 56, 313
흥학비(興學碑) 83, 84
흥학휼민선정비(興學恤民善政碑) 91

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1

장성 금석문

조선시대편

인쇄 2025년 11월 20일
발행 2025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원장)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기획총괄 권수용
자료정리 박서연, 정옥경
자료조사 정선종, 황호균, 박상택
자료번역 손왕호, 정명수, 남춘우, 안 현, 장유승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12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9-11-94466-04-8(0309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5 호남국학진흥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무료
03090
9 791194 466048
ISBN 979-11-94466-04-8